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기도 유적조사보고서

경기학연구센터 · 기획

조선총독부 · 편

정혜선 ·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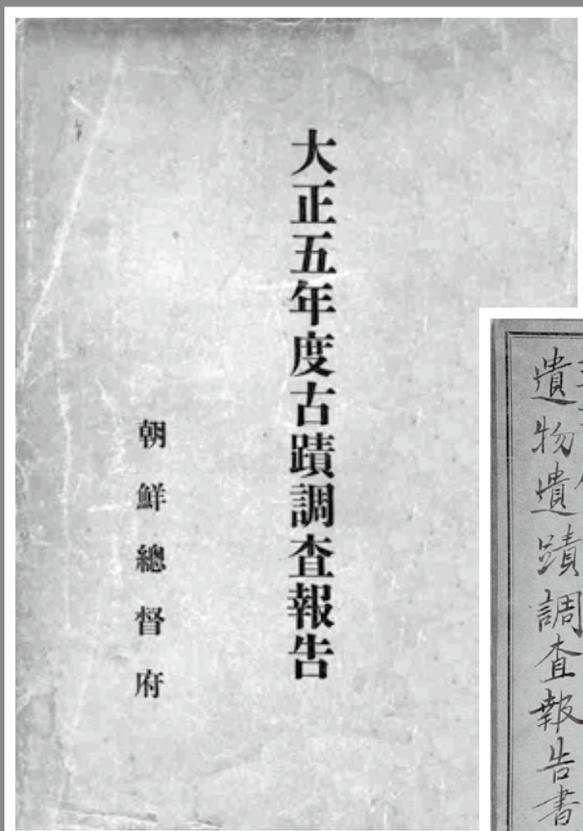
박경신 · 해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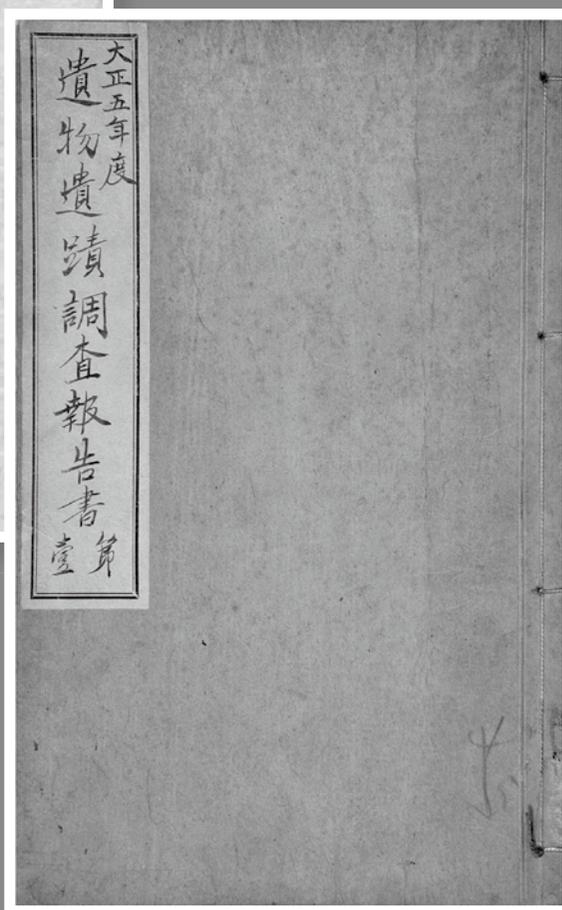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기도 유적조사보고서

| 일러두기 |

1. 이 도서는 『다이쇼오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1917년 발간) 가운데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유적 조사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 및 해제를 실시한 것이다.
2. 경기도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16년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1917년 7월 제출한 것이다.
3. 번역 내용은 원문을 충실히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적인 표현으로 부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4. 각주는 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 및 해제자가 부기하였다.
5. 표기는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 표기 시 음이 같을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고, 음이 다를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6. 직접인용은 “ ”, 간접인용은 ‘ ’로 표기하였다.
7. 단행본은 『 』, 논문은 「 」, 화첩 및 낱장 유물은 〈 〉로 표기하였다.
8. 보고 원문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작성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로서 별도의 인용처는 생략하나, 출장복명서 등 기타 문서는 별도로 부기한다.
9. 유리건판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인용처는 생략한다.
10. 지정문화재 사진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게재된 사진과,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으로 인용처는 생략한다.
11. 원문의 “사진○○호”는 “사진 ○○”, “제○○도”는 “그림 ○○”으로 수정하였다.
12. 인용 논문 및 보고서의 표기는 저자, 연도, 「논문」, 『도서(보고서)』, 출판사 순으로 하였다.
13. 해제를 맡은 박경신 박사는 각 유적에 대한 훌륭한 해제는 물론 독자를 위하여 친절한 각주를 달고, 더욱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련문서와 유리건판사진을 찾아 책의 내용을 알차고 풍부하게 하였다. 또 유적별 최근 발굴성과를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유적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편집자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다이쇼 5년(1916)도 고적조사보고서 인쇄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다이쇼 5년(1916)도 고적조사보고서 원고 원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서 언

1. 본 보고는 다이쇼[大正]¹⁾ 5년(1916)도 고적조사 결과를 고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인쇄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2. 평안남도 대동군, 용강군 및 순천군의 고적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추후 간행할 예정이다.
3. 고적조사의 계획, 규정, 기관 및 다이쇼[大正] 5년도의 시행안과 조사의 개요를 권두에 게재하여 대조가 편리하게 하였다.

다이쇼[大正] 6년(1917) 12월

조선총독부

1) 다이쇼[大正]는 일본 다이쇼 천황(1879년~1926년)의 연호로서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 사용되었다.

목차

고적조사계획.....	12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	14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	15
고적조사위원회 규정.....	16
고적 및 유물 조사 사무 사항.....	17
고적조사위원	18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 시행안.....	19
다이쇼 5년도 고적 조사 분할 설명	21
다이쇼 5년도 고적 조사 개요.....	23
경기도 양주군 불암산 산성터 및 불암사 조사보고서 (이마니시 류[今西龍]위원 제출)	28
제1장 불암산 산성터[佛巖山山城址]	28
1. 불암산(佛巖山).....	28
2. 산성터[山城址]	28
제2장 불암사(佛巖寺).....	34

목차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북한산(北漢山) 유적 조사 보고서
(이마니시류[今西龍] 위원 제출) 42

| 제1장 | 북한산 개설(北漢山 概說) 42

| 제2장 | 고북한산성(古北漢山城) 44

| 제3장 | 북한산성(北漢山城) 47

| 제4장 | 장의사터[莊義寺址] 53

| 제5장 | 삼천사터[三川寺址] 57

| 제6장 | 북한산(北漢山)의 여러 사원(寺院) 및 절터(寺址) 63

 1. 태고사(太古寺) 63

 2. 승가사(僧伽寺) 70

 3. 문수사(文殊寺) 74

 4. 진관사(津寬寺) 75

 5. 부왕사(扶旺寺) 원효암(元曉庵) 봉성암(奉聖庵)
 상운사(祥雲寺) 78

 6. 중흥사터[重興寺址] 78

 7. 신혈사터[神穴寺址] 78

 8. 보국(輔國), 보광(普光), 원각(圓覺), 국령(國寧),
 진국(鎭國), 용암(龍巖)의 절터[寺址] 78

 9. 향림(香林), 적석(積石), 청량(淸涼), 도성(道成), 원각(元覺),
 서암(西岩)의 절터[寺址] 79

| 제7장 | 옛 행궁(行宮)과 기타 건축물83

| 제8장 | 신라 진흥왕 순수비(新羅眞興王巡狩碑).....86

경기도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양주군, 고양군, 가평군, 양평군,
장단군, 개성군, 강화군, 황해도 평산군 유적유물 조사보고서
(이마니시 류<今西龍> 위원 제출)..... 100

| 제1장 | 광주군(廣州郡)..... 100

1. 개 황(概記)..... 100
2. 백제국도터[百濟國都址]..... 104
3. 이성산성(二聖山城) 110
4. 구천면 풍납리토성(九川面風納里土城) (평고성:坪古城)..... 117
5. 남한산성(南漢山城)..... 123
6. 무덤(古墳) 증대면(中垞面) 석촌마분(石村馬墳)..... 128
7. 옛 광주(廣州)..... 134
8. 청태종공덕비(淸太宗功德碑) 135
9. 남한산성(南漢山城) 안 여러 사찰(寺刹)..... 137
10. 법륜사(法輪寺) 봉국사(奉國寺)..... 142
11. 사리현 석불(寺里峴石佛) 144
12. 덕풍리 고총묘(德豐里古塚墓) 145

목차

13. 잡기(雜記).....	146
14. 광주군 지방지(廣州郡地方誌)에 대해.....	147
제2장 이천군(利川郡).....	149
1. 개항 및 군역(郡驛) 명칭의 조사.....	149
2. 무학산성(舞鶴山城).....	153
3. 영월암(暎月庵) 및 유물.....	159
4. 안흥사터[安興寺址] 및 유물.....	161
5. 안흥사 연못[安興寺島].....	161
6. 이천읍 부근의 석탑.....	162
7. 오천리(午川里).....	163
8. 기타 유물 및 잡문(雜聞).....	163
9. 부론.....	164
제3장 여주군(驪州郡).....	165
1. 개 항.....	165
2. 상리무덤[上里古墳].....	166
3. 북성산 고산성(北城山古山城).....	176
4. 파사성(婆娑城).....	178
5. 폐고달사터[廢高達寺址].....	183
6. 폐고달원 원종대사 혜진탑비(廢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185
7. 원종대사 혜진탑(元宗大師慧眞塔).....	188

8. 고달사터 무명탑[高達寺址無名塔]과 기타의 석물	189
9. 신륵사(神勒寺)	195
10. 여주읍 부근의 석탑 및 석불	200
11. 잡록(雜錄)	201
제4장 양주군(楊州郡), 고양군(高陽郡)	207
1. 독섬마장(蠶島馬場)	207
2. 광진고산성(廣津古山城: 지금 고양군에 속함)	209
3. 퇴계원북산성(退溪院北山城)	212
4. 신립신도비(申砮神道碑)	213
제5장 가평군(加平郡)	214
1. 개황(概記)	214
2. 석장우무덤[石長隅古墳]	214
3. 초연대성터[超然臺城址]	219
4. 조종현터[朝宗縣址]	219
5. 석사촌산성(石沙村山城)	220
6. 조종암(朝宗岩)	221
7. 상면(上面) 이씨장(李氏藏) 문서(文書)	225
8. 잡기(雜記)	227
제6장 양평군(楊平郡)	233
1. 개황(概記)	233

목차

2. 무덤[古墳].....	234
3. 함공성(咸公城) 속칭 함씨대왕성(咸氏大王城).....	235
4. 사나사(舍那寺)와 유물.....	238
5. 보리사 승 대경현기탑비(菩提寺僧大鏡玄機塔碑).....	243
6. 상원사(上元寺) 혹은 상원사(上院寺).....	247
7. 용문사(龍門寺).....	248
8. 죽장암(竹杖庵) 및 윤필암(潤筆庵).....	250
제7장 장단군(長湍郡)..... 251	
1. 개황[概記].....	251
2. 호로그루터[瓠蘆古壘址].....	252
3. 화장사(華藏寺).....	261
4. 옛 현(縣)의 위치.....	268
5. 장단군 내 고려능묘(高麗陵墓).....	269
6. 여러 사찰[諸寺刹].....	272
7. 잡기(雜記).....	276
제8장 개성군(開城郡)..... 280	
1. 오룡사 법경국사비(五龍寺法鏡國師碑).....	280
2. 낙산사(미조사).....	285
3. 강감찬조탑(姜邯瓚造塔).....	286
4. 귀법사터[歸法寺址]와 유물.....	291

5. 토성리토성(土城里土城)·····	296
6. 난산고성고(卵山古城考)·····	299
7. 옛 개성고(開城考)·····	300
8. 개성대정고(開城大井考)·····	303
9. 영안성(永安城)·····	305
10. 예성강고(禮成江考)·····	313
11. 고려시대 국도(國都) 근해(近海)의 송선(宋船) 항로(航路)·····	316
12. 석기시대 유물 산포지·····	319

고적조사계획

1. 조사의 범위

1) 선사유적의 조사

조개무덤, 유물포함층, 유물산포지, 수혈 기타 선사시대 유적의 조사 및 유물의 수집

2) 무덤 조사

고려 이전에 속한 무덤 조사 및 유물의 수집

조선 중기 이전에 속하는 주요한 무덤의 형상(形狀) 조사

3) 사적 조사

도성, 궁전, 성책(城柵), 관문(關門),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官府), 사우(祠宇), 단묘(壇廟), 사찰, 도요(陶窯) 등의 유적지, 전적지 기타 주요한 사실에 관계되는 유적지 조사 및 유물의 수집

4) 고건축물(古建築物) 조사

역사상 또는 공예상(工藝上) 참고해야할 궁전, 성문, 루대(樓臺), 사우(祠宇), 단묘(壇廟), 객관(客館), 교사(校舍), 사찰, 교량 등의 조사

5) 금석 기타 고고 유물의 조사

불상, 탑, 등, 비, 석각(石刻), 당간(幢竿), 석수(石獸), 석인(石人), 석조(石槽), 종, 향로, 거울(鏡), 제기, 악기, 회화, 책판(冊板), 현액(懸額), 도자기, 칠기 기타 역사상 또는 공예상 참고해야 할 금석제작물(金石製作物) 목제품(木製品) 등의 조사 및 수집

6) 고문서의 조사

역사 기타 고사(故事)의 자료가 될 고문서의 조사 및 수집

2. 조사 기간

일단 5개년을 기한으로 한다.

3. 연별 조사지역

제1년(다이쇼 5년도)

한사군[漢置郡] 및 고구려
선사시대[有史前]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
황해, 평안남도, 경기, 충청북도

제2년(다이쇼 6년도)

전년도의 잔여
삼한, 가야, 백제
선사시대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제3년(다이쇼 7년도)

전년도의 잔여

신라

선사시대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제4년(다이쇼 8년도)

전년도의 잔여

예맥, 옥저, 발해, 여진 등

유사 이전

강원, 함경남북, 평안남북도

강원, 함경남북, 평안남북도

제5년도(다이쇼 9년도)

전년도의 잔여

고려

선사시대

경기도

경기도

조선시대에 속한 조사는 각 년도 지역의 구분에 의해 편의적으로 행한다.

각 시대 유적으로 예정 지역 이외에 속한 것은 그 지방의 조사를 할 때 편의적으로 행한다.

임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및 박물관 진열품 수집이 필요할 때는 연도 예정지역 이외에도 특별히 조사 및 수집을 할 수 있다.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제1조 본 영(令)에서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조개무덤, 석기 골각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 및 수혈(豎穴) 등 선사유적 무덤 및 도성, 궁전, 성채,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壇廟), 사찰, 도요 등의 유적지 및 전적지, 기타 사실에 관계하는 유적 유물이라 칭해지는 연대에 해당하는 탑, 비, 금석불, 당간, 석등 등에 있어서 역사, 공예 기타 고고의 자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도 양식의 고적 및 유물대장을 준비하여 전조(前條)의 고적 및 유물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그것을 등록한다.

1. 명칭
2. 종류 및 형상(形狀)의 대소
3. 소재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혹은 명칭
5. 현황
6. 유래 전설 등
7. 관리 보존의 방법

제3조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에 변경을 가하지 말고 3일 이내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그 지역의 경찰서장(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분전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에 제출한다.

제4조 고적 또는 유물을 조선총독부에서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할 때는 바로 그 취지를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통지하고 그 대장의 등본(謄本)을 해당 경찰서장에 송부한다.

전조(前條)의 제출된 고적 또는 유물의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된 것은 신속히 해당 경찰서장을 거쳐 그 취지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된 것 가운데 등록을 취소할 때는 전항(前項)에 준하여 이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된 물건의 현상을 변경, 이전, 수선 혹은 처분할 때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할 때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경찰서장을 거쳐 미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명칭
2. 변경, 이전, 수선, 처분 또는 시설의 목적
3. 변경, 이전, 수선 또는 시설을 하는 방법과 설계도 및 비용의 견적액
4. 변경, 이전, 수선, 처분 또는 시설의 시기

제6조 고적 또는 유물 대장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그것을 조선총독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경찰서장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장물의 발견을 제출받았을 때는 동법(同法)에 의해 제출사항 이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갖추어 경찰총장을 거쳐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제8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料料)에 처한다.

부 칙

본 영은 다이쇼 5년(1916)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양식 |

등록번호

명칭

종류 및 형상 대소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혹은 명칭

현황

유래 전설 등

관리 보존의 방법

비고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고적, 유물 또는 고문서를 발견할 때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제2조 사항을 갖추고 그것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고적 또는 역사 혹은 공예에 관계하는 유물, 기타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할 때는 금석물(金石物) 기타 유물을 이전하고, 수선하고 혹은 그것을 처분할 때 또는 고적 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할 때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제5조 사항을 갖추어 미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前項)에 의해 인가(認可)받은 사항을 집행할 때는 바로 그것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고적조사위원회 규정(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

제1조 조선의 고적, 금석물 기타 유물 및 명승지 등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고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고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정부총감이 담당한다.

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임명하고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탁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고적 및 유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고적의 보존 및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고적, 유물, 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고문서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는 고적, 유물, 고문서의 조사 및 유물, 고문서의 수집 및 그 보존에 관해 일반계획 작성 이외에 각 년도의 현장 조사 계획을 만들고 전년도 말일까지 위원장으로부터 그것을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전항(前項) 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조선총독의 자문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심사의 결과에 이유를 구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그 의견서 또는 보고서를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제7조 위원회에서 위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행할 때는 이 조사의 계획, 조사하는 물건의 종류, 소재지 및 조사 방법 및 시일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 신청한다.

제8조 위원으로 현장 조사에 임명될 때는 위원장은 그 위원의 이름, 조사할 물건의 종류, 소재지, 조사 방법 및 시일을 미리 그 지역을 통할하는 도의 장관 및 경무부장에 통지한다.

제9조 현장 조사에 종사하는 위원은 고적 소재지의 지방청 및 경찰서와 협의하고, 이 조사에 가능한 헌병 또는 경찰관의 입회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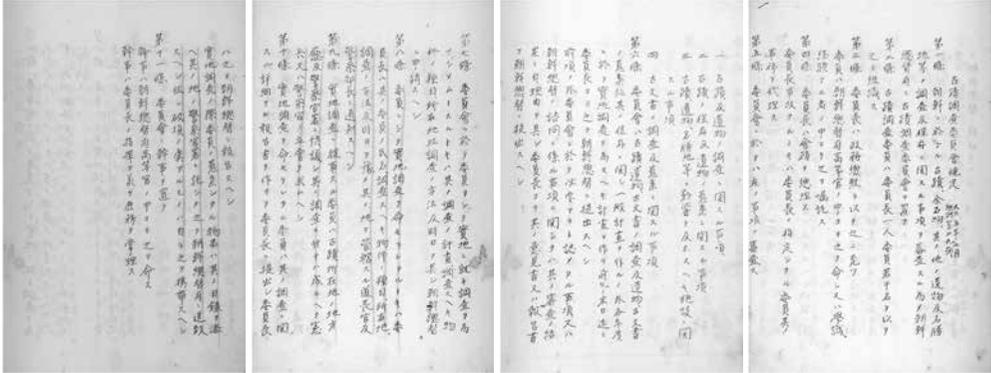
제10조 현장 조사에 임명된 위원은 이 조사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그것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현장 조사할 때 위원이 수집한 물품은 목록을 첨부하여 그 지역의 경찰서에 위탁하여 그것을 조선총독부에 송치한다. 단 파손에 처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 휴대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를 장악 담당한다.



고적조사위원회 규정(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적 및 유물 조사 사무 사항

(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 내훈 제13호)

- 제1조 고적 및 유물의 조사는 고적조사위원회의 일반계획 및 매년 집행할 것을 계획하여 결재하는 바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시한다.
- 제2조 현장 조사에 임명된 고적조사위원은 그 소재지의 부군도청(府郡島廳) 및 경찰관서에 대해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 고적 또는 유물의 소재가 국유지일 때는 그 관리자에게 통고하고 사유지일 때는 미리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
- 제3조 고적 또는 유물 발굴 때에는 발굴 전 및 발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촬영하고 아울러 그 구조 및 매장품의 배치에 관한 정밀한 실측도(實測圖)를 만들어야 한다.
- 제4조 고적 또는 유물 조사를 위해 그 현상을 변경할 때는 조사가 완료된 후 복토(封土) 혹은 원상 복구 한다. 단 원상복구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수리, 입찰(立札), 위장(圍障) 등이 필요할 때는 총무국장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 제5조 고적 또는 유물의 현장 조사를 완료할 때는 돌아온 후 신속하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림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고적 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한다.
- 제6조 현장 조사에 임명된 고적조사위원은 총무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 제7조 총무국장은 각 년도에 실시한 고적 및 유물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그 연도 내에 고적 조사보고를 작성하고 그것을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고적조사위원

고적조사위원장	야마가타 이조우로[山縣伊三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6년 6월 6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세키야 데사부로[關屋貞三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5년 10월 9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우에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5년 10월 28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오기타 에쓰조[荻田悦造]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사와다 토요조[澤田豊次]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고오리아마 사토시[郡山智]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이마니시 류[今西龍]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구로다 카시로[黒田甲子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5년 12월 23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나카노 아리미츠[中野有光] : 다이쇼 5년 8월 2일 임명, 6년 10월 1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오다 쇼고[小田省吾] : 다이쇼 5년 8월 2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유맹(劉猛) : 다이쇼 5년 8월 2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유정수(柳正秀) : 다이쇼 5년 8월 2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구희서(具羲書) : 다이쇼 5년 8월 2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도키나가 우라조[時永浦三] : 다이쇼 6년 2월 7일 임명, 6년 10월 1일 해임
고적조사위원	다나카 우사후[田中卯三] : 다이쇼 6년 2월 7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 다이쇼 6년 6월 7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郎] : 다이쇼 6년 8월 25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우마즈카 제이치로[馬場一郎] : 다이쇼 6년 8월 25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 : 다이쇼 6년 8월 25일 임명
고적조사위원	구로 쇼헤이[工藤壯平] : 다이쇼 6년 10월 1일 임명
고적조사위원회 간사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 : 다이쇼 5년 4월 26일 임명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 시행안

1. 일반조사

1) 조사사항

한사군[漢置郡],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및 선사시대 유적 및 유물 등

2) 조사지역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

3) 조사기간

다이쇼 5년(1916) 8월부터 다이쇼 6년(1917) 3월까지

4) 조사구분

경기도 : 고양, 시흥, 수원, 인천, 김포, 강화, 개성, 광주, 이천, 여주, 부천, 양평, 양주, 연천, 파주, 장단(1부 15군)

충청북도 : 음성, 충주, 제천, 단양(4군)

황해도 : 연백, 해주, 평산, 재령, 서흥, 웅진, 봉산, 장단, 안악, 황주, 신천, 수안, 은율, 곡산, 송화, 신계, 금천(17군)

평안남도 : 평양, 중화, 강동, 성천, 양덕, 맹산,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안주, 평원, 대동, 강서, 용강(1부 14군)

평안북도 : 정주, 운산, 구성, 영변(4군)

이상은 한사군[漢置郡] 및 고구려시대 유적 및 유물의 조사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을 한다.

조선시대 조사는 조사할 때 편의적으로 행한다.

황해도

평산군내 무덤 약 10기, 은율군내 무덤 약 10기, 황주군 제안면 무덤 약 10기, 황주군 흑교면 무덤 약 4기, 봉산군 문정면 무덤 약 10기, 봉산군 초교면 무덤 약 5기, 봉산군 사리원역 동남 무덤 약 5기, 봉산군 토성면 무덤 약 10기.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무덤 약 30기, 대동군 장수원부근 무덤 약 30기, 대동군 임원면 무덤 약 20기, 용강군 해운면 무덤 약 2기, 용강군내 무덤 약 30기, 강동군 강동면 무덤 약 1기, 강동군 대동강강안 무덤 약 30기, 안주군 만성역 서 무덤 약 3기, 맹산군내 무덤 약 10기, 성천군내 무덤 약 20기, 강서군 보림면 무덤 약 10기

평안북도

정주군 광산면 무덤 약 10기, 운산군내 무덤 약 10기, 구성군내 무덤 약 10기, 영변군 신현면 무덤 약 10기, 영변군 동신면 무덤 약 10기.

이상은 한사군 및 고구려시대의 무덤을 발굴조사 하여 관곽(棺槨), 부장품 등을 수집한다. 조사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조사의 필요가 생기는 것은 그것을 추가할 수 있다.

경기도

개성, 파주, 진위, 광주, 양평, 가평(6군)

황해도

황주, 해주, 웅진, 장단, 송화, 은율, 안악, 신천, 재령, 연백, 평산, 서흥, 수안, 곡산, 신계, 금천(16군)

평안남도

평양, 안주, 개천, 덕천, 영원, 맹산, 양덕, 성천, 강동, 강서, 용강, 경남포, 평원, 순천, 중화(2부 13군)

이상은 선사시대의 유적 및 유물을 조사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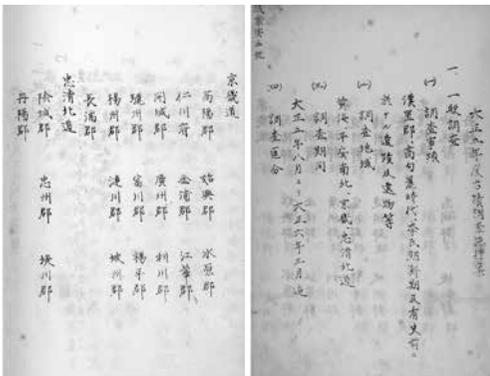
2. 특별조사

개성군 능리 무덤 1기, 강화 내가리 무덤 1기, 나주 반남면 무덤 약 10기, 금산군 내 무덤 약 5기, 경주 사천왕사지 1원 이상은 신속히 해야 할 사정이 있어 올해 내에 발굴 조사하여 관곽, 부장품 기타 유물을 수집한다.

개성 및 강화 무덤 약 200기

이상은 박물관 진열품 수집을 위해 올해 내에 발굴 조사하여 관곽 및 부장품을 수집한다.

상기 외에 임시 필요성이 생길 때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 시행안 중 경기도 지역(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이쇼 5년도 고적 조사 분할 설명

올해는 주로 한사군 및 고구려시대의 유적을 조사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을 조사한다. 조선 반도는 시초에 신인(神人) 단군(檀君)이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칭하고 평양에 도읍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 기사가 처음 보이는 책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²⁾ 삼국유사에서는 이 기사의 출전을 위서(魏書)에서 인용했다고 하나 현재 전하는 위서(魏書)에는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국유사가 만들어지기 백수십년 전 고려 인종(仁宗) 때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 삼국유사 이전 편찬에 관계된 중국의 사서(史書)에는 대체로 조선(朝鮮)에 관한 상대(上代)의 기사가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군의 기록이 없다. 따라서 단군 건국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이 사적³⁾들은 평안남북, 황해 및 경기도 내 다소 존재하고 있지만 모두 후세에 부쳐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군의 유적에 관한 조사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 고구려 및 고려의 유적을 조사할 때 편의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계획 중에 있지 않다. 단군 다음에 조선 반도를 지배한 것은 은(殷)의 망명인이었던 기서(箕胥: 은나라 때 기(箕)에 봉해지고 자작(子爵)을 받아 기자(箕子)라 칭한다)⁴⁾로서 평양에 거주하며 41세(929년간) 준(準)에 이르러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에게 쫓겨 남쪽의 금마(金馬)지역으로 달아나 나라를 세워 마한(馬韓)이라 칭했다라고 한다. 기서(箕胥) 망명의 땅이 평양이 된다는 것은 자못 근거가 부족하고, 준을 기서의 후어로 단정하는 것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평양 지방을 조사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그친다. 다음은 위만(衛滿)의 사적으로 한(漢)나라 초기에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연왕(燕王) 노관(盧綰)의 반란을 피해 무리 천여 명과 함께 평양에 와서 기준(箕準)을 축출하고 왕이라 칭했다라고 한다.⁵⁾(후세 조선사에서는 3세 87년간이 된다) 이 유적이 지금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평양지방을 조사할 때 편의적으로 그것을 수색하는

2)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에 “『위서(魏書)』 註 244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있다.

3) 문구의 의미로 볼 때 단군과 관련된 유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에 당의 『배구전(裴矩傳)』에 이르기를 “고려(高麗)는 본시 고죽국(高句麗) 지금의 해주(海州)이다. 주(周)가 기자(箕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삼국유사(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에 “『전한서(前漢書)』 『조선전(朝鮮傳)』에 이른다. “처음에 연(燕)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번(眞番)·조선(朝鮮)을 빼앗아 거기에 관리를 두고 장(障)새를 쌓게 하였다. 진(秦)나라가 연(燕)나라를 멸망시키자 요동(遼東)의 변방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한(漢)나라가 일어났지만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溟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아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연나라 임금 노관(盧綰)이 배반하여 흉노(匈奴)에게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魏滿)이 망명(亡命)하여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서 동쪽으로 요새를 빠져 달아나 패수를 건너 진나라 빈 땅의 아래위 장(障)새에 와서 살면서 진번·조선의 오랑캐들과 예전의 연나라·제나라의 망명자들을 차츰 복속시키고 임금이 되어 왕검(王儉)에 도읍하고 무력으로써 그 이웃 작은 읍락들을 침범하여 항복시키니 진번·임둔이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이 수천 리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것으로 하고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⁶⁾ 그리고 조선반도 역사상 연대가 분명한 것은 한사군 시기로서, 역사를 살펴보면 위만의 손자 우거(右渠)가 한 무제에게 항복하고, 무제는 조선의 땅을 나누어 군(郡)을 두고 서진(西晉)이 끝나기까지 400여년 미쳤다. 그래도 지금 유적으로 보이는 것이 평양 부근 및 황해도 황주(黃州), 봉산(鳳山) 등의 부근에 있는 것이다. 이들 지방에 있어서 주요한 유적의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얻었으나 조사가 필요한 것이 10의 7~8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속한 유적을 제1년도 계획 중에 부가했다. 생각하건대 한치군(漢置郡)의 유적은 이들 지방에 그치지 말고 넓게 다른 지방에 걸쳐 있어 나머지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이 지점을 정하지 말고 진전됨에 따라 점차 이 유적을 판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시기의 유적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에 있어서 항상 만나는 필연의 결과 역시 얻어진다. 한사군은 삼한(三韓)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조선반도에 있어서 상고사의 가장 주요 부분이 되고 대부분 남조선에 속한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마한의 성터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신라 백제 등의 유적을 조사할 때 그것을 탐사하는 것으로 제1년도에는 한사군의 유적과 대략 지역이 같은 고구려의 유적을 조사한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일어나 압록강 대안 중국 통거우(洞溝) 부근 및 평양 부근을 근거로 조선 중부 이북에 위력을 떨친 조선 삼국의 하나이다. 이 유적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북 내지 황해, 경기의 여러 도에 미친다. 그 일부로서 작년 이미 조사를 통해 용강 및 강서에서 벽화가 있는 무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으며, 그 일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조선시기에 속한 조사는 이상의 조사를 할 때 편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은 역사시대 유적으로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할 구분을 대략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에 있어서 태고(太古)의 유적은 특별히 사승(史乘)⁷⁾과 분리하여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도 역사시대의 조사 지역과 다른 지역을 선택하면 조사 상 불편함이 발생한다. 굳이 그 필요성이 특별하지 않다면 역사시대의 유적 조사 시에 함께 진행하여 동일 지역에 대한 조사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기타 임시 신속을 필요로 하고 또 박물관 진열품 수집을 위해 필요할 때는 특별히 조사 수집을 할 수 있다.

6) 단군, 기자, 위만조선의 역사를 허구의 역사로 평가한 반면 후의 낙랑으로 대표되는 한사군의 설치 이후부터 본격적인 역사의 시대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과 '청동기시대부재론'을 옹호하기 위한 역사인식의 결과로 평가된다.

7) 사서(史書)

다이쇼 5년도 고적 조사 개요

다이쇼 5년(1916)도에는 한사군 및 고구려시대예의 유적 및 유물 조사를 주로 하고, 그 지역을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의 5도로 한다. 그리고 이 지방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및 조선시대에 속한 유적과 유물을 조사한다. 조사는 8월 하순부터 개시하여 12월 말에 종료한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이마니시 류[今西龍],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4명 및 보조로 촉탁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아마 슌이치[栗山俊一] 2명, 도면 제작과 사진 등을 위해 박물관 직원 4명을 파견하여 동행하도록 하고 또 토목국 영선과 기수(技手)⁸⁾ 1명, 평안남도청 기수(技手) 1명의 보조를 받는다.

이마니시 류 위원은 한강 유역에 있어서 한대(漢代) 유적 탐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8월 21일 먼저 경기도 고양군으로 출장하여 우이동(牛耳洞)과 창동(蒼洞) 사이의 고총묘(古塚墓), 학도사터[鶴到寺址], 중계리 석주(石柱)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 양주군 불암산성터[佛巖山城址], 불암사 북한산 고성(佛岩寺北漢山古城), 북한산성(北漢山城), 장의사터[莊義寺址], 삼문사터[三門寺址], 대고사(大古寺), 승가사(僧伽寺), 문주사(文珠寺), 율관사(律寬寺), 부왕사(扶旺寺), 금흥사터[金興寺址], 신혈사터[神穴寺址], 보국(補國), 보광(普光), 원각(圓覺), 국령(國寧), 진서(鎭西), 용암(龍岩), 향림(香林), 적석(積石), 청량(淸涼), 도성(道成), 문각(文覺), 서암사(西岩寺) 등의 여러 절터[寺址] 옛날 행궁(行宮), 신라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에 광주군(廣州郡)의 백제도성터[百濟都城址], 이성산성(二聖山城), 평고성(坪古城), 남한산성(南漢山城) 부근의 무덤, 중대면 석촌(石村)의 무덤, 청태종공덕비(淸太宗功德碑), 남한산성내의 여러 사찰(寺刹), 사리현 석불(寺里峴石佛), 관풍리 고총묘(觀豐里古塚墓), 동부면 춘궁리 석탑(春宮里石塔), 하사창사터[下司倉寺址]를 조사하고, 이천군(利川郡)의 설봉산성(雪峰山城), 영월암(映月庵), 영월암 석불과 석조(石槽), 석탑, 안흥사터[安興寺址], 안흥사도(安興寺島) 부근 석탑 여러 기, 우천리 유적(牛川里遺蹟), 여주군(驪州郡)에서 상리 무덤(上里古墳), 북성산성(北城山城), 신록사(神勒寺) 부근 석탑 및 불상, 가평군(加平郡)의 장석우(長石隅) 무덤, 초연대성터[超然臺城址], 석사촌산성(石砂村山城), 조종암(朝宗岩), 양평군(楊平郡)의 무덤, 함공성(咸公城), 사나사(舍那寺), 사나사 철불(鐵佛), 원증국사석종(圓證國師石鐘), 원증국사비, 석탑, 불양비(佛養碑), 보리사터[普提寺址], 대경대사탑(大鏡大師塔), 상원사 사자석상[石獅], 용문사(龍門寺) 정지국사비(正智國師碑), 고달원터[高達院址]⁹⁾, 원종대사탑비(元宗大師塔碑), 고달사터 탑 및 불좌(佛座), 파사산성(婆娑山城) 등을 조사하고 또 특별 조사로서 도굴 보고가 있는 개성 및 강화의 무덤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고려 능묘의 소재를 조사하고, 개성군(開城郡)에서 석기시대의 유적,

8) 일제강점기 관저에서 기사(技師) 아래에 속해 있던 기술 관리를 의미한다.

9) 고달사터[高達寺址]를 의미한다.

토성리토성(土城里土城), 영안성터[永安城址], 귀법사터[歸法寺址], 강감찬(姜邯瓚) 건립 석탑, 오룡사터[五龍寺址], 법경대사비(法鏡大師碑), 장단군(長湍郡)에서 화장사(華藏寺), 신라 호로루지(瓠蘆壘址)¹⁰, 강화군(江華郡)에서 고인돌(支石塚), 고려도성터[高麗都城址], 삼랑성터[三郎城址],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壘城壇), 여러 사원(寺院), 사고(史庫)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화천동(花川洞), 성황산성(城隍山城), 칙사(勅使) 강왕 양공거사비(姜王兩公去思碑) 등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는 수집품 31점, 사진 162매, 그림 42매와 함께 제출하였다.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위원은 8월 23일 경성을 출발하여 황해도 은율(殷栗), 봉산(鳳山), 평안남도 용강(龍岡), 안주(安州)의 각 군 및 평안북도 의주(義州), 용천(龍川), 정주(定州)의 각군을 조사하고 9월 11일 돌아왔다. 이 조사는 대동강(大同江)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漢民族) 분포 상태를 밝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池雲面) 성우동(城隅洞)에서 통칭 왜성터(倭城址)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다음에 양원리(兩院里)의 미륵원터(彌勒院址) 및 석불과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고구려의 무덤을 조사하였다. 순차적으로 황룡산성터[黃龍山城址], 봉산면(鳳山面) 의산리(義山里)의 절터 및 석탑, 옥도리(玉桃里)의 무덤, 해운면(海雲面) 성현리(城峴里) 점제현터[蟬縣址], 토성 및 비, 용정리(龍井里)의 무덤군(古墳群), 신령면(新寧面) 유복리(留福里) 석교산(石橋山) 아래 및 대대면(大代面) 해산리(海山里)의 무덤군을 조사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용강군 다미면(多美面) 동진성터[東津城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길을 돌려 은율군(殷栗郡)으로 들어가 북부면(北部面) 운산리(雲山里) 기타 일도면(一道面) 지경동(地境洞), 현내면(縣內面) 선암동(仙岩洞), 제당촌(祭堂村) 좌장대(坐將谷), 난문동(蘭門洞) 등의 통칭 탕석(撐石), 현내면 노하동(路下洞)의 석탑, 서부면 부정동(釜井洞)의 무덤군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평안북도로 들어가 용천군 양광면(楊光面) 망양동(望洋洞)의 무덤, 구읍(舊邑)의 성터[城址], 석불(石佛), 석수(石獸), 다라니당[陀羅尼幢],¹¹ 정주군(定州郡) 곽산면(郭山面) 남단동(南端洞)의 무덤군 및 관주면(觀舟面) 초점동(草店洞)의 무덤, 단학동(丹鶴洞) 통경산(通景山) 기슭 석굴암(石窟庵)의 마애불, 옥천면(玉泉面) 상단동(上端洞)의 장경사터[長庚寺址] 석탑, 아이포면(阿耳浦面)의 옛 장성(長城), 안주군(安州郡) 대니면(大尼面) 봉명리(鳳鳴里) 광명산(光明山)의 무덤 등을 조사하였다. 귀로에 평양에서 임원면(林原面) 인흥리(仁興里) 금흥사터[金興寺址]와 당간지주, 부산면(斧山面) 남궁리(南宮里)의 남궁터[南宮址], 대동강면 무덤군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의 개요를 수집품 112개, 사진 91매, 그림 1권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위원은 촉탁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노모리 겐[野守健],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와 함께 9월 21일 경성을 출발하여 평안남도에 가서 대동(大同), 용강(龍岡), 순천(順川)의 각 군을 조사하고 11월 28일 귀임하였다. 이 조사

10) 호로고루터[瓠蘆古壘址]를 의미한다.

11) 다라니경을 둘레 새겨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석당(石幢) 또는 석경(石經)의 일종이다.

는 평양 부근에서 한(漢) 낙랑군 및 고구려의 유적 및 유물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대동강면(大同江面)의 무덤부터 조사를 착수하여 정백리(貞柏里)에서 6기, 석암리(石巖里)에서 4기를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자족면(紫足面) 노산리(魯山里) 내리(內里) 등에서 각 1기, 토포리(土浦里)에서 4기, 호남리(湖南里)에서 2기, 용강군(龍岡郡) 황산(黃山) 남쪽 기슭에서 3기의 무덤 및 멩석총(撐石塚) 1개소, 용강군(龍岡郡) 해운면(海雲面)에서 무덤 2기, 용월면(龍月面) 갈현리(葛峴里)에서 벽돌무덤터 2개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동군(大同郡) 부산면(斧山面) 남궁리(南宮里)의 대화궁터[大華宮址], 대동강 우안(右岸)의 보산진산성(保山鎭山城), 순천군(順川郡) 선소면(仙沼面) 검산동(檢山洞) 및 북창면(北倉面) 송계동(松溪洞)의 무덤을 조사하고 평양의 서일리(西一里)에 있는 주궁(珠宮) 유적터 등을 조사하여 조사 개요를 수집품 543점, 사진 248매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위원은 선사시대 유적 및 유물의 조사를 담당하고, 9월 28일 경성을 출발한 후에 평안남도 안주군(安州郡)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개천(价川), 덕천(德川), 영원(寧遠), 맹산(孟山), 양덕(陽德), 성천(成川), 강동(江東), 대동(大同), 강서(江西), 용강(龍岡), 평원(平原), 순천(順川), 중화(中和)의 각 군을 조사하였다. 이후 황해도로 들어가 황주(黃州), 해주(海州), 웅진(瓮津), 장연(長淵), 송화(松花), 은율(殷栗), 안악(安岳), 신천(信川), 재령(載寧), 봉산(鳳山), 연백(延白), 김천(金川), 신계(新溪), 곡산(谷山), 수안(遂安), 서흥(瑞興)의 각 군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개성(開城), 광주(廣州), 양평(楊平), 가평(加平)의 각 군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의 개요를 수집품 589개 및 사진 367매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특별조사로서 축탁 우마즈카 제이치로[馬場周一郎] 및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2명은 다이쇼 5년(1916) 6월 개성 장단군(長湍郡)으로 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집품 33점 및 사진 21매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11월 축탁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1인은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으로 출장하여 송광사(松廣寺) 국사전(國師殿) 및 수로왕릉(首露王陵) 앞의 재실(齋室) 등의 건축물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사진 8매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또 다이쇼 6년(1917) 3월에 축탁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2명은 평안남도 강동군 만달면(晩達面)으로 출장하여 고구려시대 무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수집품 2개, 실측 도면 5매 및 사진 14매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무덤 및 유물의 등록은 조사 완료와 동시에 완료하고 금석물을 가져올 때는 경상북도 김천 갈정사터[葛頂寺址] 석탑 및 함경북도 경원여진자비(慶源女眞字碑)는 그것을 완료하여 박물관에 진열한다. 다른 경비 관계상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은 다이쇼 6년도에 순차적으로 처리를 한다.

또 이미 정한 계획에 연계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는 다이쇼 5년도에 신라기(新羅期) 3책을 간행한다.



경기도 양주군 불암산
산성터 및 불암사
조사보고서

경기도 양주군 불암산 산성터 및 불암사 조사보고서

(이마니시 류^{[今西龍]¹²⁾위원 제출)}

| 제1장 | 불암산 산성터(佛巖山山城址)

1. 불암산(佛巖山)

불암산(佛巖山)은 한강의 지류 한천(漢川: 두협천(豆驗川)이라고 칭하고 하류는 중량포(中梁浦)라고도 칭한다.) 평야(平野)의 동쪽에 있다. 서쪽은 그 평야에서 떨어져 있는 북한산(北漢山)과 마주하고 북쪽은 수락산(水落山)과 마주하는 험준한 바위산(岩山)이다. 불암산(佛巖山)의 서쪽은 양주군(楊州郡) 노해면(蘆海面)에 동쪽은 양주군(楊州郡) 별내면(別內面)에 속한다. 불암산(佛巖山) 최고봉은 육지 측량 부 지도에 570m(507m의 오기가 아닌가 함)로 되어 있고, 험준한 거암(巨巖)을 포용하여 우뚝 솟아 있다. 이 최고봉 남쪽에 표고 420m의 봉우리(제2봉)가 있다. 이 제2봉과 최고봉의 절벽 아래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산마루(속설로 말의 마루라 함)가 연이어 있고, 제2봉의 동·서(東西) 양면은 험준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 북, 동, 서의 3면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렵다. 오직 남쪽만이 경사가 완만하여 많은 지봉(支峯)을 거쳐 북쪽방면으로 등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 남쪽 기슭(南麓)에는 조선의 강릉(康陵)과 태릉(泰陵)이 있다. 불암산 산성터는 제2봉 즉 420m 봉우리 정상에 있다. 제1봉과 제2봉 사이의 동쪽(東側) 계곡 중 중간에 불암사(佛巖寺)가 있다. 제2봉 서남 중간에 학도암(鶴到庵)이 있고(사진 1), 이 두 절 부근에는 소생(疎生)의 송림(松林)이 있고, 두 왕릉 부근에는 밀생(密生)의 송림(松林)이 있어도 그것은 불암산(佛巖山)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보면 황폐한 민둥산(禿山)으로 화강암의 잔편으로 이루어져 초목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2. 산성터(山城址)

산성터(山城址)라 칭하는 것은 혹 봉수터(烽燧址)가 아닐까 의심이 있어도 필시 산성터(山城址)가 될 것이다. 이 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2봉 즉, 420m 봉우리의 정상에 있다. 봉우리 최고

12)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신라·백제 등 한국고대사를 연구했다. 1903년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조선사를 연구했다. 1906년 한국에 건너와 신라의 고도 경주를 답사했다. 1914년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조교수를 거쳐 교수가 되었다. 그 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에 임명되어, 재직 중에 <단군설화(檀君說話)>·<백제국도한산고(百濟國都漢山考)> 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평안남도 용강군에 있는 점제현신사비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논문인 <열·대·패 삼수고(列·帶·派 三水考)>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 사서를 연구·조사하여 안정복이 주석을 단 중종본(삼국사기)을 발굴하기도 했다. 1922년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 후 2년간 중국에 유학, 베이징대학[北京大學]에서 조선사를 강의했다. 1925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설립되자 조선사 교수가 되었다. 저서로는 <신라사연구>·<백제사연구>·<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研究>·<조선사의 간(干渉):朝鮮史の槩> 등이 있다.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석벽(石壁)의 흔적이 있다. 석벽(石壁)의 형태는 부등변의 5각형이라고 해도, 산의 형세에 따라 축조되어 전체 모습은 원형에 가깝다. 규모가 협소하여 겨우 300보(步: 1보는 2척2촌)에 불과하다. 심하게 파괴되었지만 산마루로 이어지는 남북(南北) 양방면의 부분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내부 지면(內部地面)에서도 3~4척 높이의 무형(壘形: 성채)이 남아 있다. 기타 방면은 안쪽 지면보다 낮은 부분에 다소 잔존하는 것이 있고, 산 표면의 경사지로 떨어진 석재(石材)가 쌓여 있거나 혹은 아래쪽에 산재해 있다. 석벽(石壁)의 원상태를 추측하면 성내 지면보다도 약 5~6척 낮은 지점을 기반으로 하고, 내면에서의 높이 3~4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산 마루에 연이은 부분만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은 중요지점이 되어 견고한 축조(築造)와 토사(土砂)가 흐르는 일이 없다. (이것은) 기반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도 기인한다. 기타의 방면에 있어서는 석벽의 높이를 내부 지면까지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목책(木柵) 등을 쌓지 않을 수 없어서 석벽(石壁)을 오히려 한층 높게 쌓았던 것이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이 부분의 석벽(石壁) 정상부에 줄을 지어 각각의 석면(石面) 및 돌[石]이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위쪽에 쌓은 돌(積石)이 남아있고, 거기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성문(城門)의 흔적은 분명하지 않아도 남쪽의 산마루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성으로 향하는 조금 왼쪽에 치우친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성 밖에는 해자(空濼) 또는 낭떠러지(斷崖)를 만든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당초부터 설비가 없었던 것인지 혹은 유적이 상실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내(城內)의 최고지점은 성벽(城壁)보다도 10여 척 더 높은 것 같다. 그 높은 곳의 그늘(陰)에 깊이 3~4척, 지름 수 척(數尺)의 요지(凹地)가 있다. 이 유적지를 성터(城址)로 보면 저수지(貯水池)가 되는 것이고, 봉수터(烽燧址)로 보면 거연혈(擧煙穴)이 되는 것이다. 이 터 남쪽의 전망은 자못 아름답고, 서쪽은 북한산(北漢山)을 마주하며, 남쪽은 아차산(峨嵋山)을 바라보며 두험천(豆餼川) 아래 유역과 한강 유역의 일부분을 조망할 수 있다. (이 산성터의) 축조연대 및 사용기간은 아직 상세하지 않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축성이라 말하는 것은 근래 작성된 황당무계한 속설(俗說)에 불과하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그것을 산성터(山城址)로 표기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산성터라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보(堡)라고 칭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사진 1.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화적리 학도암



사진 2.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화적리 불암산성 1



사진 3.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화적리 불암산성 2

이 유적의 지위(地位) 구조(構造) 형식(形式) 등은 본 고적조사위원회가 다이쇼 2년(1913)도 및 3년도에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및 원산(元山) 부근, 함경북도 단천(端川) 부근에서 조사한 성터의 주인(土人)을 「마고성(麻姑城)」¹³⁾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크게 주의해야 할 요건이 있다. 저 마고성(麻姑城)이라 칭하는 것을 멀리 예종족(穢種族)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해제)

불암산과 불암사는 1916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경기도 양주군 불암산성(佛巖山城)과 불암사(佛巖寺)를 조사하고 1917년 7월에 고적조사위원장에게 제출한 조사 보고 내용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불암산(佛巖山)의 지형적 특성과 불암산성의 상태 및 특징, 천보산불암사사적비(天寶山佛巖寺事蹟碑)를 근거로 불암사의 유래를 고증한 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다.¹⁴⁾ 현재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 2매가 유리건판의 형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¹⁵⁾

불암산성은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1-1번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점리 산97번지 및 산104번지에 해당한다. 2010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2호,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기념물 제221호로 지정되었다. 불암산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한강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쌓은 신라 산성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려시대까지 간간히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불암산성에 대하여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주조에 “검암산(불암산)고루는 산의 서쪽 봉우리 두 곳에 있으며, 선조 임진년에 의병장 고언백(高彦伯)이 쌓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 및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로 볼 때 주로 신라가 쌓은 성을 조선시대에 개축한 기사로 판단된다.

불암산성에 대한 해방 이후 조사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1998년 11월 5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남양주 지역에 대한 종합 지표조사가 처음이었다.¹⁶⁾ 그리고 2017년 8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불암산성에 대한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시굴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¹⁷⁾ 이후 2018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현재 12월 13일까지 국방문화재연구원이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암산성은 테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약 230m이며, 남북 65m, 동서 70m로 내부 면적은 5,232.8㎡에 달하는 소규모 산성이다. 현재 서벽과 동벽 구간이 약 10단 정도의 성돌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남쪽 성벽은 7단의 석축에 높이 120cm 정도가 남아 있고, 동쪽은 성벽은 폭 15m, 높이 1.5m 정도가 남아

13) 원래 '마고할미가 다스리던 파르미르고원에 있었던 성'이라는 개념이지만 전국적으로 마고성이라는 명칭이 다수 남아 있다. 이와 유사한 전설로는 마고선녀가 7일만에 충주산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전한다.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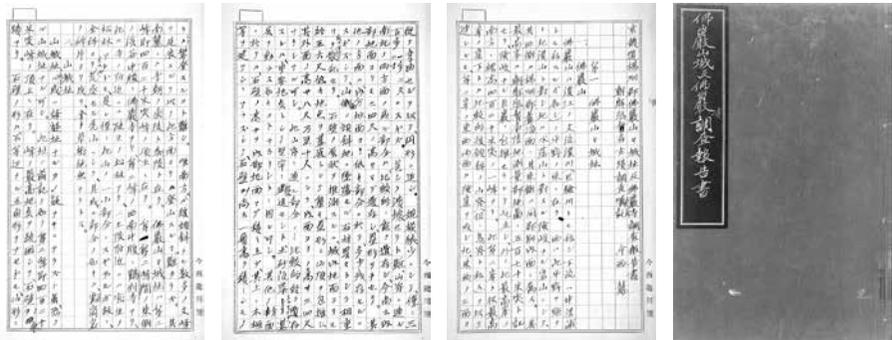
15)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1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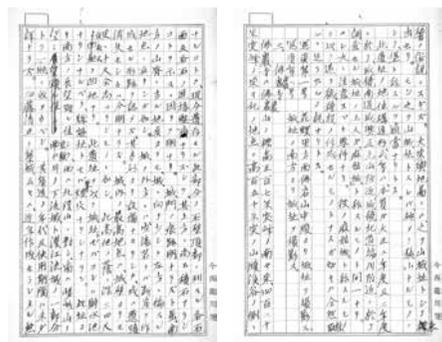
17) 국방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경기 불암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있다. 성벽은 풍화암반을 다진 후 그 위에 돌을 쌓았다. 내벽과 외벽에는 일부 치석한 돌을 쌓은 후 내벽 안쪽으로 흙을 넣어 다져 보강하였다. 벽석은 세로가 긴 편이고, 면석은 장방형으로 다듬은 후 줄을 맞추어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렸으며, 뒷채움 돌은 길쭉한 돌을 길이 방향으로 놓아 면석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다.

정상부의 북동쪽 아랫단에는 원형의 석축 구조물이 보이는데 우물로 추정된다. 성의 내부에는 헬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북동쪽에 장축 8.8m, 단축 6.6m, 깊이 3m의 집수시설(集水施設)로 추정되는 함몰부가 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류[無紋土器類]와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편(土器片)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불암산 산성터 원고(3.2.1.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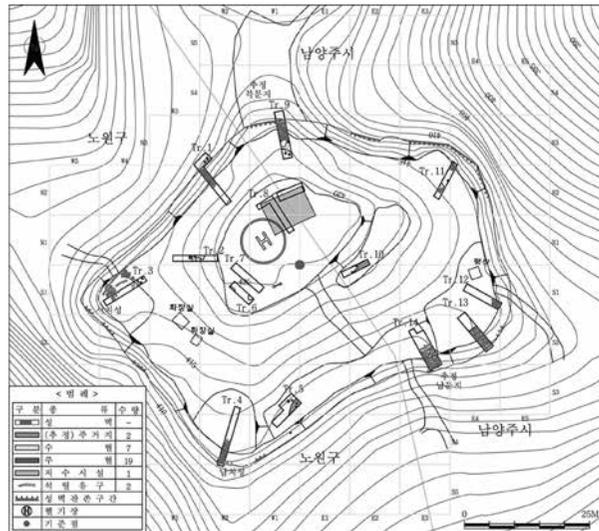
불암산 산성터 원고(5.4.)



불암산 산성터 유리건판 사진



불암산성 항공사진



불암산성 시굴조사 결과



불암산성 성벽



불암산성 정상부 추정 집수시설(왼쪽)과 성벽 절개 조사 후 사진(오른쪽)



불암산성 성벽 절개 조사 후 사진

| 제2장 | 불암사(佛巖寺)

불암사는 불암산(佛巖山)의 표고 570m 봉우리의 남남동(南南東), 420m 봉우리의 동동북(東東北) 지점에 있는 높이 150m 봉우리 산중턱 계곡의 측면에 있다. 양주군 별내면 화점리의 지역이다. (불암사의) 구조가 크고 웅대해도 비교적 청정하며 현재 12명의 승려가 거주하고 있다. 이 절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경기도 양주군조(京畿道楊州郡條)에 수록되어 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절 앞마당에 남아있는 승정기원 두 번째 신해[崇禎紀元再辛亥] 즉, 조선 영조 7년(1731년) 10월에 건립된 예문관 제학 이덕수(李德壽)¹⁸⁾가 짓고, 춘추관 수찬 조명교(曹命敎)¹⁹⁾가 쓴 「천보산불암사사적비(天寶山佛巖寺事蹟碑)」에 “(전략) 불암사(佛巖寺)는 창건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신라 승 지증(智證)이 처음으로 창건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고려 초기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중건하고 그 법제를 더하더니, 그 뒤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다시 보수하여 새롭게 만들었다. 절은 창건된 지 천백여 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무너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국초에 산 남쪽 한 가닥에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절을 지었다. 처음에 세조(世祖)와 성종(成宗) 양 대에 사방의 사찰에서 비구들이 날마다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일현(一玄)이란 스님이 있었다. 그는 절의 중수를 깊이 맹세했다. (중략) 강희 계사년(康熙癸巳年)에 이 절에 스님 남수(南水)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의 시주를 모아서 사찰을 위한 전토(田土)를 사려고 계획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리 성상(聖上)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무신년(戊申年)에 이르러 거사 각신(覺信)과 정인(淨仁)이 동맹 원력(願力)을 세워 시주를 거두어 사찰 부근의 토지를 사 모았다. (후략) [前略] 佛岩寺之創厥惟久矣 羅僧智證如開基而住錫焉 麗初道詵國師重建而增其制 其後無學大師又補葺而新之閱百餘年 而不爲荆楚之埋沒焉 至國初 山之南一支爲國陵 則寺始爲世祖成宗兩朝順刹 十方比丘日益聚而 尼僧一玄者誓心興復 (中略) 康熙癸巳寺僧覽粹始募善南善女 聚其施財謀佛田而未就逮我聖上即位之四年戊申 居士覺信淨仁同盟發願 得施布施錢 廣置土田於京畿(後略)” 고 되어 있다. 지증·도선(智證·道詵)에 관한 전설 같은 것은 허구이다. 이 절의 확실한 사적은 세조(世祖) 성종(成宗) 양 대의 원찰(願刹)이 되는 것으로 후에 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위의 사적비(事蹟碑)는 길이가 6척 2촌5분, 폭이 2척 9촌, 두께가 1척 2촌 5분이다. 비문 중에 불승(佛僧)을 비난하는 2 - 3구절이 있다. 지금 이 구절 부분에 고의로 훼손을 가하는 것 이외에 완전하게 결락된 부분은 없다. 비각이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지방에 있어서 신라시대 옛 비로 와전(訛傳)되어 있다. 이 절에는 많은 책판(冊板)을 소장하고 있다. 불암사의 스님[寺僧]에 의해 조사 작성된 목록 및 매수(張數)는 다음과 같다.

18) 이덕수(李德壽:1673-1744) 본관은 전의. 자는 인로, 호는 벽계·서당. 아버지는 정명이다. 김창흡·박세당의 문인이다. 음보로 직장을 지냈다.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급제, 문의현감·지평·수찬·부교리·이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1724년 간성군수로 있다가 경종이 즉자 실록청당 상으로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732년 대제학을 지내고 <경묘행장(景廟行狀)>을 참진했다. 1734년에 당나라 <여사서(女四書)>를 언해했으며, 1741년에는 <국조오례의> 수정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서당집>·<서당사제>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이다.

19) 조명교(曹命敎:1686-1753) 1717년(숙종 43)에 사마시, 1719년(숙종 45) 증광시(增廣試) 을과5(乙科5)에 급제하였다. 1721년 검열에 재직 중 신임사화로 파직되고,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정언에 등용되어 9개 조항의 시정(施政)을 상소하였다. 1725년(영조 1) 어사 홍성보와 조명교에게 <<양역 변동에 대한 조사를 명하다>> 임금이 어사(御史) 홍성보(洪聖輔)와 조명교(曹命敎)를 인견하여 직접 타일러 보내고, 또 전교하기를, “양역(良役)을 변동하는 것은 지금의 급히 힘쓸 일이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 아뢰라.” 하였다.

석씨원류(釋氏源流)	420장
지장경(地藏經)	96장
경신록(敬信錄)	88장
언어(諺語)	86장
진언요집(眞言要集)	35장
장엄경(莊嚴經)	27장
관희조왕경(觀喜窟王經)	1장
금강경(金剛經)	35장
언어(諺語)	2장
영험전(靈驗傳)	26장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	2장
장수경(長壽經)	22장
마가경(摩訶經)	2장
인과경(因果經)	19장
고왕경(高王經)	2장
팔양경(八陽經)	17장
수성경(壽星經)	4장
약사경(藥師經)	16장
명당경(明堂經)	2장
안택경(安宅經)	4장
조왕경(窟王經)	4장
권선곡(勸善曲)	8장
수선곡(修善曲)	3장
부모중은경(父母重恩經)	8장
참선곡(參禪曲)	6장

이상의 책판(冊板)은 대웅전(大雄殿: 보광명전<普光明殿>의 현판이 걸려있음) 불단(佛壇) 뒤에 쌓여 있다. 또 이 책판에 의해 인쇄된 책자 하나를 더 준비시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석씨원류(釋氏源流)는 그 후 북한산 승가사(僧伽寺)에서 이 책판의 인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본(零本)으로 볼 수 있다. 이것에 의하면 이 책은 석가여래 성도응화 사적기(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당나라 왕발(王勃)²⁰⁾의 서(序)가 있고 또 명나라 성화(成化) 22년의 황제어제서

20) 왕발(王勃, 650-676): 자 자안(子安). 강주(絳州) 용문(龍門·山西省 河津縣) 출생. 일설에는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 출생이라고 한다. 수(隋)나라 말의 유학자 왕통(王通)의 손자이다. 조숙한 천재로 6세 때 문장을 잘하였고, 17세 때인 666년 유소과(幽素科)에 급제하였다. 젊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 664년에 이미 조산랑(朝散郎)의 벼슬을 받았다. 왕족인 패왕(沛王) 현(賢)의 부름을 받고 그를 섬겼으나, 당시 유행하였던 투계(轉計)에 대하여 장난으로 쓴 글이 고종(高宗)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중앙에서 쫓겨나 쓰촨(四川) 지방을 방랑하였다. 뒤에 관노(宦奴)를 죽였다는 죄로 관직을 빼앗기고 교지(交趾·베트남 북부)의 영(令)으로 좌천된 아버지 복치(福智)를 만나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배에서 바다로 떨어져 익사하였다. 양형·노조린(盧照鄰)·낙빈왕(駱賓王) 등과 함께 초당(初唐) 4걸(四傑)이라 불리는 당나라 초기의 대표적 시인이다. '왕양노락(王楊盧駱)'이라 불렸던 그는 종래의 완미(婉媚)한 육조시(六朝詩)의 껍질을 벗어나 참신하고 건전한 정감을 읊어 성당시(盛唐詩)의 선구자가 되었다. 특히 5언절구(五言絕句)에 뛰어났으며, 시문집 《왕자안집(王子安集)》 16권을 남겼다.

(皇帝御製序)가 있어, 분명히 중간(重刊)된 유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조선 책판은 명나라 성화판(明成化板)이 중각(重刻)된 일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한 장마다 하나의 제목을 세우고, 불조통기열자(佛祖統記列子)의 대비경[大悲經]과 기타제경(其他諸經)에서 발취하여 기사를 반 면(半面)에 기록하고, 다른 반 면에는 그것을 회화(繪畫)로서 표시하였다. 조각은 비교적 정교하다.

기타 소장자의 경책(經冊) 불상(佛像) 등은 비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족하다. 범종(梵鐘) 역시 근대의 작품으로 조악(粗惡)하다.

(해제)

불암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에 위치한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이다. 824년(신라 헌덕왕 16년) 지증대사(智證大師)가 창건한 사찰로서 이후 도선국사(道詵國師), 자초대사(自超大師), 무학대사(無學大師) 등이 중창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유교가 번성했던 조선시대에는 한양 밖의 동서남북 네 곳에 왕실 사찰을 지정하였다.²¹⁾ 이 때 동쪽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불암사가 지정되었다. 이후 성종 때 중건하고, 1776년(영조 52년)에 폐사 상태가 된 것을 명관(明管)이 중수하였다. 1782년(정조 6년)에는 보광명전과 관음전을 중수하고 제월루를 세웠다. 1910년 독성각과 산신각, 동축당을 세웠으며, 1959년에는 칠성각을 세웠다.

불암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1998년 11월 5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남양주 지역에 대한 종합 지표조사 과정에서 불암사사적비(佛岩寺事蹟碑)의 현황이 보고되었다.²²⁾ 기타 사찰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보고된 사례가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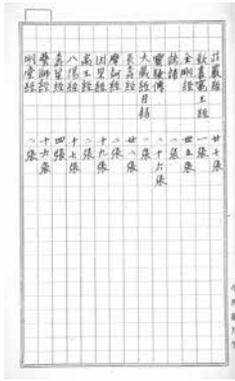
사찰 내 유물로는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목판(釋氏源流應化事蹟木板) 212장이 있는데 이는 1638년(인조 16년) 왕명으로 역대 승려의 법통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다른 전하는 말에 의하면 1631년(인조 9)에 정두경(鄭斗卿)이 명(明)나라에 사절로 갔다가 귀국할 때 얻어 온 책을 바탕으로 하여 1673년에 승려 지십(智什)이 불암사(佛巖寺)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 목판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으로 중국의 책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보물 제2003호로 지정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3호인 불암사경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5호인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5호 남양주 불암사 석가삼존십육나한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8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다양한 보물과 기념물을 불암사가 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건립된 제월루의 바로 앞에는 1731년(영조 7년)에 제작된 불암사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전에는 비문 내용을 잘못 읽어 1629년(인조 7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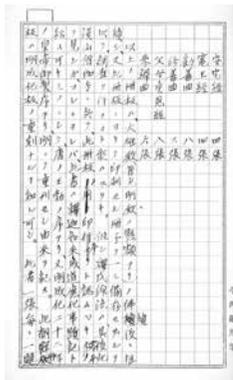
21) 서쪽 진관사, 남쪽 삼막사, 북쪽 승가사를 각각 지정하였다.

2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3) 경기도, 1988, 『巖內寺院誌』; 사찰문화연구원 편, 1995,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II.



불암사 원고(4.3.2.1)



불암사 원고(6.5)



불암사사적비 원고(왼쪽)와 불서적판 목록(오른쪽)



불암사 전경(왼쪽)과 보물 2003호 목조관음보살좌상(오른쪽)



보물 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목판(왼쪽)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3호 불암사경판(오른쪽)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5호 석가삼존십육나한도(왼쪽)와 불암사사적비(오른쪽)

다이쇼 5년(1916) 8월 29일 증추원 소속 와타나베 교시(渡邊業志)와 동행,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에 있어서 유적 유물을 조사하고 다음날 30일에 돌아와서 별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이쇼 6년(1917) 7월 일
고적조사위원회 이마니시 류(今西龍)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장 앞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 조사 보고서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북한산(北漢山) 유적 조사 보고서

(이마니시류[今西龍] 위원 제출)

| 제1장 | 북한산 개설(北漢山 概說)

북한산(北漢山)은 경성(京城)의 북쪽에 우뚝 솟은 조선(朝鮮)의 명산으로, 한강의 북쪽 옛 양주부(舊楊州府)의 지역에 있다. 후에 한성부(漢城府)로 이속되었다가 다시 고양군(高陽郡)으로 이속되었다. 이 산은 삼각산(三角山)이라고 칭하는데 화산(華山)이라는 이름도 있고, 신라시대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칭했다. 북한산(北漢山)의 명칭은 한강(漢江)의 남쪽 광주에 우뚝 솟은 한산(漢山)에 상대되는 칭호이다. 삼각산(三角山)이라 부르는 것은 인수(仁壽: 표고 803m), 백운(白雲: 표고 836m), 만경(萬景)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세 개의 뿔처럼 생겨 부쳐진 이름이다. 부아악(負兒岳)의 명칭은 인수봉(仁壽峰) 봉우리 형태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誌),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모든 사서는 이 산을 삼각산 또는 부아악이라 칭하고, 북한산이란 호칭을 지방명(地方名)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산은 앞에서 말한 삼봉(三峰) 외에 염초봉(廉峭峰: 상운사(祥雲寺)의 동북), 원효봉(元曉峰: 표고 580m), 의상봉(義湘峰: 표고 499m), 용혈봉(龍穴峰: 표고 515m), 증취봉(甌炊峰: 표고 713m), 나한봉(羅漢峰: 북한지(北漢誌)에 나월봉(蘿月峯)으로 된 것에 상당), 문수봉(文殊峰: 표고 715m), 보현봉(普賢峰) 등 결환상(缺環狀: 고리 모양이 일부 빠진 모습)의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다. (북한산) 내면 계곡의 흐름은 결부(缺部: 고리모양에서 빠진)24)에서 서쪽으로 흘러(원효, 의상 두 봉우리 사이에서 나옴) 평지로 나아가고,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과 합쳐져 창릉천(昌陵川: 하나에 덕수천(德水川))이 되어 서쪽으로 흘러 좌우로 폭이 수 정(數町)의 옥야(沃野)를 형성하며, 게다가 서남(西南)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북한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지맥은 낙타산(駱駝山), 백악(白岳), 인왕산(仁王山)이 되어 경성의 북쪽 변에 우뚝 솟아 있고, 그 맥의 좌우로 연결되어 경성을 둘러싸고 있다. 또 북한산에서 서남(西南)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것으로 비봉(碑峰)이 있다. 지세(地勢)와 산의 형태로 본 북한산은 서향(西向)의 산으로 경성은 이 산의 측면에 있는 것이다.

이 산은 예부터 명산(名山)이다. 낙랑·대방(樂浪帶方) 시대에는 전혀 문헌에 나타나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백제(百濟)는 이 산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축조하여 고구려와 쟁탈하고, 고구려에게 빼앗긴 후 일시 회복시키지만, 신라의 세력이 죽령(竹嶺)을 넘고 한강을 장악한 시기에는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산(北漢山)도 남한산(南漢山)과 함께 신라의 소유로 돌아갔다. 진흥왕(眞興王)이 순행하고 국경(封疆)을 확정하여, 북한산성은 신라북방의 중진(重鎭)이 되

24) 산 사이의 오목한 부분으로 계곡부(溪谷部)를 의미한다.

었다. 단 백제와 신라의 북한산성 위치가 오늘날 북한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후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통일신라시대에 이 산은 부아악(負兒岳)이라 칭하고 소사(小祀) 23악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산은) 여러 봉우리와 뛰어난 계곡(秀拔溪谷)으로 인해 그윽하고 조용한(幽邃) 곳이 되면서부터 여러 절들이 건립되었다. 고려왕조를 통해 불사봉(佛寺峰) 만계곡(巒溪谷) 사이에 산재(點在)한 불법의 정산(淨山)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산 아래의 지역이 아마도 지금 경성의 땅은 고려 4경의 하나인 남경의 땅이 되고, 고종시대에는 아사달(阿思達)의 성지(聖地)로 비정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에는 도읍지 경성의 땅으로 존중되자 이 산의 사찰은 점점 황폐해졌다. 도성(都城)에 정면으로 등을 지고 있는 이 산과 계곡은 요충지(要害地)로서의 가치도 잊혀지다가 숙종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현존하는 대산성(大山城:북한산성)을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근래 산성(山城) 안이 황폐해지고, 다이쇼 4년(1915년) 여름에 산이 무너져 옛 이궁(離宮)도 반은 유실되었으며, 성내 부락의 중심지인 중흥동(重興洞)도 거의 멸진(滅盡)되어 황폐가 더욱 심해졌다. 현재 지금은 서문(西門) 내 10여 호의 민가가 부락을 형성한 것 외에는 겨우 20호의 민가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갑오혁신(갑오경장: 1894년) 이전에는 성내 절들이 치영(緝營: 조선시대 때 총융청(摠戎廳)에 딸렸던 승군(僧軍)의 군영(軍營))을 조직했으며 그 제도는 『북한지(北漢志)』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북한산 원고(4.3.2.1)

| 제2장 | 고북한산성(古北漢山城)

종래 백제국 도읍지 한산(漢山)을 지금의 북한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본 고적조사위원은 이것을 남한산 아래에 있다고 고증하여 『사학잡지(史學雜誌)』 제23편 제1호에 ‘백제국 한산고(百濟國漢山考)’라는 제목으로 그 논설을 발표했다.²⁵⁾ 그 후 한층 더 연구의 진전에 따라 자설(自說)이 더 확실하다고 자신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 대한 논술은 여기서 생략하고 삼국시대 북한산성에 대해서만 약술한다.

고북한산성(古北漢山城)은 현재 존재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처럼 조선 백성이 힘을 다하여 축조한 대규모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성이 지금의 북한산에 있는가 아닌가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일이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국사기』 잡지,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책에서는 오늘날 북한산(北漢山)이라고 칭하는 이 산을 삼각산(三角山) 또는 부아악(負兒巖)이라고 칭하고, 북한산 호칭은 이곳의 지방명어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산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북한산성이 이 산에 있는 것을 자명(自明)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본 고적조사위원의 얇은(淺薄) 연구로부터 추정하면, 이 산을 북한산이라 칭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시대이다. (그런데) 고북한산성(古北漢山城)을 이 산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 단정에 기초하여 그것을 북한산이라 칭하여 축성(築城) 편부(便否)의 논의에는 이 (북한산)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성(城)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산성이라 명명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이 산을 북한산이라 칭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정약용(丁若鏞)이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권3 위례고(慰禮考)에 「북한산성은 한북의 산에 의해 성이 된 것이지 산 위에 성이 있어서가 아니다(北漢山城者謂依漢北之山而爲城非謂其城在山上也)」라고 말한 것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도 당시에 있어서 북한산성이라고 칭했던 ‘산성’은 필시 오류라 할 것이고, 그것을 산성이라고 했다면 지세상(地勢上) 지금의 북한산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중흥동석성은 중흥동 북쪽에 있다. 둘레가 9,417척이고 성 안에 노적을 쌓아 놓은 것 같은 우뚝 솟은 산이 있어 속칭 노적산이라 했다(重興洞石城在重興洞北周九千四百七十七尺城中有山聳峙如露積故俗稱露積山)’라 하여, 이 중흥동석성(重興洞石城)이야말로 고북한산성(古北漢山城)의 유적이자 되어야 할 것인가?

본 고적조사위원이 일찍이 『고려사』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 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고려 시대에 중흥사성(重興寺城)이 있고 (고려)말기에 수축(修築)한 바가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 동국여지승람) 용인현(龍仁縣) 처인성(處仁城)의 주(注)에 기록된 고려 고종(高宗)시대 한양성(漢陽城)이 되거나 혹은 이 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숙종 28년 임오(壬午) 10월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가 북한산을 답사하고 (왕에게 보

25) 今西龍, 1912, 『百濟國漢山考』, 『史學雜誌』 23-1. 이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제출하였다(今西龍, 1934, 『百濟國漢山考』, 『百濟史研究』).

넌) 복명서(復命書) 중에 “신(臣)이 중흥사(重興寺)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수구(水口)로 따라가면 석문(石門)의 옛터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서문(西門)입니다. 성벽(城壁)은 무너졌으나 아직도 석축(石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성(內城)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성문이 있습니다. 이 곳은 사찰에서 거리가 겨우 수 백보 정도 떨어져 있어 길을 조금만 더 보수하면 우마가 짐을 싣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의 산골짜기마다 물이 있어서 대군(大軍)이 주둔하더라도 물이 부족할 염려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 위에 소나무가 대단히 무성하였는데, 현재는 소나무가 쪽쪽 떨어져 우거진 정도가 남한산성만은 못하나 성곽의 길이와 너비는 남한산성보다 나은 듯하여 수호를 위해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곳이니 버려두기 매우 아깝습니다.(臣之入重興寺也 路由水口有石門舊址 卽所謂西門也 城磚崩圯尙有石築基址而進入內城又有城門 此則距寺僅數百步許若稍加修治亦可以通牛馬 任載而城基內山谷之間 處處有水雖大軍留屯口無不足之患而山上松木古甚茂盛松虫之後雖不如前年口處口頗長養比諸南漢似有勝焉(北漢誌 수록문에 의해))” 로 되어 있다.

영조시대 승려 성능(聖能)²⁶⁾이 편집하고 간행한 『북한지(北漢誌)』의 고적조(古蹟條)에 “고석성(古石城)은 중흥사(重興寺) 북쪽에 있으며, 그 주위는 9, 417척(尺)이며, 석문(石門)과 문지(門址)가 있다.(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七尺有石門及門址)”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근년에 이르기까지 노적봉(露積峰)을 포용하고 중흥사 앞에 성문이 된 이른바 중흥사성 성터의 유적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하의 복명서에 산 안에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松樹茂生) 모습은 근래처럼 황폐하지 않고, 좋은 토양으로 인해 돌무더기의 추락을 막아 구 유적지(舊址)가 보존되어 있어, 이것이 삼국시대의 북한산성, 고려시대의 한양성, 중흥사성으로 고려 말에 수축(修築)한 것이 아닌가? 본 고적조사위원이 답사할 때는 우천(雨天)인데다가 그 방면의 조사를 잘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수년전 이루어진 구 순사출장소(舊巡査出張所)의 조사에서도 고석성(古石城)에 대해서는 「앞에 기록한(前記) 고적은 그 유적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 전설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어, 근대 북한산성내(北漢山城內)의 황폐가 심해 산의 붕괴 같은 것도 누차 일어났다. 최근에 있어서는 작년 다이쇼 4년(1915년) 여름 산의 붕괴 같은 것은 중흥동 부락에 거석(巨石)이 쌓여 황무지로 변했다라고 한다. 아마도 유적지라고 보아도 지금은 조사하여

26) 성능(聖能, ?~)호는 계파(桂坡). 본래 경상북도 학가산(鶴駕山)의 승려였으나 화엄사(華嚴寺) 각성(覺性)의 문하에서 3년 동안 수행하여 도를 이루었다. 화엄사의 장륙전(丈六殿)에 의하여 1699년(숙종 25)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을 보았는데, 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장륙전 중건을 위하여 100인의 승려들이 대웅전에서 백일기도를 올렸는데, 그는 기도 의원한 성취를 위하여 공양주(供養主)를 자원하였다. 백일기도가 끝나는 회향일(廻向日)에 한 노승의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물 묻은 손으로 밀가루를 만져서 밀가루가 묻지 않는 사람으로 화주승(化主僧)을 삼아야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100인의 대중이 모두 시험한 결과 성능(聖能)만 밀가루가 손에 묻지 않아 화주승이 되었다. 성능은 화주할 격정에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리는데 “다음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하라.”는 문수보살의 말씀이 들렸다. 그러나 다음날 처음 만난 사람은 절에 자주 들르는 거지노파였다. 그 노파는 성능에게 시주를 요구하자 “이 몸이 죽어 왕궁에 환생하여 큰 불사를 이루겠나이다.”하며 서원을 세운 뒤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 뒤 성능은 5, 6년을 결식하며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한양 창덕궁에 이르러 마침 유모와 함께 궁 밖을 소요하던 공주와 마주쳤는데, 공주는 우리 스님이라면서 반가워하였다. 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손을 펴지 않았는데 성능이 이를 펴보니 손바닥에 ‘장륙전’ 3자가 쓰여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은 성능을 도와 장륙전을 완성하게 하였고, 사액을 내려 각황전(覺皇殿)이라 하였다 한다. 그 뒤 숙종은 1711년(숙종 37) 한양 수비의 요충인 북한산성 축성을 성능에게 위임하고,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의 직위를 내렸는데 9개월 만에 축성을 완료하였다. 다시 화엄사로 돌아온 그는 수행의 여가에 산성기사(山城記事)를 집필하였다. 그는 이 『북한지(北漢誌)』를 편각하여 1745년(영조 21) 신임 도총섭인 서봉(瑞鳳)에게 인계하였다. 그 뒤에도 그는 화엄사에서 『화엄경』을 판각하는 불사를 이루었으며, 다시 통도사로 옮겨 통도사 석가여래영굴사리탑비를 세우고 계단담(戒壇塔)을 증축하였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고북한상성 원고(4.3.2.1)

| 제3장 | 북한산성(北漢山城)

현존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조선 숙종 50년 신묘(辛卯) 2월 축성(築城)의 의결을 결정하고 4월 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이르러 역(役)을 마치는 것이 된다. 만경(萬景), 백운(白雲), 원효(元曉), 의상(義湘), 용혈(龍穴), 증봉(甌峰), 문수(文殊)의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산이 높고, 몹시 험한[高峻險絶] 거암(巨巖)이 우뚝 솟아 성을 축성할 수 없고, 또한 축성에 필요한 부분 이외는 석벽을 들렀다고 북한지(北漢誌)에 기록하여 말하기를 “성의 둘레는 7,620보이다. 리(里) 수로 계산하면 2리 60보이다. 평지(平地)의 체성(體城) 높이는 14척으로 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지형에 따라서) 12척으로 쌓기도 하였다. 산 위의 체성의 높이는 10척으로 하였으며 반축(半築)의 경우에는 6척, 혹은 7척으로 쌓기도 하였고, 어떤 곳은 여장(女牆)만 쌓기도 하였는데 그 높이는 4척, 넓이가 3척이다. 고축(高築)의 경우 총 길이가 2,746 보이고, 반축(半築)의 경우는 총 길이가 2,906 보이며, 반반축(半半築)의 총 길이는 511 보이다. 그리고 여장만을 쌓은 길이는 1,457 보이다. (城周七千六百二十步 作里二十一里六十步內 平地體城高築十四尺或十二尺山上體城高築十尺半築六尺或七尺或只築女牆高四尺廣三尺總高築者二千七百四十六步半築者 二千九百六步半半築者五百一十步 只築女牆者一千四百五十七步)”로 되어 있다. 서쪽으로 따라가면 서대문(西大門)은 (북한산성의) 정문이 되며, 중성문(中城門)에서 성 안(城內)의 중·외(中外)로 양분한다.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여러 문(門)에 대해 논하면

북한지(北漢誌)에서 말하기를 “14문, 북문(北門)·대동문(大東門)·대서문(大西門)·대성문(大城門)·중성문(中城門)의 다섯 개 문은 높이가 11~13척, 넓이가 13~14척으로 홍예(虹蜺)로 만들어졌고, 초루(譙樓)가 설치되어 있다. 소동문(小東門)·소남문(小南門)은 역시 홍예로 만들어졌고, 서암문(西暗門)·백운봉암문(白雲峯暗門)·용암봉암문(龍巖峯暗門)·동암문(東暗門)·청수동암문(靑水洞暗門)·부왕동암문(扶旺洞暗門)·가사당암문(袞娑堂暗門) 등 9개의 문은 높고 낮음이 일정하지 않다. 또 수문이 있는데 높이가 16척이고 넓이는 50척이다. 중성문(中城門)은 원효봉(元曉峯)과 의상봉(義相峯) 사이에 있는데, 서쪽 수구(水口) 바닥에 얇은 물이 흐른다. (門十四 北門, 大東門, 大西門, 大成門, 中城門, 此五門 高十一尺或十三尺, 廣十三四尺, 作虹蜺設譙樓 小東門, 小南門, 亦作虹蜺 西暗門 白雲峯暗門 龍巖峯暗門 東暗門 靑水洞暗門 扶旺洞暗門 袞娑堂暗門 以上九門 高低不一 又有水門高十六尺 廣五十尺, 中城門在元曉義相兩峯之間爲西邊水口低下淺露也)”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북문, 대동문, 대서문, 대성문, 중성문, 소동문, 소남문, 서암문, 백운봉암문, 용암봉암문, 동암문, 청수동암문, 부왕당암문, 가사당암문 등 14문이 있는 것이 된다.

현재 북한산성의 일에 정통하다고 하는 산성 내(山城內) 태고사(太古寺)의 승려 이자훈(李慈訓)은 본 고적조사위원의 물음에 답하기를 (산성의) 13문을 열거하면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향해 대남문(大南門)에서 왼쪽으로 순서를 지(誌)에서는 다음과 같다.

1. 대남문(大南門)
2. 가시디아문(가시디아문)
3. 원각사문(圓覺寺門)
4. 국영문(國營門)
5. 서대

문(西大門) 6. 수구문(水口門) 7. 북문(北門:일명 상운사문(相雲寺門)) 8. 백운문(白雲門:일명 개구영문(介口營門)) 9. 용암문(龍岩門) 10. 동문(東門) 11. 보국사문(普國寺門) 12. 대성문(大成門) 13. 중성문(中城門)이다.

이 13문의 수(數) 및 칭호(稱號), 그것이 육지측량부 발행의 1/25,000 지도의 기입에 해당된다(단 지도에는 문 이름(門名)이 기입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가시다아門은 절의 스님이 앞의 문자를 알지 못해도 가사당문(袈裟堂門)인 것이 분명하고, 주재소 순사의 취조서(取調書)에는 그것을 가서당문(佳西堂門)이라고 쓰여져 있고, 국영문(國寧門)이 관령문(官寧門)이라 써 있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그 문 옆에 국영사(國寧寺)가 있는 것을 추측하여 국령문(國寧門)이라 쓴 것이 되고, 보국사문(普國寺門) 혹은 보국사문(輔國寺門)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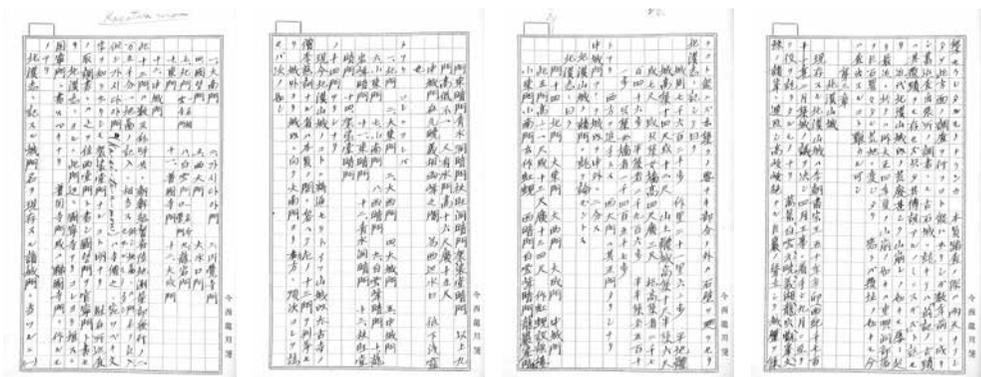
『북한지(北漢誌)』에 기록된 성문 명칭(城門名)이 현존하는 여러 성문(諸城門)에 해당하는 것은 1. 북문(北門), 2. 대동문(大東門), 3. 대서문(大西門), 4. 대성문(大成門), 5. 중성문(中城門), 6. 용암봉암문(龍岩峰暗門), 7. 가사당 암문(袈裟堂暗門), 8. 백운봉 암문(白雲峰暗門)은 칭호가 남아있어 바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지(北漢誌)의 1. 소남문(小南門), 2. 동암문(東暗門), 3. 청수당문(靑水堂門), 4. 부왕당 암문(扶旺堂暗門), 5. 소동문(小東門), 6. 서암(西暗)의 6개의 문이 현존의 1. 원각사문(圓覺寺門), 2. 국영문(國寧門), 3. 보국사문(輔國寺門), 4. 대남문(大南門), 5. 수구문(水口門)의 5문이 바로 거기에 상당하는가와 현재 이미 없어진 하나의 문은 6개 문중 어느 문인가는 다소간 고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지금 『북한지(北漢誌)』에 실려 있는 북한도(北漢圖)와 육지측량부 5만분의 1의 지도와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도에 의하면 동문(東門)과 대성문(大成門) 사이에 있는 보국사(輔國寺)의 동쪽에 하나의 문이 있는 것 같다. 단 지도(圖畫)가 조악하고 동시에 인쇄가 되어 문(門)인가 산(山)인가를 표시하는 선(線)인지 불명확하여 판정하기가 어렵지만 필시 문(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문(門)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보국사문(輔國寺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지(北漢誌)의 동소문(東小門)이 될 것이다. 다음에 현재 대성문(大成門)이 보현봉(普賢峰)의 서쪽에 있어서 대남문(大南門)으로 충당되는 것을 북한도(北漢圖)에는 암문(暗門)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암문으로 보게 되면 소남문(小南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마도 『북한지(北漢誌)』의 동암문(東暗門)이 될 것이다. <북한도(北漢圖)에는 남장대(南將臺)의 동남(東南)에 하나의 암문이 있다. 즉 가사당 암문(袈裟堂暗門)이 될 것이다. 다음에 북한도에는 나한봉(羅漢峰), 나월봉(羅月峰) 사이의 부왕사(扶旺寺) 남쪽에 어떤 기사도 없이 하나의 문과 그 서쪽에 원각사(圓覺寺) 남쪽 및 국령사(國寧寺) 남쪽에 각 하나의 암문 즉 두 개의 암문과 합쳐 3개의 문이 있다. 원각사 남쪽의 암문은 오늘날 원각사문으로 국령사문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나한봉 서쪽에는 원각사문 외에 하나의 문이 있는 것으로 북한도처럼 3개의 문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지(北漢誌)』는 14문이 있다고 해도 태고사(太古寺) 스님이나 25,000분의 1 지도는 동일하게 13문에 불과하여 하나의 문이 적은 것은 이 사이에서 하나의 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 북한지의 문 명칭(門名)을 <북한도(北漢圖)>에 배당하면 오늘날의 대남문(大南門)을 동암문(東暗門)으로, 부왕사 남문(扶王寺南門)을 소남문(小南門)으로, 원각사 남문(圓覺寺南門)을 가능한 한 부왕사(扶王寺)에 가까이 있는 부왕당 암문(扶王堂暗門)으로, 국영사(國寧寺) 남쪽의 암문(暗門)을 청수동 암문(靑水洞暗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히 역측을 한다면 『북한지(北漢誌)』의 소남문(小南門)은 그 후 어떤 사정에 의해 철거되었던 것이 아닌가, 단 그 철거된 하나의 문이 소남문(小南門)인가 부왕사문(扶王寺門)인가는 판정하기 곤란하다. 그것을 부왕사문이라고 하면 현재의 원각사문이라 칭하는 것은 북한지의 남소문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의 수구문(水口門)은 북한지의 서암문(西暗門)이 되고 계곡에 인접하여 통로를 만드는 모양으로부터 통로를 산 중간에 만들고, 그 문을 수구문이라 칭하여 쓰레기(不淨物)의 반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현재의 대남문(大南門)이 옛날 동암문(東暗門)이라면 축성 당시에 암문(暗門)이라도 그 후에 수축 확대(修築擴大)하여 대서·대동(大西·大東) 2문에 대해 대남(大南)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는 것이 사실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오늘날 대남문(大南門)으로 동암문(東暗門)이 된다면 동암문이라 칭하는 것은 실로 이 성의 정남(正南)의 문이 되어야 할 것인데, 대성문(大威門)의 서쪽에 있어 그 명칭과 방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혹은 현재의 대남문(大南門)은 옛날의 소남문(小南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하튼 조사의 재료가 부족하여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잘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오직 본 고적 조사위원은 앞에서 기록한 순서대로 오늘날 원각사문(圓覺寺門)인가 혹은 그 문에 인접한 문으로 오늘날 그 터에 남아 있지 않은 남소문(南小門)으로 추정하고 이것에 의해 후에 기록하는 삼천사지(三川寺址)를 탐색하여 거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본 고적조사위원이 답사할 때는 첫째 날 비봉(碑峰)에서 문수암(文殊庵) 부근을 답사하고 저녁 무렵에 대남문(大南門)에서 산성 안으로 들어왔다. 둘째 날에는 큰 비(大雨)로 인하여 겨우 삼천사터(三川寺址)를 살피는 것으로 끝나 성문·성벽(城門·城壁)의 실사가 완전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북한산성 원고(4.3.2.1.)



북한산성 원고(8.7.6.5.)

(해제)

북한산성은 현재 사적 162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산성의 다른 명칭으로는 중흥산성(中興山城), 북성(北城) 등이 있다.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년) 4월 3일 축조가 시작되어, 1712년(숙종 38년) 5월에 총융청(摠戎廳)에서 북한산성의 증성을 쌓았고, 같은 해 10월에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이 주관하는 성랑, 창고, 문루, 못, 우물 등을 만들어 완공하게 된다. 북한산성의 규모는 『북한지(北漢誌)』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둘레는 7,620보(12.7km), 여장은 2,807척, 14개의 성문과 3개의 장대, 행궁과 성랑이 143개소, 창고 8개소, 사찰 21개소, 루 3개소, 교량 7개소, 못 26개소, 우물 99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내부에 위치한 중흥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처음 시작된다.²⁷⁾ 이후 지표조사를 통해 북한산성의 정확한 규모 등이 확인되었다.²⁸⁾ 북한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총 4회 실시되었다. 우선 연차 발굴에 앞서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13년 8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여 성랑터²⁹⁾와 중흥산성 등을 조사하고 3개 지역은 성벽을 절개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였다.³⁰⁾ 이 조사를 통해 성벽 절개 과정에서 중흥산성으로 추정되는 이전 시기 유구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성랑 4개소가 노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성벽을 처음으로 절개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 조사를 통해 북한산성에 대한 연차 발굴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제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³¹⁾ 조사 결과 『북한지(北漢誌)』의 <북한도(北漢圖)>에 나오는

27)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7, 『북한산 중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28)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9) 군 초소 터를 의미한다.

30) 京畿文化財硏究院, 2015, 『북한산성 성랑터 및 성벽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3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1차 발굴조사』.

북한산성 곡성(曲城)의 축성방법과, 성랑 등의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군 초소의 실체를 밝혀냈다.

제2차 발굴조사는 서암문~수문 구간에 대한 조사로서 2015년 4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³²⁾ 2차 조사에서는 9개의 성랑터 가운데 상태가 불량한 6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북서쪽 수구를 조사하였는데 출수구(出水口)와 입수구(入水口)가 각각 2개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돈대(墩臺) 1개를 조사하였다.

제3차 발굴조사는 2016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³³⁾ 그 결과 부암동 암문 구간의 성벽절개지3 주변의 성벽하부 구조와 보축 성벽의 축조 시기를 파악하였고, 회곽로와 성랑지에 대한 정확한 구조 및 축조기법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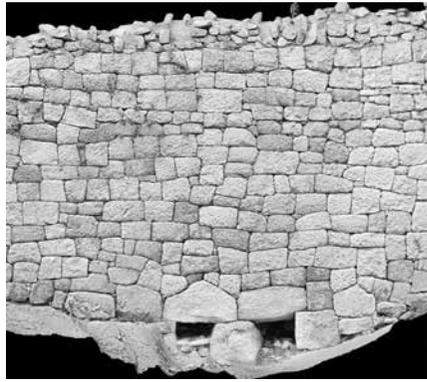
『북한지(北漢誌)』에 수록된 북한도(北漢圖)



북한산성 원경

3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

3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8,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3차 발굴조사』.



북한산성 성벽 구간(왼쪽) 및 수구지 성벽과 출수구(오른쪽)



북한산성 성벽 구간(왼쪽) 및 수구지 성벽과 출수구(오른쪽)



북한산성 성벽 구간(왼쪽) 및 수구지 성벽과 출수구(오른쪽)

| 제4장 | 장의사터[莊義寺址]

장의사의 건립에 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태종무열왕기(新羅太宗武烈王紀) 6년조(六年條)에 “겨울 10월 왕이 조정에 앉아 있는데, 당에 청명한 답신이 아직 없으므로 근심하는 빛이 외모에 나타나자 갑자기 작고한 신하 장춘(長春)과 파랑(罷郎)과 같은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 아뢰기를 ‘신(臣)이 비록 죽은 백골이나마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있어서 어제 당나라에 가서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백제를 치기로 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왕께서 이처럼 기다리고 계시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말이 끝나자 사라져 버렸다. 왕은 매우 이상히 여겨 두 집 자손에게 후히 상을 주고 따라서 소속 관원으로 하여금 한산주에 장의사(莊義寺)를 창건하여 그들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冬十月, 王坐朝, 以請兵於唐不報, 憂形於色, 忽有人於王前, 若先臣長春·罷郎者, 言曰, “臣雖枯骨, 猶有報國之心, 昨到大唐, 認得皇帝命大將軍蘇定方等, 領兵以來年五月, 來伐百濟, 以大王勤佇如此, 故茲控告.” 言畢而滅, 王大驚異之, 厚賞兩家子孫, 仍命所司, 創漢山州莊義寺, 以資冥福)”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장춘랑파랑(長春郎罷郎)의 조(條)에 “처음에 백제 군사와 황산(黃山)에서 싸울 때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이 진중(陣中)에서 죽었다. 그 뒤 백제를 칠 때 그들은 태종(太宗)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신 등이 옛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고, 이제 백골(白骨)이 되어서도 나라를 완전히 지키려고 종군(從軍)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오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위엄에 놀라서 남의 뒤로만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군사를 주십시오.’ 대왕(大王)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두 혼(魂)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불경을 외고 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莊義寺)를 세워 그들의 명복을 빌게 했다.(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役長春郎·罷郎死於陣中, 後討百濟時見夢於太宗曰 “臣等昔者爲國亡身至於白骨, 庶欲完護邦國故隨從軍行無怠而已. 然迫於唐帥定方之威逐於人後爾. 願王加我以小勢.” 大王驚恠之爲二魂說經一日於牟山亭, 又爲創壯義寺於漢山州以資冥援.)”고 되어 있다. 장의사를 만드는 그 설화에는 서로 다르지만 태종무열왕이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의 두 의사(義士)를 위해 한산주군(漢山州郡)에 세운 것은 동일하다.

(장의사의) 소재지에 대해서 오다 서기관(小田書記官)은 본 고적조사위원 출장조사 전에 양주군(楊州郡) 은평면(恩平面) 신영리(新營里)의 옛 병영터[舊兵營址]는 이 절의 유적지로, (이에 대한) 건축물로 우뚝 솟아 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는 (장의사) 절의 유적지라는 주의(注意)를 본 고적조사위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절에 대해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장의사는 창의문 밖에 있는데 교종에 속한다. 밭 250결을 주었다(莊義寺在彰義門外屬教宗給田二百五十結)라 하였고, 이 책에 도성의 여러 문[諸門]을 기록하여 서북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고 또 조지소(造紙所)가 장의사동(莊義寺洞)에 있다고 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장의(莊義)를 장의(藏義)로 써서 「장의사는 창의문 밖에 있는데 신라와 백제가 황산에서 싸울 때 장춘랑과 파랑이 진중에서 전사하자 태종이 이 두 사람을 위해 지은 절이다(藏義寺在彰義門外新羅與百濟兵戰於黃山之野長春郎罷郎死干陣太宗武烈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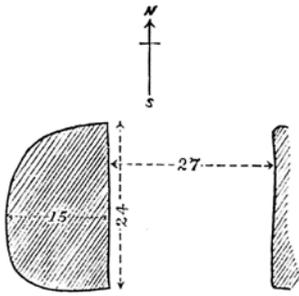


사진 4.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신학리 장의사터 당간지주

爲二人創此寺」라 했다. 이 절의 기사에 의하면 조지소(造紙所)와 장의사(莊義寺)와는 모두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고, 그 동(洞)을 장의사동(莊義寺洞)이라 칭한 것이다. 그 조지소는 근년까지 은평면(恩平面) 신영리(新營里)에 존재했던 것이고, 오다 서기관이 말한 바

는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여지승람(輿地勝覽)』 편찬 당시는 이 절이 존재했어도 그 후 폐사(廢寺)된 것에 대해 그 연대가 아직 조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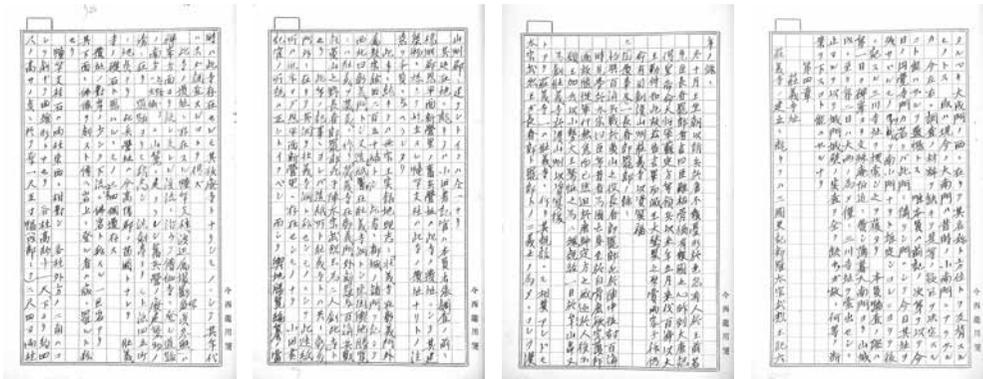
이 절의 유적지에 존재하는 당간지주(사진 4)는 비봉(碑峰)방면에서 흘러오는 계곡 연변에서 승가사(僧伽寺)로 오르는 도로의 남쪽(오르는 길에서 왼쪽) 산기슭에 세워져 옛 병영(舊兵營) 폐건 축물 근처에 있다. 도로에서도 조금 높고, 세검정(洗劍亭)에서도 상류 4-5정(町)의 지점이다. 이 병영장(兵營莊)은 지금 고양군의 묘포(苗圃·묘목을 기르는 곳)로 되어 있고, 장의사의 초석(礎石)이라고 생각되는 것 3-4개가 남아있다.

유적지의 마주 편 작은 하류 연안에 불암(佛岩)이라 부르는 하나의 거암(巨岩)이 있다. 그 하면(下面)에 불상(佛像)이 새겨졌다고 전하고 (그) 바위 위[岩上]에 오르는 사람은 병이 나아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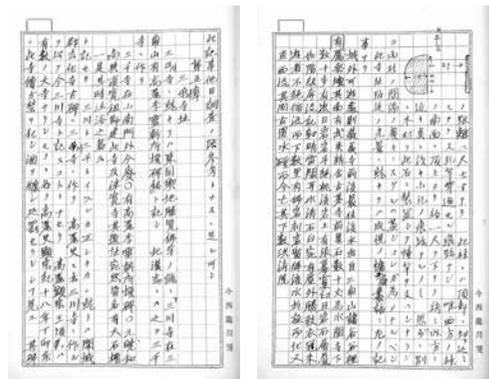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은 양 기둥으로 동서(東西)로 마주보고 있고, 각 기둥 밖의 두 개의 붉은 각져 곡선이 되고, 각 기둥의 높이는 약 11척, 아래에서 약 4척의 높이 지점에서 두께 1척5촌, 폭(내부에서) 2척 4촌, 양 기둥의 거리는 2척 7촌이다. 그 기둥에는 정상부에 잘라낸 흔적이 없고 또 구멍이 뚫린[孔等穿通]것 같은 흔적이 없고, 오직 서쪽 기둥의 남면 정상에서 약 1척 아래 조금 안쪽 가까운 지점에 작은 구멍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다른 목재로 이 돌에 장치하여 당우(幢宇)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가, 양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이를 생각하면 대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절터 부근의 광경에 대해서는 성현(成俔)의 『용재총화(用齋叢話)』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 밖의 놀만한 곳으로는 장의사 앞 시내가 가장 아름답다. 시내물이 삼각산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나오고 골짜기 속에 여제단(女祭壇)이 있으며, 그 남쪽에 무이정사(武夷精舍)의 옛 터가 있다. 절 앞에 돌을 쌓은 것이 수십 길이나 되어 수각(水閣)을 이루고 절 앞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차일암(遮日岩)이 있는데, 바위가 절벽을 이루어 시내를 베고 있는 것 같으며, 바위 위에 장막을 둘러싼 우묵한 곳이 있다. 바위가 층층으로 포개져 계단과 같으며, 흐르는 물이 어지러이 쏟아지는데 맑은 물의 우레처럼 귀를 시끄럽게 한다. 물은 맑고 돌은 희어 선경(仙境)이 완연(宛然)하니, 와서 노는 사대부들이 그치지 않는다. 물줄기를 따라 몇 리를 내려가면 불암(佛岩)이 있는데, 바위에 불상을 새겼고, 시냇물이 꺾여 돌아 북쪽으로 가다가 또 곧장 서쪽으로 흐른다. 그 사이에는 옛날에는 물방아를 놓았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거기서 얼마 더 내려가면 홍제원(洪濟院)이다. (城外可遊處則藏義寺前溪最佳溪水出自三角山諸谷裡有女祭壇其南有武夷精舍古寺前累石數十丈爲水閣寺下數十步有遮日岩斗絕枕溪岩上有張幕 白且岩石層疊如階級奔流亂射雷聞耳水清白宛有塵外勝致衣冠來遊者不絕循流而下數里有佛岩刻岩留佛溪水折旋而北又直西流其間古置水碓而今亡其下數洪濟院)”

이 기사는 다른 날 조사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의사터 원고(4.3.2.1.)



장의사터 원고(6.5)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참고자료의 장의사터 당간지주(조선충축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제)

장의사(莊義寺)는 일명 장의사(藏義寺)라고도 하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에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장의사는 659년(태종무열왕 6년)에 태종무열왕이 신하인 장춘랑(長春郎)과 파벌구(罷伐九)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 설화에 가깝다. 고려시대에는 예종, 인종, 의종 등이 다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부인 한씨(韓氏)의 기신제(忌辰祭)를 지내면서 조선왕실의 보호 속에 그 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후 1506년(연산군 12년) 연산군이 절을 헐고 화단을 만들었다.

장의사터 당간지주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9길 1(신영동 218-9)에 있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35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이다. 높이는 3.63m, 지주의 한 변 길이는 각각 0.76m와 0.45m이다. 두 개의 지주는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당간지주 사이에 설치한 간대(竿臺)나 기단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안쪽 상단에는 간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든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아직까지 고고학적 발굴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변에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절터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다.



장의사터 당간지주 전경(왼쪽) 및 세부(오른쪽)

| 제5장 | 삼천사터[三川寺址]

삼천사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불우조(佛宇條)에 「삼천사는 삼각산에 있고 고려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비명이 있다(三川寺在三角山有高麗李靈幹所撰碑銘)」라고 기록되어 있고, 『북한지(北漢誌)』에는 그것을 삼천사(三千寺)라고 되어 있다.

“삼천사(三千寺)는 소남문(小南門)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다. 고려의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비문(碑文)이 있었다. 원효화상(元曉和尚)과 진관조사(眞寬祖師)가 삼천사와 진관사(津寬寺)를 건립하였다. 그 유지(遺址)가 뚜렷이 남아 있다. 양 사찰에는 큰 석조(石槽)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당시에 목욕하던 그릇이라고 한다.(三千寺在小南門外今廢○有高麗李靈幹所撰碑○元曉和尚與眞寬祖師建此寺及津寬寺其遺址宛狀 皆各有大石槽一是其時沐浴之器云)”로 기재되어 있다. 삼천(三川)과 삼천(三千)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개성군 현화사(玄化寺) 고비(古碑)에 삼천사(三川寺)로 되어 있고, 고려사에도 역시 삼천사(三川寺)로 되어 있어 지금의 삼천사(三川寺)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고려 현종(顯宗)시대에는 유수(有數)의 큰 절이 있는 것처럼 고려사 현종 18년 정묘조(丁卯條)에 이 절의 스님이 금지하고 있는 술을 주조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일이 보이고, 이 비(碑)에 대해서는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三川碑在楊州三角山三川寺大智國師碑麗王筆碑陰記失名李靈幹文宋仁宗□□□□麗文宗□□”으로 되어 있고, 해동금속원(海東金石苑)에는 이 돌은 파편으로 존재하는 일을 기록하고, 그 잔존문자를 열거하고 있다. 그 비문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오로지 유적지에 대한 기록으로 한다.

삼천사(三川寺)는 『여지승람(輿地勝覽)』 편찬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고, 영조대(英祖代) 『북한지(北漢誌)』 편찬의 때에는 이미 폐사되고 유적지로 완연(宛然)하게 존재하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유적지의 소재지가 불명한 것에 이르고, 이 유적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귀중한 연결고리로 『북한지』에 삼천천(三川川:삼천사의 오류로 추정됨)이 소남문 밖에 있다는 기사와 진관사(津寬寺)는 삼천동(三千洞)에 있는데 지금은 폐사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중의 경조5부(京兆五部) 기타 <수선도(首善圖)> 등의 고지도에는 승가사(僧伽寺)가 있는 곳 비봉(碑峰)의 음지(陰地)에 삼천사동(三千寺洞)이 있고, 진관사 역시 이 동(洞) 안에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삼천사동(三千寺洞)의 호칭은 삼천사(三千寺)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소남문 밖에 있다는 것은 북한산성 밖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원각사문(圓覺寺門)으로 소남문이 되고, 삼천사의 유적은 비봉과 북한산성의 남쪽 외곽을 이룬 나한봉(羅漢峰)과 증봉(甌峰)과의 사이에 있어, 현존하는 진관사와 동일한 지역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조사할 때 비봉과 문수암(文殊庵) 사이의 고갯길(嶺上)에서 내려가 진관사 소재의 계곡과 표고 328m의 한 봉우리만큼 떨어진 북쪽의 계곡에 해당하는 증봉(甌峰) 아래의 한 유적지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삼천사터[三川寺址]라고 가정하여 실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음날 태고사 스님 이자훈(李慈訓)에

계 삼천사 유적지를 물어보니, 그 스님은 그 유적지는 원각사 밖에 있고, 그곳을 안다고 대답했다. 그 위치는 본 고적조사위원이 추정했던 곳과 적합하여 안내를 부탁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원각사문의 통하는 통로는 위험하기에 대서문(大西門) 방면에서 우회하여 큰 비를 무릅쓰고 그곳에 이르렀다. 먼저 본 고적조사위원이 고갯길에서 바라본 그 사지(寺址)라고 추정했던 곳과 동일한 지점이었다.

삼천사터는 북한산 나한봉의 서쪽에 해당하며 증봉의 아래에 있고, 진관사와는 표고 328m 한봉우리 거리만큼 떨어진 북쪽의 계곡 상류 북측에 있다. 이 계곡의 출구에서 10여 정(町)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점이 되는 곳으로 이 지점을 육군측량부 5천분의 1지도에 기입하게 되면 비봉 표고 556m 지점으로부터 정북(正北)에서 동쪽으로 26도 기울어지고, 남장대(南將臺) 표고 715m 지점으로부터 정북(正北)에서 서쪽으로 50도 기울어진 선의 교차점에 기입될 것이다.

유적지는 산허리에 수 개(數個)의 제단(壇地)을 형성하고 돌 여장(石牆)이 남아 있고, 오래된 기와 파편이 있고, 『북한지(北漢誌)』 기록에 있는 석조(石槽) 및 대지국사비(大智國師碑) 관련 유물은 비가 오는데다가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잘 찾아낼 수 없었다. 이 지역이 현재는 고양군 신도면(神道面) 진관외리(津寬外里)의 땅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며, 이자훈(李慈訓)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20여 년 전까지 절터 부근에 소부락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계곡 내에는 하나의 민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삼천사 관계의 유물로 충분히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할 때는 본 고적조사위원이 절터를 조사할 때 그대로 지나친 진관외리 부락에서 삼천사터에 이르는 계곡 연변의 소로에 해당하는 계곡 북방 암석(岩石)에 양각된 불상이 있다. 길이가 1장(丈)여의 입상(立像)으로 우수한 조각이다. 신라말 고려초기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자훈(李慈訓)의 말에는 그 길 위에 두부(頭部)가 결손된 석불(石佛)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사할 때 이자훈도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없었다.

삼천사대지국사비(三川寺大智國師碑)의 연구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처음에 원각문(圓覺門)을 소남문(小南門)이라고 추정하여 삼천사터를 수색하는 하나의 재료로 했다. 그런데 여러 문(諸門)의 조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대남문(大南門)이 옛날의 소남문(小南門)이 되는가 의심이 있고, 대남문이 옛날의 소남문이 된다면 그 문에서 문수암(文殊庵)을 지나 비봉 북으로 나오는 이 터의 부근으로 통하는 경로가 존재해야 한다. 이 경로는 존재할 만한 지세(地勢)가 되는 것이다.



삼천사터 원고(4.3.2.1.)



삼천사터 원고(6.5)



경기도 일원 소재 고적 및 유물 삼천사터 원고(2.1)(조선총독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제)

삼천사터는 현재의 삼천사(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4길 127)에서 2km 위쪽에 위치한다. 삼천사는 661년(문무왕 1년)에 원효대사가 개산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1482년(성종 12년)에는 3,000여 명의 승려가 있을 정도로 번창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를 따라 삼천사로 했



1999년 지표조사 당시의 삼천사터 상태

다는 설도 있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들의 집결지로 사용되었으며 임란 후 불탄 것을 진영화상이 복원하였다. 지금의 삼천사는 1970년대 성운 화상이 증창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지정문화재로는 1979년 5월 22일 보물 제657호로 지정된 삼천사터 마애여래입상[三川寺址 摩崖如來立像]이 입구에 있다.

삼천사지에 대한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당초 조사 목적은 삼천사지 석조(石槽)와 대지국사탑비(大智國師塔碑)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비로 인하여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신 절터 입구에 있는 삼천사터 마애여래입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 12월 초에 정명호가 마애여래입상의 실측조사를 실시하였고,³⁴⁾ 1963년 9월에 진홍섭과 정영호가 삼천사지 답사를 통해 대지국사비의 귀부를 확인하게 되었다.³⁵⁾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9년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지표조사를 통해 삼천사지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³⁶⁾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약 2,500㎡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터 11개동, 석축 6개소를 확인하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절터였음을 밝혔다.³⁷⁾ 이를 바탕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삼천사지(三川寺址)>를 개최하기도 했다.³⁸⁾

34) 정명호, 1961, 「삼천사지 입구 마애여래상」, 『고고미술』 10.

35) 진홍섭, 1963, 「삼천사지」, 『한국일보』 1963년 9월 16일자.

36)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1999, 『북한산의 불교유적』, 대한불교조계종.

37)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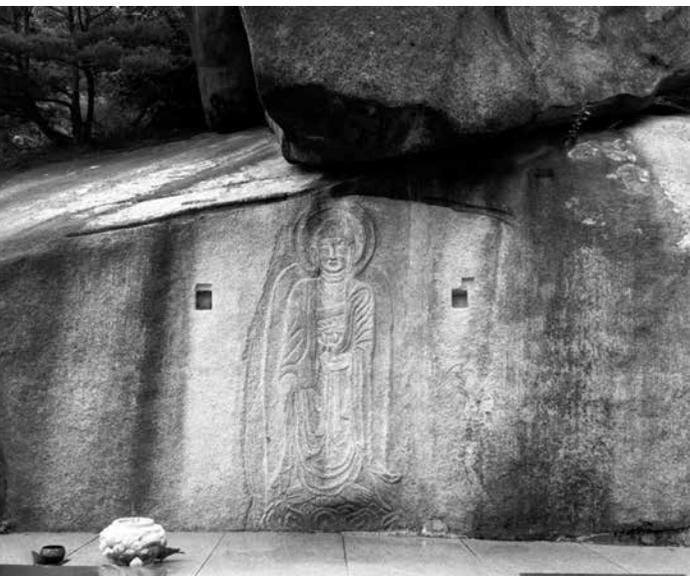
38) 서울역사박물관, 2008, 『삼천사지 三川寺址』.



1999년 지표조사 당시의 삼천사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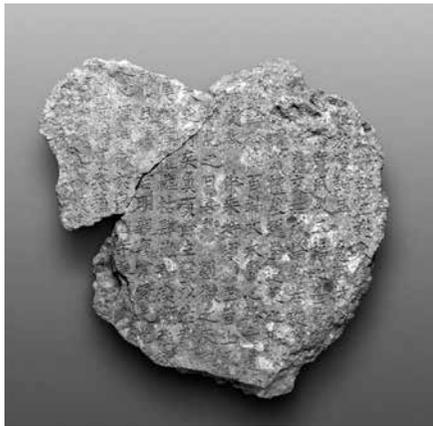
삼천사터 온돌건물(왼쪽)과 기단 및 계단(오른쪽)



보물 제657호 삼천사터 마애여래입상



대지국사비 귀부(왼쪽)와 비문 탁본(오른쪽 : 조선총독부 유리건판_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삼천사터 출토유물(조석, 대지국사탑비 조각, 청자상감문매병, 청자상감용문호)

| 제6장 | 북한산(北漢山)의 여러 사원(寺院) 및 절터(寺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삼각산(三角山) 부근에 있는 사원(寺院) 중 장의사(莊義寺), 승가사(僧伽寺), 중흥사(重興寺)를 기록하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향림(香林), 적석(積石), 청량(淸涼), 중흥(重興), 승가(僧伽), 삼천(三川), 문수(文殊), 진관(津寬), 도성(道成)의 9사와 폐사된 신혈사(神穴寺)를 기록하고, 『북한지(北漢誌)』에는 문수(文殊), 중흥(重興), 용암(龍巖), 보국(輔國), 부왕(扶旺), 원각(元覺), 국령(國寧), 상운(祥雲), 태고(太古), 진국(鎭國), 봉성(奉聖), 원효(元曉)의 13사가 현존하고 향림(香林), 적석(積石), 청량(淸涼), 승가(僧伽), 삼천(三川), 진관(津寬), 도성(道成)의 7사가 폐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혹은 폐사되거나 혹은 부흥하여 현재 산성 내에 존재하는 사원은 태고(太古) 원효(元曉) 봉성(奉聖) 상설(相雪) 부왕(扶旺)의 5사이고 산 밖에 진관(津寬), 승가(僧伽), 문수(文殊)의 3사가 있다. 이하 현존하는 사원에서 순서대로 기술하여 폐사(廢寺)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태고사(太古寺)

태고사는 성내(城內)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중흥동(重興洞)에 있고, 감무승(監務僧) 이자훈(李慈訓) 1인만이 있는 것으로 소사(小寺)이지만 오히려 대웅전과 기타 1 - 2개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현존하는 성내 여러 절중에서 첫 번째가 된다. 이 절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중흥사(重興寺) 중 하나의 암자로서 기록되고 「중흥사는 삼각산에 있다. 고려 승 보우가 일찍이 주지가 되어 동쪽 봉우리에 태고암을 짓고 영가체(永嘉體)를 모방하여 가사(歌)를 한 편씩 지어 죽을 때까지 미치었다. 이색이 지은 비명이 있다(重興寺在三角山高麗僧普愚嘗住寺之東峰扁以太古倣永嘉體作歌一篇及死李穡撰碑銘)」로 되어 있다.

『북한지(北漢誌)』에는 태고사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고 승람(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한 기사가 들어가 있고 더욱이 거기에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 총섭인 승려 성능(聖能)이 보우(普愚)의 유지에 따라 절을 창건하였는데, 총 131칸으로 이름을 태고사라 하였다. 또한 이 태고사에서 는 사비로 사서삼경, 구언해(具諺解), 소미통감, 십구사략, 당시품회, 고문백선, 상례비요, 전등신화, 삼운통고, 천자문, 주자필 등 모두 5,700판을 판각하였다. 또한 금석활자(鑄字 11두(斗))를 준비하였고 또 검탄(黔炭) 1,600석(石)을 마련하여 위급할 때에 쓰도록 대비하였다(築城後總攝僧聖能 普愚遺址經紀剎寺 凡一百三十一間 仍名以太古 又自備物力 刻四書三經 具諺解 少微通鑑 十九史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新話 三韻通考 千字文 朱子筆 共五千七百板 又備鑄字十一斗 又備黔炭一千六百石 以備緩急之用)」라고 부기되어 있다. 두 책(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의 기사를 함께 고찰하면 태고사(太古寺)는 이색(李穡)이 찬(撰)한 비(碑)와 함께 중흥사(重興寺)에 부속된 후에 그 암자는 폐기되어 숙종·영조(肅宗英祖)년간에 이르러 승려 성능(聖能)이 그 유적지에서 부흥하여 태고사라 명명한 것이 된다. 그리고 앞에 기록된 책판은 지금 전부 훼손되어 잔존하는 것이 없다. 이전 주지였던 승려 모씨(某氏)가

떨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절에도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淸虛) 시의 현액(懸額)과 영조 어필의 현액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감무승(監務僧) 이자훈의 말에 의하면 총독부 내무부 출장원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장시켰다고 한다. 서산대산 간액(懸額)은 본 고적조사위원이 미리 그 탁본을 일견(一見)한 바가 있다. 세로[縱]로 1척 3촌 5분, 가로[橫]로 4척 8촌인 판면(版面)으로 다음 문자가 음각으로 되어 있다.

청허시(淸虛詩)

만국의 고대광실도 개미집이요

천하의 호걸들도 하루살이라

밝고 그윽한 달빛 베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은 묘음을 연주하네

萬國去冠如蟻垤 千家豪傑若蛆醜 一窓明月淸虛枕 無限松風韻不齊

청허제(淸虛題)

題 西山大師古蹟后

八道都摠攝之設蓋昉於 西山大師大師法名休靜號淸虛嘗居於關西之妙香山普賢寺時當壬辰之變慨然有爲 國死絕之志伏劍下山迎謁 車駕於龍灣

上諭之曰世亂如此爾可協力弘濟耶休靜泣曰臣雖老病敢不激起義旅爲士卒先以報 聖恩之萬一也 命拜八道十六宗都總攝 諭方岳禮遇之於是大師檄弟子惟政於關東募僧軍七百處英於湖西起一千五百會于順安法興寺助 天兵聲援時倭將平行長據平壤城爲久留計 神宗二十一年春正月八日李提督如松統領三協大將楊元李如栢張世爵等進攷提督先令大師肉薄牧丹峯賊建青白旗發喊放丸約萬餘人擺立 堞上前植鹿角柵子擁盾揚劍益肆猖獗大師手持練 錄城瞬息而登勢如電掣賊不能抵當所向披靡斬首數百級 天兵繼後破含毬普通門城遂崩潰退保密德土窟是夜行長遁去是役也提督親見大師賈勇 酣戰心甚奇之贈詩褒詡文武將佐九十餘員長箋列名修書幣致禮是 帖藏於普賢寺爲永世之寶云 天朝諸公之所尊敬既如此則古之名將何以加茲其貞忠大絕可以漢北都摠攝雲上人且語古蹟之源委咸曰此吾先師之盛蹟也不可泯晦願書一通 揭于緇營以爲萬歲之範則此非但尊其師傳諸久而已我穆陵朝中興之烈

神宗皇帝再造東方之恩庶幾於戲不忘謹稽事實略摭其槩如右云

時壬辰後二百二十五年丙子仲夏念日坡平后人尹仁權敬識

緇營將領

嘉義大夫時任漢北都摠攝	釋等雲	正憲大夫前任漢北龍珠兩鎮都摠攝	釋哲學
資憲大夫前任漢北都摠攝	釋肯倫	資憲大夫前任南北兩鎮都摠攝	釋晟日
嘉義大夫前任漢北都摠攝	釋景鑑	嘉義大夫前任緇營中軍	釋海學
嘉義大夫前任緇營中軍	釋錦添	嘉義大夫前任緇營中軍	釋性澤
嘉義大夫前任緇營中軍	釋進贊	嘉義大夫前任緇營中軍	釋贊愚

通政大夫持山中有司
嘉義大夫緇營右兵房
十奇僧將
嘉善大夫
(以上)

釋智榮 嘉義大夫緇營左兵房
釋桂允
釋正益 嘉善

釋道弘
釋順英

영조(英祖) 어필 현액(懸額)은 그 문자를 알 수 없다.

태고사에 남아 있는 유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색(李穡)이 지은 보우(普愚)³⁹⁾ 스님의 탑비(塔碑) 및 석종(石鐘) 석탑(石塔)이다. 비(碑)는 절 동쪽의 작은 대지(小臺地)에 있고 그 위쪽에 석종(石鐘), 석탑(石塔)이 있다.

보우탑비(普愚塔碑)는 비각 안에 있고(사진 5), 귀부(龜趺) 이수(螭首)가 완비되어 있다. 남에서 동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서있고, 비신(碑身)은 암석의 조각이 치밀하여 대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화강석(花崗石)인 것 같다. 비신 면의 높이는 7척 7촌 폭은 3척 6촌 두께는 6촌 9분이다. 이수는 비신보다도 좌우로 각 1척 1촌, 전후에 각 9촌이 나와 장방형(長方形)이 되고 4면에는 용구름(龍雲) 같은 조각이 있고, 하면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어도 그 석재는 보통의 화강석으로 부조 조각 역시 아름답지 않고, 이미 모호하여 원래 새겨진 형태를 판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귀부 역시 화강석으로 가로(橫) 6척 5촌 세로(縱) 6척 4-5촌의 사각형(方形)에 가깝고, 귀갑문(龜甲紋)은 작고 이미 마멸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기공(技工) 역시 우수한 것은 아니다.

이 비(碑)는 고려 우왕 11년 즉 명 홍무(明洪武) 18년 을축(乙丑)에 세워진 것으로 이색(李穡)

39) 보우(普愚:1301-1382) 일명 보허. 호는 태고, 고려 말기 권문세족인 홍주홍씨 출신으로, 아버지는 연(鰲)이고, 어머니는 정씨이다. 13세 때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에 속하는 회암사의 광지선사에게 출가했다. 19세 때에는 '만법귀일'의 화두를 참구했으며, 화엄학에 정진해 26세에 화엄선에 합격했다. 그러나 경전 공부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선(禪)의 수행으로 돌아가 정진하기 위해, 용문산 상원암에 들어갔다가 감로사에서 고행했다. 1337년(충숙왕 복위 6) 송도 전단원에서 참선하여 이듬해 정월 크게 깨달았다. 그뒤 삼각산 중흥사에 있다가 1341년(충혜왕 복위 2) 중흥사 쪽에 태고암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태고암가>를 지었다. 1346년 중국의 선승에게 인가를 받으러 원(元)에 건너가 임제종 18대 법손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에 가서 2년간 머물렀는데, 원의 마지막 왕인 순제(順帝)에게 <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 1348년 귀국 후 광주 미원장에 우거하면서 친척을 모아 일가를 이루고 공민왕에게 요구하여 현(顯)으로 승격시키고 감무를 설치하게 했다. 1356년(공민왕 5) 왕사로 책봉된 뒤 조정에 별정직 기관인 원용부를 설치하고 승직의 임명권을 장악했는데, 이는 종래의 교단운영 원칙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고려의 전통적인 오교양종의 교단체제도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는 구산선문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수도를 남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건의는 신돈과의 권력다툼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돈이 집권하자 보우는 사승으로 지목받고 속리산에 금교당했다. 신돈이 죽은 후 공민왕은 그를 국사로 봉한 뒤 영원사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병을 핑계삼아 사양했다. 1381년(우왕 7) 양산사로 옮겼는데 이때 우왕이 다시 국사로 봉했다. 1382년 소설사로 돌아와 죽었다. 보우는 먼저 시대의 폐단과 운수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주장하고, 당시의 구산선문에서의 파벌싸움이 심각함을 시대의 큰 폐단으로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하여 구산을 일문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선문의 규칙도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안은 구산선문을 넘어 전체 불교 교단의 문제로 확대되지 못했고, 당시 불교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당시 국가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던 권문세족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의 후원을 받으며 농정을 확대하고 신돈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는 사상적으로 사교입선(捨教入禪)의 입장을 취했다. 즉 임제종의 간화선을 내세워 선의 지적 이해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자들 가르치는 데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무자화두만을 참구하도록 했다. 보우가 주장하는 선의 실천방법은 처음부터 선문의 쇠락(衰頹)한 활구(活句), 즉 화두만을 철저히 참구할 것이며, 만일 그것에서 소득이 있으면 본분종사(本分宗師)를 찾아가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해도 용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가 거의 모든 경우에 내세우고 있었던 무자와 같은 화두에는 지해나 사랑분별(思量分別)이 용납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조선 중기 휴정의 제자들에게 의해 보우의 법통이 크게 강조되었다. 저서로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尙語錄)>·<태고유음(太古遺音)> 등이 있다. 탑호(塔號)는 보월승공(寶月昇空), 시호는 원증(圓證)이다.

이 짓고 권주(權鑄)⁴⁰⁾가 쓴 것이다. 비음기(碑陰記)가 있는데 여기에 이태조(이성계)의 성명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문에 대해서는 다음 다른 비문과 함께 달리 연구할 것이다.

석종(石鐘) 석탑(石塔)은 가까이 있으며 석종은 석탑보다 한 단계 높은 지면위에 건립되어 있다(사진 6). 조사할 때 우천(雨天)인데다가 시간 형편상 실측(實測)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다.

이 절 앞에 오층석탑(五重石塔)이 있었는데 지금 옮겨져 경성 현병대의 앞뜰에 있고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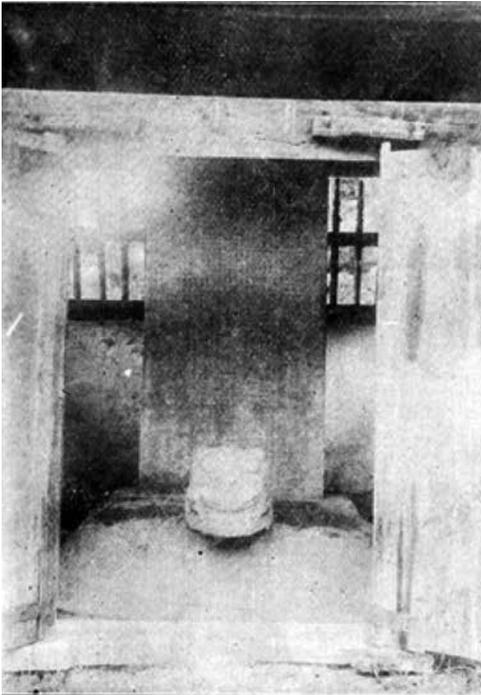


사진 5.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태고사 보우탑비



사진 6.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태고사 보은석종(위)과 석탑(아래)

40) 권주(權鑄?-1394) 본관은 안동(安東), 할아버지는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준(權準), 아버지는 현복군(玄福君) 권엄(權廉), 어머니는 찬성사 조련(趙蓮)의 딸이며, 부인은 첨의평리(僉議評理) 정빈(鄭頻)의 딸이다.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으며 일찍이 등제하여 충주목사·황주목사를 역임하였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남천할 때, 전법총랑(典法總郎)으로서 왕을 호종한 공으로 1363년 신축호종이등공신(辛丑扈從二等功臣)에 서훈되었다. 1374년에는 홍륜(洪倫)·최만생(崔萬生)과 더불어 조카 권진(權進)이 공민왕을 살해하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386년(우왕 12) 전공판서(典工判書)로 있을 때에 집을 수리하여 왕의 총비 숙녕옹주(肅寧翁主)의 궁으로 제공하여 시좌소(時座所: 그 당시 왕이 거처하는 궁전)로 삼으니 백관들의 정사가 이 곳에서 품계되었다. 1389년(창왕 1)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과거 시험을 관장하였고 이어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올랐다. 유필로는 여주신륜사의 「신륜사장각기(神勸寺藏閣記)」, 묘향산안심사(安心寺)의 「지공나옹사리석종비(指空懶翁舍利石鐘碑)」, 고양시태고사(太古寺)의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가 있다.

(해제)

태고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에 위치한 사찰로서 1341년에 고려후기 승려 보우가 창건한 사찰로서 한국불교태고종에 속한다. 현재 태고사에는 1977년 8월 22일 보물 제611호로 지정된 태고사원증국사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와 1983년 12월 27일 보물 제749호로 지정된 태고사원증국사탑(太古寺圓證國師塔)이 있다.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는 높이 3.42m, 비신의 높이 2.34m, 너비 1.09m, 두께 0.22m이다. 고려말의 대표적인 스님인 원증국사 보우(普愚)의 탑비로서 1385년(우왕 11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이색(李穡)이 짓고, 글씨는 권주(權鑄)가 썼다. 비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모두 갖춘 형태이다. 그러나 귀부의 조각과 이수의 조각 모두 퇴화된 형태이다. 비신의 가장 위에는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아래 해서체로 글자들을 새웠다.

태고사 원증국사탑은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이다. 원증대사탑비가 1341년에 제작된 점을 감안할 때 보우의 사리탑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탑의 구조는 기단과 탑신, 머리장식으로 되어 있는 3단 구조이다.

태고사에 대한 정식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태고사(왼쪽 : 출처_민족문화대백과사전)와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오른쪽)



보물 제611호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749호 태고사 원증국사탑

2. 승가사(僧伽寺)

승가사는 북한산 여러 사원(寺院)중 비교적 완전한 것 중의 하나로 비봉(碑峰)에 있다. 『고려사(高麗史)』 세가 선종(宣宗) 7년 경오(庚午) 10월조에 「병오(丙午) 왕이 태후를 모시고 삼각산(三角山)에 행차하였다. 경술(庚戌) <왕이>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고, 그 길로 장의사(藏義寺)에 행차하였다. (丙午王奉太后幸三角山庚戌幸僧伽窟遂幸藏義寺云云)」라 하고, 또 숙종 4년 윤9월조에 「갑술(甲戌) <왕이>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여 재(齋)를 열고, 은으로 만든 향완(香椀)과 수로(手爐) 각 1벌과 금강자(金剛子) 및 수정염주(水精念珠) 각 1관, 금대(金帶) 1개와 아울러 금화과(金花果)를 수놓은 깃발(幡), 차, 향, 의대(衣對), 금기(金綺)를 시주하였다(甲戌幸僧伽窟設齋仍施銀香椀手爐各一事金剛子水精念珠各一貫金帶一腰并金色果繡幡茶香衣對金綺)」라 하고, 동 9년 8월조에 「병오(丙午) 어가가 상자원(常慈院)에 머물자, 시어사(侍御史) 최위(崔謂)를 보내 어의(御衣)와 차와 향을 가지고 삼각산(三角山) 승가굴(僧伽窟)에 가서 비가 오기를 빌게 하였다(丙午遣侍御史崔謂齎御衣茶香禱雨于三角山僧伽窟)」로 되어 있고, 기타 이 절의 이름이 왕왕 『고려사』에서 보여진다. 고려 건통(乾統) 6년 이오(李顥)가 쓴 이 절의 중수기(重修記)에 인용한 신라 최치원 문집(崔致遠文集)의 기사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낭적사(浪跡寺)의 승려 수태(秀台)가 당의 서역승 승가대사(僧伽大師)의 성스러운 행적(聖跡)을 듣고 지세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 굴을 만들고 돌로 대사의 모습을 조각하여 모셨다는 것이 이 절의 개창전(開創傳)이다. 이 절은 신영리(新營里) 계곡을 눈 아래로 하여 백악(白岳)과 인왕산(仁王山) 사이에서 경성



사진 7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승가사

지역의 일부분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방문객이 적지 않다.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승가사(僧伽寺)는 삼각산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속하며 밭 145결을 주었다(僧伽寺在三角山南屬禪宗給田百四十五結)」로 되어 있고, 『여지승람』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다(사진



사진 7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승가사

7). 이 절에 가치 있는 유물은 1) 고비부석(古碑趺石) 2) 마애불상(磨崖佛像) 3) 석굴 내 안치되어 있는 석불이다.

(하나) 고비부석(古碑趺石)은 비신(碑身) 및 이수(螭首)를 상실한 부석(趺石)만 절의 후방 계곡 가까운 경사진 곳에 남아 있다.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승가비(僧伽碑)는 양주 삼각산 승가굴 중수기를 쓴 이오(李顥)⁴¹⁾의 문장과 동국 금석평(東國金石評)에 탄연(坦然)⁴²⁾이 써서 평한 「승가사 비 전액(篆額)의 솜씨는 양주 삼각산(三角山)에서 우수하다(僧伽寺碑額篆句而秀楊州三角山)」라고 한 것은 이 비(碑)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수기는 다행히 동문선(東文選) 권64에 수록되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다. (문중(文中)에 의각정명(宜刻貞氓) 운운 하는 것은 그 비에 새기는 일이 분명하다.) 이오(李顥)는 고려사 세가(世家)에 산견(散見)하는 바에 의하면 예종(睿宗) 2년 문덕전 대학사(文德殿大學士)가 되고 동 5년경인 6월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어 죽은 사람이다.

41) 이오(李顥:1050-1110) 호가 금강거사(金剛居士)이고 인천이씨(仁川李氏)이다. 숙종(肅宗) 예종(睿宗) 때 조정에 들어가 관직은 문하시중 태학사(太學士)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42) 탄연(坦然:1070-1159) 속성은 손씨(孫氏), 호는 목암(默巖),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다. 아버지는 교위 숙(肅)이며, 어머니는 안씨(安氏)이다. 8, 9세에 글을 읽고 시를 지었으며, 또한 글씨를 잘 썼다. 13세에 이미 6경의 내용을 이해했다. 15세에 명경과에 합격하고, 궁중에 들어가 후일 예종이 된 세자를 가르쳤다. 19세에 궁중을 몰래 나와 개성 북쪽 안적사(安寂寺)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뒤 광명사로 옮겨 사굴산파의 혜소국사(慧昭國師)에게서 선을 배워 인정을 받았다. 이후 사방을 돌아다니며 선을 닦았으나, 노모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다. 1104년(숙종 9) 대선에 합격했으며, 왕명으로 중원(中原) 의림사(義林寺)의 주지를 지냈다. 1106년(예종 1) 대사, 1108년 중대사(重大師)가 되었으며, 1114년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되면서 법복을 하사받았다. 1117년 선암사(禪巖寺) 주지가 되었으며 1120년 선사(禪師)가 되었다. 1122년 인종으로부터 첨수가사(添修架梁)를 하사받았으며, 1127년(인종 5) 보리연사(菩提淵寺) 주지가 되었다. 1128년 법회를 개최한 이후로 보리연사가 위치한 산에 있던 많은 뱀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1131년 대선사로 제수받을 때 금관가사(金縷袈裟)를 하사받았다. 1135년 보제사 제석원(帝釋院) 주지 겸 영원사(靈原寺) 주지가 되었다. 1137년 다시 서울로 불려왔으며 1139년 광명사 주지가 되었다. 이후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왕의 자문에 응했으며, 1145년 마침내 왕사(王師)가 되었다. 1147년(의종 1) 진주 단속사로 은퇴하여 제자들을 양성하고 중풍을 크게 떨쳤다. 탄연은 당시 거사로서 귀족불교의 성향을 띠고 있던 이자현(李資玄)의 문하에서 《능엄경(楞嚴經)》에 근거한 선을 공부했다. 또한 일찍이 자신이 지은 《사위외송(四威儀頌)》·《상당어구(上堂語句)》를 송나라 개심(介諷)에게 보내어 인정을 받았으며, 이때 개심의 제자인 계환·도응(道膺) 등과도 서신을 통해 도우가 될 것을 약속했는데, 이들은 모두 송대 임제종 황룡파(黃龍派) 승려들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조계종 승려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특히 정통 임제종 승려를 자처하여 고려 중기 선종을 부흥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편 탄연은 서예에도 능했다. 특히 왕희지체를 잘 썼는데, 청평 문수원(文殊院) 중수비와 예천 북룡사비 및 삼각산 승가사 중수비는 모두 그의 글씨이다. 저서로는 시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으며, 《삼각산문수사시(三角山文殊寺詩)》 등의 수 편이 《동문선(東文選)》에 전해진다. 제자로는 연접(淵潔)이 있고, 국사로 추증되었다. 시호는 대감(大鑑)이다.

부석(硃石: 사진 8호)은 화강암 3단으로 작성되고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하단(下段)의 길이는 5척 7촌 4분이고, 중단(中段)은 길이가 하단과 큰 차이가 없는 5척 4촌이다. 상단(上段) 아래의 길이는 5척 3촌 2분이고, (상단) 위의 길이는 3척 8촌이다. 총 높이는 2척 6촌이고, 부석(硃石)에 둘러있는 비신의 장붓구멍(稱穴)은 길이 3척5촌2분 폭이 5촌5분이다. 비신(碑身)의 면 길이 및 두께는 여기에 좌우전후 각 1촌 내지 1촌5분을 더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비는 고의적으로 파괴되었던 것 같고, 그것이 잔존했던 연대는 불명하지만 북한지(北漢誌)에 「고려 이오가 찬한 중수기가 있다(有高麗李顥所撰重修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대개 이 비를 가리키는 것 같고,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대동금석평(大東金石評)에 그것을 저록한 것에서 추정하면 아마도 영조시대까지 잔존했던 것 같다. 그래도 금석평(金石評)에 액전(額箋)만 기록한 것을 보면 이때 비신(碑身)은 이미 상실되고, 이수(螭首)가 오늘날 상실되었지만 오히려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 석실(石室)내 안치된 석불(石佛)은 등신(等身)의 좌상(坐像)으로 석회(石灰)로 도배를 거듭하여 원래 새겨진 형태(形貌)를 보기 어렵다. 절 뒤의 작은 석굴에 접한 소당(小堂)을 세워 안치하여 석실내에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오(李顥)의 중수기에 인용한 최치원 문집(崔致遠文集)에 신라시대 낭적사(浪跡寺)의 승려 수태(秀台)가 승가대사(僧伽大師)의 성스러운 행적(聖跡)을 듣고 대사의 모습을 돌로 조각한 것이 이 석상(石像)인가 혹은 후에 기록한 거암(巨岩)에 양각한 거상(巨像)인가 혹은 다른 곳에 있어 지금 전해지지 않는가, 그것을 결정하기 어려워도 거암의 상은 석가불(釋迦佛)인 것 같고 또 그 전후에 굴을 형성하지 않고 또 그 흔적이 없는데다가 중수기(重修記)에 「연말에 아울러 임금님의 옷을 바치는 것(歲抄兼獻襪衣)」이라고 말한 것은 이 거암면(巨岩面) 각상(刻像)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으로서 오늘날 전해진다면 굴내의 석상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이오(李顥)의 중수기(重修記)에 그 영험을 기록하여 “나라에 천재지변이나 홍수와 가뭄의 재이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여 물리칠 것을 빌면 그 자리에서 응험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신을 보내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각기 3일간 드리고 연말에 아울러 임금님의 옷을 바치는 것으로서 항상적인 규칙으로 삼았다. 누가 옛 성인이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두 밝고 또한 자비롭다고 감탄한다. 심지어 아이가 없는 부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 곧바로 훌륭한 아들을 낳고, 말을 잃어버린 노인이 정성을 다하여 아뢰면 곧바로 옛 말을 찾으며, 병든 사람이 간절히 고하면 병상에서 심음하던 소리가 곧 멈추고, 관직을 구하는 소리가 간절하면 조정에 막혔던 자리가 곧바로 열리었다. 혹은 소금을 구하면 바다 상인이 소금을 구워 가져오고, 때로 모자를 청하면 서울의 여자가 만들어 바치었다. 그 밖의 신기한 영험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없다. (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凡可疑之事禱以禳之無不立應故遣使春秋設齋各三日歲抄兼獻襪衣用爲恒例孰云乎去聖愈遠成嘆乎既明且慈至如無兒婦穉 額而祈卽生良胤失馬翁淪誠以白還得舊驂告病荀哀蟻榻之聞聲息息求官儻切鸞庭之滯迹俄翔或乞監而海客炎來或請帽而京姬獻其餘神驗不可彈論” 라고 되어 있다. 승가대사(僧伽大師)는 당 경룡(唐景龍) 4년 즉 신라 효소왕

원년(孝昭王元年)에 죽어 그 상(像)을 만들었다면 이 시대보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석불(石佛)은 석회(石灰)로 도배를 거듭하여 그것을 세척(洗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 마애불상(磨崖佛像): 마애불상은 절의 서쪽에 절에서 조금 위쪽에 거암(巨巖)의 바위에 양각한 거대한 불상이다. 좌상으로 석가불인 것 같다. 다른 돌로 천개(天蓋)를 만들어 머리 위에 감입(嵌入)시켜 전체가 조각된 이런 종류의 불상 중 우수한 것이 된다.(사진 9호) 그 수법이 후세 공인(工人)이 미치는 바가 아니다. 이 상(像)이 고려시대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으나 그 설의 근거를 알 수는 없다. 이것이 신라시대의 작품이라거나 고려초기의 작품이라는 것은 판별하기 곤란한 것이다.



사진 8.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승가사 마애불상

이 상(像)이 승가대사(僧伽大師)의 상(像)이 아닌가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이고, 이 상(像)을 조각한 바위에는 이 바위에 의지하여 당우(堂宇:당의 처마)를 만들어 상(像)을 뒤덮은 흔적이 있고, 바위에는 나무를 끼워 넣은 수개의 구멍이 존재하고, 이 당우의 광대함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주위의 황폐함이 매우 심하다.

(넷)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한마디 말해야 할 것은 역사에는 항상 승가굴(僧伽窟)이라 말하면 대굴(大窟)이라고 상상하지만, 지금 하나의 소굴이외에는 굴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혹은 붕괴하여 지역이 변한 것이 있는 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절(本刹)은 북한지에 지금 폐사되었다면 영조시대에 폐사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날 사원은 그 후에 재건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그것을 고증할 자료가 결핍되어 있다. 정말로 폐사되었다고 하면 비(碑)의 마멸도 이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도 역시 이 사이에 상실되고 지금 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원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이 폐사를 말하는 사실 역시 더욱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이 절이 고려시대에 있어서 왕자(王者)의 존숭을 받았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중수기 전문을 보아야할 것이다. 문(文)은 이미 기록된 것처럼 이오(李翹)가 지은 것이고, 전액(篆額)은 승려 탄연(坦然)이 썼다는 비문도 역시 이 승려의 글씨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승가사 원고(4.3.2.1.)



승가사 원고(7.6.5.)와 승가사 중수비 탁본 유리권반 사진

3. 문수사(文殊寺)

문수사는 북한산성 대남문(大南門) 밖에 있고, 관람객의 숙박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작은 절이다. 절 뒤에 큰 바위 굴이 있고 문수석상(文殊石像)을 안치했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기재되어 있는 고려시대부터의 옛 절이다. 문수석상(文殊石像)에는 고려시대의 각명(刻銘)이 있다는 전문(傳聞)이 있어도, 본 고적조사위원이 이 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또한 앞의 일정이 급해서 하나도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해제)

문수사는 1109년(고려 예종 4년)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51년(문종 1년)에는 연창공주(延昌公主)가 중창한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지만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의 사찰은 1957년 신수(信誨) 스님이 새롭게 지은 것이다. 문수사에 대한 정식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진관사(津寬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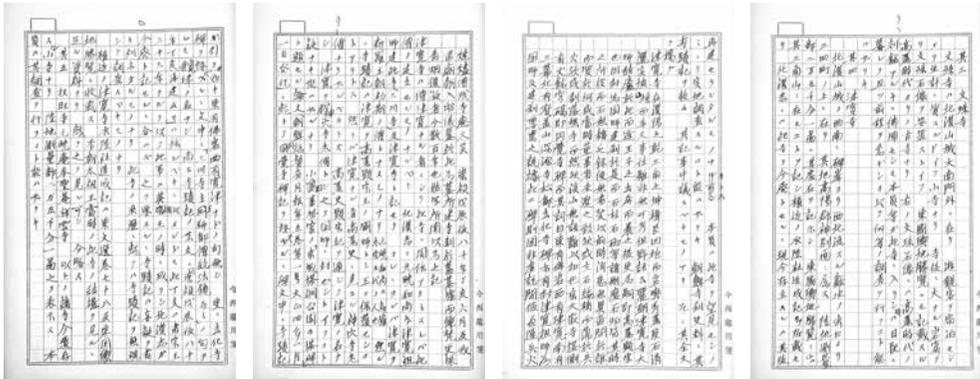
(진관사는) 북한산성의 서남쪽으로 비봉(碑峰)에서 서북으로 흐르는 계곡물 출구에서 3-4정(町) 위에 있고, 이곳은 고양군 신도면에 속한다. 육지측량부 25,000분의 1 지도에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진관사가) 삼각산(三角山)에 있다고 기록하고, 권근(權近)의 수록사 조성기(水陸社造成記)에 부재(附載)되어 있다. 『북한지(北漢誌)』에는 이 절이 지금 폐사되었다고 하여 현재 지금 존립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재건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이 절을 멀리 바라보는 것만으로 실지조사를 잘 할 수 없었다. 조선 사찰 자료에 이 『사적기(寺蹟記)』를 수록하고, 그 기사 중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 다음에 그 전문을 제시한다.

津寬寺在漢陽之乾三角之坤揖良回抱而岩巒秀麗泉石清灑實塚塏而年久事往雖非無可考但野語云麗朝津寬寺大師結廬於此而逢王子之出奔而養之後更爲嗣即高麗顯宗也因封爲國師建刹於是而石柱石砌 等諸刪磨石物皆其時之所役而石無楮乏錄便無書契以前時消息無異畚問於誰而質於何或當時董事者未遑之致歟或立石編楮而蕩於兵火歟或剝落樵手而然歟溪山無語難以扣也京大寂寺塔側有丈餘穹礪卽圓覺寺碑而其詞曰東有佛岩西有津寬南有三幕北有寶蓋山深源寺松都玄化寺碑亦有封津寬祖師爲國師及建刹尊崇之說據此二碑則固非虛說問值否運兵火燒燼僧殘寺廢久矣 崇禎戊辰後八十年丁亥六月及我 肅廟朝入昭儀墓於此爲墓所建寺刹於舊基墟而鍾梵更振香烟復凝者今數百年也姑寫所聞以爲之記

진관사는 승려 진관(津寬)이 이 절에 관계가 있다면, 이 승려가 건립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北漢誌)』에 원효화상(元曉和尚)과 진관조사(津寬祖師)가 삼천사(三川寺)와 진관사(津寬寺)를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면 진관은 신라시대 초기의 승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원효화상은 신라 태종 시기의 인물이다). 그런데 사적기에는 진관이 고려 현종 때의 국사(國師)로 왕을 보호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진관(津寬)이라는 자는 『고려사』에서 보아 신혈사(神穴寺) 노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다 서기관(小田書記官)의 「경성 탐동(京城塔洞) 공원의 탐비」라는 논문(조선 총독부 월보 제5권 제1호 다이쇼 4년(1915) 1월 1일 발행)에서 원각사비(圓覺寺碑)에 기록된 것을 조사하여 비문 중에 사적기를 인용하면서 ‘동쪽에 불암 서쪽에 진관이 있다(東有佛岩西有津寬)’라는 구절이 없고, 더욱이 현화사비(玄化寺碑)를 조사하여 문중에 「삼천사 사주 왕사 도승통 법경(三川寺主王師都僧統法鏡云云)」의 구절에도 진관의 이름이 없다. 오히려 사적기 말문에 「승정 무진후 80년 정해 재건(崇禎戊辰後八十年丁亥再建云云)」은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이 정해(丁亥)는 숙종 33년이 되므로 이 일은 영조 때에 만들어진 북한지에서 지금 폐사되었다는 기록과 어울린다. 이것을 요약하면 사적기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妄誕]로 쓰여진 것이 되고, 이 절의 내력에 대해서는 사적

기를 무시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권근(權近)⁴³⁾의 진관사 수록사 조성기는 『동문선(東文選)』 권78 및 『동국여지승람』에 수록 기재되어 있다. 조선 태조 당시 이 절의 구조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고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이나 지금은 생략한다.



문수사(1), 진관사(4.3.2.1) 원고

(해제)

진관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에 위치하고 있다. 진관사의 창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1011년(현종 2년)에 진관대사(津寬大師)를 위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것을 최근에 복원하였다. 진관사가 사료상에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대이다. 먼저 『태조실록(太祖實錄)』 11권 6년 1월 조에는 태조가 진관사에 행차한 내용이 전한다. 그리고 12권 6년 9월 조에는 태조가 진관사에 행차한 후 서교(西郊)에서 유숙하고 25일 환궁한 기록이 전한다. 이후 태조 7년 1월 조에는 태조가 진관사에 수록재(水陸齋)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선 건국과 함께 진관사는 행궁(行宮)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세종 6년에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기사가 전한다. 이 가운데 진관사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원속전 60결에 더해 원속전 90결과 수록위전 100결, 거승은 70명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체로 이 시기 사찰의 승려가 70~1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진관사의 규모도 평균적인 범주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진관사가 유명해진 것은 2009년 칠성각 내부 해체 과정에서 태극기와 독립신문 창간호 및 20여 점의 독립운동 자료가 알려지면서부터이다. 특히 태극기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0년 2월 25일 등록문화재 제458호로 지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수록재가 있다.

43) 권근(權近:1352-1409)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호는 양촌(陽村)이다.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했고, 조선 개국 후 사병(私兵)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 확립에 큰 공을 세웠다. 성리학자이면서 문장에도 뛰어나 하륜 등과 함께 역사서인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했다.

진관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⁴⁴⁾ 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터 3동과 답도시설, 석축 시설등이 발견되었으며, 유물로는 금동여래입상 및 다수의 기와와 자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조사 결과는 모두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창건과 관련된 고려시대 유적,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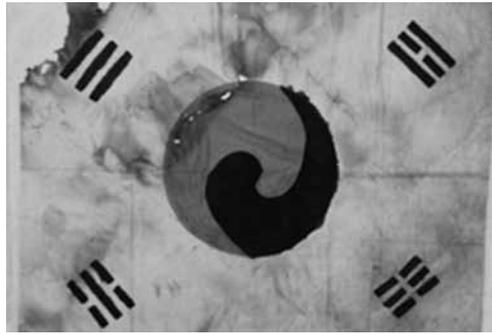


진관사 발굴조사 후 사진



진관사 발굴조사 1구역 제1건물지(왼쪽) 및 제2건물지(오른쪽)

44) 서울역사박물관, 2012, 『진관사 발굴조사 보고서』.



진관사 발굴조사 북동쪽 석축 상태(왼쪽)와 등록문화재 제126호 태극기

5. 부왕사(扶旺寺) 원효암(元曉庵) 봉성암(奉聖庵) 상운사(祥雲寺)

부왕사(扶旺寺), 원효암(元曉庵), 봉성암(奉聖庵), 상운사(祥雲寺) 이상의 절들은 지금 잔존하고 있는 작은 절이다. 육지측량부 25,000분의 1 지도로 표시하고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이 조사를 할 수 없었다.

6. 중흥사터[重興寺址]

중흥사(重興寺)는 북한산 중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한다. 성내의 중앙 중흥동(重興洞)에 있는 것으로 지금은 돌담(石垣) 등이 남아 있지 않고 불탄 후(焚失後) 오히려 한 가옥(一屋)이 남아 있어 헌병 출장소로 사용했으나 다이쇼 4년(1915년) 대홍수로 그 반을 유실하였다.

7. 신혈사터[神穴寺址]

고려 현종(顯宗)이 왕자였을 때 임시 거처했다는 신혈사(神穴寺)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그것을 고적조(古跡條)에 기록하고 당시 이미 폐사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유적지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중의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북한산성 대서문(大西門)에서 진관사(津寬寺)에 이르는 도로의 서쪽에 해당하는 곳에 그 유적지를 표시하고, 그것을 육지측량부 25,000분의 1 지도에서 조사하면 그 지도의 표고 95m의 작은 구릉(小丘) 및 83m의 작은 구릉 주변에 상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지도에 중흥동이라 기록된 부락 주변에서 수색하여 그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8. 보국(輔國), 보광(普光), 원각(圓覺), 국령(國寧), 진국(鎭國), 용암(龍巖)의 절터[寺址]

앞의 여러 절터(諸寺址)는 그것을 『북한지』에 부속된 <북한도(北漢圖)>에 의하면

보국사터[輔國寺址]는 지금의 보국문(輔國門) 안에 있고,
 보광사터[普光寺址]는 앞의 보국사지와 대성문(大城門) 사이의 성내의 땅에 있어야 할 것이다.
 원각사터[圓覺寺址]는 원각문(圓覺門) 내에
 국령사터[國寧寺址]는 국령문(國寧門) 내에
 진국사터[鎭國寺址]는 중성문내(中成門內) 중성문 중흥사문(重興寺門)의 북쪽에
 용암사터[龍巖寺址]는 용암문내(龍巖門內)에 있다.

9. 향림(香林), 적석(積石), 청량(淸涼), 도성(道成), 원각(元覺), 서암(西岩)의 절터(寺址)

향림사터[香林寺址]는 북한지에 비봉 남쪽에 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2 번에 걸쳐 태조왕의 재궁(宰宮)을 옮긴 절이다. 필시 비봉 아래에 있어야 하며, 여지승람에는 이 절의 명칭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잔존했던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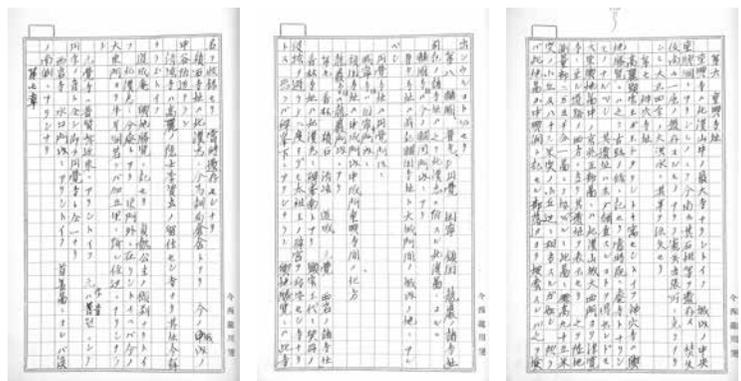
적석사터[積石寺址]는 북한지에 지금 위훈국 창사(爲訓局倉舍)가 되어 지금의 성내 중곡(中谷) 부근이다.

청량사(淸涼寺)는 고려 은사(隱士) 이자현(李資玄)이 거주한 절이다. 그 터는 지금 상세하지 않다.

도성암(道成庵)은 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고,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이라 한다. 북한지에 지금 폐사되어 있고, 동문(東門)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동문(大東門)에서 우이동(牛耳洞) 혹은 5리를 더 내려오는 길 주변에 있어야 한다.

원각사(元覺寺)는 보현봉 근동(近東)에 있다고 한다. 원(元)자는 원(圓)자의 음과 동일하다. 즉 원각사(圓覺寺)와 동일한 것이다.

서암사(西岩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어야 한다. 수선도(首善圖)에 의하면 계곡의 남측에 있는 것이 된다.



중흥사터 등 기타 절터 원고(3.2.1.)

(해제)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사찰 가운데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서암사터, 증흥사터, 부왕사터가 있다. 서암사(西岩寺)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45-35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8월 13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서암사는 1711년(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영구화하기 위해 축성 후 건립한 13개의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서암사는 광현(廣軒) 스님이 133칸 규모로 창건하였는데, 고려 문인공 민지(閔漬: 1248-1326년)가 살았던 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지사(閔漬寺)로 불리기도 하였다. 서암사는 수문 일대의 산성수비 역할을 담당하다가 갑오개혁 이후 19세기 말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암사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1991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지표조사로 시작된다.⁴⁵⁾ 이후 총 2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1차 발굴조사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06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25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건물터 1동, 축대, 담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⁴⁶⁾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 11월 28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주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역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2차 발굴조사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3년 4월 25일부터 동년 11월 22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⁴⁷⁾ 조사 결과 건물터 2동, 담장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증흥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1992년 12월 31일 경기도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었다. 증흥사는 고려 전기 사찰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말기에 보우(普愚) 스님이 고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북한지(北漢誌)』에는 30칸 규모의 작은 절이었으나, 1715년(숙종 41년) 136칸의 큰 사찰로 증축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191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무너진 뒤 현재와 같이 폐사(廢寺)되었다.

증흥사터에 대한 발굴조사는 두 개의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우선 1996년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터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증흥사 대웅전과 요사체가 복원되었다.⁴⁸⁾ 다음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6일,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석렬 2기, 건물지 4동, 만세루터, 축대, 담장지, 기단 및 적심 등을 확인하였다.⁴⁹⁾

부왕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있다. 부왕사는 일제강점기 봉은사(奉恩寺)의 말사로서 1717년(숙종 43년)에 심운(審雲) 스님이 창건하였다. 부왕사는 서암사와 함께 북한산성을 영구화하기 위해 축성 후 건립한 사찰 가운데 하나였다. 폐기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부왕사터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8년 7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조사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45)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北漢山城 地表調査報告書』.

46)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북한산 서암사지』.

47)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북한산 서암사지』Ⅱ.

48)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7, 『북한산 증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49) 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북한산 증흥사지』Ⅱ.



서암사터 A구역 발굴조사 현황(왼쪽)과 서쪽 건물터(오른쪽)



서암사터 서쪽 창고터(왼쪽)와 기와 배수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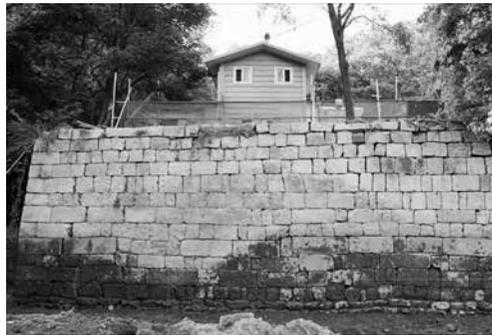
1902년의 중흥사(『조선고적도보』)



1911년 중흥사(왼쪽_성베네딕토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와 1912년 중흥사(오른쪽_『꼬레아 에 꼬레아니』)



중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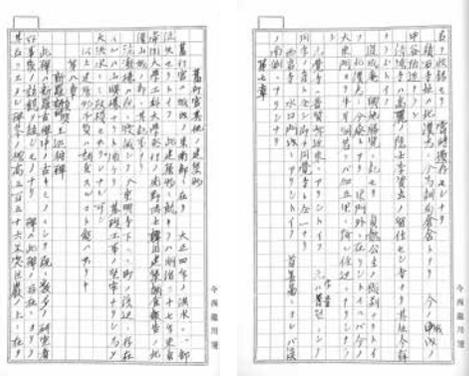
중흥사터 필도도총섭 승영터(왼쪽)와 만세루 서쪽 축대(오른쪽)

| 제7장 | 옛 행궁(行宮)과 기타 건축물

옛 행궁은 성내의 동남부에 있다. 다이쇼 4년(1915년)의 홍수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다고 하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메이지 37년(1904년)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발행의 세키노 박사(關野博士) 한국건축조사보고 북한산성부(北漢山城部)에 그 기사가 있다.

항해루(瀆海樓)는 이미 훼멸되어 지금 중흥사(重興寺) 아래 2~3정(町)의 계곡 주변에 존재한다면 산영루(山映樓)가 된다고 들리고, 기초공사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대홍수에도 파손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건축물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북한 옛 행궁 원고(2.1.)

(해제)

북한산성 행궁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약 11,388㎡의 면적으로 2007년 6월 8일 사적 제479호로 지정되었다. 행궁은 왕의 임시 거처로 전쟁시의 피난처, 능행차시 거처, 강무시 거처, 휴양소 등의 성격이 있는데 북한산성 행궁은 전쟁시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북한산성 행궁은 1712년(숙종 38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713년(숙종 39년) 5월에 완공되었는데 규모는 115칸에 달한다. 1915년 이후 산사태, 호우 및 관리 소홀로 인해서 행궁이 폐궁되었다.

북한산성 행궁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8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로 시작되었다.⁵⁰⁾ 이후 2009년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발굴조사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⁵¹⁾ 2011년에는 한울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처음으로 매장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⁵²⁾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현재까지 5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⁵³⁾ 이 가운데 2017년 이루어진 5차 발굴조사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5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999,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지표조사 보고서』.

5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52)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5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고양 북한행궁지 1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고양 북한행궁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고양 북한행궁지 3차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고양 북한행궁지 4차 발굴조사 보고서』.



1894~1902년 북한 구행궁(수원광교박물관 소장)



1906~1907년 북한 행궁(왼쪽 위)과
내전(오른쪽 아래_성공회대학교박물관 소장)





북한 행궁터 발굴조사 사진



북한 행궁터 내전 영역

| 제8장 | 신라 진흥왕 순수비(新羅眞興王巡狩碑)

이 비는 신라 고비 중(古碑中) 옛날 것으로 이미 무수한 연구자, 호사가(好事家)의 방문 관광(訪觀)이 이루어졌다. 비는 이 비의 존재에 의해 이름을 얻은 비봉의 표고 556m 거암(巨巖) 위에 있어 멀리 산 아래의 마을(村里)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 10, 11). 육지측량부지도에 의하면 승가사 서쪽으로 약 400m 지점이 되고,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승가사(僧伽寺)에서 그 후방에 있는 마애불상 앞을 지나 고개 중심을 올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고개 마루에 도달하여 비를 바라보면서 서남쪽으로 가면 (비가) 서있는 곳의 거암(巨巖) 아래 도달하게 될 것으로 약 10정(町)의 걸음 거리로 느끼게 된다.

비가 서 있는 거암은 몹시 험해(險絶)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가장 험한 곳 몇 곳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얇은 구멍(淺孔)을 뚫어 놓아 신발을 벗으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비봉(碑峰)의 고개 마루(말 마루)는 북한산 문수암 뒤에서 동남으로 향해 이 거암의 지점에 도달하고, 바위에서 내려가 남쪽으로 나아가면 더욱 높아져 하나의 봉우리가 되고, 한번 낮아지고 한번 높아져 남으로 서남으로 서북으로 분기하고, 북한산의 서남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큰 지맥을 이루고 있다.



사진 9.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신라진흥왕순수비1



사진 10.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신라진흥왕순수비2

비는 (비가) 존재하는 고개 마루의 방향과 대체로 (비)면의 방향과 동일하다. 높이 솟아 있는 [巍巖] 북한(北漢)의 여러 봉우리를 좌우에서 통제하는 남한(南漢), 수락(水落), 용문(龍門)의 여러 산과 여기저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신영리(新營里)의 계곡을 발밑으로 하여 경성을 바라보는 한강은 오른쪽에서 후방으로 두른 구름안개 사이에 서해의 빛의 파동을 바라보는 풍광이 웅대하다. 진흥왕(眞興王)이 한강 유역을 경략(經略)하여 후손이 삼한(三韓)을 통일하는 기초를 세워 순수(巡狩)의 지역으로 이것을 넓히는 것은 당시의 호탕하고 웅장함(豪壯)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는 거암의 정상부를 뚫어 부(趺)로 만들고, 그 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거암의 남쪽으로 늘려서 조금 낮고 비교적 평평한 작은 면적을 만드는 부분의 안 남쪽에 조금凸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택하여 3단으로 가공 작성하여 비부(碑趺)가 되도록 한다. 즉 암석의 상면을 갈아서 횡(橫:가로)으로 약 3척 5촌 중(縱:세로)으로 약 1척7촌 높이 약 2촌의 장방형(長方形) 1단을 작성하고(이것을 최상단으로 함) 이것을 폭 약 6촌 높이 약 1촌 6분의 면으로 둘러싸여 받쳐(包繞載)있고(이것을 제2단으로 함) 더욱이 그것을 폭 6촌의 면(이것을 제3단으로 함)으로 한다. 단 제3단 면은 현재 그 전면의 밖은 3방향에 모두 결락되고 남아 없어져(缺落消磨)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단이 모두 암석이 부식하고 그 각이 마멸되어 정확하게 그 광활(廣濶)함을 헤아리기 어렵다. 제1단 중앙에 폭 2척 3촌 6분, 두께 5촌 5분인 비신을 받아들이기 적당한 장방형의 구멍을 뚫고, 여기에 비신을 끼워 세우는 것이다. 비면(碑面)은 남동으로 70도 기울어져 후방으로 경사(傾斜)져있다.

비는 품질이 좋고 견고한(好良堅緻) 화강암으로 돌의 조직(石理)이 대리석에 비슷하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생산되는 돌인 것 같다. 비신의 부상(趺上) 높이는 5척 1촌 2분 폭은 2척 3촌 6분 두께는 5촌 5분이고 오른쪽(방향은 왼쪽) 상단 아래 8촌 3분의 지점에서 왼쪽(방향은 오른쪽) 상단 아래 1척 6촌의 지점에 걸쳐 절단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접합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구 조선시대에 이것을 보호했다고 하여도 어느 시대 누가 독지가인지 불명하다. 오른쪽 하단이 부서져 결손되었다. 본 고적조사위원이 다이쇼 2년(1913년) 9월 16일 총독부 촉탁 다니이(谷井) 문학과와 함께 조사할 때에는 그 잔석(殘石)이 부공(趺孔)에 들어가 비신에 접촉하고 있었는데, 그 후 누가 그것을 버려(投棄) 지금은 그 잔석을 발견할 수 없고, 비의 상단에는 비의 뚜껑(碑蓋: 方簷)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폭 약 2척 2촌, 두께 3촌 8분, 높이 2촌 2분의 예형(柄形: 나무 끝을 구멍에 맞추어 박기 위해 깎아 가늘게 만든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

김정희(金正喜)의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에는 이 비에 대해 「바위를 뚫어 받침을 만들고 위에 비의 뚜껑(침석)이 있었으나 지금 아래에 떨어져 있다(鑿巖爲跗上加方簷今其簷脫落在下)」라고 기록하여 본 고적조사위원은 이 거암의 주변을 수색해도 그 침석(簷石: 처마돌)을 발견할 수 없었다.

비문 12행 각 행 22자(혹은 21자)로, 그 문자는 오히려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완전히 마멸되고 혹은 모호하여 읽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이 제12행은 각자의 배치에서 존재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에 멈추고 문자의 흔적이 없고 잔존하는 것이 없는 좌측면(방향은 오른쪽)에

“이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인데 병자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었다.(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金正喜金敬淵來讀)”

라 하고, 또 예자(隸字)로 새기기를

“정축년 6월 8일에 김정희와 조인영이 와서 남은 글자 68자를 살펴 정했다.(丁丑六月八日金正喜趙寅永來審定殘字六十八字)”

라 하였다. 전액(篆額) 및 비음기(碑陰記)는 모두 그대로인 것이다.

비문(碑文)에 대해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읽는다.

- (1) 眞興大王及衆臣等巡狩祀松嶽之碑記
- (2) 令甲兵之 元元 無霸主效修
- (3) 之所用高八百尺 祀嶽之時 王
- (4) 耀德不廢兵故 文大德人民 後
- (5) 是巡狩 如有忠信精誠
- (6) 復可加 心引 路過 城陟谷
- (7) 見道人 君 乃詠辭
- (8) 大千內大智 過下南下窮北沙
- (9) 大智及于 智大奈 屈 次奈
- (10) 光則指 空幽則永 立所造非世命
- (11) 巡狩見 心心 刊石 記我萬代名
- (12)

이 해동금석원이 읽는 방법은 신라 고대(新羅古代)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청국인(淸國人)이 탁본에 근거하여 추측을 자기 멋대로 하여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희(金正喜)는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에서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 (1) 眞興大王及衆臣等巡狩 之時記
- (2) 令甲兵
- (3) 所用高
- (4) 不用兵
- (5) 是巡狩 忠信精沃丁
- (6) 可加 陟賞
- (7) 是道人
- (8) 及于內大智 匠于南川軍主沙
- (9) 夫智及于未智大奈 智 次奈
- (10) 夫 指 則 所造非世命
- (11) 守 記我方
- (12)

나이토[內藤] 문학박사는 금석원(金石苑) 및 과안록(過眼錄)을 참고하여 탁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읽었다.(예문소제)

- (1)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 (2) □□□乃令甲兵之□□□□□□無霸主設□□□□
- (3) □□之所用□□□□□□□□□□時□□□王□
- (4) □□□不用兵故欲□□□□□□□大得人民□□□
- (5) □□□巡狩管境訪□□□欲□勞□如有忠信精誠□
- (6) □□徒可加賞爵物以□□心引□□□路□□城陟□
- (7) □□沙門道人□□□□□□□□□而詠辭
- (8) □□及于內夫智□□□□□□□□□□匠于南川軍主沙
- (9) □□夫智及于未智大奈□□□□沙啄□丁次奈□□
- (10)□□夫□海□□□□□□□□□□立所造非世命
- (11)□□□□□□□□□□□□刊石□□□記我萬代名
- (12)

조선총독부 증추원(中樞院)에서는 정밀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증추원 등사판 설명 문서에 의해)

- (1) □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 (2) □□言乃令甲兵之□□□□□□□□□□無霸主設□□□□
- (3) □□之所□高祀□□□□□□□□相戰之時新羅□王□
- (4) □□德不□兵故□□□□□□□□□□大得人民□□□
- (5) □以是巡狩管境□□□□□□□□□□知有忠信精誠□
- (6) □□□可加賞□功以□□□□□□□□□□路向漢城陟□
- (7) □□□見道人□居石窟□□□□□□勤石□辭
- (8) □□尺于內夫智□□□□□□□□□□智匠于南川軍主□
- (9) □□夫智及于未智大奈□□□□奈沙啄屈丁次奈□□
- (10)□□交州□□空幽則□□□□□□□□立所造非□□
- (11)□□□□□□□□守見□□□□□□□□□□記并□□□
- (12)

위의 원탁본과 비교 연구하여 정독하는 것으로 한자(一字)의 증감 수정을 하였다.

이 비의 문헌에서 보였던 것은 본 고적조사위원의 기억으로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수필 중에 이 비를 무자비(無字碑)라고 기록된 것을 느끼고 다른 날 그것을 검출(檢出)하는 것이 가하고, 이 비의 발견에 대해서는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완당집 권2에 수록, 다른 단행본이 있다)에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라고 잘못 칭해왔다. 그런데 가경(嘉慶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1796~1820) 병자년 가을에 내가 김군 경연(金君敬淵)⁵⁴⁾과 함께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다가 이 비를 보게 되었다. 비면(碑面)에는 이끼가

54) 김경연(金敬淵:1778~1820) 자는 시현(時顯) 1813년에 진사, 1814년 식년문과에 병과(兵科)로 급제. 삼사(三司)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고 의주부윤(義州府尹)에 이르렀다.

두껍게 끼어 마치 글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손으로 문지르자 자형(字形)이 있는 듯하여 본디 절로 이지러진 흔적만은 아니었다. 또 그때 해가 이끼 낀 비면에 닿았으므로 비추어 보니, 이끼가 글자 획을 따라 들어가 파임획(波)을 끊어버리고 비침획(黹)을 마멸시켰는지라, 어렵듯이 이를 찾아서 시험삼아 종이를 대고 탁본을 해내었다. 탁본을 한 결과 비신은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眞興)의 진(眞) 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를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단정하고 보니, 1천 2백 년이 지난 고적(古蹟)이 일조에 크게 밝혀져서 무학비(無學碑)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변파(辨破)되었다. 금석학(金石學)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들이 밝혀낸 일개 금석의 인연으로 그칠 일이겠는가. 그 다음해인 정축년 여름에 또 조군 인영(趙君寅永)과 함께 올라가 68자를 살피 정하여 돌아왔고, 그 후에 또 두 자를 더 얻어 도합 70자가 되었다.”

비의 좌측에 새기기를 “이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인데 병자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었다.(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金正喜金敬淵來讀)” 하고, 또 예자(隸字)로 새기기를 “정축년 6월 8일에 김정희와 조인영이 와서 남은 글자 68자를 살피 정했다.(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來審定殘字六十八字)” 라고 하였다. 정축 6월 김정희가 함께 와서 남은 글자를 살피 정했다라고 말 하는 조인영(趙寅永⁵⁵)의 문집 「운석유고(雲石遺稿)」 권9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승가사방비기(僧伽寺訪碑記)

北漢之南。有僧伽寺。其上峰曰碑峰。自京師雲從街迤北。見峰巔一柱兀然如人立。俗傳麗僧道誥碑。今沒字云。歲丙子秋。秋史金元春語余曰。吾上碑峰。碑有殘字。實新羅眞興王碑也。余聞之狂喜。約與之共尋。越明年六月八日。始踐之。工執墨拓具以從。由僧伽寺後麓。轉石磴數百武。得壁刻佛像甚偉。夾像而右。循嶺脊攀崖腹登焉。東自龍門諸山。南西至于海。可一舉目盡也。遂令工搨之。細加審定。除全缺不可強解。餘點畫可辨確然無疑者。凡九十有二字。如眞興王三字。巡狩二字。南川二字。皆

55) 조인영(趙寅永:1782-1850)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희경(羲卿), 호는 운석(雲石), 조상경(趙尙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엄(趙嚴)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조진관(趙鎭寬)이다. 어머니는 홍익빈(洪益彬)의 딸이다. 형은 국구(國舅) 조만영(趙萬永)이다. 1819년(순조 19) 식년문과에 장원급제, 바로 응교에 임명되었다. 그 해 형의 딸이 세자빈이 되면서 홍문록(弘文錄) 주 01·도당록(都堂錄)에 선임되었다. 1822년 함경도암행어사로 복명 후 대사헌에 특진하였다. 1826년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한 뒤 이조참의·대사성·세손좌유선(世孫左諭善), 제학·예조참판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830년 세자(익종(翼宗)으로 추준)가 죽자 세손부(世孫傅), 우부빈객으로서 나이 어린 세손의 보호에 힘썼다. 1834년 세손이 현종으로 즉위하자 바로 이조판서에 기용되고, 이어 대제학, 호조·형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면서 훈련대장 등 군사권을 장악한 형 조만영과 함께 풍양 조씨 세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839년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기해사옥(己亥邪獄)]을 주도, 그 해 우의정에 올라 『척사윤음(斥邪論音)』을 찬진(撰進)하였다. 1841년(헌종 7) 영의정이 되어 안동 김씨를 압도하고 풍양 조씨의 세도를 확립했으나 1846년 형이 죽자 실세(失勢), 벼슬에서 물러났다. 1849년철종 즉위 후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곧 죽었다. 10여 년 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국가 재정의 확보와 민생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자주 건의하였다. 또 이단이 성행하는 것은 정학[正學: 주자학(朱子學)]이 천명되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도산서원·화양서원 등의 서원에 대한 특전(特典)의 부여와 충신·의사의 포중(褒贈), 경명행수(經明行修)한 선비의 발탁 등을 주장하였다. 김정희(金正喜)와 함께 우리 나라의 금석문(金石文)을 수집, 금석학 연구에 정진하였다. 특히 1816년 성절사(聖節使) 일행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을 때 청의 금석학자 유연정(劉燕庭)과 교류, 그에게 조선 금석탁본(金石拓本) 수집 중을 기증하였다. 다음 해 귀국하여 김정희와 함께 비봉(碑峰)에 올라 앞서 발견했던 비가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임을 확인, 68자를 심정(審定)하여 탁본을 작성하고 함께 엄밀한 고증을 거친 다음 이를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와 함께 다시 유연정에게 보내어,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편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문장·글씨·그림에 모두 능했고 1847년 왕명으로 국조보감찬집청(國朝寶鑑纂集淸)의 총재가 되어 정조·순조의 두 왕 및 문조(文祖)주 02) 대리청정 때의 보감을 편찬하였다. 뒤에 현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문과 소차(疏笱)를 모은 『운석유고(雲石遺稿)』 20권이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實事可證。而與史文經緯者也。按三國史。真興王十六年。王巡幸北漢山州。拓定封疆。二十九年。廢北漢山州。置南川州。碑蓋紀其蹟也。碑文有真興二字。而據智證王本紀。新羅謚法始此。智證之後。歷法興至真興。則真興時。不應預稱其謚。似真興後所立。據真平王二十六年。廢南川州。還置北漢山州。而碑文有南川二字。則又似南川廢州之前也。真興王元年。在梁武帝大同六年。真平王元年。在陳宣帝大建十一年。則要之梁陳間刻者。又按咸興府之草芳嶺。有真興王北巡碑。今佚。但拓本在耳。字體似楷似隸。極古雅。與此碑。若出一手。意同時所刻也。歷數羅麗碑目。洵爲上乘。然輿地勝覽北漢誌諸書。並闕之。何哉。乃鐫名於碑之左側。以識月日。始秋史尋碑時。東籬金時顯借之。

라고, 이 고증 중(考證中) 진흥왕(眞興王)의 칭호를 일호(鎡號)라고 하면 오류가 될 것이다. 진흥(眞興)은 선덕(善德)과 마찬가지로 시호(諡號)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희가 비에 문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자(丙子)는 순조 16년(1817년) 즉 일본 분카(文化) 13년이다.

김정희의 완당집 권3에는 이 비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김정희가 조인영에게 주고 척독(尺牘)을 거둔 것이 다음과 같다.

비바람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을 생각하니 그리운 정을 풀 수가 없습니다. 형(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지내십니까?

그런데 재차 비봉(碑峯)의 고비(古碑)를 가져다가 반복하여 자세히 훑어보니, 제1행 진흥태왕(眞興太王) 아래 두 글자를 처음에는 '구년(九年)'으로 보았었는데 '구년'이 아니고 바로 '순수(巡狩)' 두 글자였습니다. 또 아래 '신(臣)' 자 같이 생긴 것은 '신' 자가 아니고 바로 '관(管)' 자였습니다. 그리고 '관' 자 밑에 희미하게 보인 것은 바로 '경(境)' 자이니, 이것을 전부 통합해 보면 곧 '진흥태왕순수관경(眞興太王巡狩管境)' 여덟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例)는 이미 함흥(咸興) 초방원(草傍院)의 북순비(北巡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7행의 '도인(道人)' 두 글자는 또 초방원 북순비의 '시수가 사문도인(時隨駕沙門道人)'이란 말과 착오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또 제8행에는 '남천(南川)'이란 두 글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는 바로 이 비(碑)의 고실(故實)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진흥왕 29년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였으니, 이 비는 의당 진흥왕 29년 이후에 세운 것이지, 진흥왕 16년에 북한산주에 순행(巡幸)하여 봉강(封疆)을 척정(拓定)할 때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제9행의 '부지급간미지(夫智及于未智)' 여섯 자는 저 초방원의 비에서 수가(隨駕)한 여러 사람들의 관작(官爵)과 성명(姓名)을 기록한 것과 부합되니, '부지급간미지' 이 여섯 자는 바로 관명과 인명인 듯하나, 어느 것이 관명이고 어느 것이 인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史)의 직관(職官)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빠진 글이 많아서 또한 자세히 고증할 수

가 없고, 대체로 초방원의 비와 동시에 세운 것만은 확실한데, 진흥왕 때에 세운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히 확실하게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평왕(眞平王) 26년에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고 보면 이 비가 진평왕 26년 이전에 세워진 것이 또 분명해집니다.

진흥왕 29년에 남천주를 설치함으로부터 이후로 진평왕 26년까지가 모두 38년간인데, 초방원의 비에서 지금 비로소 상고해 보니, 그것이 진지왕(眞智王) 때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진지왕 때에 세운 것임을 아는가 하면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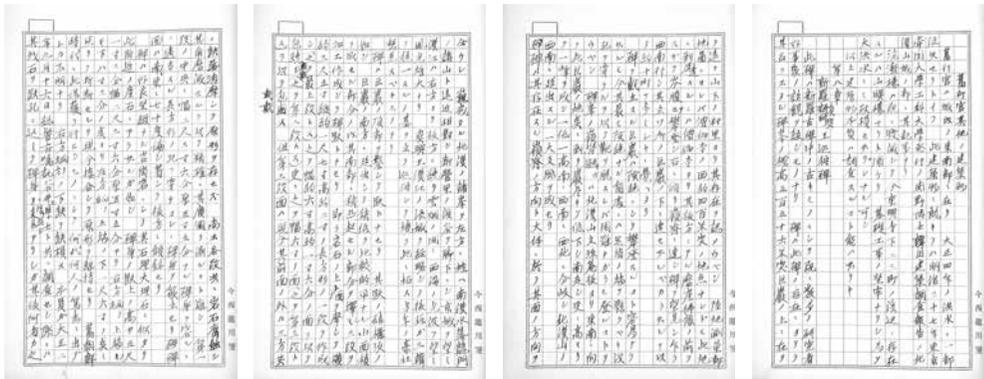
진지왕은 진흥왕의 아들입니다. 진지왕 때에는 거칠부(居漆夫)를 상대등(上大等)으로 삼았었는데, 초방원 비문의 수가(隨駕)한 사문도인(沙門道人) 법장(法藏)·혜인(慧忍) 두 사람 아래에 '口等居' 등의 글자가 있으니 저의 소견으로는 본디 좀벌레로부터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봅니다. 위의 이지러진 글자는 마침내 그것이 없어졌으나 다른 본(本)에는 반드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大) 자의 왼쪽 삐침 획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지러진 글자의 상반(上半)은 이것이 원래 이지러진 것으로서 그것이 칠(漆) 자의 윗부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칠부(居漆夫)가 상대등(上大等)이 된 때가 진지왕 원년인데 진지왕은 왕위(王位)를 4년간 누리었고, 진평왕이 이어 즉위한 원년 8월에는 이찬(伊漣) 노리부(弩里夫)를 상대등으로 삼았으니, 거칠부가 상대등으로 있었던 기간은 곧 진지왕의 재위 4년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초방원의 비 또한 진흥왕 때에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진지왕 때에 세운 것으로 진지왕도 일찍이 북쪽으로 순수(巡狩)를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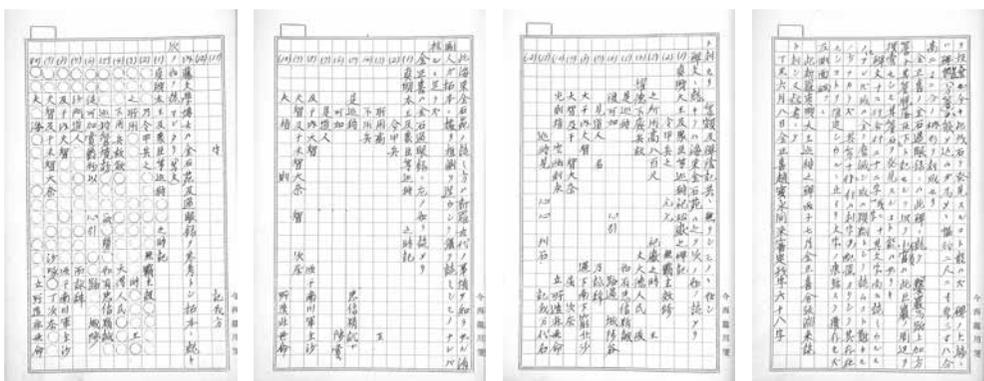
그리고 진지왕이 북쪽으로 순수한 사실은 역사에서 상고할 데가 없고, 역사에 기재된 지리(地理)는 비렬홀(比列忽)에 불과하지만, 초방원의 비를 통해 비렬홀 이북의 2백 리 지역이 또 신라(新羅)의 영토로 꺾여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진지왕이 북쪽으로 순수한 사실은 역사에서 상고할 데가 없으나, 이 거칠부가 수가(隨駕)한 것으로 말하자면 진지왕이 또 일찍이 북쪽으로 순수했던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두 비의 문자가 서로 같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면 두 비를 동시에 세운 것이 확실하고, 그 시기 또한 모두 진지왕 때에 있었던 듯 합니다. 모르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風雨懷人。無以遺情。兄作何思。鍵戶獨居。再取碑峰古碑。反覆細閱。第一行眞興太王下二字。初以爲九年矣。非九年。乃巡狩二字。又其下似臣字者。非臣字。乃管字。管字下依係是境字。統而合之。爲眞興太王巡狩管境八字也。此例已見於咸興草芳院北巡碑。第七行道入二字。又與草芳院碑之時隨駕沙門道人之言。脗合不誤。又第八行有南川二字。此二字爲此碑故實之十分肯綮處也。眞興王二十九年。廢北漢山州。置南川州。此當在二十九年以後所立。非十六年巡幸北漢山州。拓定封疆時所立也。又第九行夫智及干末智六字。與草芳碑之錄隨駕諸人官爵姓名相合。夫智及干末智六字。似是官名與人名。而未知何者爲官名。何者爲人名也。史之職官。舊多闕文。亦不得詳證。而大抵與草芳碑同時所立則的確。而若於眞興生時則不取的證。然眞平王二十六年。廢南川州。還置北漢山州。則此碑之立。在眞平二十六年以前。又明矣。自眞興二十九年置南川州以後。至眞平王二十六年。爲三十八年之間。而草芳碑今始考之。則其在眞智王時。何以

知眞智王時也。眞智眞興之子也。眞智時以居漆夫爲上大等。草芳碑隨駕沙門道人法藏慧忽二人之下。有口等居等字。弟所見本。爲蠹鼠所傷。上缺字遂無之。他本則必有之。而其爲大字左撇無疑。下缺字上半。則是原缺。而其爲漆字上頭無疑。居漆夫爲上大等時。在眞智元年。眞智亨國四年。而眞平繼立。元年八月。以伊浪濱里夫爲上大等。則居漆夫之在上大等時。卽眞智四年之間。然則草芳碑亦非眞興時所立。卽眞智時所立。而眞智又曾北狩矣。眞智北狩。史無所考。而史之所載地理。不過比列忽。而以草芳碑。知比列忽以北二百里。又折入新羅輿圖。眞智北狩。史無所考。以此居漆夫隨駕言之。則眞智又嘗北狩無疑矣。二碑文字。多有相同處。則其同時所立之確。而亦似並在眞智王時也。未知如何.)

김정희(金正喜)가 말한 바는 위와 같고, 이른바 초방비(草芳碑)에 대해서는 본 고적조사위원이 매우 의심하는 것이고, 진흥왕순수비의 내용 연구는 더욱 연구를 거듭한 위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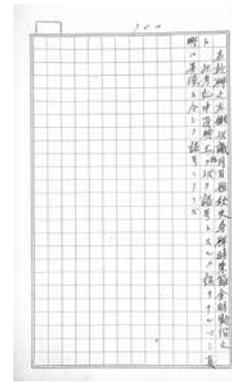
진흥왕 순수비 원고(4.3.2.1)



진흥왕 순수비 원고(8.7.6.5)



진흥왕 순수비 원고(12.11.10.9.)



진흥왕 순수비 원고(16.15.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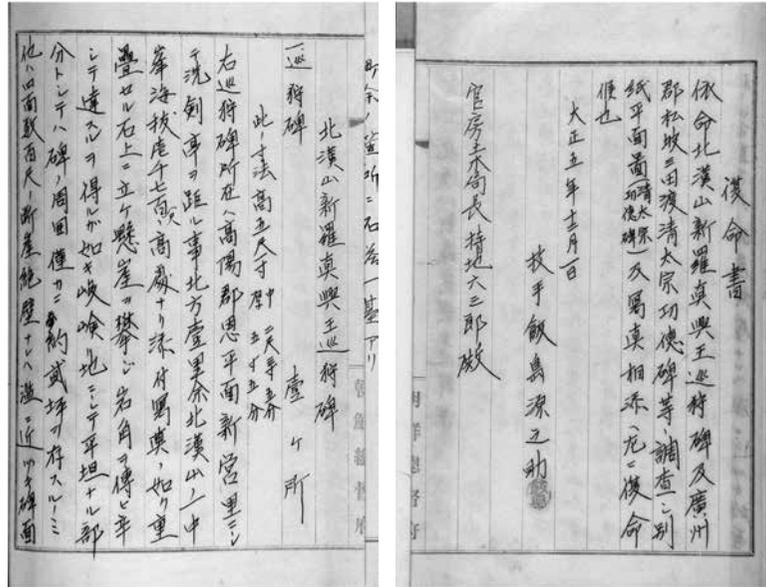
(해제)

진흥왕 순수비는 원래 북한산 비봉 정상부에 세워졌으나 훼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복궁에 옮겨 놓았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가 있었던 진흥왕 순수비터는 1972년 7월 24일 사적 제228호로 지정되었는데 2006년 10월 19일에 복제비를 세워 놓았다. 공식 명칭은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符碑)이다. 비몸의 크기는 높이는 1.54m, 너비는 0.69m이며 32자의 해서 12행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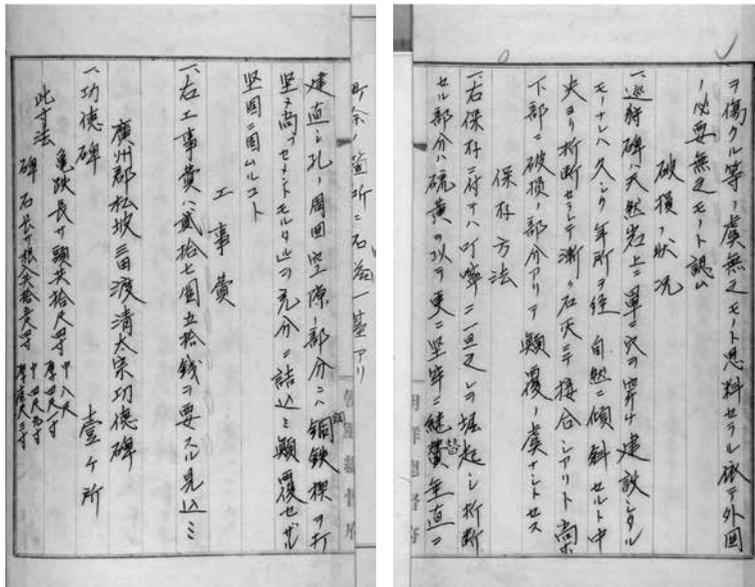
진흥왕 순수비는 1816년(순조 16년)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처음 발견하였는데 진흥왕(재위 540~576년)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진흥왕 순수비에는 왕이 지방을 방문한 목적과 비를 세운 이유를 기록하여 놓았는데 여러 고을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죄수들을 석방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건립 시기는 창녕 진흥왕비(561년)와 황초령 진흥왕비(568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제 강점기인 1916년 12월 1일 이이치마 모모노스케(飯島源之助)는 진흥왕 순수비의

훼손 상태를 보고하였는데 1917년도에서부터 1939년 사이의 출장 복명서 파일과 함께 전한다.⁵⁶⁾ 이후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이지마 모모노스케(飯島源之助)의 출장(2.1) 보고서(조선총독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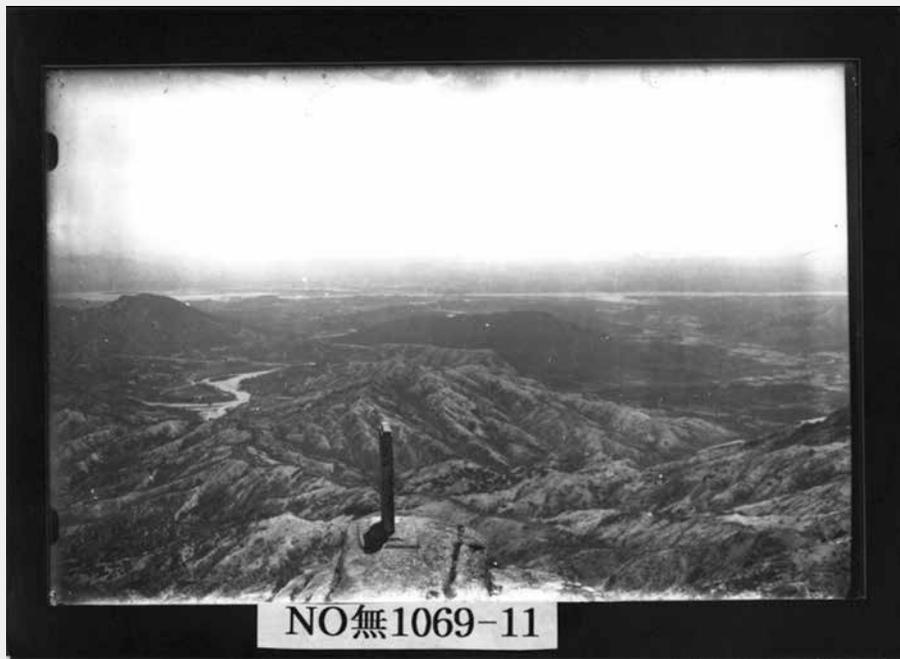


이이지마 모모노스케(飯島源之助)의 출장(4.3) 보고서(조선총독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6) 飯島源之助, 1916, 『復命書』, 조선총독부.



진흥왕 순수비 유리건판 사진



진흥왕 순수비 유리건판 사진



진흥왕 순수비 이동 전(1), 국립중앙박물관 이동후(2,3), 복제비(4)

소관(小官)이 고적조사의 명을 받아 다이쇼 5년(1916년) 9월 2일 경성을 출발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의 여행을 마치고 동월 13일 경성으로 돌아오고, 동월 18일 경성을 출발하여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의 여행을 마치고 동월 30일 경성으로 돌아오고, 10월 4일 총독부 기수(技手) 세키야(關谷長之助)와 동행하여 경성을 출발 개성군 장단군 강화군 평산군 여행을 마치고 동월 30일 경성으로 돌아온 후

하나. 다이쇼 5년(1916년)도 유적 유물 조사 보고서 2책

하나. 고려능묘 조사보고서 2책

하나. 사진 162장

하나. 關谷長之助 실측 작성 실측 44면

하나. 고려능 소재지 표시 기입 5만분의 일 지도 3매

위의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다이쇼 6년(1917년) 9월 일

고적조사위원 이마니시 류[今西龍]

조선총독부고적조사위원장 친전



경기도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양주군, 고양군,
가평군, 양평군, 장단군,
개성군, 강화군, 황해도
평산군 유적유물
조사보고서

경기도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양주군, 고양군, 가평군, 양평군, 장단군, 개성군, 강화군, 황해도 평산군 유적유물 조사보고서

(이마니시 류〈今西龍〉 위원 제출)

| 제1장 | 광주군(廣州郡)

1. 개 황(概記)

광주군(廣州郡)은 한강의 남쪽에 있고 백제의 국도(國都)인 한성(漢城)이 있는 땅이다. 조선 남북 교통의 요충에 해당하는 한강은 이 지방에서 하류의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로 이곳은 한강의 교통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다. 백제가 이 땅에 도읍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일 이 아니다. 이곳 백제의 국도이고 한산(漢山) 아래의 땅은 그 대안(對岸) 삼각산 아래의 땅과 대 등의 지세로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하다. 이 지방의 중심은 그것을 영유하는 국가의 방위와 형 세(形勢) 연대(年代) 등에 의해 혹은 한산(漢山) 방면에 있다고 하고 혹은 삼각산(三角山) 지방에 있 다고 한다. 이것에 의해 옛 한산 아래 광주(廣州)의 땅을 한성(漢城), 한산성(漢山城)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 삼각산 아래 경성지방(京城地方)을 북한성(北漢城), 북한산(北漢山)이라 칭했다. 이것으로 후세에 이르러 한성, 한산성을 북한성, 북한산과 혼잡하게 사용하기에 이르고, 더욱이 일전 (一轉)하여 한성, 한산을 남한성, 남한산이라 칭하는 것에 미쳐 한성, 한산은 남북의 어디를 가 르키는 것이 되는가 혼란하기에 이른다.(한산이라 하고 북한산이라 하는 것이 각 지방명이 되어서 그 주산의 칭호만 한정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광주군은 북쪽으로 한강의 흘러 허리띠를 만들어 한강에서 남쪽으로 약 3리의 지점에 표고 500m 내외의 한산(漢山: 南漢山)이 우뚝 솟아있고 그 지봉(支峰)이 북쪽으로 연장하여 낮 은 구릉을 이루고, 강변에 따라 남쪽으로 연장하면 와성산(瓮城山) 두리봉(頭里峰) 무명산(無名山) 이 되어 용인군(龍仁郡) 경계에 이른다. 그리고 남한산 동쪽으로 떨어져서는 하나의 낮고 협소 한 계곡이 되고 게다가 솟아올라 세워진 것이 검단산(黔丹山)이 되고, 한강을 따라 그 북안에 우뚝 솟아있는 예봉산(禮奉山) 등과 서로 대치하며 한강을 막고 있다. 남한산 서쪽으로는 탄천 (炭川)이 있고 좌우에 옥야(沃野)가 넓혀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수원지방으로 연결되고 한강 연안의 낮은 지역과 함께 주요한 생산지가 된다. 검단산 및 남한산의 동쪽에 우천(牛川)이 있 고, 그 연안지방은 생산지로서 탄천 연안지역에 비해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동북 검단산의

서쪽 평야는 옛날 광주 읍치(邑治)가 있었던 곳으로 역사상 광주의 중심지는 북한산 서북의 평야와 함께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이다.

한남(漢南)의 땅은 한북(漢北)에 비해 현저하게 서로 다르고 한강 북의 여러 산이 암석으로 노출되고 황폐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의 여러 산은 토산(土山)으로 되었던 것의 하나이다.

이 지방에 대해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는 “한주(漢州)는 본래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郡)이었다. 신라가 그것을 취하고 경덕왕(景德王) 때 한주(漢州)라 했다. 지금은 광주(廣州)라 한다.(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는 “광주목(廣州牧)은 처음에 백제(百濟)의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이 한(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기원전 18)에 나라를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였다. <홍가> 13년(기원전 8)에 이르러 한산(漢山) 아래로 가서,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켜 궁궐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였다. 이듬해 도읍을 옮겨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다. 근초고왕(近肖古王) 25년(370)에 이르러 남평양성(南平壤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신라(新羅) 태종왕(太宗王) 때에 이르러, 김유신(金庾信)을 보내 당(唐)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백제를 협공하여 멸망시켰다. 뒤에 당의 군대가 돌아가자 문무왕(文武王)이 점차 그 땅을 수복하여 한산주(漢山州)로 이름을 고쳤으며, 또 남한산주(南漢山州)로 고쳤다. 경덕왕(景德王) 15년(756)에 이름을 한주(漢州)로 고쳤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23년(940)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성종(成宗) 2년(983)에 처음으로 12목(牧)을 설치했는데, 한주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하략> (廣州牧初, 百濟始祖溫祚王, 以漢成帝鴻嘉三年, 建國, 都于慰禮城. 至十三年, 就漢山下, 立柵, 移慰禮城民戶, 遂建宮闕, 居之. 明年, 遷都, 號南漢山城. 至近肖古王二十五年, 移都南平壤城. 及新羅太宗王, 遣金庾信, 與唐將蘇定方, 夾攻百濟, 滅之. 後唐師還, 文武王漸收其地, 改爲漢山州, 又改爲南漢山州. 景德王十五年, 改名漢州. 太祖二十三年, 更今名. 成宗二年, 初置十二牧, 州其一也. <下略>)”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는 상세하게 기록하여 “광주 목사(牧使) 1인, 판관(判官) 1인, 유학 교수관(儒學教授官) 1인. 백제 시조(百濟始祖) 온조왕(溫祚王)이 한(漢)나라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기원전 18) 계묘에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에 세웠다가, 13년 을묘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매, 한수(漢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하고, 드디어 한산(漢山) 아래에 나아가 목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병진 정월에 도읍을 옮기고 남한성(南漢城)이라 하다가, 3백 76년을 지나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신미에 【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元年)】 도읍을 남평양(南平壤)에 옮기고 북한성(北漢城)이라 하였다. 당(唐)나라 고종(高宗) 현경(顯慶) 5년 경신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치는데, 신라 태종왕(太宗王)이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협공(夾攻)하여 <백제를> 멸하고, 당나라 군사가 다 돌아가매, 문무왕(文武王)이 차츰 그 땅을 거두어 차지하여, 3년 갑자에 【인덕(麟德) 원년(元年)】 한산주(漢山州)로 고치고, 8년 경오에 【함형(咸亨) 원년】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하였다가, 경덕왕(景德王) 15년 정유에 【곧 당나라 숙종(肅宗) 지덕(至德) 2년】 한주(漢州)로 고쳤고, (주략)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에 【곧 진(晉)나라 고조(高祖) 천복(天福) 5년】 광주(廣州)로 고치고, 성종(成宗) 2년 계미에 【곧 송(宋)나라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 처음으로 12주·목(州牧)을 두니, <광주가> 곧 그의 하나이다. <성종> 14년 을미에 【곧 송나라 지도(至道) 원년】 12절도사(節度使)를 두고 광주 봉국군 절도사(廣州奉國軍節度使)라 하였다가,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절도사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곧 송나라 진종(眞宗) 천희(天禧) 3년】 8목(牧)을 정해 됨에 따라, 광주목(廣州牧)이 되었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別號)는 회안(淮安)이다. 【성종(成宗) 10년 신묘에 주군(州郡)의 별호(別號)를 정하였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하니, 곧 송나라 태종(太宗) 순화(淳化) 원년이다.】 (廣州牧使一人判官一人儒學教授一人 百濟始祖溫祚王, 漢 成帝 鴻嘉三年癸卯, 建國都于慰禮城. 至十三年乙卯, 王謂群臣曰: '予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此, 以圖久安之計.' 遂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立宮闕. 十四年丙辰正月, 遷都, 號南漢城, 歷三百七十六年, 至近肖古王二十四年辛未, 移都南平壤, 號北漢城. 【即東晉 簡文帝 咸安元年.】 及唐高宗 顯慶五年庚申, 唐將蘇定方征百濟, 新羅 太宗王遣金庾信, 夾攻滅之. 唐師既還, 文武王漸收其地, 三年甲子, 改爲漢山州, 【麟德元年】 八年庚午, 改爲南漢山州. 【咸亨元年】 景德王十五年丁酉, 改名漢州, (注略) 高麗 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廣州, 【即晉 高祖 天福五年】 成宗二年癸未, 初置十二州牧, 即其一也. 【即宋 太宗 太平興國八年】 十四年乙未, 置十二節度使, 號爲廣州奉國軍節度使. 【即宋 至道元年】 顯宗三年壬子, 廢節度使, 改爲按撫使. 九年戊午, 定置八牧, 仍爲廣州牧, 【即宋 眞宗 天禧三年】 本朝因之, 別號淮安 【成宗十年辛卯, 定州郡別號, 廣州曰淮安, 即宋 太宗 淳化元年也】”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와 동일한 양성지(梁誠之)⁵⁷⁾에 의해 이루어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광주목(견치연역)은 본래 백제이다. 남한산성은 시조 온조왕 13년 위례에서 도성을 옮겼다. 근초고왕 26년 또 남평양성(南平壤城: 지금 京都)으로 도읍을 옮겼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당나라로 돌아간 후 신라가 점차 그 지역을 수복하여 그 지역 남한산성을 남한주(南漢州)로 삼아 또 남한산주(南漢山州)라 했다. 경덕왕 15년 한주(漢州)로 고쳤다. 고려 태조 23년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성종 2년 처음으로 12목·주(州牧)을 두었는데 (漢州도) 그 중 하나이다. 14년 절도사를 두고 호를 봉국군(奉國軍)이라 하고 관내도(關內道)를 예속했다. 현종 3년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安撫使)로 하였다. 9년 8목(牧)을 정하고 다시 광주목

57) 양성지(梁誠之:1415-1482) 훈구파(勳舊派)의 중진에 속하며, 성리학자로는 드물게 조선왕조의 자주성을 강조했고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 많은 저술과 편지를 남겼다. 본관은 남원.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 송파(松坡). 아버지는 증우찬성 구주(九驥)이다. 서거정(徐居正)·신숙주(申叔舟)·김수온(金守溫) 등과 두터운 교우관계를 맺었다. 그의 가문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토성사족(土姓士族)이었으나 일찍부터 관직에 진출해 만년에는 대신의 반열에 올랐다. 1441년(세종 23)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해 경창부승·성군주부 등을 역임했다.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교리 등을 지냈고, 세종의 총애를 받아 춘추관기주관과 <고려사> 수사관을 겸직하여 <고려사>의 개찬에 참여했다. 이어 집현전직제학에 승진했다가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폐지되자 좌보덕에 전임되고 동지춘추부사를 지냈다. 1463년에는 홍문관의 설치를 건의해 역대의 서적을 보관케 하고 제학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구현시(求賢試)에 급제해 이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446년 발영시에 급제했고, 이에 서적의 보존과 간행을 건의하는 10조의 상소문을 올려 학문의 발전을 꾀하도록 했다. 1469년(예종 1) 지춘추부사·홍문관제학·지춘추관사를 겸직했으며,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 좌리공신 3등으로 남원군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했다가 지춘추관사가 되었으며,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승진했는데 이에 문신정시(文臣正試)에 장원했다. 그는 일찍이 <고려사>의 개찬에 참여한 이래 국가에서 발인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453년(단종 1) 왕명으로 <조선도도(朝鮮圖圖)>·<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했고, 다음해에는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편찬해 올렸다. 1455년(세조 1)에는 <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를 편찬했고, 1463년 왕명으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1464년에는 <오륜록(五倫錄)>, 1465년에는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찬진했다. 1469년(예종 1) <세조실록>, 1470년(성종 1)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 참여했다. 1482년에는 서적의 간행과 보관에 대한 12조의 건의문을 올리는 등 일생동안 서적편찬과 간행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눌재집>·<유선서(諭善書)>·<시정기(時政記)>·<삼강사략(三綱事略)> 등이 있고, 편지로는 <동문선(東文選)>·<의방유취(醫方類聚)>·<농잠서(農蠶書)>·<축목서(畜牧書)>·<손자주해(孫子注解)>·<동국도경(東國圖經)> 등이 있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이 되었다. 조선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세조 때 진(鎭)을 두었다. (廣州牧(建置沿革)本百濟南漢山城始祖溫祚王十三年自慰禮城移都之近肖古王二十六年又移都南平壤城【今京都】及唐蘇定方攻滅百濟唐師還新羅漸收其地改南漢山城爲南漢州又稱南漢州景德王十五年改漢州高麗太祖二十三年改 今名成宗二年初置十二牧州其一也十四年置節度使號奉國軍隸關內道顯宗三年廢爲安撫使九年定八牧復爲牧本朝因之世祖時置鎭)”라고 되어 있고, 이 기사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도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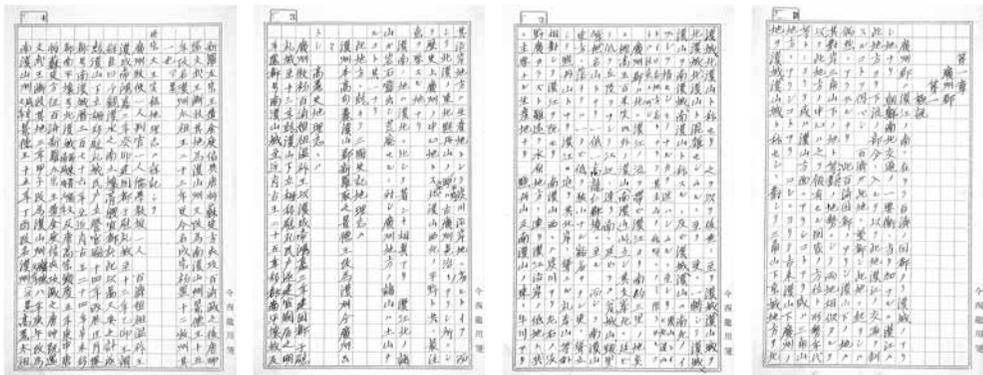
위의 기사 중 주의해야 할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 한산군 지역을 신라가 취하여 영토로 한 것을, 조선이 되어 여러 지지(地誌)에는 백제의 땅을 신라가 취한 일로 되어 있고, 조선의 여러 지지(地誌)는 세종대왕지리지에서부터 모두 오류를 답습하는 것이 되었다.

이 땅은 실로 백제 개로왕(蓋鹵王)대까지 백제의 국도(國都)가 되고 개로왕은 고구려에 의해 이 도성이 함락되어 살해되고,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일본 천황의 보호를 받아 점점 남쪽의 웅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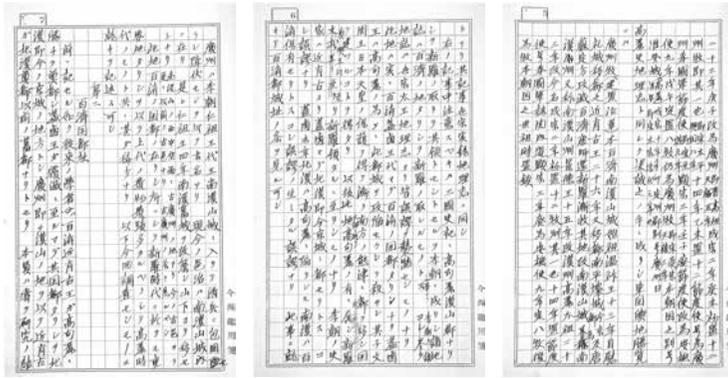
이후 이 지역은 대체로 고구려에 속하든가 혹은 백제가 수복하여 신라 진흥왕(眞興王)대에 이르러 신라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 된다. 조선의 사가(史家)는 근초고왕에서 개로왕까지 북한(北漢) 즉 지금의 경성에 도읍을 했다는 것이 오류가 되어, 개로왕 말년 북한은 고구려에 의해 함락되어도 남한(南漢)은 백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 오류가 생겨 오류가 되었다. 이 일례에 대해서는 백제도성지 조(百濟都城址條)에서 볼 수 있다.

광주(廣州)는 조선 인조(仁祖)때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 청나라 병사에 포위되어 항복한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읍치(邑治)는 남한산성내에 있고, 이것을 인조 4년 남한 구성(南漢舊城)을 개축하고 산 아래로 옮기는 것이 된다. (남한산(南漢山)의 서쪽 중대면(中臺面)에 고광주(古廣州)의 땅이 있다. 지금의 고읍(古邑)에서 더욱 이전(以前)의 고읍이 된다. 고광주 조(古廣州條)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은 백제의 국도가 있는 곳으로 신라시대에도 중요지(重要地)가 되는 것으로 상대(上代)의 유물 유적이 많아야 할 것인데 고려시대의 것과 함께 매우 희소하다. 이하 이번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을 한다.



광주군 원고(4.3.2.1.)



광주군 원고(7.6.5.)

2. 백제국도 터(百濟國都城址)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종래의 학자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고구려에 승리하여 도읍을 정하고 개로왕(蓋鹵王)이 공격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국도(國都)로서 북한(北漢) 즉 지금의 경성 지방으로 하고, 광주 즉 한산(漢山)의 땅을 근초고왕이 북한에 도읍을 정하기 이전의 구도(舊都)가 되는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일찍이 연구결과 근초고왕과 개로왕 사이 백제의 국도인 한산(漢山)은 북한(北漢)에 있어도 남한(南漢) 즉 광주(廣州)의 땅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다. 그 이후 오히려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이 자설(自說)이 올바르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사학잡지 제23편 제1호 백제국도한산고(百濟國都漢山考)에 이 일을 논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정증보(訂正增補)할 필요가 있다.)

백제 국도(百濟國都)의 유적·유물로 인정할 만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도 먼저 그 지역을 추측해야 할 것은 광주 구읍(舊邑)에 있는 곳 이른바 고읍(古邑)의 방면이 되어야 한다. 고읍의 땅은 남한산(南漢山)을 남쪽으로 하고, 검단산(黔丹山)을 동쪽으로 하고, 북쪽은 한강(漢江)에 임하고 있는 평야 즉, 현재의 동부면(東部面)으로 동서(東西) 약 1리, 남북(南北) 1리 내지 1리 반으로 민가(民家)는 그 평야의 남쪽 및 서쪽의 구릉 사이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평양(平壤), 개성(開城), 경주(慶州), 경성(京城) 등 조선의 옛 도시들 지역의 면적에서 추측하여 이 고읍(古邑)의 평야는 백제 국도(百濟國都)로 충분한 면적을 가지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이 평야는 토지가 비옥하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쪽에 검단산(黔丹山)이 솟아 있고, 한강에 따라 남쪽으로는 남한산이 있으며 북쪽에 한강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성산(二聖山: 산성이 있다) 및 구릉지(丘陵地)가 있어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방어에 편리하다.

이 평야에서 국도시대(國都時代)의 유적·유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조사로서는 아무런 물품도 발굴할 수 없었고, 본

고적조사위원이 답사할 때는 벼·보리 등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로 초목이 무성하여 충분히 시찰할 수 없었고, 고대 도시 터[上代都址]에 보통 산재하고 있는 토기 파편의 종류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향교 부근에 있어서 소하류(小河流)를 준설(浚濬)하여 조선시대 와편(瓦片)을 무수하게 발굴하여 길옆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백제·신라 이하 역대의 유물은 지하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광주 구읍(廣州舊邑)의 지점인 향교(鄉校) 및 빙고(氷庫) 터에서 잔존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추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지금 지면위에서 유물·유적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 국도지(百濟國都址)인 곳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본 고적조사위원은 경성방면에 있어서도 백제 유물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명(地名)에 대해서는 궁촌(宮村)이라 칭하는 동리(洞里)가 있고, 지금 장춘리(長春里)와 합병하여 춘궁리(春宮里)라 한다. 『남한지(南漢志)』에 「온조의 구궁(舊宮)은 광주 고읍에 있는데 그것을 궁촌(宮村)이라 한다. 그곳에 백성이 거주하며 감과(甘瓜)를 심어 생활했다라 한다(溫祚舊宮本在廣州古邑謂之宮村居民業種甘瓜云云)」라고 기록되어 있고, 혹은 일찍이 궁터(宮址)라고 전해지는 것에 의해 이 마을 명칭(里名)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 땅은 후에 이야기하는 이성산성(二聖山城) 아래에 있다.

백제 국도(百濟國都) 한성(漢城)의 형세를 기록한 유문(遺文)에 대한 잡지에서,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가 형과 함께 부아악(負兒嶽: 북한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국도(國都)라 할만한 위례(慰禮)의 땅은 직산(稷山)이 아니고 광주 부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이 전설 같은 것은 전설로 그쳐야 한다. 그것을 사실로 취하지 않는 것도 이 지세를 서술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여기에 근거해야 할 지역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고대사가의 유사한 지역이다. 연구에는 먼저 이 유사한 지역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위례성의 형세는 「하남의 지역으로 북쪽은 한수를 띠처럼 띠고 동쪽은 높은 산이 의지하고 남쪽은 비옥한 옥택(沃澤)이 있으며 서쪽은 대해(大海)로 막힌 곳(河南之地北帶漢水東據高岳南望沃澤西阻大海)」의 지역으로 부아악(負兒嶽: 북한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광주부근 서쪽에서 구하려는 것이 되고, 이 지역이 광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백제 고도로서 하나의 전설지역이 되는 사실의 유무는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례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 (먼저) 개로왕대에 있어서 백제국도의 형세를 보자.

『삼국사기(三國史記)』 개로왕기(蓋鹵王紀)에서 말하기를, 도림이 말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송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인데, 성곽은 수축되지 않았고 궁실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왕의 해골은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이 말했다. “좋다! 내가 그리 하겠다.” 이에 왕은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흙을 썬서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사대를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옥리하(郁里河)에서 큰 돌을 캐다가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해골을 장사하고, 사성(蛇城) 동쪽으로부터 송산(崇山) 북쪽까지 강을 따라 독을 쌓았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서 나라는 누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道琳曰,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爲之形也. 是以四鄰之國, 莫敢有觀心, 但願奉事之不暇. 則王當以崇高之勢, 富有之業, 疎人之視聽, 而城郭不葺, 宮室不修. 先王之骸骨, 權擯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 “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蒸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榭,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櫛以葬父骨, 緣河樹堰, 自地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倉庾虛竭云云)

이때 고구려의 대로(對盧) 제우(齊于)·재증걸루(再曾桀婁)·고이만년(古余萬年)【재증, 고이는 모두 북성이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갔다.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余萬年 再曾·古余皆複姓. 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云云)

『일본서기(日本書紀)』 인용(引用)의 『백제기(百濟記)』에는, “개로왕 을묘년 겨울 대군(大軍)이 와서 대성(大城)을 공격하여 7일 낮밤이 지나 왕성이 항복하여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를 상실했다. 왕 및 태후 왕자 등이 모두 몰락하였다(蓋爾王乙卯年冬狍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王城降陷遂失尉禮國王及太后王子等皆沒獻乎)” 라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기사는 그것을 바로 사실로서 채택한 것은 오히려 조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 전설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사정(事情), 국도(國都)의 지세(地勢)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 또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이 된다면 전설을 믿고 믿지 않고(信否)와 관계없이 당시의 사정(事情), 국도(國都)의 형세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백제 최초의 군성(郡城)은 목책(木柵)으로 구성되지 않고(三國史記) 개로왕대에 이르러 토성(土城)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도성의 산하가 평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종래 이 한성(漢城)으로서 북한(北漢)의 지역 즉 지금의 경성 지역으로 해석한 것도 본 고적조사 위원은 한산고(漢山考)에서 논하고, 그 이유로서 남한(南漢) 즉 광주(廣州)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가가 붕괴되고 하(河)는 한강(漢江)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옥리하 사성(郁里河地城)은 지금 고찰할 이유가 없어도 송산(崇山)은 필시 검단산(黔丹山)에 있는 것이 아닌가(이 지역을 지금의 경성이 라면 한강의 제방으로 산의 북쪽에 제방으로서 나무를 심어야 할 산이 된다.) 승토축성(丞土築城)의 궁 터(宮址)가 구천면(九川面) 풍납동리(風納洞里)의 토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것은 이 토성을 조사할 때 필요한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인용의 『백제기(百濟記)』에 이 왕성의 몰락과 함께 위례(尉禮)를 상실하는 것이고, 위례(尉禮)는 고구려의 위나(慰那)에 동일하고 부여어로서 여진의 울자□(兀刺口)와 마찬가지로 강(江)의 뜻이 될 것이다. 한산(漢山)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과 이것도 함께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국도(國都)의 형세로서 전해지는 기사는 그것을 광주 고읍(廣州古邑)의 지역으로 해도 하등 잘못이 아니다.

『남한지(南漢志)』 역시 고읍(古邑)의 지역으로 백제 고도(故都)의 지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남한지 역시 구설(舊說)을 답습하여 이것을 도성(都城)으로 하고 연대를 온조 13년에서 근초고왕까지로 하고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상대(上代)에서 개로왕(蓋鹵王)까지로 보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남한지』에는, “백제사를 살펴보면 온조 13년에 한산(漢山) 아래에 성궐(城闕)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호(民戶)를 옮겨 이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하였다. 한산이라면 즉 지금의 일장산(日長山)이요, 온조가 산하(山河)를 따라 성궐(城闕)을 세웠다 하였으니, 성(城)을 산상(山上)에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온조(溫祚)가 도읍했던 성(城)이라고 하니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대개 그 구도(舊都)는 광주 고읍(廣州古邑)이니 지금의 검단산(黔丹山) 아래가 곧 도읍했던 곳이요, 옛 자취를 상고(詳考)할 만한 자료도 있다고 한다. 또 속(俗)에 이르기를 온조가 처음 대화산(大華山) 남쪽에 도읍을 정하려 하여 성(城)을 쌓을 자리를 둘러 재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도척면(都尺面)과 오포면(五浦面)의 사이가 된다. 또 이르기를 온조고성(溫祚古城)은 금암산(金巖山) 북쪽으로 10리쯤에 불룩 솟은 토산(土山)으로 이성산(二聖山)이란 산(山)이 있는데 지금도 성자취가 완연(宛然)하다. 국유림(國有林)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여기는 서부면(西部面) 초일리(草一里)이다. 고사(古史)나 야승(野乘)의 기록이 전하는 것은 모두 이것뿐이다. 애초부터 한산(漢山) 위에 성을 쌓았다는 기사는 없건만 세상 사람들이 고실(故實)은 살피지 않고 곧장 이르기를 그 고도(故都)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있으며 성은 온조(溫祚)가 쌓은 것이라고 하는데 백제사는 기록이 소략(疏略)하여 문헌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또한 어떻게 온조왕(溫祚王)의 구성(舊城)이 아님을 정확히 알겠는가?(按百濟史云溫祚王十三年就漢山下立城闕移慰禮民戶謂之河南慰禮城漢山即今之日長山而溫祖就山下立城闕則非 築城於山上也 而世以南漢山城爲溫祚所都之地也未知何據而爲說也蓋其舊都廣邑古邑而今黔丹山下即其所都之地也 猶有舊址之可尋者且俗傳溫祚初欲定都於大華山之南周度城址地是今之都尺五浦兩面之間又云溫祚古城在金巖山北十餘里突起爲土山名二聖山城址至今宛然是今之西部面也 古史野乘之傳記者惟此而已初無城於漢山上之文世人之不究故實直稱其故都在於南漢山城而城爲溫祚所築也濟史疎略文獻無徵則亦何以的知其非溫祚之舊城乎)”

이 책의 승적조(贖蹟條)에 “온조고성은 서부면의 금암산(金巖山) 북쪽 10여리에 우뚝 솟아 토산(土山)으로 되었는데 이성산(二聖山)이라 하며 성 터가 지금껏 완연(宛然)하다. 세속에 전하기를 온조 초에 대화산(大華山) 남쪽에다 도읍을 정하려 하여 성 쌓을 터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도척면(都尺面)이 그것이요 이성산이라 이름짓은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또 궁평(宮坪)이니 공세(貢稅)니 하는 지명이 있다. (溫祚古城在西部金巖山北十餘里突起爲土山名二聖山城此至今宛然俗傳溫祚初欲定都於大華山之南周度城址今之都尺面是也二聖命名似由於此又有宮坪貢稅等地名)”라 되어 있고, 온조(溫祚)가 대화산(大華山) 남쪽에 도읍을 정했다라는 전설은 남한지에 보여지는 그대로 이다. 대화산(大華山)은 대화산(大火山)이라고도 쓰며 광주의 남단에 솟아있는 표고 654m의 봉우리이다. 산의 남쪽에 노곡리(老谷里)내 도척(都尺) 등의 동리가 있어도 산간(山間)의 협지(狹地)에 불과하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토착인에 대해 또 도척면 곤지암 현병출장소에서 이러한 속전(俗傳) 및 관계유물

의 존부(存否)를 물어도 누구도 모르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성산성(二聖山城)에 대해서는 달리 기록할 것이다.

요약하면 개로왕대까지 백제 국도는 광주 고읍 부근이 되고, 가능한 한(이 지역은 평지라는 것도 논한다) 여기에 남북의 두개 산성이 있고 방어에 준비하는 것과 역사에 기록한 것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북성(北城)은 이성산성(二聖山城)이 되고 남성(南城)은 남한산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백제왕 궁궐계 유적에 대해서는 『남한지』에 「백제 이궁(百濟離宮)의 유적지는 지금 저자도(楮子島)에 있고 또 온조 행전(行殿)의 유적지가 일용면(日用面) 정자산(亭子山)에 있는데 어정(御井)과 창사(倉舍) 구 터가 있으며 그 남쪽에는 환자우(宦者隅)라는 지명이 있다(百濟離宮故址在今楮子島又溫祚行殿遺址在日用面亭子山有御井及倉舍舊基其南之水原又有地名宦者隅)」라 되어 있고, 저자도(楮子島)는 이 책 산천조(山川條)에 「저자도는 연주면(彦州面) 강중(江中)에 있으며 속칭 무동도(舞童島)라 한다. 섬 남쪽 작은 바위가 동자(童子) 모양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하며 기우단(祈雨壇)이 있다(楮子島在彦州江中俗稱舞童島南小巖如童形故名有祈雨壇)」라는 지역으로 경성에 가까워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이다. 자산(子山)은 「정자산은 일용면(一用面)의 남쪽에 있으니 들가운데 조그만 산이지만 백제 때 이궁(離宮)의 유적지가 있다(亭子山在一用面即野中小山也有百濟離宮址)」이고 「지금은 수원에 속해 있다(今屬水原)」라고 주(注)하고(백제 고도터 기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에 기록한(사진12호) 고광주조(古廣州條)를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부면 고읍 부근(전방의 산은 남한산으로 바라보는 왼쪽에 큰 나무는 향교의 은행나무이다)에 있다.



사진 12.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고읍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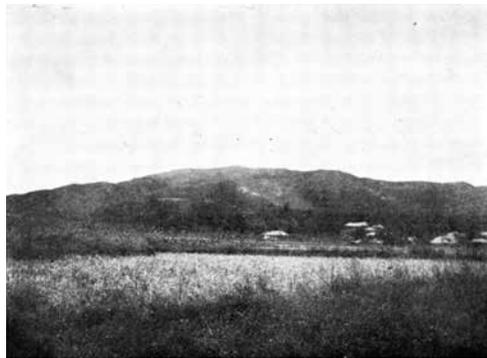


사진 13. 경기도 광주군 서도면 초2리 이성산성



백제국도 터 원고(4.3.2.1.)



백제국도 터 원고(8.7.6.5.)



백제국도 터 원고(10.9.)

3. 이성산성(二聖山城)

이 고산성(古山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바가 없고 앞에 열거한 것처럼 『남한지(南漢志) 성지(城池) 조(條)에 “또 온조고성은 금암산(金巖山) 북쪽 10여리에 우뚝 솟아 토산(土山)으로 되었는데 이성산성(二聖山城)이라 하며 성 터가 지금껏 완연(宛然)하다. 지금의 서부면이다.(又云溫祚古城在金巖山北十餘里突起爲土山名二聖山城址至今宛然地是今之西部面也)”라 하여 승적(勝蹟)의 조(條)에 동일한 기사가 있고, 대동여지도에는 이 산에 성지(城址)가 있는 것이 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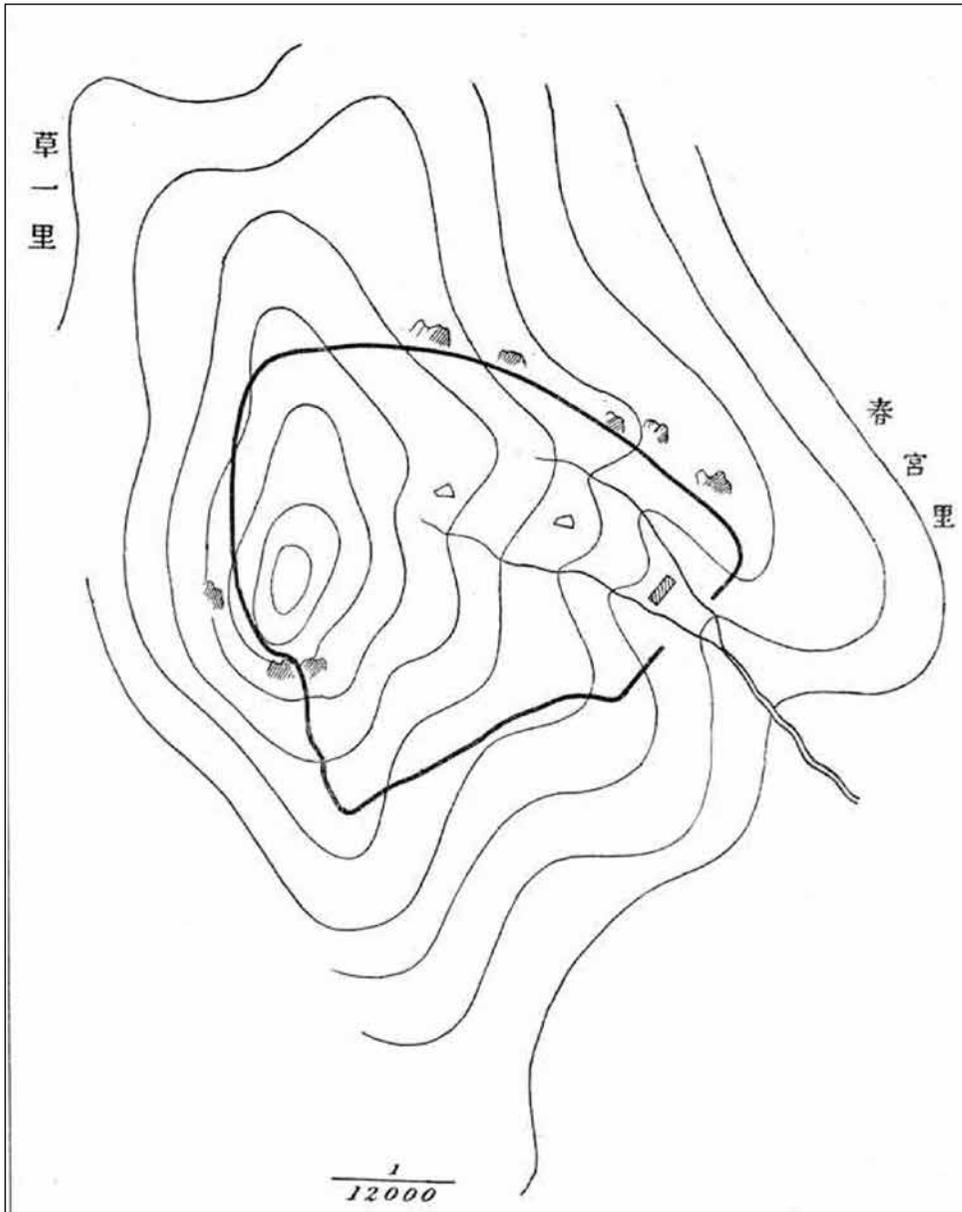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이성산성

이성산(二聖山)은 남한산(南漢山)의 북쪽에 있는 금암산(金巖山) 보다 더 북쪽에 있는 표고 198m의 토산이다. 즉 남한산 연주봉에서 북쪽으로 펼쳐 나가 좀 낮은 표고 313m의 금암산이 되고, 더 북쪽으로 나아가 더 낮은 약 40m가 되어 단락을 이루고, 더 북쪽으로 솟은 표고 198m의 토산 즉 이성산(二聖山)이 되는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육지측량부 50,000분의 1 지도에는 금암산은 성산(聖山)으로 기명하고 이성산(二聖山)에는 산명(山名)을 기록하지 않아, 이 지도에 의해 이성산을 찾으려 할 때는 틀리기가 쉽다. 단 금암산(金巖山)에 성산(聖山)이라는 별명(別名)이 있다고 말한다.

이성산은 고읍 향교(古邑鄕校) 서쪽에 있고, 그 산기슭 서부면(西部面) 춘궁리(春宮里: 궁촌리 춘장리를 합병하여 명명(命名)하다) 향교방면에서 멀리 바라볼 때는 유적지가 없는 것처럼 (사진 13호) 앞에서 기록한 표고 198m에 불과한 토산(土山)이고, 서쪽은 점점 가파르고 험준해지고, 남쪽은 이 다음으로 가파르고, 북쪽은 상당히 멀리에 걸쳐 구릉으로 이어져 자못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작은 시냇물(小溪)은 동쪽의 춘궁리로 흘러가고, 이 산은 동쪽을 정면으로 한다. 성벽(城壁)은 이 계곡의 중간 산기슭 이상을 포용하고, 서부에 있어서는 정상에 가까운 위치에 가로로 놓여 있으며, 동쪽은 쫓아가고 서쪽은 잡으러 가는 것처럼 되어 있다. 북쪽에 대해서는 방어의 힘이 약하다. 이런 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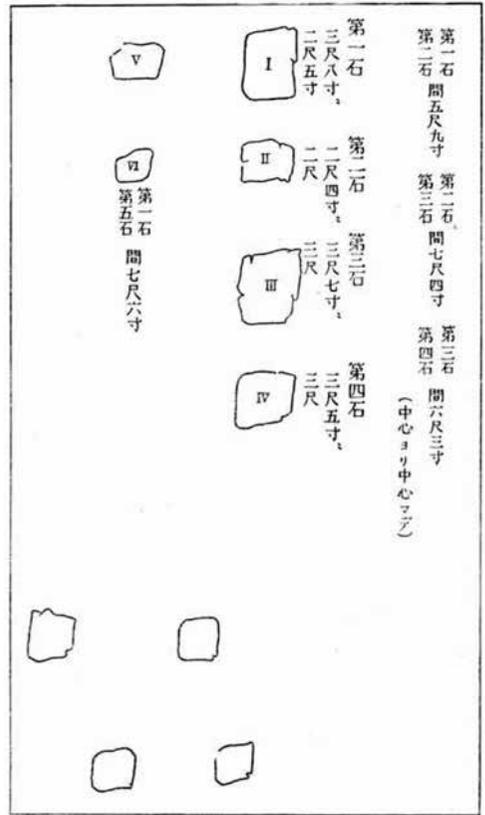


그림 2.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이성산성 남은 초석



사진 14.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이성산성 1



사진 14.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이성산성 2

의 종류가 대부분 산성(山城)의 보통형식으로 규모가 작다.(제2도 및 5만분의 1지도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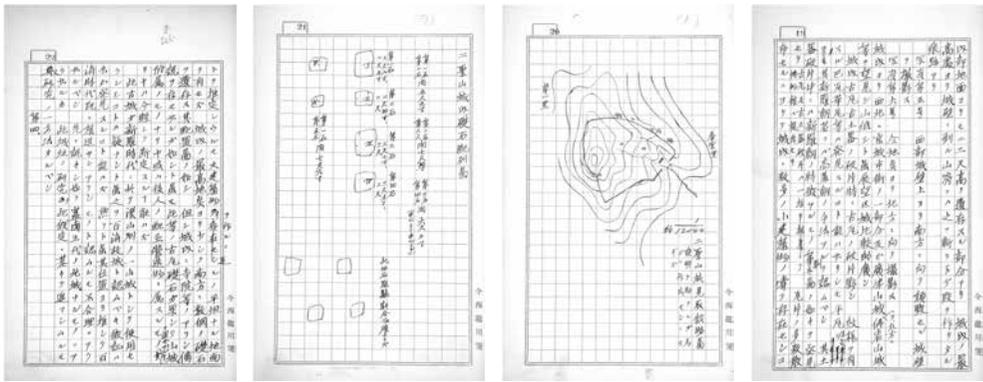
성벽(城壁)은 석축(石築)으로 현재 붕괴가 매우 심해도 그 터의 윤곽은 잔존하고 있다. 원래의 높이는 불명확하지만 잔존하는 부분에서 추측하면 약 10척 내외가 될 것이다. 벽(壁)은 현재에도 내부지면(内部地面)보다 2-3척 높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성내(城內)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성벽에 이르는 산허리에는 그것을 나누어 단(段)을 만들었던 흔적이 있다(사진 14호: 서부 성벽 위에서 남쪽을 향해 무너진 성벽을 촬영한 것, 사진 15호: 같은 지점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한 것). 성내(城內)에서 서북으로 경성시가(京城市街)의 일부분 및 광진산성(廣津山城) 북쪽에 불암산성(佛巖山城) 등이 멀리 바라보이며 산이 낮아도 전망구역은 비교적 넓다.

성내(城內) 옛 기와(古瓦) 옛 토기(古土器)의 파편 특히 옛 기와의 잔편이 매우 많다. 문양이 있는 파와(巴瓦:연꽃무늬를 새긴 기와) 꽃 기와(華瓦) 등은 쉽게 발견되지 않아도 평와(平瓦)에 의해서도 신라시대 혹은 고려시대의 수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토기 파편 중에는 신라시대의 특징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와편(瓦片)의 다수가 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 성내(城內)에 많은 소건축물이 이전에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어도, 대건축물(大建築物)을 만들기엔 필요한 평탄한 지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성내의 최고지점에서 조금 남쪽으로 여러개(數個)의 초석(礎石)이 잔존하는 것은 배치도와 같다(제2도). 단 성내에 사원(寺院) 등이 있고 전설이 존재할 지라도 그러한 옛 기와(古瓦) 초석(礎石)이 과연 산성(山城)의 부속의 것인가 혹은 후대 사람의 만든 구조물이 배치된 것인지 혼란스럽다. 지금 그것을 가볍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고성(古城)이 신라시대에 있어서 한산주(漢山州)의 하나의 산성(山城)으로 사용된 것은 의심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백제(百濟古城)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위치에서 추정하여 백제시대 이미 축조된 것이라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로왕대(蓋鹵王代)의 북성(北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성터(城址)의 연구를 이 가정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것도 또한 연구의 한 방법일 것이다.



이성산성 원고(3.2.1)



이성산성 원고(7.6.5.4.)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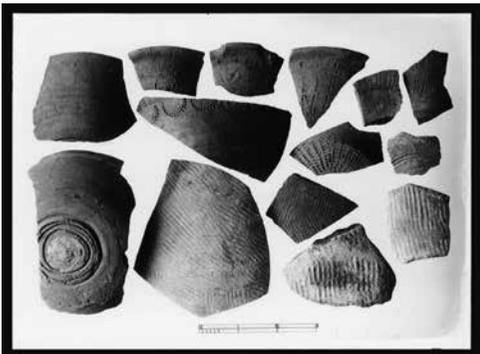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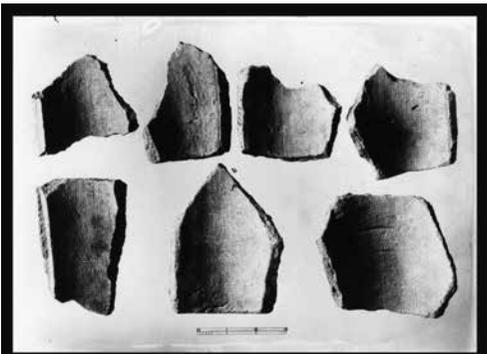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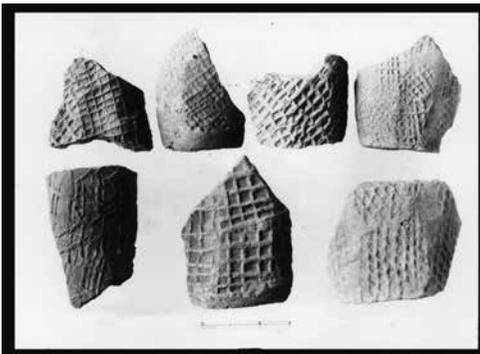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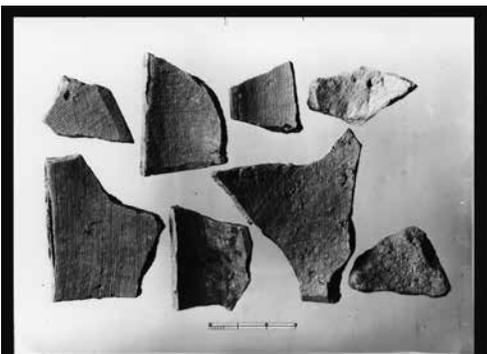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36번지 일대 해발 209.8m의 이성산에 위치한 삼국시대 포곡식(包谷式) 석축 산성으로 2000년 9월 16일 사적 제422호로 지정되었다. 이성산성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북쪽의 금암산 줄기에 접해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북쪽 한강쪽으로는 주변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성산성은 배후 평야지역의 방어와, 강북의 침입자 방어가 용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성산성의 규모는 전체 둘레가 1,665m이고, 내부 면적은 약 128,891㎡로 삼국시대 산성으로는 대형에 속한다. 이성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영역 싸움을 하던 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삼국시대 한강 이남의 정치체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성산성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1986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3차례 이루어졌다.⁵⁸⁾ 이성산성은 총 2차에 걸쳐 쌓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건물터, 문터, 저수장, 배수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철제 말, 목간(木簡), 요고(腰鼓)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무진년정월십이일 봉남한성도사(戊辰年正月十二日 朋南漢城道使...)」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무진년”은 603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성산성 외곽에 대한 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적심, 기단석축, 암거시설, 박석시설 등이 확인되었다.⁵⁹⁾

- 58) 漢陽大學校, 1987, 『二聖山城 -發掘調査中間報告書-』.
- 漢陽大學校, 1988, 『二聖山城 -2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 1991, 『二聖山城 -3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 1992, 『二聖山城 -4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 1998, 『二聖山城 -5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 1999, 『二聖山城 -6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二聖山城 -7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二聖山城 -8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2, 『二聖山城 -9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3, 『二聖山城 -10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6, 『二聖山城 -11次 發掘調査 報告書-』.
- 漢陽大學校博物館, 2012, 『二聖山城 -12次 發掘調査 報告書-』.
- 한양대학교박물관, 2018, 『二聖山城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 59) 한양대학교박물관, 2018,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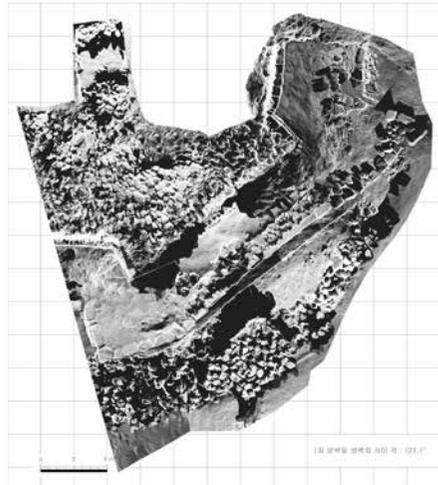
이성산성 유리건판 사진



이성산성 출토 유물 유리건판 사진



1980년대 이성산성(왼쪽)과 현재의 이성산성(오른쪽)



이성산성 동문터(왼쪽)와 동문 치(오른쪽)



이성산성 남문터(왼쪽)와 동문터(오른쪽)



이성산성 A구역 저수시설(왼쪽)과 장방형 부석건물터(오른쪽)



이성산성 동문터(왼쪽) 및 건물터(오른쪽) 복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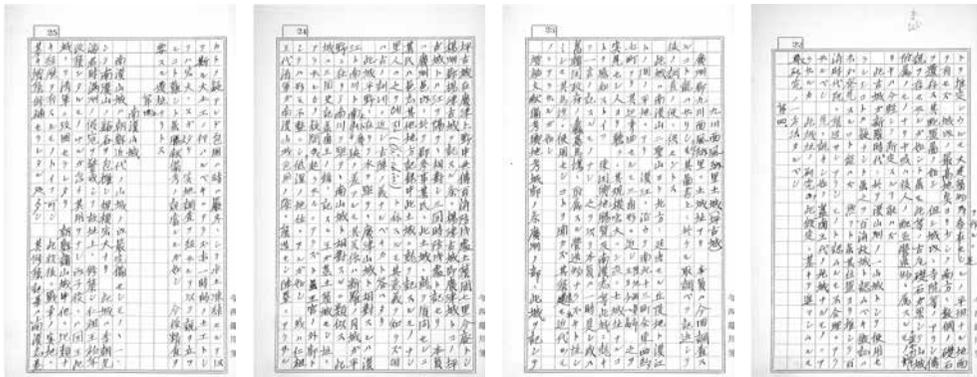
4. 구천면 풍납리토성(九川面風納里土城) (평고성:坪古城)

광주군(廣州郡) 구천면(九川面) 풍납리(風納里)에 토성터[土城址]가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도서(圖書)를 통해 취조(取調: 조사하여 취해야 할 것)해야 할 것을 기술하여 후의 조사에 편리하도록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성은 남한산 이성산(南漢山二聖山)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구릉지와 한강 사이의 평지에 있고, 한강에 따라 남북 13정(町) 여, 동서 약 7정(町) 정도이다. 이 성의 주변이 만곡(彎曲: 활모양)으로 되어 있어도 삼각형에 가깝다(육지측량부 50,000분의 1지도). 이것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에게 의해 들으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서 바로 토성터[土城址]가 되는 것을 감지했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및 『남한지(南漢志)』 등에서 이 성에 대한 기록이 한마디도 없다. 이것으로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일시 혹은 구한국정부의 독섬마장(蘇島馬場)에 부속한 건축물(營造物)이 아닌까 의심하는 것도 이 마장(馬場)에 사용되었음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축조도 역시 근대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 성곽(城郭)의 조(條) 광주부(廣州部)에 이 성을 기록하여 “평고성(平古城)은 광진 위 뜰(野)에 있는데 중세 백제가 방어하기 위해 토성을 축조했다. 주위가 7리이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고 전한다(平古城在廣津上野中世傳百濟防成處土築周七里今廢)”라고 하여 양주군(楊州郡) 양진고성(楊津古城)을 기록하는 조(條)에 양진고성 즉 광진성(廣津城)과 이 평고성(平古城)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여 삼국 방수처(三國防戍處)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광주 읍내(廣州邑內)에서 군 참사(郡參事) 모씨(某氏)에게 이 토성(土城)에 대해 질문을 하자, 모씨는 읍지(邑誌) 기타 지방기록중 이 토성에 대해 기록한 것이 없고, 마을 사람(里人)은 ‘예진’이라 칭하는 것도 그 뜻(意義)을 알지 못하고, ‘예’는 고(古)의 훈(訓) ‘네’에 가깝고 옛 진(古陣)의 뜻이 되지 않은가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성은 평야에 있고 물과의 거리를 광진산성(廣津山城)과 상대하면 한강과 남천(南川)의 대소 광협의 차가 있어도, 그 관계는 신라의 월성(月城)이 평야에 있고 남천과의 거리를 남산성과 서로 상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성은 삼국사기 개로왕의 조에 기록된 ‘왕이 흙을 구워 성을 쌓은(蒸土築城)’ 터가 아닌가의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왕궁의 외곽으로는 형체가 정리되지 않아(不整) 저습(低濕)의 지위에 있는 것 같다. 혹은 인조대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 포위할 때 축조된 진루(陣壘)에 있는 것이 아닌가의 의심도 (바로 청나라 군대가) 포위할 때 엄동설한(嚴冬雪寒)으로 물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대단위 토목공사를 해야 할 것인데, 역시 일시적 토목공사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설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후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유적지이다.



풍납리토성 원고(4.3.2.1)

(해제)

풍납리토성은 현재의 풍납토성을 의미한다. 서울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적(古蹟) 제27호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호로 지

정되었다. 내부 면적은 총 397,622.8㎡에 달하며, 성의 둘레가 4km에 달하였지만 1925년 홍수로 남서쪽 일부가 잘려나가 현재는 약 2.7km 가량 남아있다. 풍납토성은 한강변에 남아있는 백제의 평지 토성이다. 일제강점기까지 풍납토성은 백제의 여러 성 가운데 하나로만 여겨졌다. 당시 일본 학자들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풍납토성은 방어를 위해 쌓은 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풍납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노모리 겐(野守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쇼와(昭和) 2~4년(1927~29년)도 실시한 여주군 상리·매룡리 고분군 조사 결과에 대한 출장 복명서를 보고 하면서 풍납토성에서 채집한 유물 일부를 소개한다. 물론 을축년(乙丑年, 1925년) 대홍수 과정에서 청동 다리미(簍)가 노출되어 보고된 바 있지만 정식 고고학 조사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 풍납토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64년 김원룡에 의해 이루어졌다.⁶⁰⁾ 당시 개요는 이후 단행본 보고서로 보고되었다.⁶¹⁾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때에 처음으로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이외에 중도식무문토기(中島式無文土器)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1980년대까지 특별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시기까지 인접한 몽촌토성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백제의 왕성을 몽촌토성으로 비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풍납토성은 한성을 보호하는 방어성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운명은 삼시간에 뒤바뀌게 되었다. 조사 결과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다수의 집자리와 엄청난 양의 유물들로 인해 백제의 왕성이 풍납토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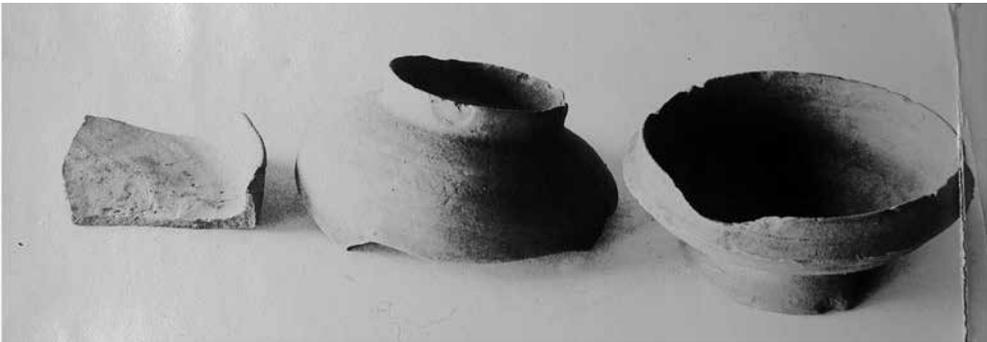
60) 金元龍, 1964, 『風納里 土城內 住居層』, 『考古美術』 5-11.

61) 서울대학교考古人類學科, 1967,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6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風納土城』Ⅱ.
한신대학교博物館, 2003, 『風納土城』Ⅲ.
한신대학교博物館, 2004, 『風納土城』Ⅳ.
國立文化財研究所, 2005, 『風納土城』Ⅴ.
한신대학교博物館, 2005, 『風納土城』Ⅵ.
한신대학교博物館, 2006, 『風納土城』Ⅶ.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風納土城』Ⅷ.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風納土城』Ⅸ.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風納土城』Ⅹ.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Ⅺ.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風納土城』Ⅻ.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風納土城』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風納土城』Ⅽ.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風納土城』Ⅾ.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風納土城』Ⅿ.
한신대학교박물관, 2015, 『風納土城』ⅰ.
한신대학교박물관, 2015, 『風納土城』ⅱ.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風納土城』ⅲ.



풍납토성 유리건판 사진



노모리 겐[野守健]이 1927~29년 여주군 상리·매룡리 고분군 출장 복명서 내 풍납토성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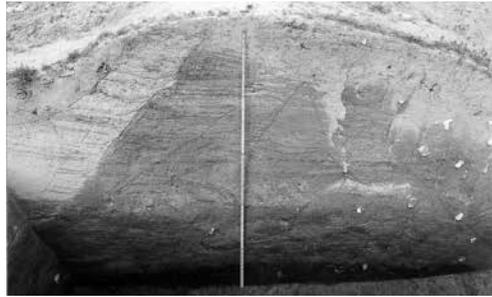
풍납토성 현재 상태(왼쪽)와 복원도(오른쪽, 한성백제박물관)



풍납토성 나지구(1), 다지구(2), 라지구(3), 경당지구(4) 조사 후 사진



풍납토성 성벽 단면



풍납토성 성벽 구조



풍납토성 경당지구 대형 집자리(1), 대진·동산연립부지 우물터(2), 경당지구 우물터(3,4)

5. 남한산성(南漢山城)

남한산성은 조선 근대(朝鮮近代) 산성(山城)에서 가장 완비된 산성 가운데 하나로서 남한산(南漢山)의 계곡을 포용하고 있어 규모가 광대하다. 이 성은 조선 광해군(光海君) 때 만주의 침략을 경계하여 옛 터(故址) 위에 수축(修築)하고 인조 초(仁祖初) 개축했던 것인데, 갑자기 그것이 사용되어 병자역(丙子役: 병자호란)에는 국왕(國王: 인조)이 이 성에서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되어 조선의 여러 산성 중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력을 지닌다. 이 병자호란 후에 전쟁의 실지(實地)에 기초하여 증축 보수한 곳이 많고, 이 수축(修築) 기사는 『남한지(南漢志)』 권1 성지(城池)의 조(條)에 상세하다. 지금 그것은 생략한다.

이 산성 안으로 포용하는 남한산 계곡물은 동남으로 흐르고 더욱이 동쪽으로 흘러 우천(牛川)으로 들어간다. 이 산수(山水)의 형세에서 논하면 이 산성은 동문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 4문 가운데 남·북·서 3문은 높은 고개 위에 세워지고 동문만 계곡에 따라 위치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동문은 이천(利川) 방면과 성내(城內)에 있는 광주읍(廣州邑)과의 교통로에 해당되어 경성방면(京城方面)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 남문·서문은 송파 삼전도(松坡三田渡) 방면에서의 교통로에 해당되고, 경성과의 교통은 이 2문중 남문을 이용하는 것이 많다. 이 문은 고읍방면(古邑方面) 광진도(廣津渡) 방면의 교통로가 되고 언덕길이 매우 험준하다.

광주읍치(廣州邑治)가 북문 아래의 평야 즉, 지금 고읍(古邑)의 땅에 있고, 시대에 따라 읍과 경성방면과의 교통은 광진도(廣津渡)를 경과한다. 지금의 송파가도(松坡街道)는 주요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의 조(條)에 도미(渡迷)·진촌(津村)·광진(廣津)의 삼도진(三渡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산성(山城)의 형세는 북한산성(北漢山城)과 매우 흡사하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등한 2개의 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신라의 일장산성 터(日長山城址)가 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일장산성(日長山城)은 주치(州治: 지금 고읍의 땅에 있다)의 남쪽에 있다. 【높고 험하며, 둘레가 3천 9백 93보(步)요, 안에 군자고(軍資庫)와 우물 7이 있는데, 가뭄을 만나도 물이 줄지 아니한다. 또 밭과 논이 있는데, 모두 1백 24결(結)이다. 《삼국사(三國史)》에는,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비로소 한산(漢山)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日長山城在州治南高險周回三千九百九十三步內有軍資庫井七遇旱不竭又有旱田水田共一百二十四結三國史云新羅文武王始築漢山晝長城)」 라 하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일장산성 즉, 신라시대 주장성은 문무왕이 축성했다. 성안에 우물 6개와 계곡 주위가 8만6천8백 척이고 높이가 34척의 석축으로 쌓았다(日長山城卽新羅時晝長城文武王所築內有六井及溪周八萬六千八百尺高三十四尺築)」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둘레의 척도(尺度) 8만6천8백척은 오류이다. 현재의 산성도 둘레가 2만3천6백60척에 불과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문무왕 12년 8월조에 「한산주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천3백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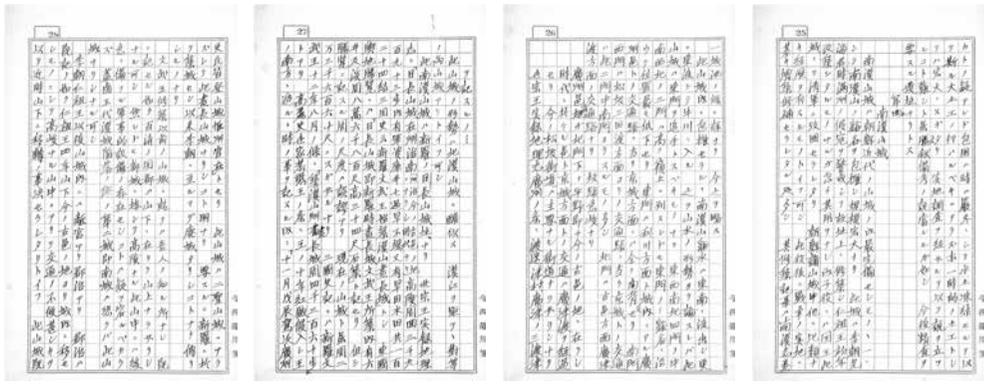
보이다(築漢山州畫長城周四千三百六十步)』로 되어 있고,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공민왕조(恭愍王條)에 공민왕 10년 흥건적이 침입하고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신한 사건을 기록한 중에 「11월 무진 어가가 광주에 이르니 이민(吏民)은 모두 산성(山城)에 올라가고 주관(州官)만이 남아 있었다(十一月戊辰駕次廣州吏民皆登山城惟州官在)」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이 산성은 이성산성(二聖山城)이라 할 수 없고, 이 주장산성(畫長山城)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면 신라에서부터 축성한 이래 조선에 이르기까지 폐성(廢城)되지 않고 전해진 것이 된다.

문무왕 수축(修築) 이전의 산성(山城)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이미 기록한 것처럼 백제의 국도(國都)는 산 아래에 있고 산 위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럼에도 도성(都城)에 인접하고 높고 험준한 이 산중에는 일단 유사시에 준비할 군사적 설비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개로왕 시대 한성(漢城)이 몰락할 때 제2성 즉 남성(南城)은 필시 이 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인조이후 산성 내에는 이궁(離宮)이 있고 군 치소(郡洵)가 있었다. 군 치소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인조 4년 산 아래 지금의 고읍(古邑)의 땅에서 성 안(城內)으로 이주한 것이다. (군 치소가) 높고 험준한 (이) 산중에 있고 (계다가)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근래 산 아래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산성은 이미 옛날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벽 누문(城壁樓門) 중에서 서장대(西將臺)가 가장 전망이 좋다. 한강의 긴 흐름을 바라보며 북한(北漢)의 여러 산과 서로 맞물려 풍광(風光)이 웅대(雄大)하다.

성내(城內) 백제 신라의 유물은 한 조각의 기와 편도 발견하지 못했다. 『남한지』 권2 궁실(宮室)의 조(條)에 “침괘정 행궁의 서쪽 작은 언덕에 있다. 축성 총책임자 이서(李曙)가 올창한 나무숲 속에서 찾아낸 옛 건물인데, 그 당시 이 집은 몇 백 년이나 됐는지 알 수 없었으나 기둥과 초석이 모두 탄탄하였고 방을 덮히는 온돌도 말짱하였다고 한다. 특히 방 한복판의 온돌은 몇 척이나 더 높았는데 시험 삼아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니 이 방이 먼저 덥고 차차로 낮은 다른 방으로 번져 가는데, 당시 이곳 촌로들은 이곳이 온조왕의 궁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침괘정 오른쪽에 군기고를 세웠다. (중략) 영조 신미년 광주유수 이기진이 이곳을 중수하고 ‘침괘정’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枕戈亭 在行宮之西小阜上完豐李公李曙築城時於林藪中得一古閣不知爲幾百年而柱礙皆因房埃不夷當中一間高其埃爲數尺熱火於竈高處先溫及於下俟民謂之溫祚宮云遂於閣右建軍器庫 (中略) 英宗辛未留守李箕鎮名扁曰枕戈亭)”라고 되어 있다. 지금은 침괘정(枕戈亭)도 황폐하고 고각터(古閣址)도 (역시) 불명확해도, 그것을 백제(百濟)의 유물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지방민(地方民)의 상상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성(山城)은 지금 성벽(城壁)이 무너져 있고 이궁(離宮) 등 건축물은 너무 황폐해져 심히 애석할 뿐이다.



남한산성 원고(4.3.2.1.)



NO無 112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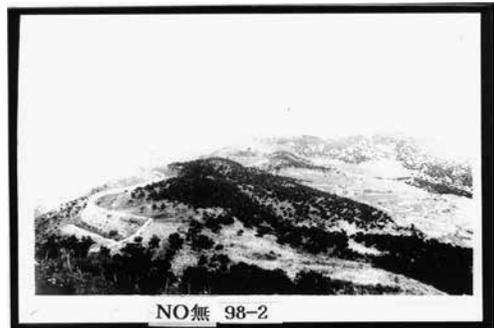


NO無 1086-12

남한산성 원고(5)와 유리 건판 사진



NO無 1086-13



NO無 98-2



NO無 1118-8



NO無 890-1

남한산성 유리 건판 사진

(해제)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에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이 있다.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석축 산성이다. 이전 기록으로 673년(문무왕 13년)에 한산주에 주장성(叢長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남한산성으로 추정된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년)이다. 병자호란이 있었던 1636년(인조 14년)에 왕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수리 과정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한산성의 내부에는 동·서·남문루, 장대·돈대·보, 암문, 우물, 관아, 군사훈련 시설 등이 있다. 이곳에는 백제 전기의 유적이 많이 있어 일찍부터 백제 온조왕 때의 성으로도 추정되기도 하였다.

남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행궁터, 성벽구간, 절터 등 다양한 유구가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⁶³⁾ 기타 최근에는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17년 9월 남한산성 국청사지를 조사하였고, 2018년 5월에 정비복원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라문화재연구원에서 2018년 11월 남한산성 연무관 매입부지를 조사 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한편 남한산성의 학술적 중요성이 재조명 되면서 2018년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⁶⁴⁾

6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남한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행궁지 -제3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남한행궁지 -제4·5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4, 『남한행궁지 -제6차 발굴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10, 『남한행궁지 -제7·8차 발굴조사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남한산성 인화관 및 침괘정 주변지역 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1, 『남한산성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南漢山城 演武館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南漢山城 第2·3南甕城』.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南漢山城 人和館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南漢山城 廢寺址 試掘調査 報告書』.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연무관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南漢山城 漢興寺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南漢山城 第1南甕城』.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南漢山城 軍鋪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南漢山城 水口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남한산성 남장대』.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광주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수구 권역 유적』.

64) 경기문화재연구원, 2018,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 2018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남한산성 전경



남한산성 남용성(1~3)과 수구(4)

6. 무덤(古墳) 중대면(中袋面) 석촌마분(石村馬墳)

광주군(廣州郡) 여러 지방에서 무덤(古墳)은 중대면 석촌 부근에 군집(群集)한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는 없다. 석촌무덤군(石村古墳群)은 지지(地誌) 기타 기재가 없어도 일찍부터 총독부 촉탁 세키노(關野) 박사의 관심과 세키노 박사의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석촌(石村)은 송파진(松坡鎭)에서 남쪽으로 7 - 8정(町) 떨어진 곳에 한강에 의해 퇴적된 고은 흙(細土)으로 이루어진 평지보다 조금 높은 지점에 있다. 석촌 부락은 수많은 황총(荒塚)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무덤은 이 부락의 중심이고 멀리 동남쪽으로 분포하여 논밭 사이에 산재한다.

무덤(古墳)은 적석총(積石塚) 및 토총(土塚)의 2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적석총은 높고 커서 석촌 부락에 모여 있고(群集), 토총(土塚)은 형태가 작고 촌락의 남쪽으로 미쳐 동쪽에 모여 있거나 혹은 산재한다. 이 무덤은 그 지역사람들이 마분(馬墳)이라고 부르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의 군마(軍馬)를 매장한 것이라 전한다.

적석총(積石塚)은 석촌 부락민이 민가(民屋)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평평하게(夷平) 하고 파괴시킨 것이 적지 않다. 이 석재는 민가의 담장으로 사용하여 풍부하게 남아있어 이 부락은 석축으로 담을 서로 연결하여 성벽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석촌(石村)의 호칭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석재는 지름(徑) 1척 내외이고 남한산(南漢山)의 암석과 석질이 동일하다. 단 이 부락 부근의 흙 속(土中)에는 자갈(礫石)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토총의 봉토 중에도 석재 및 자갈을 섞어 넣었다.

적석총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지금 약간의 원형을 인정할 만 것이 몇 개있다.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1적석총(第一積石塚) 부락 내에 있고 현재의 높이는 목측(目測)으로 20척 이상, 지름은 약 15칸(間)이다. 이미 여러 번 돌을 사용하기 위해 철거되어 총(塚) 위에 쌓여 있는 나머지가 소봉(小峯)을 형성하고 병석(屏石) 등은 없다. 기저(基底)가 원형인가 사각형인가는 판명할 수 없다. 이 지역 토착인은 이 총을 오봉산(五峯山)이라 부른다.(사진 16호는 그것을 남쪽에서 촬영한 것이다)

제2적석총(第二積石塚) 제1적석총의 남쪽에 있고 조금 동쪽에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간의 거리가 약 반 정(町)이 된다. 부락의 남쪽 가(南邊)에 있고 석재를 너무 많이 철거하여 매우 낮아져 높이가 현재 10척에 불과하다. 제1(적석총)보다도 조금 작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총도 오봉산(五峯山)이라 칭한다. 이 오봉산의 호칭은 오적석총(五積石塚)의 총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3적석총(第三積石塚) 제1총의 동남 제2총의 동쪽에 있고 심하게 이평(夷平: 거칠게 평평해짐)되어 초생지(草生地)가 되어 남아 있다.(사진 17호는 제1적석총의 남쪽에 있는 토총 위에서 촬영한 것이다. 바라보는 왼쪽에 소구릉 같이 2-3 수목이 있는 것은 제1총이 된다) 이 전방 민가 앞에 있는 것은 제2총이 된다. 사진이 졸렬(拙劣)하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총(塚)의 적석을 도용(盜用)하여 축조한 민가의 담

과 총(塚)과의 구별을 판별하기 어렵다. 제2층을 향해 오른쪽에 제3층이 있어도 사진으로는 판명하기 어렵다.



사진 16.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석촌리 무덤 1



사진 17.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석촌리 무덤 2

제4적석총(第四積石塚) 제1층의 동남, 제2층의 서북에 제2층에 가깝게 잔존하고, 지름이 약 8 - 9칸(間) 높이가 약 10척 기저는 원형이다. 지금 소대(小臺)가 되어 적석이 남아 있어도 그 토양에 자갈을 혼합하여 이 상태에서 토층이 거칠게 평평해지는 것도 보이지 않고 온전히 적석총의 기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토총(土塚)은 높고 큰 것은 목측으로 높이가 약 10척에 달하는 것도 있고 5-6척인 것이 일반적이다. 원형인 것처럼 앞에서 말한 적석총의 남쪽에 서로 열을 지어 연결되어 멀리 동남 쪽으로 산재한다. 이 봉토에 자갈 및 돌을 혼합한 것은 단순히 이 지역 부근의 토양을 운반하여 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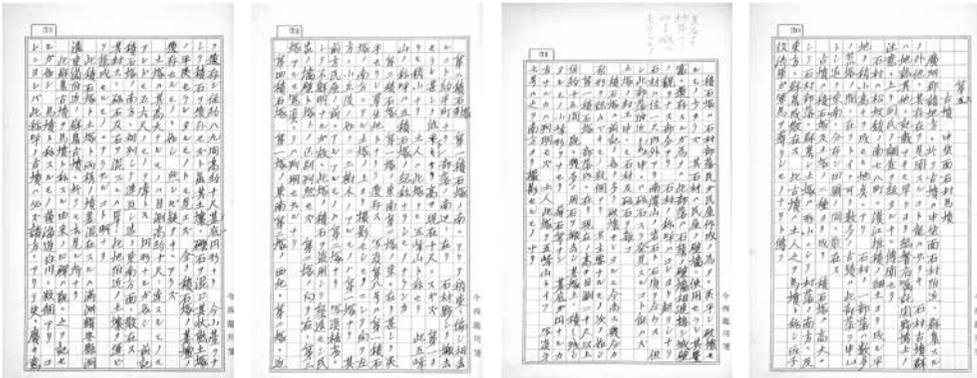
이 적석총(積石塚)과 토총(土塚) 두 형태의 분묘가 혼재하는 것은 만주 집안현(滿洲輯安縣) 동구 동강(洞溝東崗)부근에 모여 있는[群集] 무덤(古墳)에서도 역시 보여 지는 바이다.

이 군집 무덤(群集古墳)을 마분(馬墳)이라 칭하는 유래의 말(口碑)은 이미 그것을 기록한 것과 같고, 마분이라 칭하는 것 황해도 백천(白川)에 서너 개[數個] 있고, 이것에 의하면 이 호칭의 무덤은 반드시 여러 곳에 있고 더욱이 광의로 그 호칭을 가지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의 존호에 막리지(莫離支)가 있고 신라 왕호에 마립간(麻立干)이 있다. 지(支)는 간(干)과 고음(古音)이 서로 가깝다. 막리지 마립간은 모두 동어로 막리·마립이 모두 현대조신어로 머리(頭)의 뜻이라 할 수 있다. 머리(頭)와 말(馬)은 훈이 서로 가깝다. 이 마분이라 칭하는 것은 막리(마립)분의 전와(轉訛)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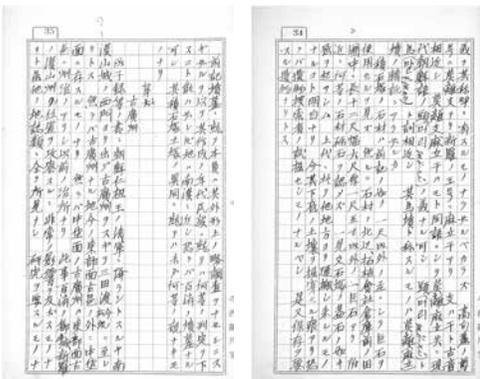
적석총의 석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척 내외의 지름으로 거석(巨石)을 사용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대도 석재의 북변(北邊) 척식회사(拓殖會社) 창고 앞의 논밭 중에 길이 12척 폭

6척 두께 1척5촌 내외 하나의 거석이 있다. 부근에 어떠한 석재 자갈을 인정할 수 없어 일견 지석층의 덮개 같은 느낌이 일어난다. 아주 옛날(上代)에 다른 지방에서 운반해 온 것이 명백하다. 지금 그 밑바탕(下底) 토양을 굴착한 흔적이 있다. 필시 유물수색자의 시굴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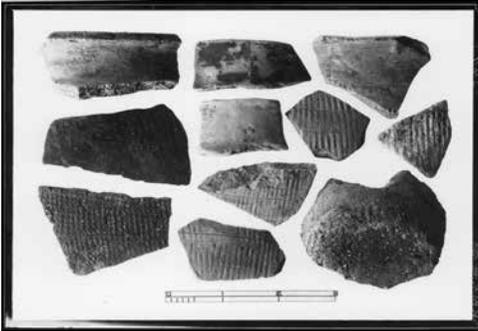
앞에서 기록한 분묘에 대해 본 고적조사위원은 외형상 대략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의 연대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판정도 내릴 수 없어도 그 지역은 남한에 가까워 필시 백제의 분묘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적석층·토층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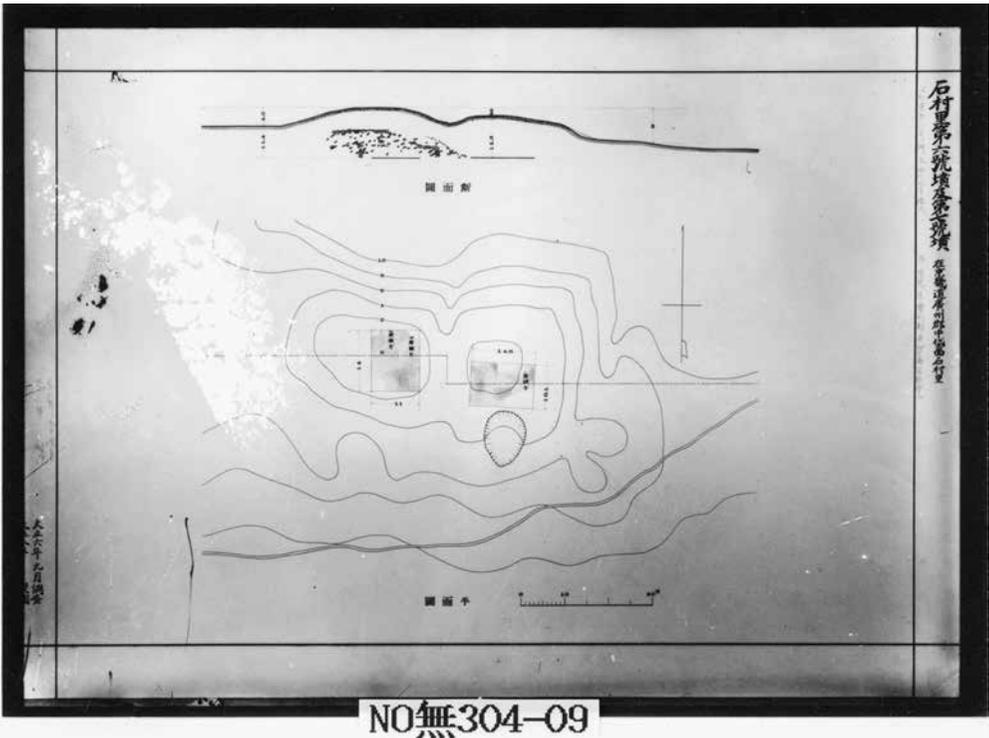
석촌동 무덤군 원고(4.3.2.1.)



석촌동 무덤군 원고(6.5.)



석촌동 돌무지무덤 유리건판 사진



석촌동 6·7호 돌무지무덤 유리건판 사진

(해제)

석촌말무덤[石村馬墳]은 현재의 석촌동 고분군을 의미한다.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61-6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의 무덤군으로 1975년 5월 27일 사적 제243호로 지정되었다. 1910년대까지 약 300기 내외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것은 5기뿐이다. 구조는 돌을 쌓아 만든 기단식의 돌무지무덤[積石塚]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하고 건설한 초기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무덤은 높은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고 밑 테두리에는 매우 크고 긴 돌을 둘러 자연석으로 쌓아올려 3단으로 만들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졌다. 1911년 9월 18일에는 석촌동 일대 지표조사 및 무덤분포도가 작성된다.⁶⁵⁾ 이후 이미니시 류[今西龍]가 이 책에서 석촌동 무덤군의 분포, 현상 기술 및 1호~4호까지의 외형 등을 기술하였다. 이후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이 조사책임자가 되어 1917년 9월 석촌동 및 방이동 무덤분포도, 표본 조사 결과(석촌동 1~4호 실측, 석촌동 6·7호 내부조사, 석촌동 8호 실측, 가락동 1호 실측, 가락동 2호 내부조사)를 발표하였다.⁶⁶⁾

해방 이후에는 196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처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74년 잠실지구 유적조사단에서 발굴하였을 때에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은 3·4호분(돌무지무덤)과 5호분뿐이었다. 1983~84년에 3·4호분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하였다. 또한 1986~87년에는 백제고분공원 건립계획에 따라 1·2호분을 비롯한 돌무지무덤, 돌덧널무덤(石槨墓), 독무덤(甕棺墓), 움무덤(土壙墓) 등 여러 유구가 발견되었다.⁶⁷⁾ 한편 서울대학교박물관은 기존에 발표된 석촌동 유적의 조사 성과를 재정리하여 석촌동 유적 재보고를 발표하고 있다.⁶⁸⁾ 최근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석촌동과 방이동무덤군을 잇는 한성백제 왕릉구역 설정하고 풍납토성, 몽촌토성으로 구성된 왕성과 함께 백제 도성의 경관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차 발굴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는 백제왕실 장례문화를 밝힐 수 있는 사람뼈, 장신구, 기와 등이 출토되어 주목된다.⁶⁹⁾

65) 谷井濟一, 1912, 『彙報: 朝鮮通信』, 『考古學雜誌』.

朝鮮總督府, 2014, 『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016, 『朝鮮古蹟圖譜』, 3.

66)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5,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

梅原未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67) 金元龍, 1974, 「서울 石村洞石塚 發掘」, 『韓國考古學年報』, 2.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4,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1974)』.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5,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1975)』.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6, 『龔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1976)』.

서울大學校博物館, 1983, 『石村洞3號墳(積石塚) 發掘調査 報告書』.

서울大學校博物館, 1984, 『石村洞3號墳(積石塚) 復元을 爲한 發掘報告書』.

石村洞發掘調査團, 1987, 『石村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서울大學校博物館, 1989, 『石村洞 1·2號墳』.

68)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석촌동 고분군』Ⅰ.

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석촌동 고분군』Ⅱ.

서울대학교박물관, 2016, 『석촌동 고분군』Ⅲ.

69)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19, 「보도자료: 석촌동고분군서 화장된 유골 첫 발굴... 백제왕실 장례문화 연구 새 전기 마련」.



석촌동 돌무지무덤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과정(1)과 복원모습(2)



석촌동 돌무지무덤 한성백제박물관 조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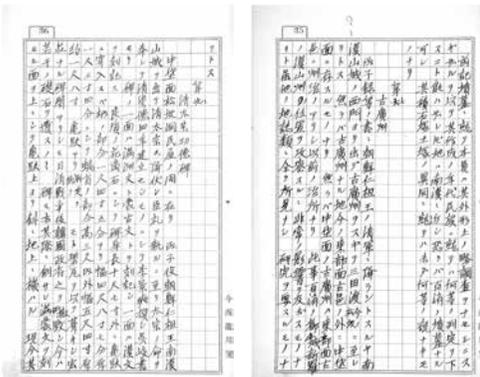
석촌동 한성백제박물관 돌무지무덤 4호(왼쪽)와 4호 매장의례부(오른쪽)



석촌동 한성백제박물관 돌무지무덤 출토 유물(1:토기, 2:금동 귀걸이, 3:사람뼈)

7. 옛 광주(廣州)

『병자록(丙子錄)』 등의 책에 조선 인조왕(仁祖王)이 청군(淸軍)에 항복할 때 남한산성의 서문으로부터 나와 고광주(古廣州)를 지나 삼전도(三田渡: 지금 송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고광주(古廣州) 지역은 지금의 동부면(東部面) 고읍(古邑) 밖의 중대면(中垈面)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대면의 고광주(古廣州)는 동부면 고읍에 주치(州治)가 있기 이전의 치소(治所)가 된다. 이 일은 백제의 도성(都城) 신라의 한산주(漢山州)의 위치를 고찰(攷察)하는데 대단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록 다른 지지류(地誌類)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도 연구를 필요로 한 것이다.



옛 광주 원고(2.1)

8. 청태종공덕비(淸太宗功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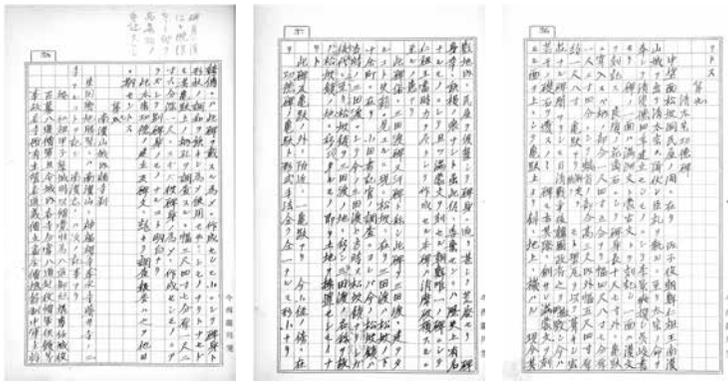
(청태종공덕비는) 중대면(中垔面) 송파동(松坡洞) 민가 사이에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청태종에게 항복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고, (청) 태종의 명을 받들어 청 승덕(淸崇德) 4년에 건립한 것으로 이경석(李景奭)⁷⁰⁾이 찬하고 오준(吳駿)이 썼다. 비의 한 면은 만주문과 몽골문을 새겨 기록하고 한 면은 한문을 새겨 기록하였다. 양질의 대리석으로 비의 신장(身長)이 10척 7촌외에 귀부(龜趺)에 파고 들어간 자루의 부분 1척 4촌 5분이고 폭은 4척 8촌 7분, 두께는 1척 3촌 4분이다. 이수(螭首)의 부분은 높이 3척 내외 폭은 5척 4촌 두께는 약 1척 8촌, 귀부(龜趺: 측정이 결핍됨)가 있고, 청기와(淸瓦)로 지붕을 하고 굉장한 비각이 있는 것도 청일전쟁 후 한국정부가 그것을 철거(撤毀)하여 지금은 약간의 초석만 남아있다. 비도 역시 그때 무너져 만몽문(滿蒙文)을 새긴 면이 위로 하여 귀부 위에서 기울어져 지상에 가로누워 있었다. 현재 지금의 부지 내에 민가가 침범하여 (민가를) 건축하여 비신을 핏박하여 심하게 황폐해졌다. 비신은 다행히 결손의 흔적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상 유명한 일을 방치하는 것이고, 만몽문(滿蒙文)이 새겨진 조선의 유일한 비이다. 인조 당시 힘을 다해 작성한 본비가 지워지고 파손하기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이 비는 속칭 삼전도비(三田渡碑) 또는 오비(汗碑)라 칭한다. 이 비가 삼전도에 건립되었다고 사적에 보여지고, 현재 송파에 있는 삼전도비는 송파 아래 10여 정(町)에 있다. 오다[小田] 서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의 송파진(松坡鎭)은 당시의 삼도(三渡)라 하고, 당시 송파진은 한강의 중주(中洲)에 있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송파진(松坡鎭)이 삼전도(三田渡)의 지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삼전도 부락은 그 명칭과 함께 하류의 땅으로 옮겨진 것이 된다고 한다.

이 비 및 귀부 외에 부근에 하나의 귀부가 있다. 지금 작은 길옆에 있다. 공덕비의 귀부 형식 수법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형체가 작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비를 세우기 위해 작성했으나 적어서 비신과 형상(形狀)의 조화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라 한다. 이 귀부 위의 자루 구멍을 조사하니 폭이 3척 4촌 7분, 두께가 1척 2촌 6분, 깊이가 1척에 불과하여 이 비신을 위해 만든 것이 될 수 없고 다른 비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태종공덕(太宗功德)의 건립 및 비문에 대한 조사 보고는 다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0) 이경석(李景奭:1595-1671) 본관은 전주.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쌍계(雙溪).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6대손으로,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유간(維幹)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1617년(광해군 9) 증광별시에 합격했으나, 다음해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상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삭직(削職)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검열·봉교·춘추관사관(春秋館史官) 등을 지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승문원주서로서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했다. 같은 해 문과중시에 장원했고, 정안·교리 등을 거쳐 1626년 사가독서를 했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체찰사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강원도 지방의 군사모집과 군량미조달에 힘썼다. 그뒤 양주목사·승지를 거쳐 1632년 가선대부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부제학으로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찬진(撰進)했다. 1638년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1641년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이사(貳師)로 심양(瀋陽)에 갔으나 1년간 봉황성(鳳凰城)에 구금되었다. 귀국한 뒤 대사헌·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649년(효종 즉위) 영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김자점(金自點)의 밀고로 북벌 계획이 청나라에 알려져 효종이 추궁을 당하게 되자, 영의정인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백마산성에 위리안치되었다. 1653년에 풀려나 영중추부사를 지냈으며, 1659년 영돈녕부사가 된 뒤 기로소에 들어갔다. 1668년(현종 9)에는 귀장을 받았다. 남인이라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총애를 받아 유임되었다. 저서로 <백헌집>이 있으며, 조경(趙經)·조익(趙翼) 등과 함께 <장루지장(長樓誌狀)>을 편찬했다. 남원 방산서원(方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이다.



청태종공덕비(3.2.1.) 원고

(해제)

청태종공덕비는 서울 삼전도비(三田渡碑)를 말한다. 삼전도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에 위치하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9-3번지에 있던 것을 2010년 3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에 패배한 인조가 굴욕적인 강화협정을 맺고, 청나라 태종의 요구에 따라 황제의 공덕을 적은 비석으로 높이 3.95m, 폭 1.4m이다.

1916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 기수였던 이지마 모도노스케(飯島源之助)가 파괴된 삼전도비의 보수를 위한 출장 후 남긴 삼전도비 사진이 복명서에 남아 있다. 삼전도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지마 모도노스케(飯島源之助)의 청태종공덕비(3.2.1.) 출장 복명서(조선총독부 문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미자 모모노스케[飯島源之助] 출장복명서 사진 유리건판(조선총독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 남한산성(南漢山城) 안 여러 사찰(寺刹)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남한산(南漢山)에 신복선사(神福禪寺), 봉수사(奉水寺), 약정사(藥井寺)의 3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한지(南漢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살피건대, 인조(仁祖) 갑자년(1624년)에 성을 쌓을 때에 승 각성(覺性)⁷¹⁾으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삼아 성역(城役)을 맡아 8도의 승군(僧軍)을 소집하게[召募] 하고, 또한 성내 각 절에 명

71) 각성(覺性:1575-1660)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징원(澄源), 호는 벽암(碧巖). 법명은 각성(覺性). 충청북도 보은 출신. 어머니는 조씨(曹氏)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군(僧軍)을 이끌었으며, 남한산성을 완성시키고 사고(史庫)를 보호하였다. 10세에 실목(釋默)에게서 출가하였으며, 14세에 보정(寶鼎)에게서 구족계를 받은 뒤 선수(善修)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덕유산·가야산·금강산 등에서 정진하였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고, 그 뒤 지리산에서 충휘(冲徽)·태능(太能)·응상(應祥) 등과 함께 수행하면서 뛰어난 많은 시계(詩稿)를 남겼다. 1600년에는 지리산 칠불사(七佛寺)에서 강석을 열었다. 1612년(광해군 4)에 스승인 선수가 무고로 투옥되자 그도 연루되어 옥에 갇혔지만, 광해군이 그의 덕에 감복하여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에 임명하여 봉은사에 머물게 하였다. 그곳에서 동양위(東陽尉)신익성(申翼聲)을 비롯한 많은 사대부와 사귀었다. 1615년지리산 칠불암으로 옮겼고, 1616년에 다시 신흥사(新興寺)로 옮겼다가, 물려온 대중을 피해, 태백산 전천동(前川洞)으로 들어갔다. 1617년 광해군이 청계사(淸溪寺)에서 큰 재를 열었을 때 설법하였다. 1624년 조정에서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3년 만에 성을 완성시키지,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關敎國照圓一都大禪師)라는 직함과 함께 의발을 하사받았다. 1632년화엄사를 중수하여 대총림으로 만들었으며, 1636년(인조 14)병자호란 때, 의승군 3,000명을 모아서 향마군이라 이름 짓고, 호남의 관군과 함께 적들을 섬멸하면서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며, 전쟁이 끝나자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도중결의(圖中決疑)』와 『참상선지(參商禪旨)』 등을 저술하였다. 1640년 봉 쌍계사(雙峯寺)를 중수하였고, 그 해 8월에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원두표(元斗杓)의 청으로 규정도총섭(糾正都摠攝) 직을 맡아서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있는 사고(史庫)를 보호하였다. 1641년(인조 19)백운산 상선암(上仙庵)에 머물렀으며, 1642년 보개산에 들어가 법석을 열었을 때, 왕자였던 효종이 화엄종지(華嚴宗旨)를 배웠다. 1646년 회언(熙彦)과 속리산 범주사에 은거하다가 화엄사에서 입적하였다. 나이 86세, 법랍 73세였다. 한국불교의 전통선을 깊이 익혀 정혜쌍수(定慧雙修)·교관겸수(敎觀兼修)를 실천하였고, 간화선(看話禪)에서의 무(無)자 화두를 중요시하고 화엄사상에도 해박하였으며, 초서와 예서에도 능하였다. ‘참되고, 깨끗하고, 굳세게’라는 세 가지 경계를 지침으로 삼아 제자들을 교육했는데, 이것은 휴정(休靜)이 선수에게 부탁했던 ‘기강의 재정돈’을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수초(守初)와 처능(處能)이 있으며, 문하의 제자들이 취미파(翠微派)·백곡파(白谷派)·침허파(枕虛派)·고운파(孤雲派)·동림파(東林派)·연화파(蓮花派)·벽천파(碧川派) 등 7파를 세워서 그의 선법을 크게 전파하였다. 저서로는 『선원집도중결의(禪源集圖中決疑)』, 『간화결의(看話決疑)』, 『석문상의초(釋門哀儀抄)』가 있으며, 스승의 시문집인 『부휴당집(浮休堂集)』 5권을 편찬하였다.

을 내려 8도에서 부역해 온 승군을 공궤(供饋:음식을 공급해 주는 일)하는 일을 분장(分掌: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절에는 처음으로 각 도(道)의 의승(義僧)을 주관하는 입번(立番) 및 승총(僧總)·절제(節制)·중군(中軍)·주장(主將)의 명칭이 생겼다. 무릇 성내의 아홉 절은 갑자년(1624)에 시작된 것이니 망월사(望月寺)가 가장 오래 되었고, 옥정사(玉井寺)가 다음이며, 나머지 일곱 개의 절도 모두 새로 세운 것인데, 동림사(東林寺)가 가장 뒤늦고, 영원사(靈源寺)를 또 그 뒤에 두었다. 모두 성(城)을 지키는 일을 맡겼으며, 9사(九寺)에 각각 군기(軍器)와 화약(火藥)을 보관하였다. (按 仁祖甲子築城時以僧覺性爲八道都總攝 專任城役召募八道僧軍且令城內各寺分掌八道赴役僧軍供饋等事故各寺始有主管各道義僧立番各僧總節制中軍主將之名蓋城內九寺自甲子始而望月最古玉井次之其餘七寺皆新創東林最後靈源又晚置皆任守城事九寺各藏軍器火藥)”

“개원사는 동문(東門)안에 있다. 불경(佛經)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큰 늦쇠 솔이 네 개가 있으니, 무게가 각각 2백여 근이요, 쌀 몇 섬씩이 들어간다. 연못이 있어 금붕어를 기르고 있다. 인조 정축년(1637년) 가을 한 조각배가 표류하다가 서호(西湖)에 흘러들어 왔는데, 배안에 사람은 없고 오직 대장경(大藏經) 책함(冊函)만이 있었으며, 함 위에는 ‘중원개원사개간(中原開元寺開刊)’이라는 7자가 있었다. 강가의 사람들이 비국(備局:비변사)에 바쳐 임금께 전달[奏達]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를 이끈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왔으니 이는 신령스럽고 괴이한[靈怪] 일이다. 이 책은 이미 중국 개원사(開元寺)에서 나왔으니 우리 조선 사찰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곳이 있으면 찾아서 주어 길이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때 8도 중에 개원(開元)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은 다만 이 절만 있었다. 그러므로 금란(欄) 보자기로 열 겹으로 싸서 별도로 보내어 이 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현종 병오(1666년)에 개원사의 화약고에서 불이 나 그 기세가 매우 맹렬하였으나, 잠시 뒤에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서 불을 꺾다. 숙종 갑술(1694년)에는 불이 나서 다섯 칸 누각이 거의 재가 될 뻔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 붓듯이 내려 불이 곧바로 꺼져 꺼져 누각 안(樓中)에 보관하고 있던 군기(軍器)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기이(奇異)하다고 하였다. (開元寺在東門內各藏佛經有大鑰盆四重各二百餘斤量容米數石有池養金鯉 仁祖丁丑秋有一葉船漂泊西湖舟中無人惟藏大藏經冊函上有七字曰中原開元寺開刊湖入進干備局轉達干 上上曰人不引舟舟忽自到此亦靈惟是冊既出於中國開元寺則吾東刹有同名者尋問而授之永爲護藏可也時八路中以開元爲名者只有此寺故以金襴袱十襲裹之別遣使藏干此寺 顯廟丙午火起開元寺之火藥庫勢甚烈俄頃忽反風滅火 肅宗甲戌冬火作五間樓閣幾爲灰燼忽大雨如注火即自滅樓中所藏物一無有傷人皆異之)”

“한흥사는 개원사 동쪽 기슭에 있다. 땅이 매우 시원하고 넓다.(漢興寺在開元東麓地頗爽豁)”

“국청사는 서문 안에 있다. 루(樓) 앞에는 못이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절이 부곡(富谷)에 있기 때문에 부승(富僧)이 많다고 한다. 인조 갑자년(1624)에 성을 쌓을 때, 승려 각성(覺性)이 맨 먼저 두 절을 세우고 한흥(漢興) 국청(國淸)으로 이름 지었다.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다가 병자호란(丙子亂) 뒤에 한(汗)은 한(漢)과 음(音)이 같고, 금국(金國)이 이해에 청(淸)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았다. 인조도 기이(奇異)히 여겨 상사(賞賜)를 후하게 내렸다 한다. (國淸寺在西門內樓前有池

傳言寺居富谷故多富僧 仁祖甲子築城僧覺性首創二寺名以漢興國清人莫知其意丙子後始悟汗興漢同音金國是年改號爲清 仁祖異之賜資覺性甚厚”

“장경사는 동문 북쪽에 있는데 절 뒤에 철쭉이 많고 노송(老松) 숲에는 송이버섯[松茸]이 난다. 진남루(鎭南樓) 남쪽에는 망대(望臺)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그윽한 경치가 여러 절중에 으뜸이다.(長慶寺東門北寺後多躑躅老松林生松茸鎭南樓南有帳臺登覽幽勝甲於諸寺)”

“천주사는 서장대(西將臺) 아래에 있다. 루(樓) 앞에는 연못이 있다(天柱寺在西將臺下樓前有池)”

“옥정사는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있다. 뒤에 큰 우물이 있어서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玉井寺在北門內南麓後有大井大旱不渴故仍名)”

“망월사는 장경사(長慶寺) 뒤 산기슭(後麓)에 있다. 옛날에 망월암(望月庵)이 있었다. 아홉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古刹]이다. 고려 때 한양(漢陽)에 장의사(壯義寺)가 있었는데, 태조께서 도성(都城)을 세울 때 이를 허물고 그 불상(佛像)과 금우화엄경(金字華嚴經) 일부와 금정(金鼎) 일좌(一座)를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였다.(望月寺在長慶後麓古有望月庵九寺中最高古刹麗時漢陽有壯義寺 太祖建都時毀之其佛像及金字華嚴經一坐移藏于此)”

“동림사는 봉암(蜂岩) 아래에 있다(東林寺在蜂山下)”

“남단사는 한흥사(漢興寺) 서쪽 기슭에 있다(南壇寺在漢興西麓)”

“영원사는 동문 밖에 있다. 이상은 모두 성 안의 절이다. (靈源寺在東門外 以上竝城內寺)”

“법화암은 봉암성 밖에 있다(法華庵 在蜂岩城外)”

“신복선사는 한산(漢山)에 있다. 이곡(李穀)의 중영기(重營記)가 있다.(神福禪寺在漢山李穀有重營記)”

“봉수사는 한산(漢山)에 있다(奉水寺在漢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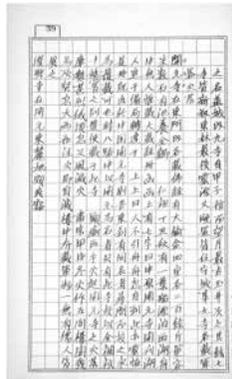
라고 13사(寺)가 열거되어 있다. (남한지) 안문(按文)에는 ‘성내 9사가 있으며 갑자로부터 시작하고(城內九寺自甲子始而云云)’라며 기록하면서 성내 절을 열거하는 것이 10사(寺)이다. 그것을 군참사(郡參事) 면장(面長) 등에 물어보아도 10사 중에서 9사로 해야 할 것은 분명하지 않으나, 군청 소장(郡廳所藏)의 옛 지도(古圖)에 의하면 동문 밖에 있는 영원(靈源)의 한 절을 제외한 것 같다.

본 고적조사위원회 앞에서 기록한 여러 절(諸寺)들의 그 유적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잘 할 수 없어서 군참사(郡參事) 및 면장(面長)과의 대담에 의해 앞에 기록한 여러 절들은 약 20년 전 한국정부 병제(兵制)를 개혁하여 성내(城內)의 병영(兵營)이 폐지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장경사(長慶寺) 만이고 다른 사찰들은 스님들이 흩어지고 절은 폐사되었다. 건축물도 훼손되어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고 한다. 개원사(開元寺)의 대장경(大藏經)도 망월사(望月寺)의 불상(佛像) 및 금자경(金字經)도 그 소식을 아는 자가 없다. 오히려 여러 절 내 법화암(法華庵)은 성 밖 가까이에 있으며 이제 또 스님이 거주하지 않는 폐사로 되었어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칠성당(七星堂)과 세속에서 옥불(玉佛)이라 칭하는 백색의 불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여기에 부기(附記)해야 할 것은 북한(北漢)의 장의사(壯義寺)와 망월사(望月寺)와의 관계이다. 장의사(壯義寺) 불상 경책(佛像經冊)이 망월사(望月寺)로 이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태조왕대는 아니다. 조선 초기를 통해 장의사(壯義寺)가 북한(北漢)에 존재하는 것은 북한산(北漢山) 조사 기록 중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것이 망월(望月)로 옮겨진다면 멀리 후대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 안 여러 사찰 원고(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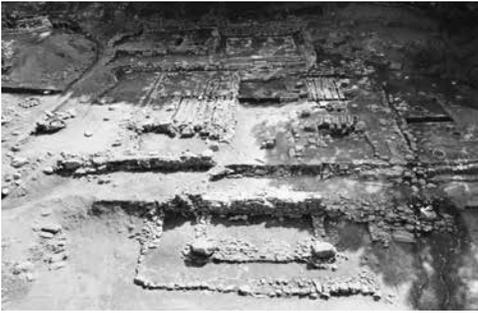
남한산성 안 여러 사찰 원고(5.4.)

(해제)

현재 다수의 문헌에 나오는 사찰 가운데 실체가 확인된 것은 국청사터(國淸寺址)와 한흥사터(漢興寺址)가 있다. 우선 한흥사터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38번지에 위치하는데 한흥사는 1624년 창건되었다. 국청사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12번지에 위치한다.

남한산성 내 절터들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로는 경기문화재연구원(京畿文化財硏究院)이 2010년 실시한 국청사터와 한흥사터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⁷²⁾ 한흥사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7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南漢山城 廢寺址 試掘調査 報告書』.



한흥사터 위치(1), 조사 후 전경(2), 건물터(3~5), 출토유물(6)

건물터 13동, 축대 10기, 담장 2기, 계단 2기, 미상유구, 멧돌 등의 유구가 발굴되었다.⁷³⁾ 국청사터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 성과를 알 수 없다. 다만 시굴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건물터 6동, 축대 5기, 담장 2기 등이 조사되었다.



국청사터 발굴조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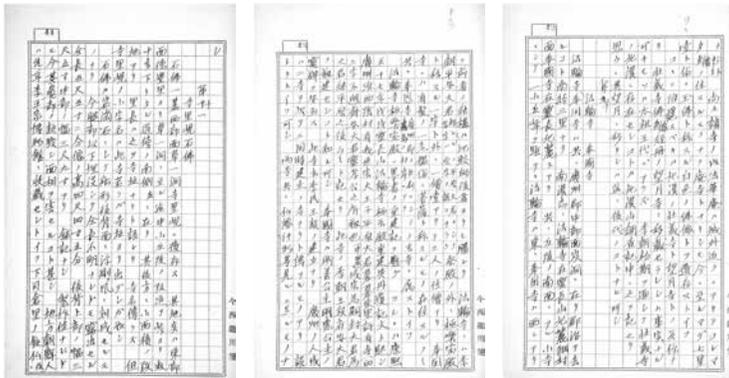
7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南漢山城 漢興寺址』.

10. 법륜사(法輪寺) 봉국사(奉國寺)

법륜사(法輪寺) 봉국사(奉國寺)는 모두 광주군 중부면 탄동(炭洞)에 있고 군 치소(郡洵)를 지나 남쪽으로 약 3리에 있다. 『남한지(南漢志)』에 법륜사는 영장산(靈長山) 북쪽 기슭 세촌면에 있고, 봉국사(奉國寺)는 영장산 북쪽 기슭에 있다(法輪寺在靈長山北麓細村面奉國寺在靈長北麓)라 하고, 모두 구릉(丘陵)의 남쪽 면에 있는 작은 절(小刹)로 하나의 작은 구봉(丘峯)의 거리를 두고 법륜사는 동쪽에 봉국사는 서쪽에 있다. 전자의 구조는 비교적 후자보다도 우수하다. 법륜사에는 조선 평안대군(平安大君: 조사해보니 평원대군(平原大君)이어야 한다. 안(安)자는 원(原)자의 오류인 것이다) 제전(祭殿) 외에 극락실전(極樂室殿)이라 칭하는 하나의 건물과 밖에 하나의 승당(僧堂)이 있고, 3인의 승려가 거주하고 있다. 봉국사에는 머리를 깎지 않은(有鬚) 한 노파로 세속에서 보살이라 칭하는 자가 거주하고 있고, 모두 봉은사(奉恩寺: 광주군의 거찰로 독도의 대안(對岸)에 있다)의 말사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

법륜사 극락실전(極樂室殿)에 묵서(墨書)로 된 중건기(重建記)가 걸려있다. 여기에는 “강희57년(1718년) 무술 영장산 법륜사 극락전 중건과 원획(圓獲) 기문(康熙五十七年戊戌靈長山法輪寺極樂殿重建與圓獲記文)”이라는 제목에 “광주군 서음촌에 세종대왕의 아들 평원대군(平原大郡)⁷⁴⁾의 묘가 있고

묘 동쪽에 허유사(許有寺)가 있다 (2-3자 불명) 제안대군(齊安大郡)⁷⁵⁾이 평원대군을 위해 지은 절이다. (중략) 성종이 제안대군으로 하여금 평원대군의 사손으로 봉했다.廣州郡西陰村有我世宗大王子



법륜사, 봉국사 원고(3.2.1.)

74) 평원대군(平原大郡:1427~1445) 이름은 임(琳), 자는 진지(珍之), 호는 근행당(謹行堂), 세종의 아들로,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이다. 1434년(세종 16) 8세에 평원대군으로 봉군(卒記에는 13세에 봉군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되고, 1437년 종학(宗學)에 입학, 호군(護軍) 홍이용(洪利用)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후 학문에 진력하여 시(詩)·예(禮).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속달되고, 또 서체(書體)와 사어(射御)에도 능숙하였으나, 1445년 1월 두창(痘)으로 죽었다. 성품이 검소하고 효행과 우애가 있었으므로 세종의 아감을 받았으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세종 말년의 신병 등과 함께 세종의 송불을 촉진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1483년(성종 14) 5월 강녕부부인 흥씨(江寧府夫人洪氏)가 죽자 제안대군 현(憲安大君瑁)으로 뒤를 이었다. 처음 시호는 정덕(靖德)이었으나 뒤에 정현(定憲)으로 추시되었다.

75) 제안대군(齊安大郡:1466~1525) 이름은 현(瑣), 자는 국보(國寶), 예종의 둘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안순왕후 한씨(安順王后韓氏)이다. 4세 때 부왕인 예종이 죽자, 왕위계승의 제1후보자였으나 세조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아직 어리고 총명하지 못하다고 반대하여 대신 성종이 예종을 이어 왕위에 즉위하였다. 1470년(성종 1) 5세의 나이로 제안대군에 봉해져 녹봉(祿俸)과 직전(職田)을 지급받았으며, 후일 세종의 제 5자인 평원대군 임(平原大君琳)의 후사로 입양되었다. 12세에 사도시정(司隴寺正) 김수말(金守末)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어머니 안순왕후에 의하여 내쫓긴 바 되어, 14세에 다시 박중선(朴仲善)의 딸과 혼인하였지만 김씨를 끝내 못잊어하자 1485년 성종이 복함(復命)을 하락하였다. 1498년(연산군 4) 안순왕후의 상을 입은 뒤부터는 홀로 거처하였으며, 평생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고, 다만 성악(聲樂)을 즐기고 사죽관현(絲竹管絃)을 연주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연산군에 네 차려내 음률(音律)을 아는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그에게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패관잡기(裨官雜記)』에는 그를 평하여 “성품이 어리석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실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몸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감춘 것”이라는 또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결국 왕위계승을 둘러싼 왕실세력과 훈신(勳臣)의 각축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었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平原大郡墓墓東里許有寺(2-3字 不明) 齊安大郡靈孝公之所創也 (중략) 成宗爲嗣封大君爲大君繼平原之後云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절을 조선 왕족 제안대군이 창건한 것을 알 수 있다. 봉국사는 명선공주(明善公主)⁷⁶⁾ 명혜공주(明惠公主)⁷⁷⁾의 위패(靈牌)를 안치하여 이 절 역시 조선 왕족이 건립한 것이다. 광주사람[廣州人]은 이 두 절이 삼국시대 건립한 절이라고 전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절에서 모두 불상 집기(什器) 등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

(해제)

법륜사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농촌파크로 126에 위치한다.

법륜사는 2017년 6월 1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1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용인법륜사목불좌상(龍仁法輪寺木佛坐像)과 2009년 3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용인법륜사삼층석탑(龍仁法輪寺三層石塔)이 있다. 법륜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국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에 위치한다. 봉국사는 1028년(현종 19년) 법현법사(法玄法師)가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봉국사 사적 기념비에 남아 있다. 봉국사에는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봉국사대광명전(奉國寺大光明殿), 2016년 7월 2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9호로 지정된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城南奉國寺阿彌陀如來坐像), 2016년 7월 2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0호로 지정된 성남봉국사아미타불회도(城南奉國寺阿彌陀佛會圖)가 있다.

봉국사에 대한 발굴조사는 경내에 해당하는 선문화체험관 건립 과정에서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다.⁷⁸⁾ 이 과정에서 건물터 1동과 석렬 1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건물터의 축선 방향이 대광명전의 축과 일치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76) 명선공주(明善公主:1660-1673) 조선의 왕족으로 현종의 장녀이다. 명성왕후 소생으로 맹주서(孟耆瑞)의 아들 맹만택(孟萬澤)과 정혼하였으나 가례를 치르기 전인 1673년 7월 두역(痘疫: 천연두)의 증상이 나타나 현종을 비롯한 세자, 세자빈 등이 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명선공주는 9월 12일(음력 8월 2일) 14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으며 이미 혼례일을 정하고 가례청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현종은 맹만택의 작호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들이 혼례를 치르기 전에 공주가 죽은 점을 들어 작호를 거두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하여 현종이 이를 따랐다.[3] 명선공주의 무덤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다.

77) 혜공주(明惠公主:1665-1673) 조선의 공주로 조선의 제18대 현종(顯宗, 1641-1674, 재위 1660-1674)과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 1642-1684)의 차녀이다. 성은 이(李),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숙종과는 친남매간으로, 경종과 영조에게는 고모가 된다. 명혜공주는 신정(申鼎)의 아들인 신요경(申堯鼎)과의 혼인이 결정되어 신요경은 동안위(東安尉)로까지 봉해졌으나, 1673년 6월 11일(현종 14년 음력 4월 27일) 가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명혜공주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당시 현종은 혼약은 했으나 가례는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신부가 죽었으니 부마가 될 예정이었던 신요경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의논하게 하였는데, 결국 신요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마의 위치에 두면서 죽을 때까지 가정을 꾸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상 못할 일이라는 현종의 판단에 따라 동안위의 작위를 회수하였다. 한편 명혜공주가 사망한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673년 9월 12일(현종 14년 음력 8월 2일), 명혜공주의 친언니인 명선공주도 혼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절하고 말았다. 이에 현종은 두 딸을 불쌍히 여겨 두 공주에 대한 전장(田庄) 및 공장(供饗) 등을 생존한 공주들의 예와 같이 하였는데, 숙종 연간에 이것을 관장하는 내시가 이 물건들을 가로챌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여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중단하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상소를 받은 숙종은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부왕인 현종의 뜻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이미 두 공주에 대해 그 지원을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두 공주의 지원 중단에 대한 논의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친남매간인 숙종이 즉위한 뒤에는 명혜공주와 명선공주의 사당이 마련되었으며, 숙종은 이 사당을 짓는데 조정에선 도움을 주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주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조정에선 꾸준히 지원을 하였다. 명혜공주의 묘는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인 현릉(獻陵) 근처에 마련되었으나, 이후 성남시가 새로이 개발될 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명혜공주의 태실비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위치한 정림사지박물관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이 태실비의 너비는 52.9 cm, 높이는 179cm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사찰 봉국사(奉國寺)는 명혜공주와 명선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수된 적이 있다. 명혜공주의 묘 근처에 봉국사가 있던 까닭이다.

78) 수도문화연구원, 2017, 『성남 봉국사 선문화체험관 건립부지 유적』.



현재의 봉국사(위)와 시굴조사 드러난 건물터 적심(아래)

11. 사리현 석불(寺里峴石佛)

석불(石佛) 한 기가 서부면(西部面) 초일동(草一洞) 사리현(寺里峴)에 남아 있다. 이 지점은 동부면(東部面) 덕풍리(德豊里)에서 초일동(草一洞)에 이르는 도중 작은 구릉(丘陵)의 고개 길(阪道) 고개(峯)에서 수 십 보(數十步) 내려가는 도로 옆의 남측 왼쪽에 있다. 이 후방에 작은 면적의 단지(段地)가

있다. 이장(里長)은 이것을 절 터(寺址)라고 말하고 절의 명칭(寺名)은 전해지지 않는다. 단 사리현(寺里峴)의 작은 글자 명칭(小字名)은 이 절 혹은 절터에서 나온 것 같다.

석불은 화강석(花崗石)으로 선형 후배면(船形後背面)에 부조풍(浮彫風)으로 새겨져 있다. 지금 허벅지(腿部) 이하가 매몰되어 전체의 길이는 불명하지만 노출된 전체의 길이는 5척 5촌 2분의 상(像)으로 높이는 4척 4촌 5분, 후배 상부의 폭은 3척 5촌, 중부의 폭은 3척 9촌이다. 명기(銘記)는 없고, 제작이 아름다워도 지금 코 부분(鼻部)이 결손되고 면상(面相)이 손상된 것이 심하다. 지방에 있는 조선인은 몇 해 전(先年)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에 수장되었다고 말하고, 하사창리(下司倉里)의 철불(鐵佛: 후에 기록한다)과 함께 온조왕(溫祚王)이 남한(南漢) 도읍을 정할 때 만들었다는 허황된 말이 전하거나 고려 초기의 작품이라고 한다.(사진 18호)



사진 18.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일리 석불(왼쪽)과 유리건판(오른쪽) 사진



사리현 석불 원고(2.1.)

12. 덕풍리 고총묘(德豊里古塚墓)

동부면(東部面) 덕풍리(德豊里)에 경성·이천 가도(京城利川街道)의 남쪽 수 정(數町)의 구릉 중턱에 하나의 고총(古塚)이 있다. 높이 약 8척으로 총(塚)의 각석(角石) 한 개가 남아 있고 밖에 석인(石人)



덕풍리 고총묘 원고

한 쌍, 장명등(長明燈) 1기가 전면의 풀 중에 엮어져 존재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강림도령의 묘라고 말하고, 문자의 뜻 모두 분명하지 않다. 석인의 형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것으로 대묘가 되고 부근에 커다란 돌이 많다. 묘의 주인은 힘이 강해 어릴 때 항상 그러한 돌을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돌중에는 말하는 바위라 칭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앵무석(鸚鵡石)의 종류라 할 것이다.

13. 잡기(雜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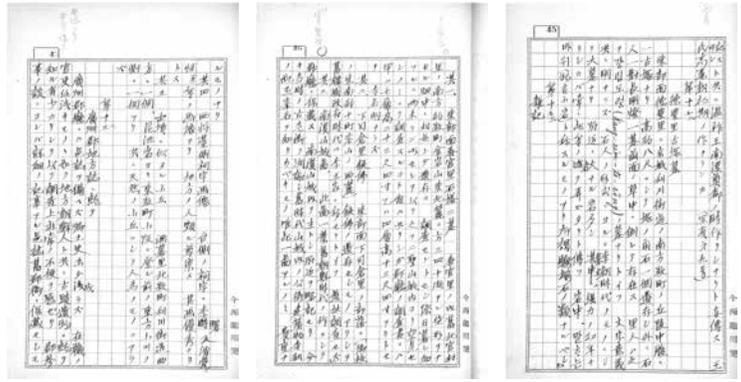
하나. 동부면(東部面) 춘궁리(春宮里) 석탑(石塔) 2기: 춘궁리 내 구북궁촌리(舊北宮村里)의 남쪽으로 약 수 정(數町) 금암산(金岩山) 동북 기슭으로 사방 3-40칸이 되는 대지 형태(地形)의 밭 중에 서로 병립하여 남아 있다. 조사할 때 날이 저물고 계다가 비가 오므로써 그것을 이성산성(二聖山城)내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하여 잘 할 수 없었으나, 군청의 조사서에는 갑(甲)은 7층 높이가 23척 4촌, 을(乙)은 4층 높이가 13척 4촌이라 하고, 절의 명칭은 분명하지 않았다.

둘. 하사창리 철불(下司倉里鐵佛): 동부면 하사창리의 부락에 (향교의 동남쪽 약 10정(町) 떨어진 객산(客山)의 서쪽기슭) 철불이 남아 있는 것을 구 한국정부 시대에 이왕가(李王家)로 옮겼다고 한다. 유적지 조사는 하지 않았다.

셋. 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 이 그림 1첩은 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군청에서 보호수장했다. (이 그림은) 남한산성 안(南漢山城內)을 중심으로 부근을 약기(略記)했다. 지금은 당시의 노송(古松)이 점점 죽어가고 구시대 산성내의 공공사무소 건축물, 사찰의 배치 그리고 봉우리 명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이 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함이다.

넷. 서장대측 사우화상(西將臺側祠宇畫像): 서장대측 사우(祠宇)에 이서(李曙) 및 승려 각성(覺性) 등의 화상이 있다. 지방의 사람들이 자못 존경하고 숭상한다. 그 화상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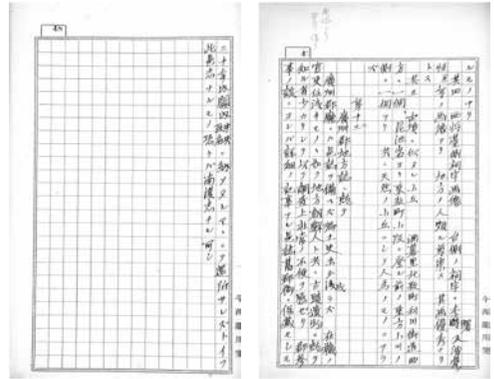
다섯. 무덤에 유사한 작은 구릉(小丘): 주막리(酒幕里) 북쪽으로 수 정(數町) 떨어진 이천 가도(利川街道) 서쪽에 한 개, 곤지암(昆池岩)에서 동쪽으로 수 정(數町) 떨어진 작은 고개길 오르기 전의 동쪽 작은 내(小川) 측에 한 개가 있다. 모두 천연적인 작은 구릉으로 인위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잡기 원고(3.2.1.)

14. 광주군 지방지(廣州郡地方誌)에 대해

광주군청(廣州郡廳)에는 읍지(邑誌)를 준비하는 향토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재직 관리의 임용이 일천하여 지방 조선인과 함께 고적 유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 조사상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군참사(郡參事)와의 대담에 의하면 상세한 기사가 있는 읍지(邑誌)는 옛 군아(郡衙)에서 보호수장하고, 30년 내 궐내(闕內: 중앙정부)로 납부하기 전에 환부(還附)되었다고 한다. 이 읍지는 필시 『남한지(南漢志)』일 것이다.



잡기 원고(3.2.1.)

(해제)

춘궁리 삼층석탑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65번지에 위치하며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河南桐寺址 三層石塔]을 의미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3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석탑이다.

춘궁리 오층석탑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66번지에 위치하며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河南桐寺址 五層石塔]을 의미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2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석탑이다.

하사창리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다. 현재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 좌상[河南 下司倉洞 鐵造釋迦如來坐像]이란 명칭으로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춘궁리 삼층석탑 현재 모습



춘궁리 오층석탑 현재 모습



하사창리 철불 현재 모습



| 제2장 | 이천군(利川郡)

1. 개황 및 군역(郡驛) 명칭의 조사

이천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한주(漢州)는 원래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郡)이었던 것을 신라가 빼앗은 것으로써 경덕왕이 한주(漢州)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광주(廣州)이다. 이 주에 속한 현은 둘이다. 황무현(黃武縣)은 원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으로써 신라가 병합하였고, 진흥왕이 주(州)로 만들어 군주(軍主)를 두었으며 경덕왕이 한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이천현(利川縣)이다. 거서현(巨黍縣)은 원래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용구현(龍駒縣)이다.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并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라고 기록하고, 또 고구려의 군현을 열거하여 「남천현은 남매라고도 한다(南川縣一云南賈)」라고 기록했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는 이것을 광주(廣州)의 속군(屬郡)으로 하고,

“이천군은 본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남매(南賈)라고도 한다.】이다. 신라가 병합했다가 진흥왕(眞興王)때 주(州)로 승격시키고 군주(軍主)를 두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황무(黃武)로 고치고 한주(漢州)의 영현으로 삼았다. 태조가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이 고을 사람인 서목(徐穆)이 길을 인도하여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 주었기에 이천군(利川郡)이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그대로 광주(廣州)에 소속시켰다. 인종 21년(1143)에 감무를 두었다. 고종 44년(1254)년에 영창(永昌)이라고 칭하였다. 공양왕 4년(1355)에 왕의 조모 신씨(申氏)의 고향이라 하여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시켰다. (利川郡本高句麗南川縣【一云南賈】. 新羅并之, 眞興王, 陞爲州, 置軍主. 景德王, 改名黃武, 爲漢州領縣. 太祖南征, 郡人徐穆, 導之利涉, 故賜號利川郡, 仍屬焉. 仁宗二十一年, 置監務. 高宗四十四年, 稱永昌. 恭讓王四年, 以祖妣申氏之鄉, 陞爲南川郡.)”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기록한 바에는 고려시대에 관한 것은 고려사와 대략 동일해도 실록에는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을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庚午) 즉 홍무(洪武) 23년으로 되어 있어, 따를 만큼 비슷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더욱이 조선에 들어와서 연역과 토지의 사방 경계를 기록하고,

“태조(太祖) 2년 계유에 【곧 홍무(洪武) 26년.】 다시 이천현으로 고쳐 감무(監務)를 두고, 태종(太宗)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여흥(驪興)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양지(陽智)에 이르기 25리, 남쪽으로 음죽(陰竹)에 이르기 15리, 북쪽으로 광주(廣州)에 이르기 15리이다. (太祖二年癸酉, 【即洪武二十六年.】 復爲利川縣, 置監務. 太宗癸巳, 例改爲縣監. 四境, 東距驪興十五里, 西距陽智二十五里, 南距陰竹十五里, 北距廣州十五里)”라고 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세종 13년 지현(知縣)의 일을 바꾸고 26년 10호 이상을 예에 의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했다고 속기(續記)하고 그 사방을 기록하여,

“동쪽으로 여주에 이르기를 22리 서쪽으로 양지에 이르기를 37리 북쪽으로 광주에 이

르기를 21리 경사의 거리는 140리이다(東至驪州界二十二里西至陽智界三十七里北至廣州界二十一里距京師一百四十里)라 하였다. 이 양서(兩書)에 사방 경계에 이르는 거리 수가 다른 것의 하나가 동북(東北) 남북(南北) 모두 거리가 작아져도 다른 것은 모두 거리가 길어진 것을 보면 치소(治所)가 이동하여 전후 측정의 중심이 달라진 것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이 사이 예종(睿宗) 때 이천 동쪽의 땅이 여주군으로 편입된 것처럼 이 (거리의) 차이는 거리 측정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본군(이천군) 치소의 이동에 대해 이천군 군청에서 편찬한 이천군 향토인 및 최근 관내 일 반상황이라는 책자에 이천군 고로(古老: 옛일을 아는 노인)의 귀중한 전설을 수록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본군(이천군)은 고구려시대에는 남천현(南川縣) 또는 남매(南賈)라 칭하고 그 주무소는 현재 마장면(麻長面) 천천리(千川里)에 있었으나 신라 경덕왕(景德王) 시기 황무(黃武)로 개칭하고 후에 다시 남천주(南川主)로 바꾸고 그 주무소를 현재 신둔면(新屯面) 고척리(高尺里)로 옮겼다.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이천군(利川郡)이 되고 고종때 영창(永昌)으로 개칭하고 현재의 백사면(柏沙面) 장동리(長洞里)에 주무소(主務所)를 두었으나 공양왕(恭讓王) 때에 이르러 다시 남천군(南川郡)이 되었다. 그 후 조선 태조 때에 이르러 이천(利川)이라고 다시 칭하고 동시에 현(縣)이 되었다. 세종 때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나 후에 다시 이천이라는 이름으로 습용(襲用)되고 주무소를 읍내면(邑內面)으로 옮기고 현대에 이르러 더욱이 다이쇼 3년(1914년) 3월 음죽현(陰竹縣)을 병합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전설은 필시 『이천읍지(利川邑誌)』 및 고로(古老)의 말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이 사이에 다소간 잘못된 전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신라시대 황무(黃武)로 개칭되고 후에 다시 남천주(南川州)로 칭해지는 것 같은 것은 귀중한 재료이다. 이것에 의해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남천(南川)의 칭호가 이 군의 지리적 칭호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상으로 군명(郡名)으로 변한 것인지가 항상 일로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남천(南川), 이천(利川)의 명칭에 대한 약간의 연구를 기술한다.

이천군의 지역 경계는 지금 남한강(南漢江: 한강이 충주방면에서 오는 것이 남한강이 되고 춘천방면에 서 오는 것은 북한강이 된다)에 접하고 있어도 고구려시대에는 이 남한강의 지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남천현(南川縣)이라고 명명되었던 것이다. 또는 남매(南賈)라고 말하는 것은 매(賈)는 매(澗)와 동음으로 한반도 북방 고어의 천(川) 혹은 물[水]이라고 말하는 말을 한자음을 빌려 표시한 것이 된다.(이 일에 대해서는 시라토리(白鳥) 박사 후에 쓰보이(坪井) 박사의 연구발표에 의해 학계 정설로 되어있다) 「아리(阿利)」 「엄리(奄利)」(아리)는 조선 및 유사민족의 고어로 「대(大)」 「남(南)」 「선(先)」 「전(前)」 등의 의미처럼, 남(南)은 그대로 앞[前]의 의미가 되어 선(先)의 의미가 되고, 존엄 숭상(尊崇)하여 큰 [大] 의미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본서기에 남가라(南加羅)를 훈으로 하여 「아리히즈 노카라」가 된다. 현대 조선어에서는 남(南)을 「남」이라 칭하여 남(南)의 한자음을 사용하여 민

죽 본래의 언어를 망각되는 것도 오히려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남(南)의 글자를 「얌」으로 새겨(訓), 오히려 현대어에 「이보다 먼저」를 「얌셔」라고 말하고 남도(南道)를 「얌덕」이라고 칭한다. 「대(大)」라고 말하는 언어에 관해, 대주장(大主長)의 일을 신라 고어(新羅古語)에서 아리질지(阿利叱智)라 칭하고 전화하여 아리지즉(阿利智卽)이 알지(闕智)로 칭해지는 것처럼 된다면 이천(利川)의 옛명칭(古名) 「남천(南川)」은 고구려에서 「아리매(阿利買)」라고 칭하는 것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 추측이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 고려 초에 군현의 아름다운 이름(佳畵)을 덧붙이는 데에 용이하게 「需有孚光亨貞吉利涉大川」 등 4~5곳에서 보여지는 「이섭대리(利涉大利)」의 말에 인하여 아리매(阿利買) 즉 아리천(阿利川)의 아(阿)를 생략하여 이천(利川)이라 명명하는 것도 역시 추측이 어렵지 않다. 『고려사』 지리(地理)에 “태조가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고을 사람 서목(徐穆)이 길을 인도하여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 주었으므로 이천이라는 칭호를 하사했다(太祖南征郡人徐穆導之利涉故賜號利川)”라 하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적(古蹟) 조에는 「남천(南川)」을 저록하고 그 아래 이 전설을 주를 달면서 산천(山川)의 조(條) 기타에도 남천(南川)이 어느 천(川)인가를 나타낼 수 없고, 사실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백제로 행군하는 도중에 이 전설에 상당할만한 하류(河流)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이 전설은 이천의 명칭에 본(本)을 가진 군(郡)의 명문 서가(徐家)가 작성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부회(附會)된 것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군치(郡治:군 치소)가 있다고 전해지는 마장면(麻長面) 오천리(午川里: 오천<午川> 또는 오천<吾泉>)이라고 쓰나 음은 동일하다)는 남천치소(南川治所)가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미쳐 새로운 지역의 남천(南川)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남쪽의 방위는 12지의 오(午)에 해당함으로 남자(南字) 대신에 오자(午字)를 사용한 것이 후에 자음(字音)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고려사(高麗史)』 병지(兵志) 참역(站驛)의 조(條)에 오행(五行)과 안리(安利)의 두 역이 있다. 오행(五行)은 오천(五川)의 오자일 것이다. 승람에 역시 오천역(吾川驛) 아천역(阿川驛)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아천역은 부(府) 북쪽으로 20리이고, 오천역은 부(府) 서쪽으로 22리에 있다. <청구도(靑邱圖)>에는 아천(阿川)이 탈락되어도 오천(吾川)이 부 서쪽 22리 지금의 오천리(午川里) 방면에 기입하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이 두 역의 기입점이 승람(勝覽)의 기사와 차이가 있어 역(驛)의 이동이 있었는가. <여지도(輿地圖)>의 오류인가 조사여행 도중 이 조사가 결핍된 것은 본 조사고적위원의 실수인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 안리역(安利驛)은 후에 아천역(阿川驛)이 되고 오천역(五川驛)은 오천역(吾川驛)이 될 것이다. 안리역(安利驛)의 명칭은 남천(南川)의 남(南)이 완전히 전해져야 할 것으로 부(府)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일찍이 고읍(古邑: 阿利川 安利川)의 땅에 있는 것에서 안리(安利)의 명칭이 후에 처음 음만으로 하여 아천(阿川)이라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오천(五川)은 즉 오천(午川)에서 지금의 오천리(午川里)가 되고 오천리(午川里)의 칭호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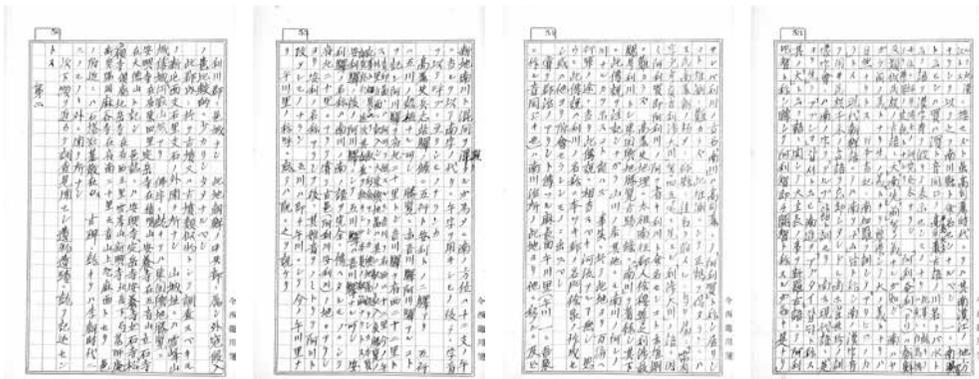
이천군(利川郡)에 읍성(邑城)이 있고, 이 지역은 조선의 중앙부에 속해 외구침입의 우환이 비교적 적은 곳이다. 이 군내(郡內)에서 무덤 또는 무덤 유사물(類似物)로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신둔면(新屯面) 지석리(支石里) 지석 외에 소문(所聞)으로 알려진 것으로 산성터(山城址)에는 설봉산성(雪峰山城) 왜성(倭城) 원적산성(圓寂山城)이 있고, 불우(佛宇)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안흥사(安興寺: 부 동쪽 4리에 있다), 정악사(定岳寺: 저명산(猪鳴山)에 있다), 안양사(安養寺: 오음산(五音山)에 있다), 입석사(立石寺: 대덕산(大德山)에 있다)가 기록되고 읍지(邑誌)에는 안흥사, 정악사, 안양사, 입석사, 송령사(松嶺寺: 모두 폐사), 북악사(北岳寺: 부 서쪽 5리 설봉산(雪峯山)에 있다), 신흥사(新興寺: 북악(北岳) 아래에 있다), 약사암(藥師庵: 신흥사에서 떨어진 언덕에 있다), 마곡사(麻谷寺: 부 남쪽 30리 오음산(五音山) 위 갈마면(芻麻面)에 있다)가 기록되어 있다. 읍의 부근에는 석탑(石塔) 몇 기(數基)가 산재하고, 옛날 비(古碑)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2~3개의 것이 외부에 들리는 바이다.

이하는 순서에 따라 조사하고 견문한 유물 유적에 대해 기술한다.



이천군 개황 및 군역(郡驛) 명칭의 조사 원고(4.3.2.1.)



이천군 개황 및 군역(郡驛) 명칭의 조사 원고(8.7.6.5.)

2. 무학산성(舞鶴山城)

무학산(舞鶴山)은 바로 설봉산(雪峰山)이다. 읍 서쪽 반 리(半里: 조선은 5리)에 있고 최고봉은 표고 391m이지만 험준하지 않다. 서쪽에는 표고 92m의 낮은 고개(峯)로 저명산(猪鳴山) 양각산(羊角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거의 고립되어 있다.

산성 터는 본산에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는 최고봉에서 동북으로 직경 7 - 8정(町)의 다른 봉우리(別峯) 위에 있고, 두 번째는 최고봉에서 서북으로 약 3정(町)의 한 봉우리(一峯) 위에 있어서 첫 번째에 비해 멀고 협소하다.

그런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설봉산 고성은 석축으로 되어 둘레가 5,112척인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雪峰山古城石築周五千一百十二尺今廢)”로 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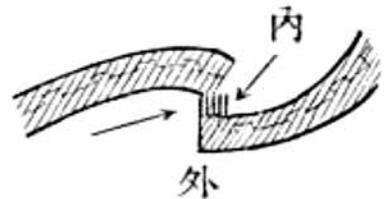
다른 기록은 없으나 『이천읍지(利川邑誌)』에는, “왜성은 부 서쪽 5리 설봉산 위에 있는데 둘레가 1,500보이고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倭城在府西五里雪峰山上周回一千五百步今廢)”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설봉산 고성(雪峰山古城)인 것은 읍지에는 없다. 두 책에 기록된 바는 둘레에 다소 장단의 차가 있는 것은 조선에서 피할 수 없는 바이다. 승람의 설봉산 고성(雪峰山古城)과 읍지의 왜성(倭城)은 동일한 것으로 읍지는 고성이 왜성의 명칭을 얻은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왜성은 부 서쪽 5리에 있다. 둘레는 1,500보이다(倭城在府西五里周一千五百步)” “설봉산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5,112척이다. 삼국시대 축성한 것인데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었다(雪峰山城石築周五千一百十兩尺三國時所築今皆廢)” 라고 기록하여, 삼국 시기 축성에 대해서는 승람(勝覽)의 원문에 없는 말이 있어도 이 기사는 승람(勝覽)과 읍지(邑誌)를 병합하여 기록한 것으로 실지 조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성(倭城)과 설봉산성(雪峰山城)을 구별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설봉산성이라 하고 왜성이라 하는 것이 모두 제1의 대성(大城)을 지칭한 것인가, 혹은 하나는 제1성으로 하고 다른 것은 제2성으로 하는가, 과연 그렇다면 어느 것을 설봉산성으로 하고 어느 것을 왜성으로 하는가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제1성, 제2성으로 칭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제1성터(第一城址)

제1성터는 무학산(舞鶴山)의 최고 주봉 391m 봉우리에서 동북(東北)으로 직경 7-8정(町) 떨어진 다른 봉우리(別峯) 위에 있고, 주봉과 산성 봉우리(城峯)와는 높이에 있어서 큰 차가 없고, 이른바 「말의 등마루」로



연결되고, 하나의 작은 길로 봉우리를 통하는 길만 있다. 산성 봉우리는 험준하지 않고 특히 이천방면(利川方面)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길게 꼬리를 끄는 모습이다. 봉우리 정상 및 정상 부근에는 다소간 인공을 가해 만든 서너 개의 작은 평면적인 땅이 천연적으로 완만한 경사면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 성벽(城壁)은 이 서너 개의 작은 평면적인 땅을 포용하는 것으로, 북한산성(北漢山城), 남한산성(南漢山城), 이성산성(二聖山城)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함경도 방면에 있어서 마고성(嫺姑城)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성내(城內) 현재는 초지(草地)로 곳곳에 암석이 있고, 성벽은 지금 퇴폐(頽廢)하여 무너져 사용된 석재가 아래쪽 곳곳에 쌓여 있으나, 오히려 서남변(西南邊) 및 동남쪽 문터(門址) 부근에 원상태가 유지되는 몇 부분이 있다. 그것을 보면 석재의 절단면으로 쌓은 쪽이 정연하게 되어 있다. 벽의 높이는 약 12척으로 안쪽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성벽의 전체 길이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승람(勝覽)의 설봉산성(雪峰山城) 둘레, 읍지(邑誌)의 왜성(倭城) 둘레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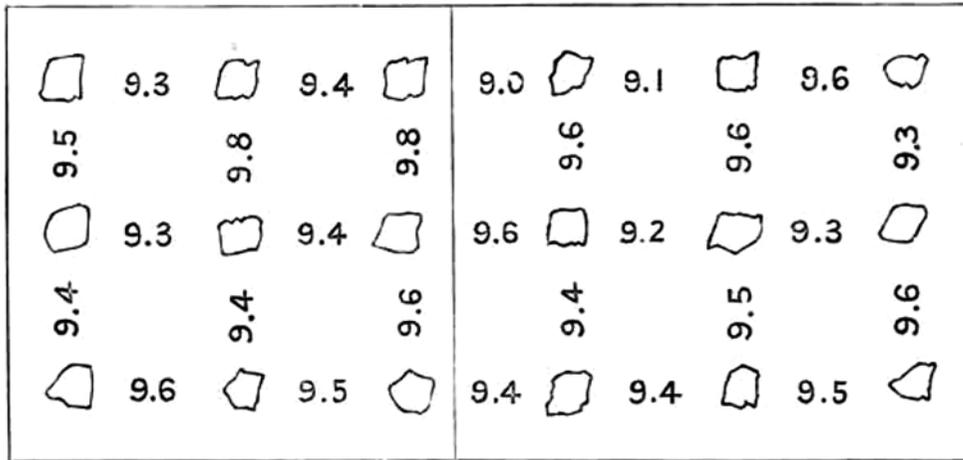


그림 3. 경기도 이천군 무학산 제1성 남아 있는 초석

남쪽의 주봉에서 이 산성 봉우리(城峯)로 이어지는 「말의 등마루」로 접속하는 성(城)의 지점에는 높이 약 30척(尺)의 원총(圓塚)을 만들고, 성내의 한 지점에 높은 곳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고성(嫺姑城)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왕왕 보여지는 것이다. 성문터(城門址)는 이천읍의 서서남(西西南)쪽에 있는 관고리(官庫里)로 향하는 산성 봉우리(城峯)에서 아래로 내려와 넓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계곡 상변에 있어서, 성의 동남으로 해당하는 바라보는 왼쪽의 석벽(石壁)을 성안(城內)으로 만입(彎入:바다가 활처럼 물으로 굽어듦)시키고 오른쪽의 석벽을 밖으로 만출(彎出)하여 조석의 차이를 만들어서 문의 입구(門口)로 한 것이다. 성내 기와 편(瓦片)이 적어 남아 있는 것도 작은 파편만으로 연대를 감정하는 데 충분한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성내 중앙부 가까운

지점에 각 옆에 6개의 초석이 3열로 되어 있는 유적터가 있다. 보통의 평석(平石)으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위 그림(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9척 8촌 내지 9척이다. 방향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10도 기울어져 있다. 이 건축물이 이 성(城)과 동시의 것인지 아닌지는 불명하다.

성내(城內)에서의 전망은 매우 넓고 멀리 여주방면(驪州方面)을 바라볼 수 있다.

음지(陰地)에 천정(泉井)이 있어 음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성의 축조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생각건대 삼국시대에 한 것인가, 어쩌면 신라·고려(新羅高麗)의 수축(修築)을 거쳤을 것이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내지인(內地人:일본인) 중에 이것을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축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심한 것이 된다. 승람(勝覽)의 설봉산성(雪峰山城)은 왜 이성을 음지에 왜성(倭城)이라고 했는가, 기요마사[清正]의 축성 운운하는 것은 왜성(倭城)이라는 명칭에서 나온 것이 될 것이다.(사진 19는 설봉산 허리부분[鞍部:말의 산마루]에서 북쪽으로 이 산성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 사진 20은 산성 문터에서 바라보는 오른쪽의 요(凹)아래 지점의 터이다. 사진 21과 22는 산성 성문측 벽<바라보는 왼쪽> 일부이다.)



사진 19. 경기도 이천군 음내면 관고리 무학산성



사진 20. 경기도 이천군 음내면 관고리 무학산성 문터



사진 21. 경기도 이천군 음내면 관고리 무학산성 문 측면 1



사진 22. 경기도 이천군 음내면 관고리 무학산성 문 측면 2

제2성터[第二城址]

제2성터는 설봉산 주봉 391m 봉우리의 서북쪽으로 약 3정(町)에 떨어져 있는 하나의 봉우리 정상부에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처음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연히 제1산성 내에서 인식하게 되어, 실지 조사의 결여가 있더라도 멀리 바라보는 바에 의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산 정상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벽 위에는 벽에 연이은 일대(一帶)를 평지인 벽(壁)으로 건축하고 위에서 토양을 취해 그 내부를 충실하게 한 것 같다. 그 규모는 작은 형태의 봉수대(烽臺)와 유사하다. 제1성과 서로 대립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설봉산성(雪峰山城) 외성(倭城)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 유사한 것인가도 실지의 조사가 결여되어 아직 판명할 수가 없다.



무학산성 원고(4.3.2.1.)



무학산성 원고(8.7.6.5.)



NO無1126-10



NO無1126-11



NO無1126-12



NO無1126-13

무학산성 유리건판 사진

(해제)

이천 무학산성은 설봉산성을 의미한다. 이천 설봉산성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일대설봉산(해발 394.3m)에서 북동쪽에 솟아있는 봉우리(해발 325m)와 그 능선을 연결하여 축조한 삼국시대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 2000년 9월 16일 사적 제423호로 지정되었다.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으로 북악산(北嶽山), 무학산(舞鶴山), 부학산(浮鶴山)이라고도 한다. 일제 강점기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시 제1성과 제2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나 설봉산성의 구조를 감안할 때 하나의 성을 오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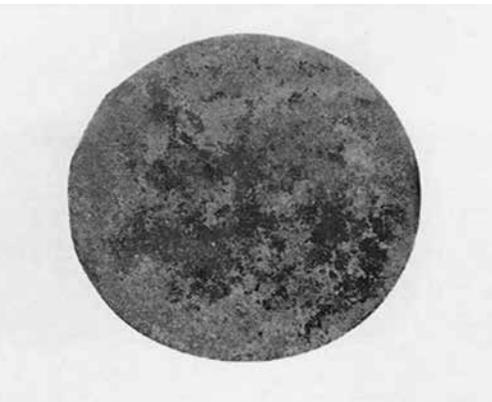
설봉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7년 12월 15일 부터 1998년 2월 13일까지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그 대략적인 규모가 확인되었다.⁷⁹⁾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및 박물관에서 총 6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⁸⁰⁾ 1차 조사에서는 남장대터, 저수시설, 8각 제단시설, 토광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다수의 백제 플라스크형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문터, 서성벽, 수구 등이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부터는 토광과 성벽 절개 및 수구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7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80)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봉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이천 설봉산성 4-5-6차 발굴조사 보고서』.



설봉산성 전경(1), 깃봉(2), 성벽 조사(3), 8각 제단시설(4), 출토유물(5~7)

3. 영월암(映月庵) 및 유물

영월암(映月庵)은 읍내면 관고리 설봉산성에 있는 작은 사찰이다. 근년 폭도봉기(暴徒蜂起) 때 화재로 재가 되는 등 모두가 소실(燒失)되어 절의 내력이 불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2-3개의 석제(石製) 유물이다.



사진 23.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관고리 영월암 석물

하나. 석불후배(石佛後背): 화강석(花崗石)으로 연변형(蓮瓣形)으로 되어 있다. 높이는 약 6척 폭은 3척 6촌 5분, 아래 폭은 2척 1촌 5분이다. 지금 절 내의 우물(泉井) 옆에 얹어져있다. 연화보상(蓮華寶相)의 화려한 양각이 우수하여 고려시대의 작품인 것 같다. 그 보존에 주위를 필요로 한다. 석불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사진 23).

둘. 석조(石槽): 화강석 하나의 돌을 도려내어 만든 직사각형(長方形)이다. 긴 외측이 9척 2촌 내측이 7척 8촌, 가로 외측이 4척 1촌 내측이 2척 7촌 5분, 높이 약 3척, 깊이 약 1척 1촌이다.

셋. 석탑잔석(石塔殘石): 대석(臺石) 하나, 주석(柱石) 하나, 옥부(屋部) 두 개, 오륜부 잔편(五輪部殘片) 하나가 남아 있다. 대석은 사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약 4척이다. 주석(柱石)은 8각형으로 각 면의 세로(縱) 9촌 가로(橫) 7촌으로 각 면에 불상이 양각되어 있다. 앞에 있는 여러 돌은 동일한 탑의 것인지 의심스럽다.

넷. 잡물(雜物): 앞에 기록한 석물 외에 석등룡(石燈籠)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3개의 석물이 있고, 연변(蓮瓣)으로 새겨 우수하다. 또 절 뒤의 암석에 마애불(磨崖佛)이 있다. 얼굴부분만 분명하지만 다른 곳은 마멸되고 불명하여 즐렬하게 만들어졌다.

영월암 부지는 옛 절터이다. 생각건대 북악사터(北岳寺址)로서 그 석물은 북악사의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영월암 부근에 하나의 작은 암자(小庵)가 있고 산 아래에 사지(寺址)가 있다. 신흥·낙사(新興樂師) 두 절은 지금 폐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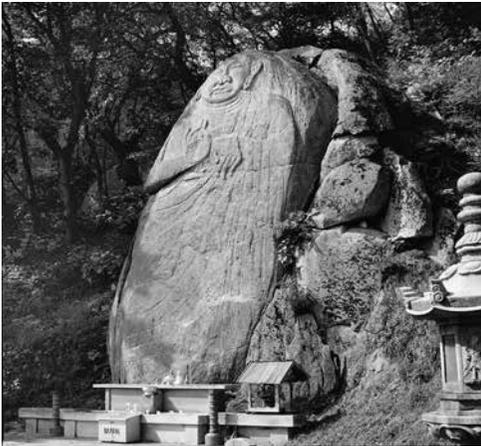
영월암 석물 광배 유리건판 사진



영월암 원고(2.1.)

(해제)

영월암은 현재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번지에 위치하며, 이천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에 속한 용주사의 말사이다. 신라 문무왕 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북악사(北岳寺)'라 이름 붙여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1774년(영조 50) 영월대사(映月大寺) 낭규(朗奎)가 북악사를 증창하고 영월암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경내에 1985년 1월 8일 보물 822호로 지정된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利川 映月庵 磨崖如來立像)이 있다.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4. 안흥사터[安興寺址]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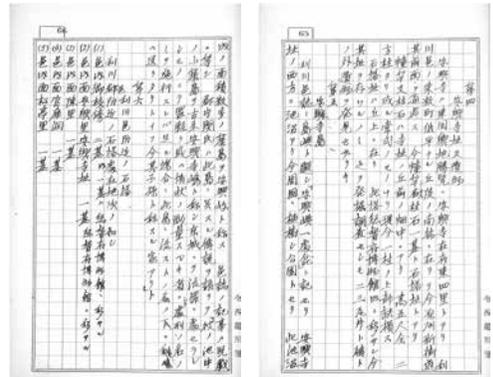
안흥사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안흥사는 부 동쪽 4리(安興寺在府東四里)”에 있고, 이천읍의 동쪽 수 정(數町) 떨어진 낮은 평평한 구릉의 남단(南端)에 있다. 지금 원주 신가도(新街道) 그 전면을 통과한다. 지금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 1기와 석탑 터(石塔址)가 있다.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은 절 터(寺址) 언덕 앞의 밭 가운데 있다. 높이 5척 여 두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것으로 현재는 하나의 기둥 상부가 결손되어 있다.

석탑터(石塔址)는 언덕 위에 있고, 탑은 총독부박물관 내로 옮겨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그것을 발굴조사해도 2-3 기와 편(瓦片)과 벽돌(甍)의 유물을 발견하는데 불과하다.

5. 안흥사 연못[安興寺畵]

『이천읍지(利川邑誌)』에 도서(島嶼)의 제목에 「안흥서일처갓(安興輿一處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흥사터의 서쪽에 못과 늪(池沼)이 있다. 지금은 주위에 나무가 심어져 공원이 되고 이 못과 늪 안에 면적 수 보(數步)의 섬(島嶼)을 안흥서(安興輿)라 칭한다. 읍지의 기사는 아이들의 유희 따위로 본다. 군수 민씨는 이 섬에 관한 전설을 말하기를 “이 못 가운데 쌓은 작은 작은 섬은 예부터 안흥사도(安興寺島)라 칭한다. 경성에서 유죄에 처해진 사람이 죄를 가볍게 하거나 혹은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람에게 처형의 명분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죽한 경우 이 섬으로 유배의 명을 내려 이천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지금 그 자손이라 칭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



안흥사, 안흥사 연못 원고(2.1.)

(해제)

안흥사터는 안흥동과 갈산동의 경계에 세웠던 나말여초(羅末麗初)기 대규모 절터이다. 안흥사터 오층석탑은 총독부박물관 안으로 옮겨졌다가 해방 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로 변경

되었다(본관 1964). 현재 야외전시관에 복원되어 있다.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세운 오층석탑으로 나팔여초 석탑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다. 높이는 5.84m, 전체너비는 2.7m이다. 한편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이 안흥사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안흥사'란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 조각과 석탑의 부재 등을 발견한 것으로 보고되어 오층석탑이 2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절터에는 10동의 건물터도 함께 발견되었다. 기타 이마니시 류가 조사할 당시에 확인된 당간지주 및 연못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의 안흥사터 오층석탑(왼쪽_국립중앙박물관)과 일제강점기 안흥사터 오층석탑(오른쪽_총독부박물관)

6. 이천읍 부근의 석탑

이천읍 부근의 석탑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1) 읍내향교 근방에 2기
(그 중 1기는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김)
- 2) 읍내면 안흥리 안흥사지 1기(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김)
- 3) 읍내면 진리(陳里) 1기
- 4) 읍내면 관고동(官庫洞) 1기
- 5) 읍내면 송정리(松亭里) 1기

읍내 향교의 석탑: 향교는 읍의 서북쪽 구릉지에 있고 탑은 향교의 서남에 인접하는 조금 높은 대지의 동측



사진 24.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송정리 석탑

(東側)에 2기가 서로 병렬적으로 있었으나 1기는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김으로서 지금은 1기가 남아 있다. 잔존하는 석탑은 3층까지만 남아 있고 각 층은 격석부(隔石部)와 그 아래에 해당하는 개석부(蓋石部)를 하나의 돌로 새겨 만들어졌다. 아래에서 제3층의 기둥이 비교적 짧은 것은 (중간이) 단절되었던 것과 유사하며 크기는 중형이다. 총독부로 옮긴 탑터(塔址)는 시굴하여 기와 잔편외의 유물은 없고, 그 기와 잔편에는 화재를 만난 흔적이 있다. 이 탑의 건립이 사찰의 건립보다 뒤라는 것도 분명하나 사찰의 명칭이나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진리 석탑(陳里石塔): 안흥사지 남쪽으로 수 정(數町) 떨어진 충청가도의 남쪽에 있다. 육지 측량부 5만분의 1 지도에 표고 94m 구릉의 동쪽 언덕(東麓) 밑 가운데 있다. 현재 3층까지만 남아 있고, 지붕부분(屋部)과 기둥부분(柱部)이 다른 돌(別石)로 이루어졌고, 대형이다. 사찰 명칭과 연대가 분명하지 못하다.

송정리 석탑(松亭里石塔): 다이쇼 4년(1915년) 앞에 기록한 안흥사 못 부근으로 옮겼다. 5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서 제1층의 격석(隔石) 및 최상부의 옥개부(屋蓋部)를 상실했으며, 격석부(隔石部)와 그 아래에 해당하는 옥개부(屋蓋部)를 하나의 돌로 사용하여 새겨 만든 것을 층을 이루어 쌓는 것은 향교측 석탑과 동일한 형식이 된다. 현재 높이 5척 7촌이고 소형으로 형태 역시 가지런하지 못하다. 사찰의 명칭이나 연대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사진 24)

관고리 석탑(官庫里石塔): 읍의 서서남쪽으로 약 10정 떨어진 설봉산의 지맥에 포옹(抱擁)되는 밑 가운데 있다. 아래로부터 4층이 남아 있고, 구조는 진리(陳里)의 것으로 조금 작아도 대형의 부분에 속한다. 사찰의 명칭과 연대는 모두 상세하지 않다.

7. 오천리(午川里)

오천리(午川里)는 옛날 읍의 소재지였던 것도 이미 기록한 바와 같다. 또 오천역(五川驛)의 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성벽(城壁)의 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전해지는 소문에 대해 조사하여 이 지역에 있는 조선 자작 민씨 별당의 성벽이 잘못 전해진 것이 명백하다. 고척리 세동(高尺里細洞) 등 구읍 소재의 전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기타 유물 및 잡문(雜聞)

- 1) 석조(石槽): 읍내 시장의 서쪽 작은 골목(小巷) 측에 길이 8척 여의 석조가 있다. 다른 고생서 옮긴 것 같다. 전래는 불명하다.
- 2) 석불(石佛): 광주에서 이천에 이르는 가로(街路)에 이천을 떠나 약 1리 앞의 지점 도로 좌측에 두부(頭部)를 상실하고 마멸이 심해 간신히 석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구(一軀: 하나의 몸)가 있다. 영험한 돌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 3) 석불,석탑: 설성면(雪星面) 암산리(岩山里)에 석불상이 있고 그 부근에 탑이 있다고 한다. 미조사.
- 4) 마애불상(磨崖佛像): 저명산(猪鳴山) 남쪽 언덕(南麓)에 있다고 한다. 미조사
- 5) 지석(支石): 신둔면(新屯面) 지석리에 있다. 본고적조사위원은 일정상 조사를 잘 할 수 없어서 일찍이 그것을 조사했던 오다(小田)서기관의 대화에 의하면 논두렁(水田畔) 측 경사면에 있고 커다란 하나의 돌에 불과하여 완전한 지석층(支石塚)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6) 원적산고성(圓寂山古城): 미조사

9. 부론

앞에 기록한 전설에 의하면 군치(郡治)를 지금의 읍에 두어진 것은 조선에 들어와서의 일이고, 지금의 읍 부근에 취합한 유적지에서 추론하면 그 치소(治所)는 이미 고려시대에 지금의 읍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혹은 지금의 읍에 있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의 지역으로 다시 옮긴 것이 되는가.



이천읍 소재 석탑~부론 원고(2.1.)



송정리 석탑 유리건판 사진



이천읍 소재 석탑~부론 원고(3.2.1.)



| 제3장 | 여주군(驪州郡)

1. 개황

여주군은 한강의 중류(中流)에 해당하는 하나의 큰 군(大郡)으로 고구려의 술천군(述川郡)과 골내근현(骨乃斤縣)의 땅이다.

『삼국사기』에, “소(한편 기(沂)라고 쓴다)천군(沂川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술천군(述川郡)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천령군(川寧郡)이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2개이다. 황효현(黃驍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골내근현(骨乃斤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황려현(黃驪縣)이다. 빈양현(濱陽縣) 운운(沂<一作沂>川郡本高句麗述川郡景德王改名今川寧郡,領縣二,黃驍縣本高句麗骨乃斤縣景德王改名今黃驪縣,濱陽縣云云)”이라 되어 있다. 고구려의 지명을 열거한 조에 술천군(述川郡)을 성지매(省知買)라고 주석하고, 세종대왕실록지리지에는 군(郡)의 연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흥도호부 부사(府使) 1인, 유학 교수관(儒學教授官) 1인. 본래 고구려의 골내근현(骨乃斤縣)인데, 신라가 황효(黃驍)로 고쳐서 소천군(沂川郡)의 【소천(沂川)은 곧 지금의 천녕(川寧).】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황려(黃驪)로 고쳐서, 현종(顯宗)무오에 원주(原州)의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또는 황리현(黃利縣)이라고도 한다.】 충렬왕(忠烈王) 31년 을사에 【곧 원(元)나라 성종(成宗) 대덕(大德) 9년.】 황비(皇妣) 순경 왕후(順敬王后) 김씨(金氏)의 고향이라 하여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하여 지군사(知郡事)를 두고,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洪武) 21년 무진에 위주(僞主) 신우(辛禰)를 이 고을에 옮기고 황려부(黃驪府)로 승격시켰다가,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에 【곧 홍무 22년.】 다시 여흥군으로 강등시켰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원년 신사에 중궁 정비(中宮靜妃)044의 내향으로써 여흥부로 승격시켜 음죽현(陰竹縣)의 북촌(北村) 어서이처(於西伊處)를 떼어 주고, 13년 계사에 도호부(都護府)로 고치었다. (驪興都護府 使一人, 儒學教授官一人.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改名黃驍, 爲沂川郡領縣. 【沂川, 卽今川寧】 高麗改爲黃驪. 顯宗戊午, 屬原州任內, 後置監務. 【一云黃利縣.】 忠烈王三十一年乙巳, 【卽元 成宗 大德九年】 以皇妣順敬王后 金氏內鄉, 陞爲驪興郡, 置知郡事. 至大明 太祖高皇帝 洪武二十一年戊辰, 遷僞主辛禰于郡, 陞爲黃驪府, 恭讓王元年己巳, 【卽洪武二十二年.】 復降爲驪興郡. 本朝太宗元年辛巳, 以中宮靜妃內鄉, 陞爲驪興府, 割陰竹縣北村於西伊處以與之. 十三年癸巳, 改爲都護府)”로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황려(黃驪)가 황리(黃利)로 되어 있고, 조선 태종 때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속되었던 것과 예종원년 영릉(英陵)을 여흥도호부 북성산(北城山)으로 옮기고 천령현(川寧縣)을 바꾸어 이 부에 내속(來屬)시키고 이름을 여주(驪州)라고 고쳐 목(牧)으로 승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천령현(川寧縣)에 대해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천령현은 본래 고구려의 술천군(述川郡)인데, 신라가 소천군(沂川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천녕군으로 고치어, 현종(顯宗)

무오에 광주(廣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계사(癸巳)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川寧縣本高句麗 述川郡, 新羅改爲沂川郡, 高麗改爲川寧郡。顯宗戊午, 屬廣州任內, 後置監務。本朝太宗癸巳, 例改爲縣監)라고 기록되고 승람(勝覽)에는 조선 예종(睿宗)때 이 현을 폐지하고 여주로 병합 직촌(直村)으로 하고 여주 서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주는 일본음으로 읽을 때 「리」주가 되고, 조선에서도 여(驪)의 고음은 「리(利)」 또는 「리(梨)」와 동음이다. 황려(黃驪)를 황리(黃利) 또는 황리(黃梨)라고 쓰는 것은 음이 동일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여주군은 한강을 따라 위로는 충주 아래로는 강화 방면으로 선박 운행이 편리하다. 물색이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이 읍은 경기도(畿甸)의 웅부(雄府)로 칭해졌으나 1895년 을미사변(메이지 28년) 토비(土匪)의 난의 병화(兵火)로 재로 변하고, 무술년(1898년:메이지 31년) 봄 대재앙이 있는 후, 폭도들에 의해 불살라져 거의 소실되어 옛날의 모습으로 복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조선의 내지(內地)로서 읍성(邑城)이 있다.



여주군 원고(3.2.1.)

2. 상리무덤[上里古墳]

주내면 상리(州內面 上里)에 무덤군(古墳群)이 있다. 원주가도(原州街道) 여주군청(驪州郡廳)의 동쪽 15-6정(町)에 상동(上洞)이라 칭하는 3-4호의 부락이 있다. 무덤은 이 부락의 서쪽에 있고 낮고 평평한 구릉지의 구릉 측면에 늘어서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그 동쪽의 한 무리(群)만 조사하는데 그쳤는데 오히려 그 서쪽에도 무리가 있다고 한다. 본 고적조사위원이 조사한 한 무리는 대체로 동남에서 서북으로 걸쳐 몇몇 개(數個)가 병렬로 되어 있다. 이미 많이 발굴한 흔적이 있다.(사진 25는 소재지를 동남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무덤(古墳)은 원형이었던 것 같은 봉토(封土)로 현재의 높이는 큰 것이 10척(尺) 작은 것은 4-5척(尺)이다. 거의 모두 석축묘광(石築墓曠)을 갖고 있다. 조사 당시 급히 돌아오라는 명령을 접하여 저녁시각의 단시간 한번 보는 것으로 그치고, 비 온 후 묘광(墓曠) 내에서 동작의 불편함이 더하여지고 게다가 본 고적조사위원의 부주의에 의해 매우 과실이 많고 조악한 조사가 되었다. 그 중 주요한 것 2기에 대해 조사한 바를 기술한다.

제1호분(第一號墳)

무덤군 중 주요한 것은 무리(群)의 남쪽에 있다. 도굴자(盜掘者)가 연도(義道: 무덤의 입구에서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길) 상부에 해당하는 광벽(曠壁)을 파괴하여 침입한 흔적이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 역시 이 파괴된 입구를 이용하여 광내(曠內)를 조사했다(사진 26). (무덤이) 놓여있는 것이 경사면으로 봉토(封土)의 높이가 전방에서는 10척(尺)에 이르나 후방에서 보면 겨우 3-4척(尺)에 불과하다.

광(曠)은 석축(石築)으로 석재의 절단면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고 석간(石間)에는 회반죽(漆喰)을 바른 흔적이 있다. 장방형(長方形:직사각형)으로 넓이의 저면(底面:밑면)이 약 12척(이 측정은 정확함을 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세로[縱:奥行] 7척이다. 아래부터 개석면(蓋石面)까지의 높이는 7척 4촌이고, 광(曠)의 사벽(四壁)중 전방 즉 연도가 있는 부분의 벽은 비교적 수직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삼면은 상방(上方)으로 향해 각 전방으로 경사져서 광(曠)의 넓이는 상부(上部)에 이를수록 감소하고 개석(蓋石)이 접하는 곳에서는 가로 8척 6촌, 세로 3척 5촌에 불과하다. 연도는 조금 왼쪽(바라보는 오른쪽)으로 편재되어 있다고 기억한다. 폭은 2척 3촌, 높이는 3척 9촌이다. 길이는 전방이 파괴되고 토양으로 막아 분명하지 않다. 방향은 남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구맥(丘脈)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고 있다. 천정석(天井石) 즉 개석(蓋石)은 대석(大石) 2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는 안에서 회반죽(漆喰)으로 하여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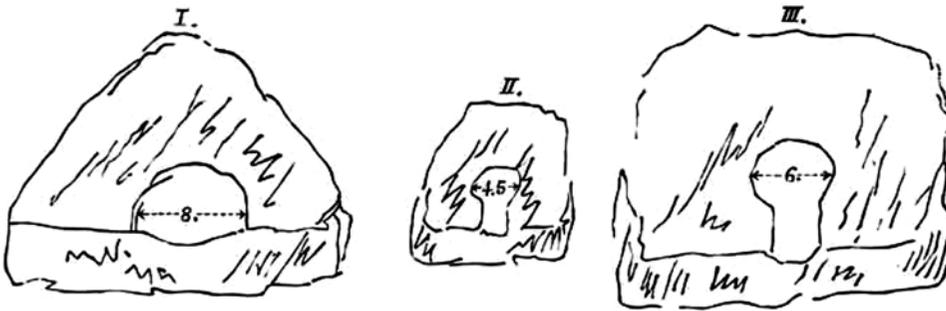
광내(曠內) 좌우에 2기의 적석상(積石床)이 있다. 두 상(床)의 사이는 겨우 1척1촌의 사이를 제외하고 광의 다른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상은 여러 개(數多)의 잡석(雜石)을 쌓아 방형(方形)으로 만들었고 두께는 약 2척이다.

우상(右床: 바라보는 왼쪽)은 폭 7척 1촌(본 고적조사위원의 미숙으로 인해 정교한 점에서는 정확함을 기할 수 없었다) 세로는 측벽(側壁:측면의 벽)의 길이와 동일하여 약 7척이고, 상 위(床上)에 광(曠)의 오벽(奥壁: 안의 벽)에 접근하여 3개의 돌베개(石枕)가 배열되어 있다. (돌베개가) 모두 편평한 자연석을 사용하여 머리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목하게 새겨(凹削) 베개형태를 만들었다. 오른쪽(바라보는 왼쪽)에서 첫 번째 돌베개는 위의 그림(그림 4)처럼 삼각형의 평석으로 머리 부분을 오목하게 새겼다(凹削). 지름이 8촌이다. 제2돌베개 즉 중앙의 것은 방형의 평석으로 머리 부분(頭部) 및 목부분(頸部)을 오목하게 새기고 머리 부분의 지름이 4촌5분에 불과하다. 가장 작은 소

형이다. 제3돌베개 즉 좌측의 것은 방형으로 두부(頭部) 및 경부(頸部)를 오목하게 새기고 두부의 지름이 6촌이다. 이 세 개의 베개는 일견 부부의 시신 사이에 아이의 시신을 안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제2석상 즉 좌상(左床: 바라보는 오른쪽)은 폭 3척 7촌, 길이 7척이다. 이 상 위로 역시 오벽(奧壁)으로 접근하여 2개의 돌베개 배치되어 있다. 각 베개는 방형(方形)의 평석(平石)을 사용하여 두부(頭部)를 새겼다. 커다란 제1상의 대침(大枕)과 소침(小枕)과 사이가 있는 작법은 조금 조악하여 정확하게 크기를 측정할 수 없어도 성인의 베개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베개 위에 유골의 분편회토(粉片灰土: 재와 흙의 가루)처럼 희박하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27은 이 제2상 위의 두 개의 돌베개와 상이 놓여있는[床坐] 일부분과 광벽(曠壁)의 일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유물은 도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상리 제1호 고분 내 돌베개 그림

제2호분(第二號墳)

제2호분은 제1호분과 사이에 무덤 2기가 떨어져 나란히 있고, 봉상(封土)이 큰 것은 제1호분과 큰 차이가 없다. 원형의 무덤 같으며 도굴자 때문에 전면이 파괴되어 현재 광(曠)의 전벽(前壁) 일부와 연도(羨道)의 일부를 노출하고 있다. 도굴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석실내의 토양이 무너져(흙이) 유입되어 천정면(天井面)에서 약 5척 이하가 매몰되고, 방광(方曠)으로 사용된 석재 및 석재 사용의 수법이 제1호분과 동일하게 광(曠)의 위쪽이 좁아지고 있다. 개석(蓋石)의 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 오벽면(奧壁面: 안쪽의 면)을 현저하게 전방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다른 삼면(三面)의 벽면은 직립에 가까워 석실내의 4 모퉁이(四隅)의 상부에 비교적 커다란 돌을 가로로 경사지게 하는 것은 고구려 무덤석실(古墳石室)의 구조와 정추(精粗: 정밀함과 거칠음)의 구별이 있어도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사진 28은 오벽 및 좌측벽의 상부를 촬영한 것으로 벽면의 경사 및 모퉁이 상부에 가로로 경사지어 놓여있는 돌에 주의해야 함) 개석(蓋石)은 3개로 만들어지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광(曠)의 하방(下方)은 현재 토양으로 쌓여져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측하는 것이 어려워

도, 그 개석 하면에서 아래로 5척의 평면에서는 넓이 9척 세로(縱:奥行) 6척이다. 여기에서 위쪽으로 3척 5촌 즉 개석 하면에서 아래로 1척 5촌의 면(네 모퉁이에 가로로 경사진 돌 아래의 지점)에 이어서는 너비 8척 8촌 세로 4척 7촌이다. 연도(羨道)는 중앙에 있고 폭 2촌 6분이다. 연도의 개석 하면(蓋石下面)은 본실의 개석 하면(蓋石下面)보다도 저하한 것도 약 1척 6촌이다. 연도의 길이는 명확하지 않고 석실 내에 제1호분처럼 석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어도 지금 황폐해져 분명하지 않다.

이 일군(一畝)의 무덤은 함경도 안변군 고산역 부근 위익면(衛益面) 상세포동(上細浦洞)의 무덤군(古墳群)과 석실 및 석상의 유사한 것은 가장 주의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그것을 동일 민족이 대략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세포동의 무덤군에 대해서는 총독부 발행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 기재되어 있다. 그것을 예민족(穢民族)의 무덤(古墳)이라는 것은 본 고적조사위원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민족연대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단안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도, 이 무덤은 분명히 고구려의 것과 서로 다른 점이 많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그것이 신라시대의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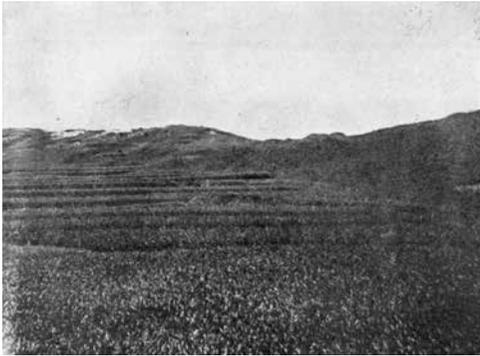


사진 25.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상리 무덤군



사진 26.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상리 무덤군 제1호분



사진 27.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상리 제1호분 석침 및 좌상



사진 28.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상리 제2호분 내부



상리무덤 원고(4.3.2.1.)



상리 무덤 원고(8.7.6.5.)



여주 매룡리 무덤군(노모리 권(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매룡리 2호분(노모리 권(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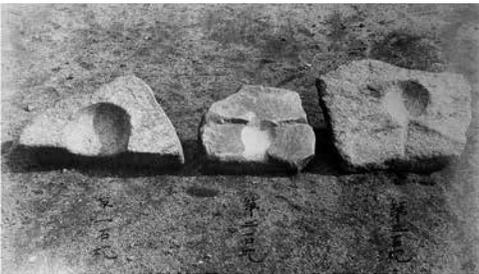




여주 매룡리 154호분(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매룡리 2호분 돌베개(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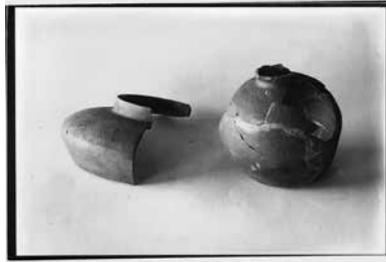
여주 매룡리 2호분 돌베개(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매룡리 8호분(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복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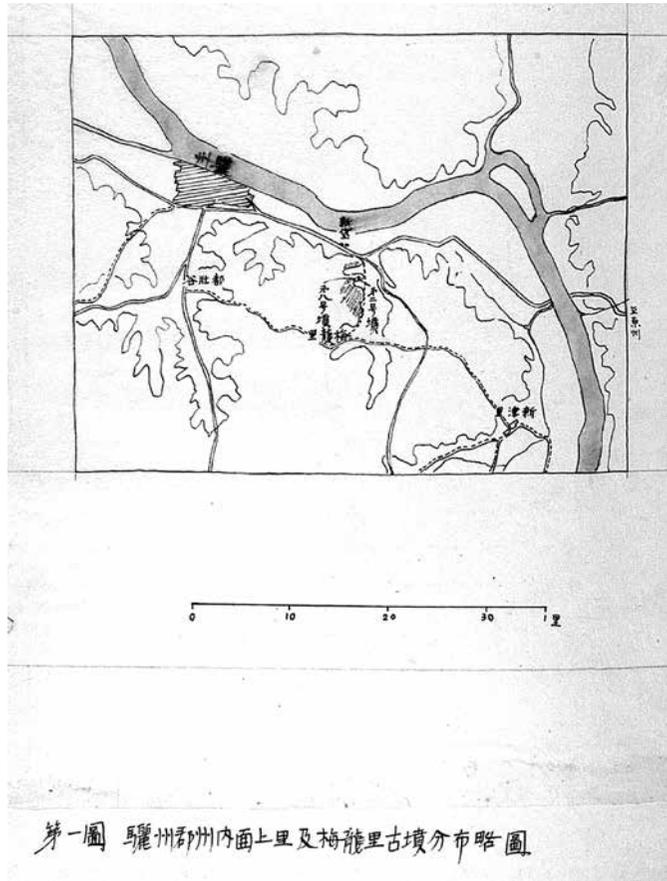
여주 매룡리 2호분 출토 유물
(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북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매룡리 무덤군 채집 토기 유리건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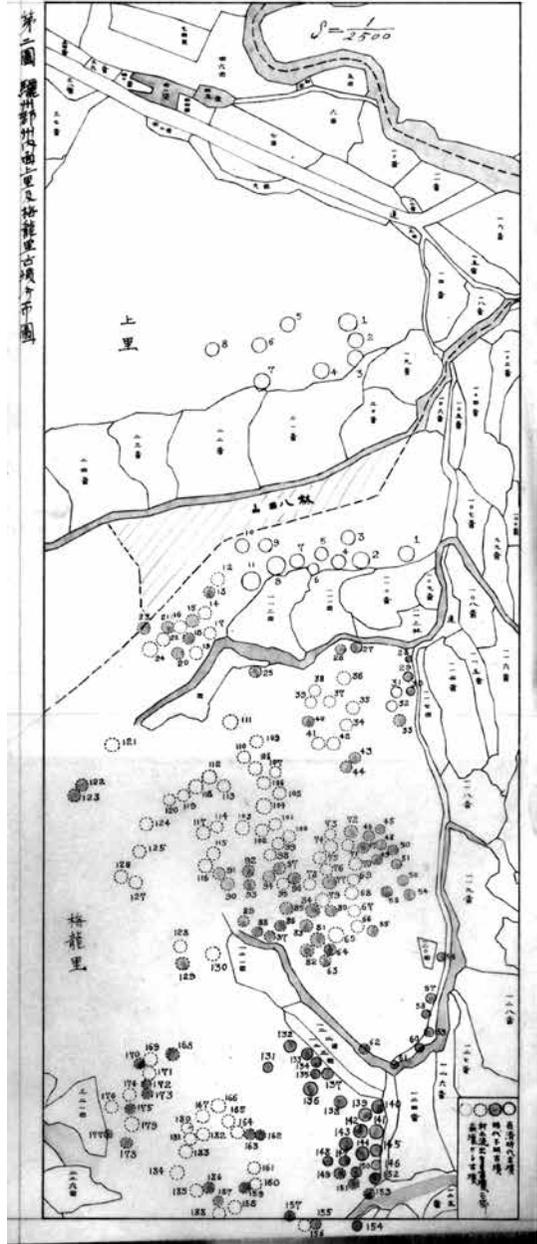


여주 매룡리 무덤군 채집 토기 유리건판 사진



여주 매룡리 무덤군 위치도
(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북명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매룡리 무덤군 분포도
(노모리 겐[野守健] 출장 북명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제)

여주군 상리 및 매룡리 무덤군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주내로 98-102(매룡리)에 있다. 2002년 9월 16일 경기도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유적은 여주군청 동남쪽 1,400m~2,000m 사이의 연주-연양 간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1,500m 정도까지 이르는 지역에 형성된 얇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무덤군의 북쪽으로는 남한강 본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고, 정남쪽으로는 해발 175.3m의 황학산이 자리한다. 무덤은 이 황학산의

북쪽 가지능선과 동쪽에서 뻗어 나온 작고 얇은 구릉의 남사면에 주로 분포한다. 이 무덤군은 대표적인 삼국시대 신라 무덤군으로 충주 루암리 무덤군과 함께 신라가 남한강을 따라 중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 200여기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주군 상리 및 매룡리 무덤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그 처음은 조선총독부 소속 촉탁 노모리 겐(野守健)이 1929년(쇼와[昭和] 4년) 10월 24일부터 경성을 출발하여 여주에 도착한 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여주 상리 및 매룡리 무덤군에 가서 분포지도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 무덤 분포도, 2호분, 8호분, 154호분 등을 현황 조사한 사진이 복명서의 형태로 남아 있다.⁸¹⁾ 해방 이후에는 단국대학교박물관과 한양대학교박물관이 지표조사 과정에서 무덤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⁸²⁾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한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 4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총 26기의 무덤을 발굴조사 하였다.⁸³⁾ 이후 기전문화재연구원이 1999년에 매룡리 산4-25번지 발굴조사를 통해 무덤 8기를 추가로 발굴조사 하였다.⁸⁴⁾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분포상황과 파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도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분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⁸⁵⁾



여주 매룡리 산4-25번지 1호 무덤

81) 野守健, 1929, 「復命書」, 朝鮮總督府.

82) 檀國大學校博物館, 1984, 『中原文化園遺蹟地表調査』,
漢陽大學校博物館, 1985, 『京畿道百濟文化遺蹟地表調査』.

83) 翰林大學校博物館, 1987, 『驪州 梅龍里 瓮강골 古墳群』,
翰林大學校博物館, 1988, 『驪州 梅龍里 瓮강골 古墳群』Ⅱ,
翰林大學校博物館, 2001, 『驪州 上里古墳(94-97年度)發掘調査 報告書』.

84)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驪州 梅龍里 山4-25번지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85)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여주 매릉리 무덤군



여주 매릉리 신4-25번지 무덤군 조사 후 전경

3. 북성산 고산성(北城山古山城)

『여지승람(輿地勝覽)』 여주 산천조(驪州山川條)에 '북성산(北城山)은 주 서쪽 7리에 진산(鎭山)이 있다. 여기에 옛 성터[古城址]가 있다.(北城山在州西七里鎭山有古城址)'고 기록이 있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주에서는 북산(北山) 위에 성터가 있다는 설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 과연 성터가 있었다. 그 산은 영릉(英陵) 금초(禁樵: 벌목 금지) 구역 내에 있어서 소나무가 밀집하여, 그 터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던 것 같다. 북성산(北城山)은 여주 서쪽으로 약 30정(町), 영릉(英陵)의 남쪽으로 약 20정(町) 떨어진 곳에 있는 표고 285m의 송산(松山)이다. 북성산은 험준하지는 않지만 부근의 작은 산 중에서 가장 높고 동쪽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서쪽은 대교천(大橋川) 유역과 접하여 얼마간의 전망이 있다. 성벽은 석축(石築)으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북성산의 최고봉은 285m 봉우리 위에서 동북쪽의 한 봉우리 약 240m 봉우리 위에 이르기까지 고개 위의 동단(東端)이 이어지고, 각 봉우리 산에서 산의 꼬리로 이어져 내려와 산의 서북에서 이천방면에 마주하는 계곡을 포옹하는 것 같다. 형식은 북한산성·남한산성과 동일하다. (두 봉우리 사이에 터가 연이어 있어 답사하기가 어렵고, 다른 부분은 답사할 수 없는 소나무 지역이기 때문에 전망하는 것도 어려워 대체적 형세에서 앞에 기록한 것처럼 추정하지만 오류가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 앞에 기록한 양 봉우리 사이 안부(鞍部:산마루가 움푹 들어간 곳)의 최저점에 문터(門址)가 있다. 지금 주내면 삼전동(州內面三田洞)으로 내려가는 작은 샛길[小徑]에 해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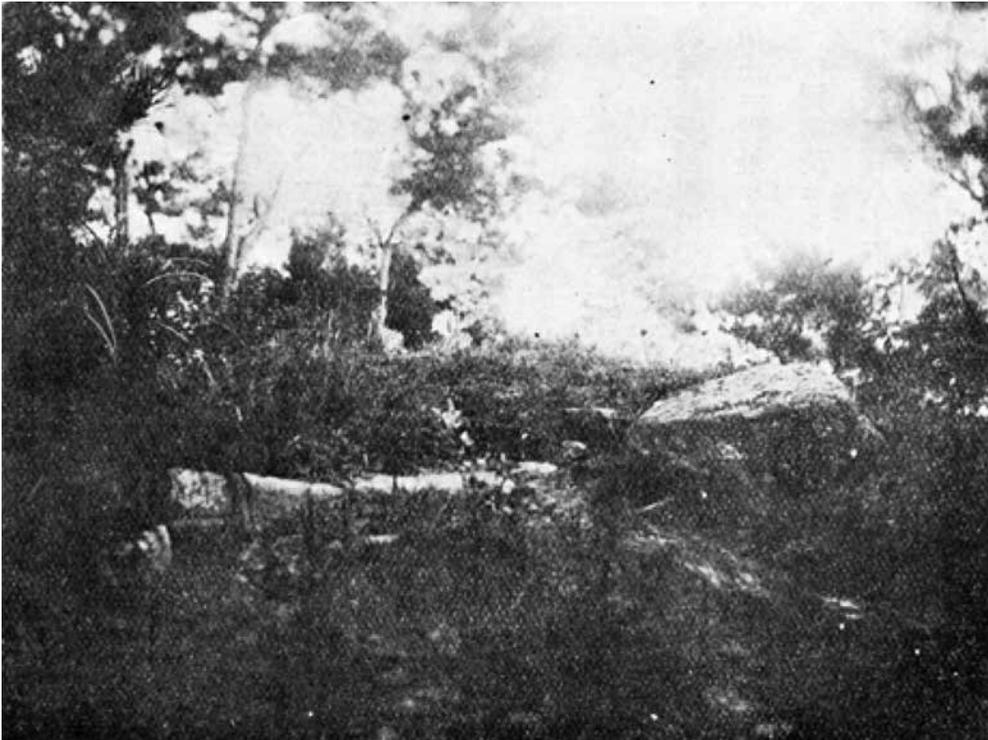


사진 2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북성산 성문터

다. (문터의) 폭 약 7척 5촌 그리고 좌우 및 안쪽이 모두 작고 높은 문비(門扉:문짝)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편평하여 긴 돌과 하나의 작은 돌로 가로 놓여 좌단(左端: 밖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높이 약 3척의 돌을 놓고 우단(右端)에는 2-3개의 소석(小石)이 놓여 초석(礎石)으로 인정할 만하다. (사진 29는 이 터 밖에서 촬영한 것이 된다) 이 문은 분명히 후문이 되고 정문은 반대쪽 계곡사이에 있을 것이다.

유물로 기와편이 있으나 연대를 추정할 만한 것은 없다.



북성산 고산성 원고(3.2.1.)

(해제)

북성산 고산성은 여주 북성산성(北城山城)을 의미한다. 북성산성은 유고성터(有古城址)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여말선초(麗末鮮初)에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군 신지리와 여주읍 월송리 경계에 위치한 해발 275m의 북성산에 위치한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 북쪽으로 남한강과 파사성, 서쪽으로 이천시, 동쪽으로 여주읍과 매릉리 고분군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북성산성에 대한 일제강점기 정식 조사는 없었지만 조선총독부가 1942년도에 유적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 “길이 약 250간의 석축성”으로 기재되어 있다.⁸⁶⁾ 해방 이후에는 여주군에 대한 광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그 대략의 규모가 파악되었다.⁸⁷⁾ 현재 북성산성에는 치성 4개소, 건물터 3개소, 우물터 1개소가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6)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87)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여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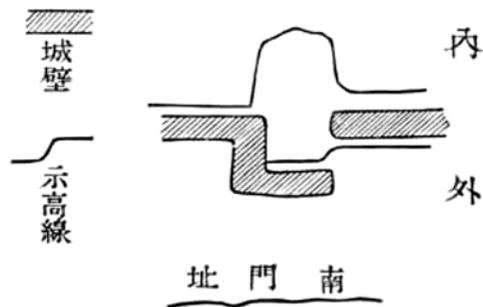
4. 파사성(婆娑城)

파사고성(婆娑古城)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大神面川西里)에 있다. 『여지승람』 여주군 고적조(輿地勝覽驪州郡古蹟條)에 “고산성(古山城)은 주 북쪽 53리에 있고 석축이며 둘레가 3만8천825척”이라는 것은 그 방향과 거리에서 파사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인정되고 둘레의 길이는 길이에 불과하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고산성(古山城)을 기록하고 그 성에 대해, “여주 파사고성(驪州婆娑古城)은 북쪽 40리에 있는 소산(小山)과 임강(臨江)에 있고 선조 25년(임진)왜란 때 승장(僧將) 의엄(義嚴)⁸⁸⁾이 석축(石築) 1천 1백보를 수축했다”고 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승람(勝覽)의 고산성이 이 파사고성(婆娑古城)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고성 외에 달리 승람(勝覽)에서 고산성(古山城)의 기사를 취해 고산성인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파사고성의 기사는 승람(勝覽)에서 보여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승람의 고산성은 지금의 이천군 원적산성(圓寂山城)을 가리키고, 파사고성은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다.

파사성은 이포(梨浦)에서 한강 하류 십수 정(十數町)의 대안(對岸) 즉, 동안(東岸)에 있고 강에 임하여 표고 230m 절벽 강가에서 높이 약 200m에 불과한 하나의 작은 산에 있다. 이 산 동쪽 지역에 낮은 구릉지에 이어져 홀로 독립된 산(獨立孤山)에 가깝다. 산의 좌우에 높은 산이 없어 한강 상하(上下)에 얼마간의 조망 지역이 있다.

성벽은 산 정상의 최고점에서 앞 좌우의 산 뒤로 걸쳐 한강으로 향해 비교적 넓은 계곡을 포용하고 있다. 높이 100m 봉우리와 120m 봉우리선 사이까지 내려간다. 육지측량부 5만분의 1지도에는 성벽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볼 수 있다. 그 형식은 북한산성·남한산성의 작은 규모로서 광진산성(廣津山城)의 종류와 동일하다. 한강과의 관계 역시 이 성(城)에 동일하다.

성벽은 석축(石築)으로 붕괴된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완전히 보존된 부분이 있다. 사용된 석재는 대소(大小) 후박(厚薄)이 혼합되어 있어도 돌의 절단면이 표면으로 쌓아 올려 비교적 정연하다. 벽의 높이는 15척(尺) 내외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의 높이는 혹은 붕괴하고 혹은 무너진 토양으로 쌓여져 현재 지면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혹은 2척 내외의 높이를 가진 부분이 있다. 북변(北邊)은 오히려 4-5척의 높



88) 의엄(義嚴²⁻⁷) 승병장. 속명은 관수언(郭秀彦). 휴정(休靜)의 제자이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에 일부 승려들이 참가하면서 황해도 구월산에 있던 그에게 함께 역모를 도모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재경군수 박충간(朴忠幹)에게 고발하여 조정에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스승인 휴정이 팔도(八道)의 승려들에게 의승병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였을 때, 황해도에서 500명의 승병을 모집하여 왜적들과 싸웠다. 그는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군량미를 모으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선조 26년 5월의 비변사계문(備邊司啓文)에 의하면, 그가 임진왜란 때 세운 공로에 대하여 조정에서 직품(職品)을 제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원하지 않고 선종판사(禪宗判事)가 되기를 원하니 선종판사직을 제수하게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존된 부분이 있고, 내부에서도 얼마간의 석재를 사용하여 옹호하는 곡성(曲城)으로 된 것도 다른 산성과 동일하다.

성문 터는 남문과 서문 두 곳이 있다. 남문 터는 높은 지점에 있어 마스가타(槌形: 성의 첫째 문과 둘째 문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로 되어 있다. 서문 터는 한강을 향해 성벽의 낮은 부분으로 하여 정문으로 하고 그 터의 폭이 15척 3촌이다. 문기둥의 초석 2개 정도가 남아 있는 왼쪽(바라보는 오른쪽)의 것은 지금 엎어져(顛倒) 있다. 이 둘의 전 길이가 3척 5촌이고 안의 상부는 2척 8촌이며 8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 팔각형 부분의 둘레는 5척 2촌이다.(사진 30은 서문터를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 성벽의 경사진 사진은 전경(全景)을 수록하기 위해 사진판의 각도에서 생긴 것이다)

성내 커다란 건축을 지을만한 평면의 땅이 있고, 중턱에 3개의 초석이 있어도 협소한 건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우물 터(井址)가 있어 직경 약 3칸의 석축이 존재하고 물이 있다. 성내 초지(草地)에서 소수의 잔솔(雜松)이 자라고 있다(사진 31은 한강 물위에서 본 성을 찍은 사진으로 왼쪽의 산골짜기는 바로 성이 된다).

본 성을 수축했다고 하는 승장(僧將) 의엄(義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사진 30.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서문터



사진 31.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조망



북성산 파사성 원고(4.3.2.1.)



NO無 1129-14



NO無 1129-15

북성산 파사성 원고(5.)

여주 파사성 원경(위)과 서문터(아래) 유리건판 사진

(해제)

여주 파사성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8·10번지 일대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으로, 1977년 7월 21일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었다. 산성의 총 연장 길이는 1,800m에 달하며 조선시대까지 수리 보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된 석축 산성이다.

일제강점기까지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는 기전문화재연구원⁸⁹⁾이 1999년부터 연차발굴(1차~6차)을 실시하였고,⁸⁹⁾ 최근에는 한성문화재연구원에서 제7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⁹⁰⁾ 우선 1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503m 구간 및 동문터, 나지구, 다지구, 조선시대 포루 1기, 조선시대 문지 1기, 통일신라시대 건물터 1동, 고려~조선시대 구들 14기, 고려시대 집수터 1기, 조선시대 우물터 1기, 청동기시대 집자리 1기, 삼국(백제)시대 집자리 1기가 확인되었다. 2차 조사는 성벽 60m구간과 아지구를 조사하여 조선시대 포루 1기, 통일신라시대 건물터 2기, 통일신라~조선시대 구들 4기, 석렬 3기, 통일신라~조선시대 축대 2기 등이 확인되었다. 3차 조사는 성벽 93m구간, 다지구를 조사하여 추정 곡성지 1기, 구들 3기, 삼국시대 노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4차 조사는 남문지 주변 성내 평지를 조사하여 건물터 1기, 담장터 1기, 석렬 2기 등이 확인되었다. 5차 조사는 서벽과 남벽 연결 회절부를 조사하였고, 6차 조사는 남문지와 남벽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조선시대 포루 1기, 삼국시대 등성시설 1기, 삼국~조선시대 남문터, 통일신라~고려시대 집자리 1동 등을 조사하였다. 7차 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체성벽 1개소, 곡성 1개소, 남문터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89)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驪州 娑娑城 - 긴급수습 및 1차 발굴조사보고서-』I.

京畿文化財研究院, 2014, 『驪州 娑娑城 -2~4차 발굴조사 보고서-』II.

京畿文化財研究院, 2014, 『驪州 娑娑城 -5~6차 발굴조사 보고서-』III.

90) 한성문화재연구원, 2018, 『驪州 娑娑城 -7차 발굴조사 보고서-』.



여주 파사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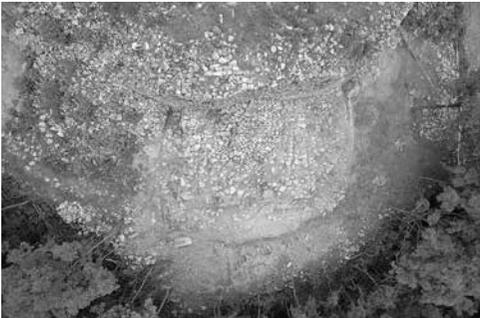
여주 파사성 북벽(왼쪽)과 5차 발굴조사 결과(오른쪽)



여주 파사성 남벽 하단 보축 상태(왼쪽)와 외성벽 보축 상태(오른쪽)



여주 파사성 내성벽 하부 보강시설(왼쪽)과 남문지 전경(오른쪽)



여주 파사성 포루(왼쪽)와 남문지 세부(오른쪽)

5. 폐고달사터[廢高達寺址]

고달사터는 북내면(北內面) 상교리(上橋里)에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 여주목조(驪州牧條)에 “고달사는 혜목산(慧目山)에 있으며 고려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이 찬한 승 혜진탑비(慧眞塔碑)가 있다(高達寺在慧目山有高麗翰林學士金廷彦所撰僧慧眞塔碑)”고 기록되어 있다. 그 소재지는 구북면(舊北面) 상고리(上高里)의 지역으로 근년 그 남쪽의 교정리(橋頂里)와 합병하여 상교리(上橋里)라고 개칭하고, 면의 명칭(面名)도 역시 병합하여 고쳐진 것이다. 이 땅은 고달(高達)의 이름으로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이 지역은 여주읍과는 한강에서 떨어진 읍의 북쪽 약 4리에 있고, 한강으로 유입하는(읍에서 약 27정(町)의 상류에서) 실개천(小流)의 상류에 있다. 여주와 이 지역과의 교통로는 본 고적조사위원은 지평군(砥平郡) 방면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답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주읍(驪州邑)에서 듣고, 사실과 지도에 의해 조사하여 이 지역에서 실개천의 흐름을 따라 남하하면 한강 근처의 땅에 커다란 고저(高低)를 이루는 것 같다. 지평군 여주군 경계의 시장 곡수장(曲水場)에서는 약 2리 여 도로가 좁고 도보 통행도 곤란하며 높이 200m의 고개가 있다.

이 지역의 북쪽에 경래산(鯨來山), 서쪽에 우두산(牛頭山) 동북에 산의 자태가 우수한 옥안봉(玉安峯)이 있다. 남쪽은 앞에서 기록한 한 길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통하고, 산 중에 조금 넓

은 하나의 동리(洞里)가 있다. 혜목산(慧目山)은 앞에서 기록한 여러 산의 총칭이라 할 것이고, 승람(勝覽)에는 고달사(高達寺) 외에 취암(鷲巖) 상원(上院)의 두 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고달사터는 경래(鯨來) 우두(牛頭)에서 남으로 낙하하여 구릉의 남단(南端)에 있으며 지형(址形)이 판연(判然)하고 현재의 촌락 북쪽 고지에서 부락 내까지 미치고 있다. 옛 기와의 파편이 흩어져 있어도 시대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지(寺址) 석물의 대부분은 부락 민을 위해 철거했던 것처럼 구이장(舊里長) 준양(濬陽)의 집에도 거대한 마름돌을 허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절터[寺址]에 현존하는 유물은,

- 1) 원종대사혜진탑비(元宗大師慧眞塔碑)
- 2) 혜진석탑(慧眞石塔)
- 3) 석탑(석석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 4) 석조불좌(혹은 탑의 대석)
- 5) 석등잔편(석등몸의 불을 켜는 곳 보주[火袋寶珠] 등)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은 다이쇼 3년(1914) 9월 총독부 간행의 조선고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이쇼 원년(1912년) 11월 총독부 위탁 세키노[關野] 박사 일행에 의해 조사되었던 것이다. 동 보고서에는,

갑 폐고달원 원종대사혜진탑(廢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

갑 동 비(同碑)

을 동 서북부도(同西北浮屠)

을 동 비귀부(同碑龜趺)

을 동 석조불좌(同石造佛座)

과 있고, 본고적조사위원회는 조사할 때 네 번째 귀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검출하지 못한 것은 (본 고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빠진 것으로 실수한 것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하는 먼저 혜진탑비(慧眞塔碑)를 기록하는 순서로 다시 서술한다.

6. 폐고달원 원종대사 혜진탑비(廢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비(碑)는 앞에서 기록한 고달사터에 있는 부락의 서변(西邊), 민가의 담(塼籬)과 밭(畠) 사이 작은 면적의 초지(草地)에 있다. 비신과 함께 귀부·이수가 존재한다. 연대가 불명한 어느 시기에 쓰러져 지상에 있었어도 결손 흔적이 없어 다이쇼 3년(1914) 여주군에서 그것을 세워 일으켜 귀부(龜趺)위에 안치하고 이수(螭首)도 다시 실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다이쇼 4년(1915) 3월 2일 오후 7시 하등의 특수한 원인도 없이 돌연 후방(後方:북방)으로 쓰러졌다. 비신(碑身)은 귀부(龜趺)의 거북 등딱지 위(甲上)에서 격렬한 충격을 받아 8개로 파손되어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표면을 위로 하여 비신(碑身)의 하반은 귀부(龜趺)의 후부 위에 있고, 그 상반(上半)은 귀부 후방의 지상에 있다. 이수(螭首)는 원위치에서 약 20척 후방(북쪽)으로 추락하여 한 모퉁이의 이두(螭頭:이무기둥)가 떨어졌고, 상방이 남쪽(전방)으로 하고 하방(下方:자루 구멍이 있는 낮은 편)이 북(후방)으로 하여 남아 있다.(사진 32, 33)

비신(碑身) 귀부(龜趺) 이수(螭首)의 실측에 대해서는 세키노(關野) 박사 일행의 정밀한 조사보고가 있다. 그리고 본 고적조사위원의 졸렬한 측정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박사의 보고로 본 고적조사위원은 그 대강을 보고한다.

본 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비문에는 개보(開寶) 8년 즉 광종 26년에 건립되었다고 해도 비 음기에 「병인년(丙寅年)에 비탑공사(碑塔工事)를 시작하여 정축년(丁丑年)에 준공하였다.(始丙寅年郢工碑塔終至丁丑年功畢也)」라고 하여 광종 17년에 기공하여 12년이 지난 경종 2년에 만들어진



사진 32.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터 원종대사혜진탑비

것이 되고, 김정언(金廷彦) 찬문(撰文)에 장단열(張端說)이 글을 쓰고 있다.

비신은 첫 번째 전도(顛倒)되었을 때(연도 불명)에는 표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이면도 구탁본을 조사하면 손상이라고 볼만한 흔적이 생기지 않았다. 이번 다시 전도(顛倒)로 인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8개로 파손되기에 이르러 그 파손 상태는 제5도와 같다.(숫자는 촌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진 33.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터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비신

파손 전의 비신은 길이가 9척 3촌 여, 폭은 5척 3촌이고 두께는 1척 1촌으로 상하 양단에 자루형 새김이 있다. 아래쪽의 자루 부분은 그것이 파손 흔적의 새로움과 낡음(新古)에 의해 판정되어 첫 번째 전도(顛倒)되었을 때 대부분이 없어지고 겨우 한 부분만이 남아 있다가 두 번째 전도(顛倒)에 의해 중앙의 부분마저 결실되었다. 이 하단의 자루부분의 크기가 경험적으로 그 작성 당초에 있어서는 길이 4척 9촌 안의 두께가 7촌 4분이고, 그 높이는 귀부 위에 자루구멍의 깊이가 8촌 5분인 것을 추측하면 약 8촌 내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높이가 4촌에 머무르고 대부분은 겨우 1촌의 높이만 남아 있다. 상방(上方)의 자루부분은 높이 5촌 5분, 두께 6촌 5분으로 누락 부분이 적다.

비신은 이번 전도(顛倒)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8편으로 쪼개지고 밖에 그 절단선에 따라 허다한 소편(小片)의 박리(剝離·벗겨져 떨어짐)가 있다. 특히 귀부와 충돌한 이면의 박락(剝落·벗겨져 떨어짐)이 많은 것 같다. 이 박리(剝離)된 소석편(小石片) 중에 문자가 있는 것 15편 문양(紋樣)이

있는 것 1편이 있다.(앞에 제출된 요목에 「17편」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이 16편은 다른 문자 문양이 없는 쇠편(碎片)과 함께 구고달리 이장 박준양(朴灌陽)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그 문자가 있는 소편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출(出)」의 1자
- 제2편 「하(何)」의 1자 모양
- 제3편 잔결(殘缺:불완전함) 불명(不明)한 문자 2자
- 제4편 동 1자
- 제5편 「선거이(禪居迤)」의 3자외에 결잔(缺殘) 1자
- 제6편 제1행에 「대(大)」 1자, 제2행 잔결문자 1자, 제3행에 「이(而)」 1자
- 제7편 제1행에 「법호(法號)」 2자, 제2행에 「기(機)」 1자
- 제8편 잔결 1자, 「원(元)」자 1자
- 제9편 제1행에 「필(必)」자, 제2행 공백, 제3행에 「정(停)」자
- 제10편 제1행 「토내(土內)」의 2자, 잔결 1자 「위세(爲世)」의 2자
- 제11편 제1행에 「주(州)」자, 제2행 공백, 제3행에 「존승(尊僧)」의 2자
- 제12편 잔결 1자 「광(廣)」자 1
- 제13편 잔결 2자
- 제14편 잔결 3행 4자분
- 제15편 비음기(碑陰記) 제1행 「덕상병(德像柄)」, 제2행 「통담홍(統談弘)」, 제3행 「삼강(三剛)」의 문자 이것이다.

이수(螭首) 폭은 7척 6촌, 높이 3척 4촌, 두께 2척 3촌이다. 자루구멍 깊이는 6촌 7분이다. 이수 상면의 중앙에 지름 4촌 5분 깊이가 역시 4촌 5분의 원공(圓孔)이 있다. 장식(裝飾)이 부가해야 할 것이나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추락할 때 이수의 한 부분이 절단되고, 화강(花崗)으로 된 것 같다.

귀부(龜趺)는 원 위치가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방향이 남쪽에서 5도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폭은 10척 길이는 또한 동일하게 10척이다. 대상(臺上)에서 두부(頭部)까지 높이가 4척이고 갑정(甲頂:거북 등딱지 정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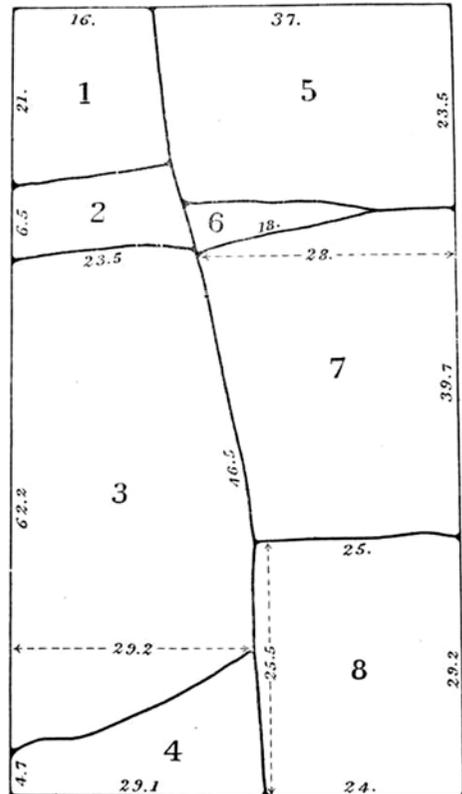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터 원종대사 혜진탑비 단면도

높이 약 3척 2촌이다. 목이 직립하여 두부(頭部)가 이것과 거의 직각으로 수평하여 구조가 웅대하다. 결손의 흔적이 없고 양질의 화강석(花崗石)으로 되어 있다.

최근 전도(顛倒)의 원인은 본 고적조사위원의 문외한의 눈(素人目)으로 추측하면 다이쇼 3년(1914년) 복건 공사의 불완전하고 소홀한 공사에 있다. 첫 번째 전도(顛倒) 때 결손되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하부의 자루에 어떤 보수도 하지 않고, 결손된 그대로 귀부 위에 다시 중량인 이수를 올린 것은 매우 소홀한 공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존방법 원래 있었던 곳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지역이 근래 금광 채굴이 있고 외지인의 출입이 빈번하여 인정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 비의 쇄편을 보관하고 있는 박모처럼 보관을 위임할 공리(公理)가 있지 않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후에 기록하는 두 개의 석탑과 함께 박물관으로 옮길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7. 원종대사 혜진탑(元宗大師慧眞塔)

(원종대사 혜진탑은) 비의 북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곳으로 거리가 1정 반(一町半) 떨어져 조금 높은 곳에 있다. 남쪽에서 바라보아 동쪽으로 10도 치우쳐 있다. 하대석(下臺石)은 주변에 복련(覆蓮)을 새기고, 한 변의 길이가 8척 7촌, 상부 한 변의 길이가 5척 4촌, 높이 1척 4촌의 방형(方形)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높이 3척 1촌의 대주(臺柱)를 놓고, 대주의 상부에는 주변에 8송의 앙련(仰蓮)으로 받들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총 높이 1척 3촌의 팔각대(八角臺: 대판의 두께는 2촌7분)이다. 이 한 각(一角) 주변의 길이는 2척 1촌이고, 대주에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있는 한 마리의 거북이 밖에 머리를 들어올린 4마리의 용이 얹혀있는 형태로 새겨져 있다. 이 귀갑용신(龜甲龍身)의 사이에는 운문(雲紋: 구름문양)으로 채우고 있다. 이 제작 기법의 교묘한 뜻은 장인의 자유로움으로 실로 경탄할 만하다. 용의 얼굴은 일본 무덤내에서 발견되는 환식검두(環式劍頭)내의 용과 유사하여 육조(六朝)의 유풍이 있다고 칭할 수 있는가?

고대(古臺) 위에 탑신(塔身)이 있고 높이 2척 1촌의 팔각기둥이 되어있다. 각 한 면의 넓이가 1척 3촌이다. 한 면을 건너뛰어 사천왕(四天王)의 입상이 새겨져 있다. (다른 4면에는 네 분의 보살이 새겨져 있다고 기억하는데, 본 고적조사위원이 현장에서 기록한 조사기에는 이 기사가 없다. 지금이 되어서는 (다른 4면에 대한) 기억과 조사기와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의혹이 생기는 것은 실로 본 고적조사위원의 소홀함에 있다. 세키노[關野] 박사가 촬영한 사진에 의할 것을 희망한다) 이 탑신 위에 역시 팔각형의 개석(蓋石)이 있다. 세키노 박사 일행이 다이쇼 원년(1912년)에 촬영한 사진이 조선고적조사약보고(朝鮮古蹟調査略報告)에 실려 있는 것을 보니 보주(寶珠)가 결실(缺失)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개석 위에 실려 있다. 다이쇼 원년(1912년) 후에 검출(檢出)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탑은 지금 마을 사람(里民)의 존경과 숭배를 받아 매년 8월에 제(祭)를 한다고 한다. 본

고적조사위원의 조사할 때(9월 하순) 이 제사의 금줄(標繩)이 남아 있었다.

본 탑은 고려 초기 공예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중한 것이다.

8. 고달사터 무명탑(高達寺址無名塔)과 기타의 석물

하나. 무명탑(無名塔)

혜진탑(慧眞塔)의 서쪽 언덕(岡) 서변(西邊)에 하나의 탑이 있다. 대강의 형식이 혜진탑에서 취한 것 같고, 크기 역시 큰 차가 없다. 제작의 기법은 혜진탑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도, 혜진탑에 비할만한 실로 우수한 작품이다. 남쪽에 바라보며 동쪽으로 10도 치우쳐있다. 대주(臺柱)의 거북머리(龜首)가 정면으로 돌출한 것은 현저하게 미감(美感)을 죽일지라도 네 마리 용(四龍)의 면상(面相)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풍(古風)이 존재하고, 혜진탑의 루(臺)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것이다. 개석(蓋石)의 일부가 결락하여 지상에 있고, 보주(寶珠)의 부분이 상실되었다.

이 탑 역시 혜진탑과 함께 존중(尊重)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탑 앞에 조선인의 묘총이 있다. 이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함을 느낀다.

둘. 귀부(龜趺)

세키노 박사의 조선고적조사약보고(朝鮮古蹟調査略報告)의 다이쇼 원년(1912년) 촬영 조선고적사진목록(朝鮮古蹟寫真目錄) 고달원조(高達院條)에는 귀부잔석(龜趺殘石: 일명 高麗墓塔碑龜趺殘石)의 목(目)이 있다. 동 보고 조선고적조사표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조사여행 후에 이 기사가 있는 것을 알았다. 조사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유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의 깊게 수색해야 함에도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한 것은 당시 풀이 깊어 놓친 것인가 아니면 세키노 박사 조사 후 다른 곳으로 철거한 것인가, 어느 상황이라도 본 고적조사위원의 부주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셋. 석불대좌(石佛臺座)

지금 부락 밭 가운데 있고, 폐고달사지 가운데라고 인정할 만한 지점이 된다. 정확하게 남면하고, 방형(方形)으로 하대석(下臺石), 대주석(臺柱石), 대좌석(臺座石)의 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사진 34호) 총 높이가 4척 7촌이다. 하대석은 한 변의 길이가 7척 5촌 내지 7척 6촌이고 대주석은 한 변의 폭이 3척 8촌 내지 4척 1촌, 대좌는 한 변의 길이가 5척 8촌 내지 6척 2촌이다. 모두 그 주변의 길이에 약간 차이가 있고 엄밀한 정방형(正方形: 정사각형)은 아니다. 연변(蓮口: 연꽃)의 조각이 있으며 앞에서 기록한 양 탑에 비해서는 번쇄(煩瑣: 너무 잘고 번거로움)하여 힘이 결

핍되어 고려 중기이후 만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그것을 석탑대좌(石塔臺座)라고 생각했으나 세키노 박사는 석불기좌(石佛基座)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 박사의 생각에 따른다.



사진 34.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터 불좌

넷. 석등잔석(石燈殘石)

현재 이 부락에 거주하는 종2품 이모씨의 저택 내에 석등룡(石燈籠)의 격석(隔石) 보주(寶珠) 등의 잔석이 있다. 근대의 작품이 아니고 필시 고달사의 유물일 것이다.



고달사터 원고(4.3.2.1.)





고달사터 원고(8.7.6.5.)



고달사터 원고(12.11.10.9.)



NO無425-09



고달사터 원종대사혜진탑비 유리건판 사진



고달사터 원종대사탑 유리건판 사진

(해제)

고달사터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일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신라 경덕왕 23년(764년)에 창건되어 고려 광종 이후부터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현재 절터에 전하는 뛰어난 예술품들은 모두 고달이라는 장인이 만든 것으로 전하고 있다. 고달사터에는 1993년 7월 23일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다. 고달사터 내에는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4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터 승탑[驪州高達寺址僧塔],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6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터 원종대사탑비[驪州高達寺址元宗大師塔碑],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7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터 원종대사탑[驪州高達寺址元宗大師塔],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8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터 석조대좌[驪州高達寺址石造臺座], 2010년 12월 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터 석조[驪州高達寺址石槽] 등 많은 수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유서깊은 절터이다. 그리고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82호로 지정된 여주 고

달사터 쌍사자 석등[驪州高達寺址雙獅子石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관에 옮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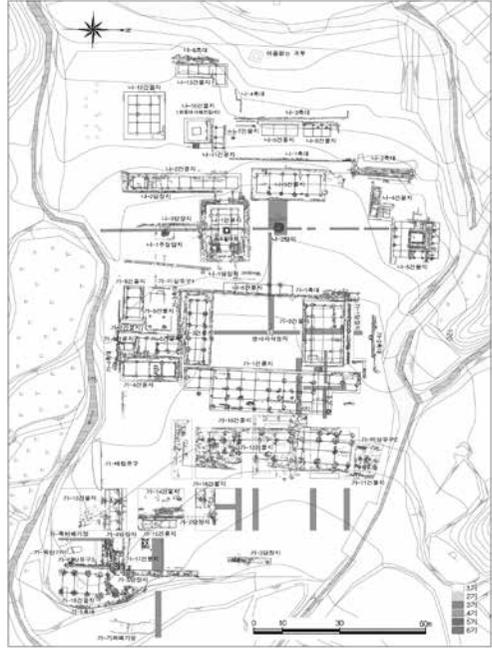
고달사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8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 및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⁹¹⁾ 2차 발굴조사는 1999~2000년, 3차 발굴조사는 2000~2001년, 4차 발굴조사는 2002년~2003년, 5차 발굴조사는 2004년, 6차 발굴조사는 2005년~2006년, 7차 발굴조사는 2012년, 8차 발굴조사는 2014년에 실시되었다.⁹²⁾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정비사업부지에 대한 9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10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유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치중하였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가-1축대 서쪽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10세기말 이후에 해당하는 15동 이상의 건물터를 조사하였다. 3차 발굴조사는 가-1축대 동쪽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 발굴조사에서는 가-1축대 동쪽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창기 가람 배치 및 선대 유구, 건물터 3동 및 석조 2기가 조사되었다. 5차 발굴조사에서는 가-1축대 남쪽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 내 생활공간 지역과 건물터 6동, 탑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6차 발굴조사에서는 가-1축대 동쪽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건물터 7동, 나말려초기 관련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7차 발굴조사에서는 고달사터 부도, 원종대사해진탑비 주변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8차 발굴조사에서는 사역의 하단부 경계를 확인하고, 고려시대 건물터 2동, 목탄가마,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9차 및 10차 발굴조사 성과는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건축사 분야에 있어서 고달사터 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실측조사가 이루어졌다.⁹³⁾



여주 고달사터 가-2호 건물터(왼쪽)와 가-1호 축대(오른쪽)

- 91)畿甸文化財研究院, 2002, 『高達寺址』Ⅰ.
92)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高達寺址 -3~5차 발굴조사보고서-』Ⅱ.
京畿文化財研究院, 2014, 『高達寺址 -6~7차 발굴조사보고서-』Ⅲ.
京畿文化財研究院, 2016, 『高達寺址 -8차 발굴조사보고서-』Ⅳ.
93)여주시, 2017,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여주시, 2016,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여주시, 2017,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여주시, 2016, 『여주 고달사지 승탑 :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여주 고달사터 전경(왼쪽)과 유구배치도(오른쪽)



고달사터 원종대사탑 전경과 세부



여주 고달사터 원종대사탑(왼쪽)과 승탑(오른쪽) 발굴조사



고달사터 승탑

9. 신륵사(神勒寺)

신륵사는 북내면 천송리(川松里)에 있다. 이 절은 조선에 이르러 봉은사(奉恩寺)라 칭하고 세속적으로 벽사(壁寺·벽절)라 칭한다. 경기 우수(有數)의 사찰이다. 여주에서 한강의 상류 대안(對岸) 약 반리(半里)에 있다. 이 절의 연기(緣起)에 대해서는 김택온(金宅溫)이 기록한(여지승람에 수록됨) 조선사찰사료 중수기(朝鮮寺刹史料其重修記)에 기재되어 있고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은 여말(麗末) 고승으로 조선 개국의 신비요소가 부회(附會·덧붙여)되기에 이르러 나옹(懶翁)이 거처한 곳이고, 대유학자 목은 이색(牧隱李穡)이 유람한 곳이다. 이후 이곳의 물 빛깔이 아름다움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 유물의 중요한 것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 1) 오층전탑[五重塔]
- 2) 동 중수기비(同重修記碑)
- 3) 삼층석탑[三重石塔]
- 4) 다층대리석탑(多層大理石塔)
- 5) 전 보조국사부도(傳普照國師浮屠)
- 6) 보제(普濟·懶翁)석종(石鐘)
- 7) 동 기비(同記碑)
- 8) 동 석등(同石燈)
- 9)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
- 10) 지공(指空), 나옹, 무학화상(無學畫像)

등이 있다. 이 절 및 유물은 다이쇼 원년(1912년) 세키노(關野) 박사 일행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측정 기타에 대해서는 박사의 보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회 조사에 착수하려 할 때 본 부(府)에서 귀부(歸府) 명령을 받아 그것을 중지했다.

(하나) 오층전탑은 벽돌의 표면에 화초문양이 양각되어 있는 것이 섞여져 있다. 이것을 축조한 당초에는 전부 이 문양의 벽돌로 사용하였으나 후세 보수할 때 무문(無文:문양이 없는 것)의 것으로 보수하여 들어간 것이다. 근대 이 탑의 대수선(大修繕)이 이루어지는 것은 탑 측에 있는 중수비기(重修碑記)에 상세하다(탁본 제출함). 이 탑의 형태가 우수하고 전문(博識:벽돌문양) 역시 아름다워도 아직 그것이 신라시대의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벽돌의 문양 같은 것은 오히려 고려의 형식이고, 어쩌면 고려말 나옹(懶翁)시대 건립된 것인가? 그러나 탑의 가치는 연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둘) 석탑(石塔) 기타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있고, 보제사리석종비기(普濟舍利石鐘碑記) 및 대장각비기(大藏閣碑記)에 대해서는 왼쪽의 비문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공화상(指空和尚) 화상(畫像)은 장단군(長湍郡) 화장사(華藏寺)에 봉안된 상에서 묘사한 것 같고, 나옹·무학(懶翁無學)의 화상은 진본이 전해진 것이 될 것이다.



신라사 원고(4.3.2.1.)



신륵사 유리건판 사진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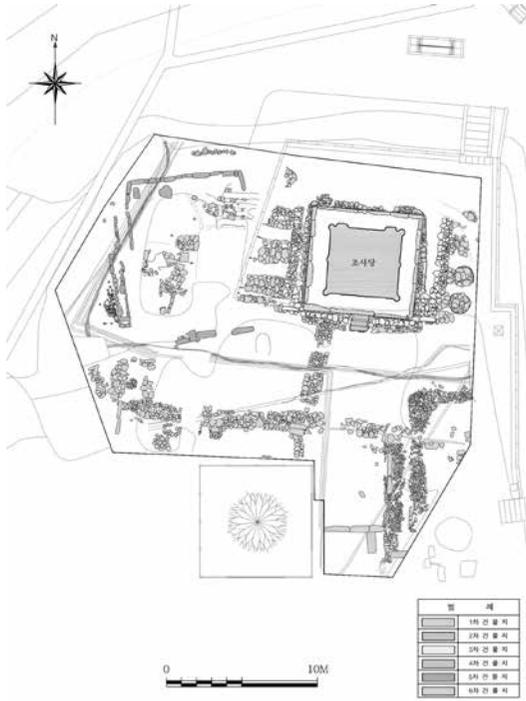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3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전한다. 신륵사는 1376년(우왕 2년) 나옹선사(懶翁禪師)가 입적하면서 유명해졌다. 신륵사에는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80호로 지정된 여주 신륵사 조사당(驪州 神勒寺 祖師堂),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驪州 神勒寺 多層石塔),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驪州 神勒寺 多層塔), 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碑), 보물 제230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驪州 神勒寺 大藏閣記碑), 보물 제231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前 石燈), 보물 제1791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驪州 神勒寺 木造 阿彌陀如來三尊像),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신륵사극락보전(神勒寺極樂寶殿) 등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신륵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2016년~2017년까지 한성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당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발굴조사가 유일하다.⁹⁴⁾ 여주 신륵사 조사당은 신륵사에서 입적한 나옹화상(懶翁和尙)의 부불전(副佛殿)으로 정면 1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를 얹은 건물이다. 조사 결과 여말선초(麗末鮮初)~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6차례 건물 터와 관련 시설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여주 신륵사 전경

94) 한성문화재연구원, 2019, 『驪州 神勒寺』, 1.



여주 신륵사 조사당(왼쪽), 극락보전(중앙), 5층 전탑(오른쪽)



여주 신륵사 오층석탑(1), 대장각기비(2), 보제존자석종(3), 보제존자석종비(4)

10. 여주읍 부근의 석탑 및 석불

석탑 2기: 읍의 부근(주내면 하리)에서 4-5정(町)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갑은 읍의 서북 발 중에 있다. 지금 3층까지 남아 있고, 상부가 상실되어 현존부의 높이가 9척이다. 형태와 자세는 아름답고 사찰 명칭이나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을은 갑보다 동쪽으로 약 4-5정(町)에 있다. 이것 역시 3층까지 남아 있고, 정상부 장식(頂飾)이 결실(缺失)되어 있다. 갑에 비해 작고 지금 내지인(內地人:일본인) 모씨가 경영하는 과수원 내의 주변 안에 있다. (두 탑 모두 세키노 박사의 조사가 이루어짐) (사진 35)는 을탑을 촬영한 것이다.

이 을탑에 연이어 석불상(石佛像)이 있다. 두부(頭部)가 상실되어 돌이 갈라져 있다. 수조(數條)의 새끼로서 이 상부를 묶거나 혹은 여기에 어류(魚類)를 걸어놓으면 천연두(痘癩)가 치료된다고 토착인이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여 토속연구에 하나의 자료가 된다.(사진 36)



사진 35.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하리 석탑



사진 36.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석불



여주읍 부근의 석탑 및 석불 원고



여주읍 부근 삼층석탑 유리건판 사진

(해제)

여주 하리 및 창리에 각각 1기씩의 삼층석탑이 보고되었다. 사진은 노모리 켄(野守健)의 조사 시 간다 소쥬[神田惣藏]가 촬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1. 잡록(雜錄)

하나. 환희산(歡喜山)

환희산은 승람(勝覽)에 주 서쪽 25리에 있다고 되어있다. 불우조(佛宇條)에 정천(井泉), 하북(下北), 신통(神通), 철갑(鐵甲)의 네 절[四寺]이 이 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법상(佛法上) 명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산에 이틀 여러 절의 유지(遺址) 유물(遺物)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것을 군청 기타에 대해 바탕으로 하여도 지금은 환희산(歡喜山)의 이름으로 전해지지 않아 이 산을 아는 자가 없다. (환희산)을 측량부 5만분의1 지도 및 대동여지도에 의해 짐작하여 읍의 서남쪽으로 소개(召開)하여, 이천·충청 가도의 동쪽에 남북으로 걸쳐 있는 표고 200m 및 221m 산인 것 같다. 조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둘. 고산성(古山城)

파사산성조(婆娑山城條)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셋. 황장군묘(黃將軍墓)

가남면(加南面) 신해리(新海里)에 세속에서 황장군묘(黃將軍墓)라고 칭하는 분묘(墳墓)가 있다고 한다.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넷. 영릉(英陵)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未調査]

다섯. 천령현터[川寧縣址]에 대해

천령현터[川寧縣址]는 지금의 이포(梨浦) 남쪽의 땅으로 한강에 몰락(沒落)된 것 같다. 이포의 별명이 천양(川陽)이라 하고, 천양은 즉 천령(川寧)으로 이 옛 명칭이 전해지고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여주군 서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대교천(大橋川)과 이천군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복하천(福河川)·이수천(梨樹川)의 두 천이 합쳐진 천은 합류하여 하나의 천이 되고, 동북으로 흐르는 것과 약 1리에서 지금의 이포 남쪽에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도에 나와 있다.(청구도(靑邱圖)에는 양천(兩川)은 억교리(億橋里) 북쪽에서 합류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도 이 부근에서 양하(兩河) 사이에는 구릉(丘陵)이 있고, 어느 시대에도 이 부근에서 합류한 적은 없다) 그런데 지금의 대교천은 양화리(楊花里) 북쪽에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복하(福河)는 충신동(忠信洞) 남쪽에서 한강(漢江)으로 들어가 양천(兩川)이 합류하는 것은 없다.

『동국여지승람』 여주 산천조(驪州山川條)에, “대교천은 주 서쪽 27리에 있다. (대교천은) 원래 음죽현 흑석동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이포진으로 들어간다. 두두리천은 천령현 동쪽 5리 즉 대교천 하류에 있다(大橋川在州西二十七里源出陰竹縣黑石洞西流入梨浦津豆里川在川寧縣東五里即大橋川下流)”

같은 책 이천 산천조(利川山川條)에, “복하천은 부 동쪽 8리에 있다. 여주를 지나 천령현 앞에서 이포진으로 들어간다.(福河川在府東八里經驪州任內川寧縣前入梨浦津)”이라 하여, 양하(兩河)는 지금처럼 각각 이포진(梨浦津: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복하(福河)는 천령(川寧) 전 남쪽에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대교천(大橋川)의 하류 두두리(豆豆里)는 천령현 동쪽 5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복하천이 천령현지(川寧縣址) 뒤를 흐르는 것처럼 그려지고, 이점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여지도의 오류인가 혹은 강의 흐름이 변한 것인가(천령은 예종 때 폐지되어 승람(勝覽)의 현도 여지도(輿地圖)의 터도 동일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강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강의 흐름 및 지세에서 추측하면, 예전의 한강은 지금의 양화리(楊花里) 위쪽에서 고산(孤山: 표고 67m)을 적시고 지금의 강줄기 동측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대교천과 복하

천은 충신동 부근에서 합류하여 이포 부근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양화리 이포 사이 강 흐름의 변화가 자주 있었던 것처럼 천령의 위치는 지금 생각하기 어려우나 지금의 충신(忠信) 양화(楊花)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포는 승람에 기록한 천령의 형세에 유사하다 하고, 『세종실록』에는 이포는 현의 동쪽에 있다(利浦在縣東云云)라 하여 천령현치(川寧縣治)와 이포(梨浦, 혹은 利浦)와는 스스로 구별한 것 같다. 그러나 동쪽이라는 것은 강의 흐름이 북쪽으로 흐르고 천의 흐름이 동쪽이라는 것으로 동쪽은 올바르게는 북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람(勝覽)에서 말하는 대교복하(大橋福河)는 각각 달리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섯. 여주읍지(驪州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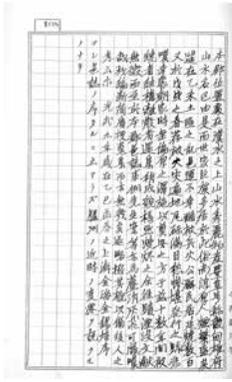
『여주읍지』는 소실되고 지금 겨우 광무9년에 편찬된 소책자에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귀중한 만하다. 그 서(序)에서 말하기를

本郡位置處在漢水之上山水秀麗物產豐阜號稱畿甸雄府山水名區由是而世家巨族多居於此俗尚淳厚人煙繁盛矣遙在乙未土匪之亂邑運不幸酷被兵火公廨民居延燒數百又於戊戌之春 荐被火災遍地瓦礫滿目愁慘堪發之路悲嘆幸蒙朝家時垂偏厚之澤施以尊安之方于茲十數年間被燒者結構離散者還集稍成貌樣然燒燼之余往蹟 湮沒文獻無徵而至於本郡邑誌事例先生案等亦爲塵消灰飛可勝嘆哉殘編斷簡廣搜蒐集而亦無幾矣遂略掇其概以備後人之考云爾 光武九年歲在乙巳孟春之上澣金海金錫培序

라고 읍지의 서(序)에 그치지 않고 여주 최근의 변천도 설명하고 있다.



여주군 칙령 원고(2.1.)



여주군 집록 원고(5.4.3.)



세종 영릉 향전(왼쪽)과 비각(오른쪽) 유리건판 사진

(해제)

여주 영릉(英陵)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번도리)에 위치한다. 영릉(英陵)은 세종(재위 1418~1450)과 부인 소현왕후 심씨(1395~1446)의 묘이다. 이와 인접해 있는 영릉(寧陵)과 함께 1970년 5월 27일 사적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릉(寧陵)은 효종(재위 1649~1659)과 부인 인선왕후(1618~1674)의 무덤이다. 영릉 내부에는 2007년 11월 29일 보물 제1532호로 지정된 여주 효종 영릉재실(驪州 孝宗 寧陵齋室), 2013년 7월 16일 보물 제1805호로 지정된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 英陵 神道碑) 등이 있다.

영릉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사적의 관리차원에서 다수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⁹⁵⁾

9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07, 『英陵 丁字閣 지붕補修工事 -修理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 2008, 『驪州 寧陵 水利間址』,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驪州 英陵 齋室遺蹟』,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11, 『驪州 孝宗 寧陵齋室 -精密實測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Ⅱ, 국강고고학연구소, 2013, 『英陵-寧陵-여주 英陵-寧陵 능제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Ⅴ.

2017년에는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영릉 연못터와 정자각 주변 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릉과 영릉의 정비사업부지에 대해서는 2018년 기념문화재연구원, 2019년 한라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7년에 이어 국강문화재연구원이 연못터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아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



영릉 원경



세종 영릉 능침(왼쪽)과 수라간(오른쪽)



세종 영릉 수복방(왼쪽 위), 비각(왼쪽 아래), 신도비(오른쪽)



효종 영릉 수라간(왼쪽), 수복방(가운데), 비각(오른쪽)

| 제4장 | 양주군(楊州郡), 고양군(高陽郡)

양주, 고양 2군에 대해서는 경성에서 가평군으로 가는 도중 그 통로에 해당하며 고적유물만을 조사하고, 혹은 여주군에서 돌아오면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였다.

1. 독섬마장(蠓島馬場)

독섬마장은 그 내력이 옛날 『세종실록』 지리지 양주군조(楊州郡條)에 말하기를, “목장(牧場)이 2이니, 하나는 살곶이들(箭串坪) 이요, 【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7리요, 남북이 15리이다.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둘째는 녹양벌(綠楊坪)이다. 【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5리요, 남북이 12리이다.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 (牧場二, 一曰箭串坪, 【在府南, 東西七里, 南北十五里, 放國馬】 二曰綠楊坪, 【在府南, 東西五里, 南北十二里, 合放中軍左軍之馬])”로 되어 있다. 녹양벌[綠楊坪] 장소는 천보(天寶) 수락(水落) 두 산의 서쪽에 있고, 살곶이들[箭串坪] 목장은 독도마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살곶이들[箭串坪]의 것은 후에 한성부 소관으로 돌아가고, 『여지승람』에는, “살곶이 즉 나라 동쪽 교외에 있다. (이곳은) 땅이 평평하고 수초가 많아 주위를 우리로 만들어 말을 놓아먹인다. 넓이는 3-4리가 된다. (箭串 卽國之東郊其地平曠水草甚饒繚以周口牧養國馬廣袤三四十里)”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 병고 마정부(增補文獻備考兵考馬政附) 목장조(牧場條)에도 상세한 기사가 있다. 이 마장(馬場)은 이태왕(李太王:고종) 시대까지 군마(軍馬)를 길렀다. 현재 고양군 독도면(蠓島面)의 북변, 양주군 구리면(楊州郡九里面) 남쪽 경계에서 아차산 위에 걸쳐 연결되는 토루(土壘: 흙으로 쌓아올린 성채)는 이 마장 북변(馬場北邊)의 토루(土壘)가 된다. 오히려 이 대부분은



사진 37.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목리 마장 토루 1

원래 면모의 잔영이 남아 있어 일견 고도(古都)의 토성(土城)인 것 같은 느낌이 보인다. 육지측량 부 2만5천분의 1 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답십리 동쪽의 표고 92m 구릉 위의 토루(土壘)도 역시 이 한 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마장(馬場)에 대해서는 하기(夏期:여름철)에는 논의 화곡(禾穀)에 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필(馬匹)을 광진고산성(廣津古山城) 안으로 모아 사육시켰다[聚飼] 한다. 이 지역은 남한(南漢)에 대해 북한(北漢)의 한 지방으로서 역사지리의 연구상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 이 토루(土壘) 같은 것도 목장을 위해 만든 것인가(創築) 혹은 재래의 고루(古壘)에 의해 수축(修築)되었던 것인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 고양군에 들어간다.



사진 38.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목리 마장 토루 2



독섬마장 원고(3.2.1.)

2. 광진고산성(廣津古山城: 지금 고양군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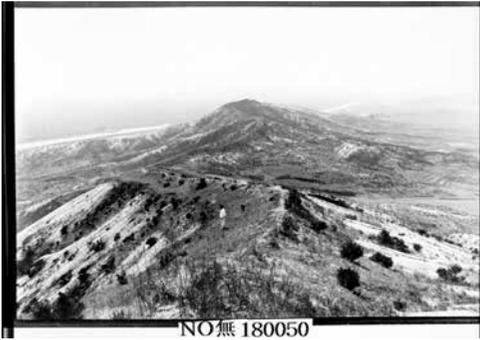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양진고성(楊津古城(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광진성<廣津城>이라 기록됨)은 남쪽 아차산(峨嵋山)의 동쪽 언덕에 있는데 토축(土築)으로 한강과 광주평 고성(古城)을 내려다볼 수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삼국시대 방수처(防戍處)가 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차산의 지봉(支峯)인 광진리(廣津里) 북쪽 200m 높이의 구릉 동남면(東南面)에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에 의해서도 광주방면(廣州方面)에서 또 한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배안에서 바라보면, 성지(城址)는 평평한 구릉의 정상으로부터 중복(中腹)에 거치는 곳까지 이 구릉의 한 면 상반부를 거의 방형(方形)에 가깝게 에워싸고 있다. 이 토루(土壘)가 비교적 완전히 남아 있으며, 바깥쪽이 안쪽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앞에서 기록한 독섬목마장(蠶島牧馬場)의 군마(軍馬)를 모아 사육에 이용한 것으로 후세에도 끊임없이 수축(修築)하는 것에 의해 사방 2~3정(町)으로 협소해지고, 계강(溪江:계곡 시내)에 의해 막혀 소보(小堡: 작은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이 산성 밖에 아차산 위에 성터가 있다고 표시되고, 아차산 위의 터에 대해서는 본 고적조사위원회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사진 39) 독도면 한강의 중주(中洲:가운데)에서(신천리 동쪽) 광진산성을 촬영한 것이다. X표 사이는 토루(土壘)의 최고변(最高邊)이다.



사진 39.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광장리 광진산성



광진고산성 원고(2.1.)



NO無 18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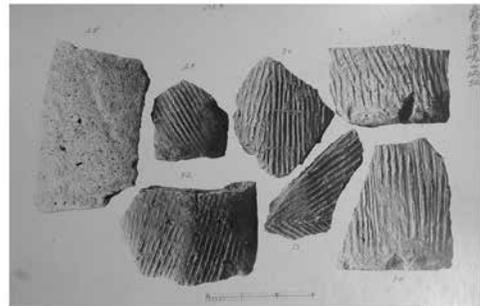
NO無 180045



NO無 277-12



NO無 180044



광진고산성 유리건판 사진



(해제)

광진고산성은 아차산성을 의미하며, 아차산성(阿且山城), 아차성(阿且城), 아차산성(峨嵋山城), 장한성(長漢城), 광진성(廣津城) 등으로도 불리운다. 아차산성은 1973년 5월 25일 사적 제 234호로 지정되었다. 성은 평면이 부정육각형이고, 둘레는 1,038m, 내부 면적은 63,810㎡이며, 성벽의 높이는 잘 남아 있는 경우 바깥쪽이 7.33m, 안쪽이 4.94m이다. 체성의 바닥면 폭은 7.3m, 상부의 폭은 6m 남짓이다. 보축 성벽의 폭은 약 2.1m이며, 체성의 경사도는 81도에 달한다. 동·서·남쪽에 문터와 고성 등이 남아 있고, 성 내부 중앙에 우물터 1기가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군영 막사로 사용된 건물터 등이 다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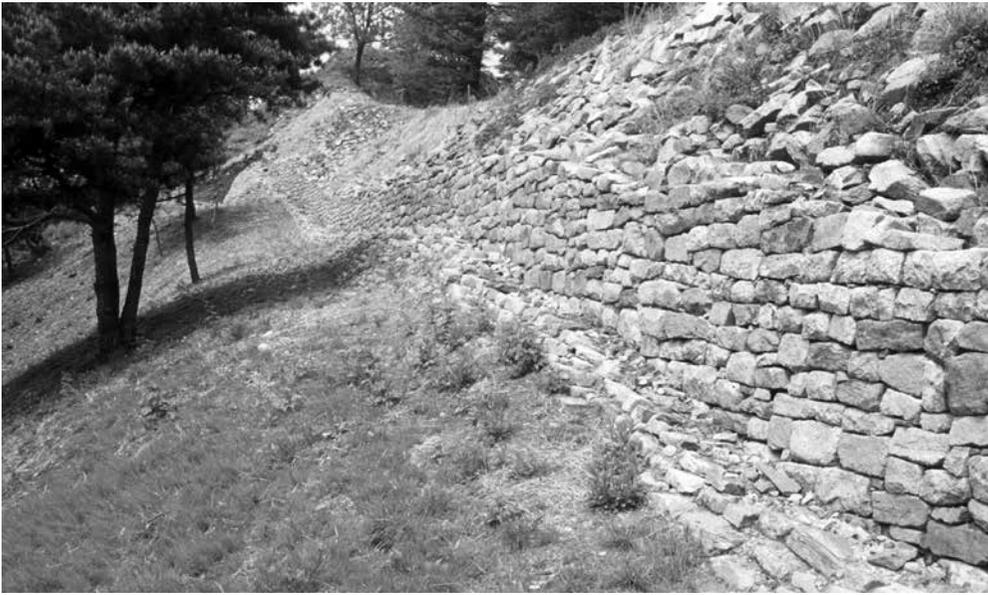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7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수행한 시굴조사 1건에 그치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가 초축한 아단성에 비정되고 있는 점에서 적어도 314년 이전에는 초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⁹⁶⁾ 그러나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출토되는 유물들이 주로 고구려 토기인 점에서 삼국시대 한강변을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던 고구려의 보루 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성벽 절개조사 등을 통해 초축 연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⁹⁷⁾



아차산성 동문지

96) 최종택, 2011, 「아차산성」,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城郭·烽燧篇-』, 國立文化財研究所.

97)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아차산성 서북쪽 성벽

3. 퇴계원북산성(退溪院北山城)

퇴계원 북쪽의 산 정상을 에워싸고 있는 토루(土壘)가 존재하는 것은 춘천가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소규모이지만 형식은 광진고산성(廣津古山城)과는 다르다. 지방 사람들은 민보(民堡:민간이 만든 보루)라고 말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표기가 있고, 본 고적조사위원은 바라보는 것[望見]만으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해제)

퇴계원북산성은 퇴피산성(퇴피山城)을 의미하는데 광전리성지, 이성산성 등으로도 불리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해발 370.2m의 퇴피산 정상부와 해발 363.6m의 남쪽봉우리를 연결한 후 해발 340m의 서쪽 봉우리를 따라 만든 석축산성이다. 전체 둘레는 625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성벽은 대부분 파괴되고, 북서쪽 일부만이 잔존한다. 지표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노출되어 있다. 퇴피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수행한 지표조사 결과가 유일하다.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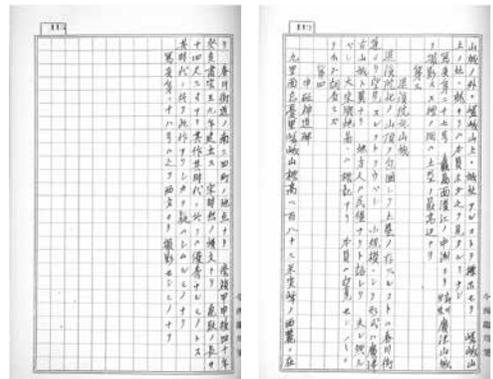
98) 경기도박물관, 2002, 『한강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4. 신림신도비(申硯神道碑)

구리면 망우리(九里面忘憂里) 아차산(峨嵋山) 표고 283m 봉우리 서록(西麓:서쪽 기슭)에 있다. 춘천가도(春川街道)의 남쪽 3-4정(町) 지점이다. 승정 갑신후(崇禎甲申後) 40년 계해(癸亥) 숙종왕(肅宗王) 9년에 건립되었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撰) 글이 있다. 귀부(龜趺)의 길이가 14척 3촌이고 이 작품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수한 것으로, 이 시대 이렇게 만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사진 40은 그것을 서쪽에서 촬영한 것이 된다)



사진 40.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신림(申硯) 신도비



퇴계원복산성 및 신림신도비 원고(2.1.)

| 제5장 | 가평군(加平郡)

1. 개황[概記]

가평군은 고구려 근평군(斤平郡) 및 심천현(深川縣)의 땅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가평군(嘉平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근평군(斤平郡)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1개이다. 준수현(浚水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심천현(深川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조종현(朝宗縣)이다.(嘉平郡, 本高句麗斤平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一. 浚水縣, 本高句麗深川縣, 景德王改名, 今朝宗縣.)” “근평군(斤平郡) 병평(並平)이라고도 한다. 심천현(深川縣) 복사매(伏斯買)라고도 한다(斤平郡 一云並平., 深川縣 一云伏斯買)”이라 되어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이 기사에, “고려 현종(顯宗) 무오(戊午)에 조종(朝宗)이 가평(嘉平)과 함께 모두 춘천(春川) 임내(任內)에 붙였으며, 본조(本朝) 태조(太祖) 5년 병자에 비로소 가평 감무(加平監務)를 두고, 인하여 조종현을 이에 붙이었다. 그 뒤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高麗, 顯宗戊午, (朝宗) 與嘉平皆屬春川任內. 本朝太祖五年丙子, 始置加平監務, 仍以縣屬之, 後例改爲縣監)” 라고 부기하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이태왕(李太王; 고종) 20년 춘천(春川)에 들어가 32년 포천(抱川)으로 들어가 다시 (건강의) 회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2. 석장우무덤[石長隅古墳]

북면(北面) 이곡리(梨谷里)에 석장우(石長隅) 무덤군[古墳群]이 있다. 가평군에서는 이 지역 이외에 무덤의 존재를 보고 들은바가 없다. 이곡리는 가평군(대동여지도에서는 거림천(巨林川)도 있다) 연안의 평야에 있다. 가평천(加平川)은 가평읍 동쪽으로 흘러 읍에서 약 15정(町)을 지나 남한강으로 들어간다. 가평읍에서 거슬러 올라가 약 2리가 된다. 가평천 양안(兩岸)은 협소해도 전답(田畝)이 있는 특히 석장우 북쪽의 구령(救寧) 부근에는 50~60정보(町步)의 전답(田畝)이 있어 가평군에서 3번째의 평야를 이루고 있다. 구령의 평야에서 서북으로 향해 영평(永平)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북쪽을 향해 낭천(狼川: 금화천(金華川)으로 개칭함)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 또 남가평(南加平)에서 나와 「북한강」이 시작하는 이 지역은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다.

무덤(古墳)은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석장(石葬) 또는 고려묘(高麗墓)라고 칭한다. 가평천 연안의 낮은 논 중에 근년까지 여러 개(數個) 산재했는데 근래 마을 길(里道)의 수축(修築) 등 기타의 일로 파괴되어, 지금은 겨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3개뿐이다. 석장우(石長隅)의 이름은 그 무덤 광(曠)의 개석(蓋石)에서 생겨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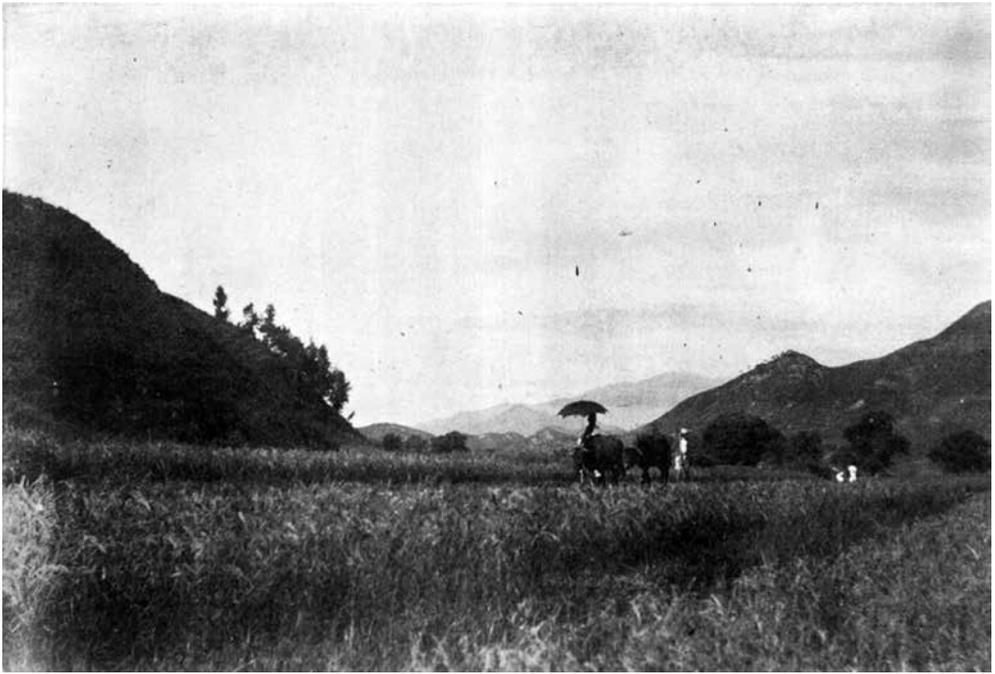


사진 40.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신림(申唎)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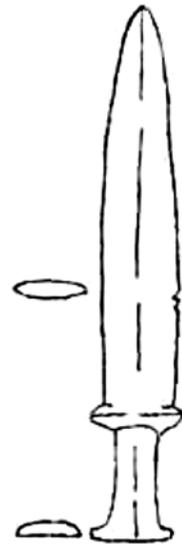
사진 40.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신림(申唎) 신도비



사진 43.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신림(申陵) 신도비

하나. 제1호 무덤[第一號古墳]

화천가도(華川街道)의 곁에 있다. 이미 발굴되어 심하게 황폐해졌으나 비교적 여러 부분에 서 남아 있고 원형의 일부분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구조는 석축(石築)의 방광(方曠)에 대석(大石)이 개석(蓋石)으로 봉토(封土)에 더한 것이 된다. 광(曠)은 지금 하부가 매몰되고 또한 파괴되었다. (그래도) 그 잔존하는 부분에 의해 추측하면 상부에 있어서 사방 5척 내외인 것 같다. 개석은 2개가 남아 있다. 제1석은 원 위치에 있어 길이 8척, 폭 6척 7촌 내지 4척 3촌, 두께 6촌이다. 제2석은 지금 부근에 전도(顛倒)되어 있고 길이 4척, 폭 3척으로 개석(蓋石)으로서는 작고 다른 돌과 섞어 사용했는가? 이 제1석의 방향에서 추측하면 연도(羨道)는 동남으로 향한 것 같아도 지금 그 흔적이 머무르지 않고 개석은 도로에서 약 3척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을 전체로서 고찰하면, 이 무덤은 평양 대동강 북쪽 및 만주 집안현 통구(通溝) 부근에 허다하게 남아 있는 봉토가 있는 고구려식이 되는 것이다. 이 무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다이쇼 4년(1915) 봄 도로를 수축(修築)할 때 내지인(일본



인)이 발굴 파괴했다고 한다(도로부지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오히려 소문에 의하면 이 때 이 무덤 안에서 철물(鐵物)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 총독부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이 지역의 무덤 안에서 얻었다고 하는 석검(石劍)은 필시 이 무덤 내에서 얻었을 것이다. 총독부로 돌아온 후, 그 보물을 보고 그것이 철검(鐵劍) 혹은 동검(銅劍)의 형의 석판석(石板石)으로 모조품을 만든 것이니 실용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기(明器)인 것이다.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모조석검을 석기시대의 유물로 보고 그것이 나온 분묘가 석기시대의 분묘라고 하는 논자가 있다. 오류의 극치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사진 41은 이 무덤이 있는 곳을 남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사람과 소가 통행하는 것은 화천가도(華川街道)이다. 전방에 수목(樹木)이 있는 것은 석장우(石長隅) 부락이다. 흰옷을 입은 2사람 중 한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는 것은 이 무덤 앞이 된다.(사진 42는 그것이 북방(北方: 서쪽으로 치우침)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43호는 서쪽에서 촬영한 것이다)

둘. 제2호, 제3호 무덤(第二號,第三號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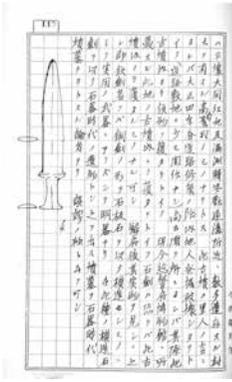
제2호 무덤(第二號古墳)은 제1호 무덤의 남쪽으로 약 1정(町) 떨어진 논 가운데 있다. 개석(蓋石)의 일부가 진흙 중에 노출되어 있다. 그 형태에서 추측하면 그것이 가로로 얹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고, 광(壙)은 파괴가 완료되었다 할 수 있다.

제3호 무덤(第三號古墳)은 제1호 무덤의 부근에 있다. 소형(小形)의 개석(蓋石)이 황폐해진 분묘 형지(墳形地)의 잡초 중에 남아 있어 겨우 그것이 무덤(古墳)의 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는 오히려 많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도 개간의 결과 터가 없어지게 된 것에 의한 것인 듯하다.



가평군 개설 및 석장우무덤 원고(2.1.)



가평군 개설 및 석장우무덤 원고(6.5.4.3.)



석장우무덤군 유리건판 사진

(해제)

석장우무덤군은 현재 잔존하지 않는다. 1914년 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굴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사된 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으로 볼 때 무덤은 청동기시대 고인돌[支石墓]로 추정된다. 덮개돌만이 방치되어 무덤방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이 고인돌에서 채집된 간돌검[磨製石劍] 한 점은 도면상으로만 보고되었다.

3. 초연대성터[超然臺城址]

초연대(超然臺)는 가평읍에서 남쪽으로 수 정(數町) 떨어진 병현(柄峴)에 있다. 가평천(加平川)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강의 천(江川)이 좁아 지상으로 약 100m 봉우리가 가파르고 험준한[險峻] 고산(孤山)이 된다. 성벽(城壁)은 이 평탄한 정상을 둘러싸고 산의 형태[山形]에 따라 남북으로 길게, 목측(目測: 눈대중)으로 보아 약 3정(町) 동서로 1정(町) 내외이다. 석축으로 지어진 것 같으나 무너진 것이 너무 심하고 계다가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전체의 형상이 명백하지 못하다. 성 안에는 소대(小臺)가 있다.

성 안에 기와 편이 산재하지만 연대를 결정할 만한 특징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왕왕 탄환 철축(彈丸鐵鏃)을 발견했다고 해도 지금 숨기는 자는 없다. 근년에 이르러 임진역(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준비한 진영이 아닌가 하는 설이 만들어지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해제)

현재 초연대성터로 남아 있는 기록이나 고고학적 조사는 전무하며, 해당 지역에는 별다른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4. 조종현터[朝宗縣址]

조종현터는 군 서쪽 조종천(朝宗川) 증류 연안의 평야「현리(縣里)」에 있다. 가평군 향토사에 「군청은 하면 현리에 있었으나 300년 전 지금의 읍으로 옮겼다」고 쓴 것은 완전히 고로(古老:옛 일을 아는 노인) 전설의 오류로 현리에 조종현이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현리(縣里)는 혹은 현리(懸里)라고 쓰는(지금 총독부 지방행정구역 지명 일람표에 의해 현리(縣里)의 문자를 사용한다) 이 평야는 전답(田畝)이 약 200 정보로 연속된 평야로서는 가평군에서 가장 넓은 곳이다. 가평읍에서 이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춘천·경성가도(春川京城街道) 경성방면(京城方面)에서 서남행(西南行)하여 3리 떨어져 조종천(朝宗川)과 청평천(淸平川)이 합류하는 부근에 이른다. (그런데) 조종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약 4리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경로가 있다 해도 통행이 곤란하다고 한다. 이 조종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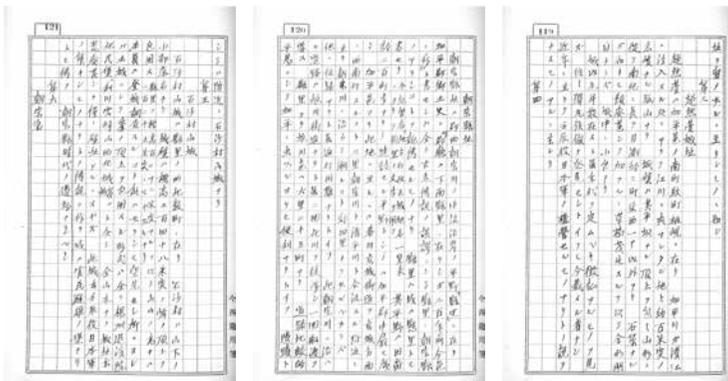
따라가는 도로는 포천가도(抱川街道)가 되고 비록 2번 이 천을 걸어 넘어가고 1번 도선(渡船)이 필요한 현리에서 포천읍으로 가는데 6리 25정이 된다. 도로는 비교적 평이하여 가평으로 나오는데도 편리하다고 한다. 유적으로는 부근에 석사촌산성(石沙村山城)이 있다.

(해제)

현재 조종현터는 별다른 기록이나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현리라는 지명은 당시 현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5. 석사촌산성(石沙村山城)

석사촌산성(石沙村山城)은 현리(縣里)의 서북쪽 수 정(數町) 떨어진 곳에 있다. 석사촌은 산 아래의 소부락(小部落) 명칭이다. 성벽은 표고 348m 봉우리 정상을 둘러싸고 있다.(현리의 표고는 123m이고 북산의 높이는 225m에 불과하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성에 올라 조사하는 것이 좋지만 바라보는 것에 의하면, 토성으로 봉우리 정상을 포위하는 형식은 완전히 양주 퇴계원(楊州退溪院) 북민보(北民堡), 이천 운봉산(利川雲峰山) 서북성(西北城: 제2성)과 동일하다. 산 전체에 나무가 없고 성터 역시 황폐가 심해 겨우 벽 터가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성 역시 임진역(壬辰役: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것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지고 혹은 관민(官民) 피난의 보루라고 전한다. 조종현(朝宗縣) 시대의 유물이라 할 것이다.



초연대성터, 조종현터, 석사촌산성 원고(3.2.1.)

(해제)

석사촌산성은 위치로 볼 때 지금의 현리산성(縣里山城)을 의미하며 신상리성(新上里城), 성재산 등으로 불리운다. 평면형태는 남북장축의 장타원형이며, 남벽에는 외성벽이 확인된다. 동벽은 180m, 서벽은 96.4m, 남벽은 101.7m, 북벽은 229.3m로서 둘레는 607.93m에

달한다.

현리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2003년 강원대학교박물관이 수행한 지표조사 기록이 있다.⁹⁹⁾ 지표조사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성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류가 채집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삼국시대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리산성 원경(1), 성벽(2~3), 채집 토제말(4)

6. 조종암(朝宗岩)

현리(縣里)에서 조종천(朝宗川)이 내려가는 1리를 지나 대보단리(大報壇里) 동쪽으로 조종천에 입한 산 기슭(山麓)의 대암(大岩)에 「사무사(思無邪)」 「만절필동(萬折必東)」 「재조변방(再造藩邦)」 「일모도원 지통재심(日暮途遠至痛在心)」 등의 문자가 새겨진 바위 위에 기적비(紀蹟碑)가 있다. 말하기를,

조종암기실비(朝宗岩紀實碑)

“바위는 가평에 있는데 가평은 해동의 궁벽한 고을이고 특히 조종은 마을 이름인 것이다. 한사람의 호의자가 있어 일찍이 그 명칭에 감탄하고 이르기를, “이곳은 천하의 건정지(乾淨地)이다. 지난날 임진 계사의 난리(龍蛇之難)에 기자의 봉강을 통 털어 주리를 면하게 된 것은 황

99)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2004, 『현리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제의 힘이 아니었겠느냐? 아! 그러나 명의 사직은 이미 무너지고 증원은 더러운 땅이 되어 우리들은 우거하고 묘를 쓸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얻었다.”고 하고 마침내 마을 북쪽의 큰 바위 하나에 의종황제가 쓴 ‘사무사(思無邪)’ 석 자를 새겼는데, 이는 바로 배신 문정공 김상헌(金尙憲)¹⁰⁰이 심양에 구류 당했을 때 얻어온 것이다. 다음에는 ‘만절필동(萬折必東)’ 낙자인데, 이는 우리 소경왕의 신한이고 조금 왼쪽에 새긴 것은 ‘재조번방(再造藩邦)’인데, 무술년의 주문에서 나온 것이며 또 ‘날은 저물고 길은 멀으니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다.’이란 문귀는 효종께서 재상인 이경여(李敬輿)¹⁰¹에게 내린 윤음으로 문정공 송시열(宋時烈)이 쓴 것이다. 바위면에 전액(篆額)하기를 조종암이라 한 것은 낭선공(朗善公)의 아들인 오(侯)이다. 처음에 창해(滄海) 허격(許格)이 그 일을 주창하였고, 찬조한 사람은 고을의 수재 백생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당을 세워 신종황제를 제사지내려 하였는데 송 문정공이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의종 황제를 어떻게 빼놓겠는가?”하였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생께서 돌아가셨고 그 문인 한수(寒水:권상하) 선생이 그 뜻을 이어 화양산중(華陽山中)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웠는데, 이는 조종암(朝宗巖)이 이루어진 전조이다. (중략) 정종(정조) 갑진년에 판서 황승원(黃昇源)이 본군에 외보되어 바위를 등지고 6칸의 집을 지어 또 조종암이라고 명명하였다 (하략)

승정기원후 세 번째 갑자년 홍문관 제학 조진관(趙鎭寬)¹⁰²은 글을 짓다. (巖在加平加平東海之僻陋邑也朝宗特里名爾有好義者過之感其名而歎曰此天下乾淨地也在昔龍蛇之難環箕封免於侏非 帝力耶嗟呼 明社已墟中原爲腥穢吾屬萬其慕無今於此得之遂就里北之一穹岩乃奉刻 毅皇帝御書思無邪三字即陪臣文正公金尙憲拘藩時得者次萬折必東四字我 昭敬王宸翰也稍左列以鐫者曰再造藩邦出於戊戌奏曰嘆途遠至痛在心 孝廟賜相國李敬輿批辭皆文正公宋時烈所書也 其額曰朝宗岩者朗善公子侯也始滄海許格倡其事相之者邑之秀白生也從而將建祠以上祀神皇帝宋文正聞之曰 毅皇何可闕也 事未成先生歿其門人寒水先生紹厥志建萬東廟於華陽山中是則朝宗巖爲之兆也 (中略) 正宗甲辰黃尙書昇源補本郡負岩而構六

100) 김상헌(金尙憲:1570-1652) 김상헌은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庭試文科), 1608년(선조 41) 중시문과(重試文科)에 각각 급제하여 정언(正言)·교리(校理)·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한때 파직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에 발탁되자 공신세력의 정치에 반대, 시비와 선악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함으로써 서인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이듬해 강화가 이루어지지 파직되고, 1639년(인조 17) 명을 공격하기 위한 청의 출병 요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이듬해 청나라에 압송되었다가 6년 후에 귀국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한 후 대헌(大獻)으로 추대받아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101) 이경여(李敬輿:1585-1657)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7대손이다. 1601년, 사마시를 거쳐 1609년, 증광 문과에 올라 급제하여 1611년, 검열이 되었지만 광해군의 폭정을 보고 낙향하였다. 1623년, 수찬으로 다시 조정에 나아가고 1624년, 이괄의 난 때 왕을 공주에 호종하고 이어 이원익의 종사관이 되었으며 이어 부제학, 청주목사, 좌승지,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병자호란 이후 1637년, 경상도관찰사, 이조참판, 대사성등을 겸임하고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고 이어 병조판서, 대사헌, 도승지를 거쳐 우의정이 되고 영종 추부사,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배정친명파로써 두 번이나 청나라에 억류된 적이 있다.

102) 조진관(趙鎭寬:1739-1808)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유숙(裕叔), 호는 가정(荷汀), 아버지는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재배한 이조판서 조엄(趙嚴)이다. 1762년(영조 38) 사마시에 합격하고, 1771년 의금부도사에 피임되었다. 그 뒤 1775년 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衛司待直)으로 있을 때 특별 구원시(求賢試)에 정원으로 뽑혀 홍문관제학으로 발탁되고, 같은 해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아버지 엄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의 인사문제에 관련, 홍국영(洪國榮) 일당의 무고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자 신문고를 쳐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옥중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홍국영의 세도에 항거하였다. 1788년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임명된 뒤 한성부우윤·좌윤 등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소를 계속 올려 마침내 1794년 그 원(冤)을 풀고 그 해 대사간이 되었다. 1796년 동지춘추관사에 이어 개성부유수·전라도관찰사·병조판서·선혜청제조 등을 두루 거쳐 1800년(순조 즉위년)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사직소를 계속 올려 사퇴한 뒤 곧 복직되어 대사헌에 임용되었다. 그 뒤 병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805년 호조판서로 있을 때 영동·관서 지방에서 재해를 입은 고을에 대동포(大同布)나 대동삼(大同蔘)의 납부 기간을 연기해주는 한편, 전(錢)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분납도 허락해주고 왕에게 건의, 그대로 시행케 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그 뒤 수원부유수를 거쳐 판돈녕부사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문집으로 『가정유고(荷汀遺稿)』가 있으며, 역학서로 『역문(易問)』이 전하고 있다.

楹又名之曰朝宗菴(下略) 崇禎紀元後三甲子提學趙鎮寬撰”

이 비에 의하면, 이 지명 조종(朝宗: 지금 조종천 유역 상하에 양면으로 나누어져 근년까지 이것을 조종상면, 조종하면이라 칭했으나, 지금은 조종의 2자를 생략하여 상면 하면으로 개칭했다)의 호칭이 ‘존왕양이 흥명멸청(尊王攘夷興明滅淸)’의 종지로서 당대의 유학자 허격(許格)이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앞에서 기록한 여러 문자(諸文字)를 새기고, 정종(정조) 갑진년에 이르러 바위 앞에 조종암을 세워 경성의 대보단(大報壇)을 모방하여 명나라를 사모하는 뜻을 부치기에 이른다. 지금 마을의 명칭이 대보단리(大報壇里) 또는 대보산리(大報山里)라고 칭하는 것은 거기에 기인한 것이다. 이 비는 순조 4년에 세워진 것으로 비는 존재하고 바위는 이미 흔적이 되었다.

조종암의 수직(守直)은 지금 하면 현리(下面縣里)에 거주하는 왕명식(王明植)의 집에 “영력4년 무오 8월 대보리에는 역이 없는 마을로 하였다. 완문(永曆四戊午八月日大報里永作無役里 完文<본관 완문>)”과 “영력 4년 무오 8월 조종암 수호직에는 잡역을 면제한다는 완문을 다시 세우다(永曆四戊午八月日朝宗岩守護直除雜役重修完文<순영완문>)” 는 두 개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왕명식(王明植)이 본 고적조사위원회에 말하기를 가전(家傳)에 의하면, “명나라 말기 명의 의신(義臣) 9명이 조선의 섬으로 도망 이주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청나라 사람에게 의해 심양에 구인되었는데, 조선 왕자 즉 후의 효종과 함께 있다가 왕자가 동천(東遷)할 때 수종하여 조선에 왔다. 경성 연동(燕洞) 황조인촌(皇朝人村)에 거주하고 대보단(大報壇)을 수직(守直)했다. 이들을 9의사라 칭한다. 왕명식은 (9의사 중)의 한 사람인 왕유문(王維文)의 후손으로 명식의 조부에 해당하며 그 후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종암의 수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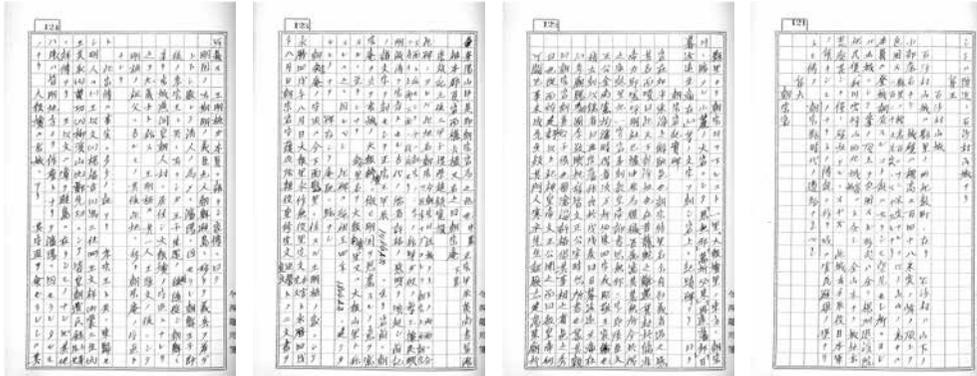
(그러나) 이 가전(家傳)은 사실에 다소간의 와전(訛傳)이 있다. 효종과 함께 동쪽으로 돌아온 명나라 사람은 1) 왕이문(王以文) 2) 양복길(楊福吉) 3) 풍삼사(馮三仕) 4) 왕문상(王文祥) 5) 배삼생(裴三生) 6) 왕미승(王美承) 7) 황공(黃功) 8) 유계산(柳溪山) 9) 정선공(鄭先功)으로 모두 황조유민록(皇朝遺民錄: 소화외전)에 상세히 전한다. 왕이문은 일찍이 섬으로 피한 사실이 있지만 기타 8명은 모두 명나라 지방에서 포로가 되어 심양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대보단(大報壇)은 경성에 있고 그 수직(守直)의 명을 받는 것은 그 후손이 된다. 소화외사(小華外史)에 일성록(日省錄)을 인용하여,

庚戌【正宗大王十師年】春三月初孝廟自燕還皇朝人黃功王鳳功王文祥馮三仕王美承楊福吉鄭先甲柳溪山裴三生等陪駕東來孝廟使居潛邸朝陽樓下其後獨美承無後諸人子姓甚繁謂之隨龍八姓雖或有蒙拔擢入預宿衛出典州郡者僅一二數餘皆甘處下流堪其苦王聞而憐之至是行毅宗忌辰望拜禮于春塘臺召見諸人曰今日行禮下泉之感無地可伸命置皇壇守直于朝宗門內享時行奉神榻設饌撤饌等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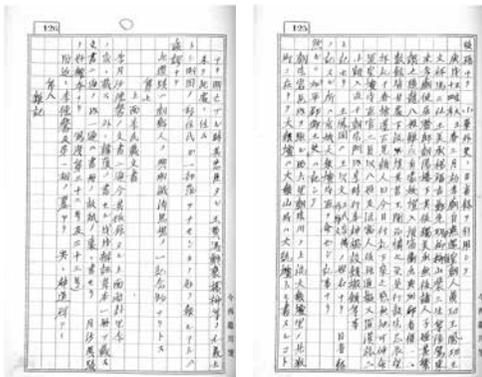
라고 기록되어 있다. 왕봉강(王鳳崗)은 왕이문(王以文: 왕씨 家傳에는 維文으로 되어 있음)의 처음 명칭이다. 일성록에 기록한 바는 경성 대보단 수직을 명하는 기사이다.

그런데 「가평군향토사」의 기록에는, “조종암은 읍에서 서쪽으로 6리 떨어진 조종천의 상류 대보단리(大報壇里)의 북쪽 수 정(數町)에 있고, 대보단(大報壇)은 대보산(大報山) 혹은 대통단(大統壇)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다. 명나라가 망할 때 충신인 왕, 황, 풍, 정, 배, 양, 유의 9의 사가 이곳에서 거주했다.”라고 명나라의 이주민이 한 부락을 이룬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 유적은 조선인의 흥명멸청(興明滅淸) 사상의 하나의 기념물이 되는 것이다.



조종암 원고(4.3.2.1.)



조종암 원고(6.5.)

(해제)

조종암은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399(대보리)에 위치한다. 1975년 9월 5일 경기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다. 조종암은 1684년(숙종 10년) 가평 군수 이제두와 허각, 백해명 등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가 도와준 일과, 청나라에게 받은 수도 내용을 바위 위에 새긴 것이다. 그리고 1804년(순조 4년)에 조종암 바위 위에 기실비(記實碑)를 세워 두었다. 현재는 해마다 3월 19일에 제사를 지낸다.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조종암 기실비

7. 상면(上面) 이씨장(李氏藏) 문서(文書)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문서 2통이 지금 그 후손인 상면 태봉리(上面胎封里) 이모씨 집에 수장하고 있다. 그 외에 한호(韓護)가 쓴 무술변무초본(戊戌辨謬草本) 1책이 수장되어 있고, 문서 2통 중 1통은 서책(書冊)의 고지(故紙) 안에 쓰여져 있다. 월사 진적(眞蹟)의 좋은 표본이 된다.(사진 44, 45)



사진 44. 월사 이정귀 진적 1(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후손 이모씨 집에 수장)

부근에 이덕형(李德馨) 및

이일상(李一相)의 묘가 있다. 모두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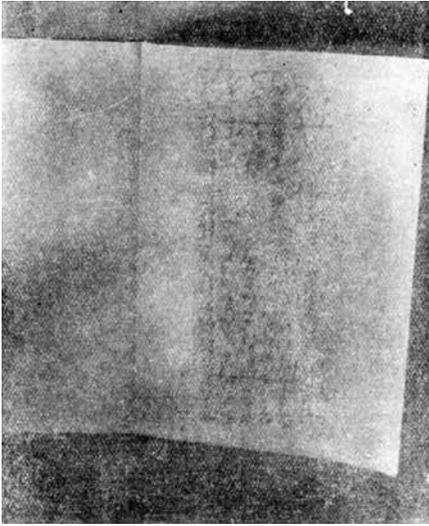


사진 44. 월사 이정귀 진적2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후손 이모씨 집에 소장)



NO無1128-8

№	遺物名稱	遺物番號	數量	備
9				일반조



NO無1128-9

월사 이정귀 문서 유리간판 사진

8. 잡기(雜記)

하나. 잠실(蠶室)

『세종실록』 지리지에 “잠실(蠶室) 【조종현(朝宗縣) 남쪽 톨절(土音寺伊里)에 있으니, 현(縣)에서 22리이다. 뽕나무 2만여 주를 심고, 부근 각 고을[官]의 각 관청 노비 50여 명을 사역시켜 잠사(蠶事)에 이바지하게 한다.】(蠶室【在朝宗縣南土音寺伊里, 距縣二十二里。種桑二萬餘株, 役附近各官散接各司奴婢五十餘名, 以洪蠶事)” 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지금 분명하지 않으나 조종천(朝宗川) 하류의 춘천가도에서 나와 조금 북쪽에 이리곡(以利谷)이 있다. 혹은 사이리(寺伊里) 명칭의 하반기(下半)이 남은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지역이 협소한 것에 가해진 것으로 조종현지(朝宗縣址)에 가는 것이 멀기 때문이다.

둘. 탕석(撐石)

북면(北面)에 탕석이라 칭하는 소부락(小部落)이 있다. 앞에서 기록한 이곡리(梨谷里) 석장우(石長隅)의 위쪽 3리 여의 깊은 산속(山奧)에 있다. 조사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고인돌(支石塚)의 종류는 아니다.

셋. 숯가마[皆呑所]와 지괴소(紙壞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모두 조종현(朝宗縣)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불명하다.

넷. 현등사(懸燈寺)

현등사(懸燈寺)는 조종천(朝宗川) 상류에 있다. 현리(縣里)에서 위로 올라가 2리가 조금 안되는 곳에 있다. 이 산이 현등산(懸燈山)이라 칭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 불우조(佛宇條)에 용천사(龍泉寺), 영통사(靈通寺), 현등사(懸燈寺), 영취암(靈聚庵), 영제암(永濟庵), 혜수암(惠壽庵)이 모두 화악산(華岳山)에 있다. 산천조(山川條)에 화악산은 현 북쪽 30리에 있다. 지금의 화악산도 현등사가 있는 현등산과는 동일한 산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별한 승람(勝覽)은 오류가 분명한 것이다. 화악산은 가평현 북쪽으로 30리에 있다고 함으로 현등산은 그것이 현 북쪽 30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승람이 만일 편찬할 때 잘못하여 조종고현(朝宗故縣)에서의 거리를 기입한 것이 아닌가하여 조사해 보니, 현등산은 고현(故縣)에서 북쪽으로 20리가 나옴으로써 그것을 30리라고 기록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승람(勝覽)이 기록한 화악산(華岳山)은 지금의 현등산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가평천의 상류 북면(北面)에 화악산(華岳山)이 있고,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가평천 상류 방면에 화악산이 기입되어 있다. 지금의 현등산

은 승람(勝覽)에서도 이미 이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는 것은 포천현 산천조(抱川縣山川條)에 “현등산은 현 동쪽 20리”라고 하여 포천·가평에 걸쳐 이 산을 기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현등사가 현등산에 있어야 할 것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것은 현등사는 이 당에서 이 산에 있어야 할 것이 된다. 승람이 용천 이하 6개의 절이 모두 화악산에 있다라는 것은 오류가 된다.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된 운악현등사(雲嶽懸燈寺) 사적에 의하면 현등산은 가평군에서는 운악(雲嶽)이라 칭하는 산중에 지장암(地藏庵)이 있다. 이 운악은 승람에 “운악산(雲岳山)은 현 서쪽 60리에 있고” 지장암에 대해서는 같은 책(同書)에 미나암(彌羅庵), 지장암이 모두 운악산



320278



320279



320284



320288



320290



320287

현등사 전경(1), 극락전(2), 보광전(3), 대군위실(4), 삼층석탑(5), 보광전 처마(6) 유리건판 사진

에 있는 것이 된다. 현등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사적기의 상반부의 건강부회 부분을 제거하고, 조선 태종 11년(1411년) 함허(涵虛) 조사가 건립한 일 이하는 믿을 만하다. 다이쇼 4년(1915) 2월에 편찬된 가평군 향토사에 의하면 지금 이곳 건축물에는 보광전(普光殿: 지장전), 아미타당(阿彌陀堂), 영패당(靈牌堂)이 있고, 불상으로는 지장, 아미타에 2좌의 불상 등이 있다. 사지(寺誌)에 기록된 관음금상(觀音金像)은 전해지지 않고, 비장의 보물(什物)로는 불화, 큰 북(大太鼓) 등 외에 일본병풍(日本屏風)이 있는 것으로 가리노(狩野)모씨 무인의 그림이다. 절 남쪽의 청암당(淸岩堂)에는 사리부도 5층석탑이 있다라 한다. 일본 병풍은 도쿠가와 가문(德川家)에서 왕실(王室)에 보내진 것이 어떻게 이 절에 희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절에 대해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조사하지 않았다.

(해제)

현등사는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길 34(조종면, 현등사)에 위치한다. 사찰의 창건은 신라 법흥 왕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인도 승려인 마라하미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이후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재건하여 이름을 현재의 현등사라 하였다고 한다. 이후 1411년(태종 11년)과 1823년(순조 23년)에 중수하였다.

경내에는 2012년 12월 27일 보물 제1793호로 지정된 가평 현등사 동종(加平 懸燈寺 銅鍾), 1974년 9월 26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현등사삼층석탑(懸燈寺三層石塔), 2002년 9월 16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된 현등사목조아미타좌상(懸燈寺木造阿彌陀坐像),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된 현등사청동지장보살좌상(懸燈寺靑銅地藏菩薩坐像),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5호로 지정된 현등사아미타회상도(懸燈寺阿彌陀會上圖), 2003년 9월 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3호로 지정된 현등사신중도(懸燈寺神重圖),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4호로 지정된 가평현등사지장십왕도(加平懸燈寺地藏十王圖),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5호로 지정된 가평현등사칠성정화도(加平懸燈寺七星禪畫圖),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6호로 지정된 가평현등사독성도(加平懸燈寺獨聖圖),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된 현등사수월관음도(懸燈寺水月觀音圖),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된 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懸燈寺涵虛堂得通塔및石燈), 2014년 5월 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3호로 지정된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加平 懸燈寺 地藏十王圖) 등 수 많은 지정문화재가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현등사 동종(왼쪽)과 삼층석탑(오른쪽)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왼쪽)과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오른쪽)

다섯. 중현암터 [鐘縣庵址]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조사하지 않았다. 향토사에 다음의 기사가 있다. 「북면 화악리 사동(北面華岳里寺洞)에 그 터가 있다. 탑 하나, 부도 하나가 있다. 메이지 44년(1911년) 어떤 사람이 경성으로 옮겨서 지금은 하층의 대석(大石)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탑도 일부를 탈취하였다. 그 부도를 훼손했을 때 동기(銅器)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사리 벼(舍利甁)이고, 또 하나에는 '세창9년 추9월 갑자(世昌九年秋九月甲子)의 9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다. 지금 그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 화악대사(華岳大師)가 (중현암을) 열고 기초(開基)를 닦았다。」 이상이 향토사의 기사이다. 살피건대 '세창운운(世昌云云)'의 말에는 기억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세창(世昌)의 연

호는 보여지지 않고, 또 고려조에 있어서는 왕의 이름을 회피하여 만드는 것도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 청룡사터[靑龍寺址]

조사하지 않았다. 향토사에 「종현암(鐘縣庵) 부근에 있고 지금 연못이 있고 (연못에) 흰 연꽃(白蓮)이 피어있다. 그것을 꺾을 때는 급병(急病)이 생겨 서둘러 산을 내려가도 쓸모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일곱. 세구암(世口庵)

조사하지 않았다. 향토사에 「사동(寺洞: 종현암 소재지)의 북쪽에 있고, 신술자(神術者) 장의관(張議官)이 건립했다. 하나의 석불을 청룡사 고암(靑龍寺古岩) 중에서 얻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덟. 조왕사터[調王寺址]

조사하지 않았다. 향토사에 「군내면(郡內面) 승산안리(升山安里)에 터가 있다. 백 년 전에 건립되고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되어 있다.

아홉. 인평군묘(仁平君墓)

조사하지 않았다. 향토사에 「군내면 대곡리(郡內面堡谷里)에 있고 비(碑)가 거울과 같다」라 했다. 지금 대곡리를 비석가(碑石街)라 칭하는 것은 이 비로 인한 것이다. 향토사에 상면 사령리(上面祀靈里)에 부원군 김모(府院君金某)의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열. 속전(俗傳) 및 풍속(風俗)

향토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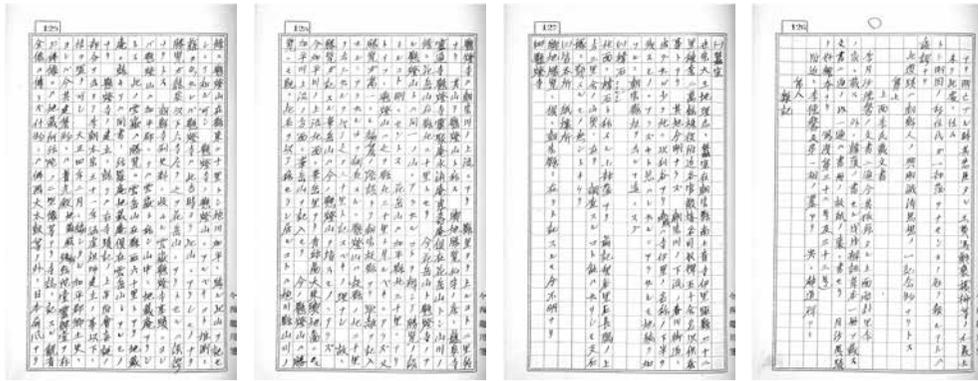
강씨봉(姜氏峯: 조종천 수원(朝宗川水源))의 북쪽에 국망산(國望山)이 있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太古] 궁예(弓裔) 말 왕으로 자주 폭정을 행하자 처 강씨가 그것에 대해 고언으로 간하였으나 (처 강씨가) 쫓겨나고 강씨가 이 산에 유거(幽居: 속세를 떠나 조용한 삶)하면서 주야간 산 정상에 올라 국도(國都) 철원(鐵原)을 바라보았다 한다.

북면 소법리(北面所法里)에 탁소(卓沼)라고 칭하는 늪(沼)이 있다. 지금은 보(湖)가 되고 탁씨의

조상이 이 늪에서 나왔다.

(비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구가평현(舊加平縣)의 토성(土姓)으로 탁간(卓簡)의 2성이 있다고 한다.(이마니시(西))

북면대리(北面大里:명주산 동쪽) 및 소낙포(沼洛浦: 명주산 북쪽)의 인민은 5월 5일 대왕신(大王神) 궁예(弓裔)를 제사 지내고, 미숙(米粟)으로 만든 떡(餅)을 제공한다.



상면 이씨장 문서와 가평군 잡기 원고(4.3.2.1.)



가평군 잡기 원고(7.6.5.)

| 제6장 | 양평군(楊平郡)

1. 개황[概記]

양평군(楊平郡)은 메이지 41년(1908년) 9월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이 합병하여 명명된 칭호이다. 다이쇼 3년(1914년) 3월 남종면(南終面: 남한강의 남쪽)을 분할하여 광주군의 지역으로 이속했다. 이 군은 서쪽은 북한강에 접하고 남쪽은 남한강에 임해 남한강과 북한강은 군의 서남쪽 모퉁이에서 합류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는 양근군(楊根郡)이 근천군(浙川郡: 川寧)이 관할하는 현의 하나로, “빈양현은 본래 고구려 양근현이다. 경덕왕때 이름을 바꾸어 옛 이름으로 돌아갔다.(濱陽縣本高句麗楊根縣景德王改名今復故)”라 하고, 지평현은 삭주(朔州)가 관할하는 현(領縣)이라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지평군은 본래 고구려 지현현이다. 경덕왕때 그로 인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砥平郡本高句麗砥硯縣景德王改名今因之)”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양근군은 지군사 1인이다. 본래 고구려의 양근군(楊根郡)인데, 신라가 빈양(濱陽)으로 고쳐서 소천군(浙川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옛이름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 무오에 광주(廣州) 임내(任內)에 붙였으며, 명종(明宗) 5년 을미에 【곧 송나라 효종(孝宗) 순희(淳熙) 2년.】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원종(元宗) 10년 기사에 【곧 원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6년.】 위사공신(衛社功臣) 장군(將軍) 김자정(金自廷)의 내향이라 하여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시키고, 공민왕(恭愍王) 5년 병신에 【곧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15년.】 국사(國師) 보우(普愚)의 어머니의 고향이라 하여 양근군(楊根郡)으로 승격시켰다. 속현(屬縣)이 1이니, 미원(迷原)이다. 【보우(普愚)가 미원장(迷原庄)의 소설암(小雪庵)에 우거(寓居)하여 있으므로, 공민왕(恭愍王) 5년에 보우로 인하여 현(縣)으로 승격시켜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얼마 안 되어 땅이 좁고 사람이 드물어서 다시 <양근군의> 임내(任內)로 삼았다.】(楊根郡知郡事一人。本高句麗 楊根郡，新羅改名濱陽，爲浙川郡領縣。高麗復古名。顯宗戊午。屬廣州任內。明宗五年乙未，【即宋 孝宗 淳熙二年】始置監務。元年十年己巳，【即元 世祖 至元六年】以衛社功臣將軍金自廷內鄉，陞爲益和縣令。恭愍王五年丙申，【即元 順帝 至正十五年。】以國師普愚母鄉，陞爲楊根郡，屬縣一，迷原。【普愚寓居迷原庄之小雪庵，恭愍王丙申，以普愚故，陞爲縣，置監務。既而以地窄人稀，復爲任內。】”

“지평현은 본래 고구려의 지현현(砥硯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광주(廣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 신미에 철장(鐵場)을 현(縣) 지경에 두고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어 겸임하게 하였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철장(鐵場)은 철이 나는 것이 많지 아니하므로 없애 버렸다.】(砥平縣本高句麗 砥硯縣，新羅改今名，爲朔州領縣。高麗 顯宗戊午，屬黃州任內。恭讓王三年辛未，置鐵場于縣境，始置監務以兼之。本朝太宗癸巳，例改爲縣監。【鐵場則以產鐵不多革去。】”로 되어 있다.

양근군의 치소(楊根郡治)는 옛날 건지산(乾止山) 즉 지금의 고읍면(古邑面) 옥천리(玉泉里) 교촌

(校村) 사이에 있고, 영조 23년 갈산(葛山) 지역 즉 지금의 군치(郡治) 지역으로 옮겼다. 지평군과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개칭되었어도 군치는 갈산 지역을 옮기지 않았다. 읍내는 메이지 40년(1907) 폭도(暴徒: 군대해산에 따른 항일의병) 때문에 방화가 이루어져 전부 소실되었던 것을 거리(街衢)의 개정을 통해 지금은 정연하게 만들어진 읍성이 되었다. 한강으로 인해 충주·경성으로의 교통이 편리하다.

용문산(龍門山)은 원래 양근·지평 2군의 경계를 이루었던 것이 지금은 군 중앙에 우뚝 솟아 사지(寺址)가 많다.

2. 고분(古墳)

서종면 문호리(文湖里: 구명 영종리(永宗里)) [군의 서쪽에 있고 한강에 임해 여지도에는 대야천(大野川) 청구도(靑邱圖)에는 대야천(大野川)으로 기명되는 작은 천(川)이다. 동쪽에서 와서 이 지역에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 소천의 위쪽(上)에 평야가 있고 문호리에는 시장이 있다. 조선인들은 수여리(水余里)의 이름으로 알려졌고 수여(水余)의 음은 munneri인 것도 「무네비」라고 들린 대의 남단 밭 중간에 적석총(積石塚) 같은 것이 있다. 사방 약 25척 높이 10척이다. 한강의 상수면(常水面)에서 높이는 약 30척으로 그 물가를 제거하면 약 1정이 된다. 이것이 본 고적조사 위원이 본 군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무덤 혹은 무덤에 유사한 것이고, 다른 무덤의 존재는 듣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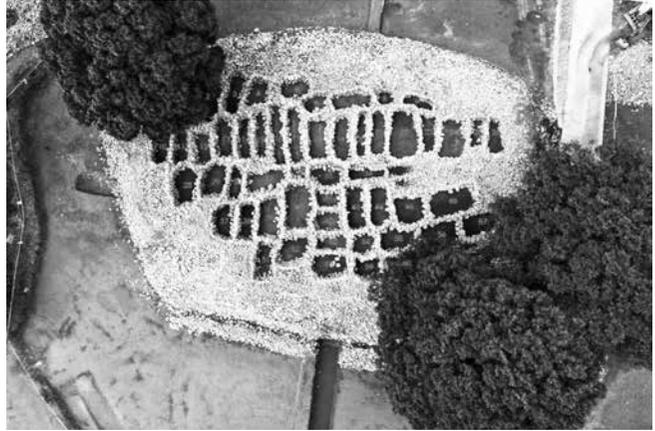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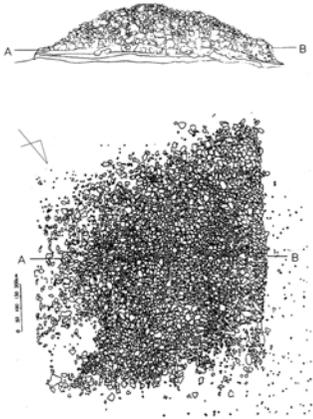
양평군 개황과 고분 원고(3.2.1.)

(해제)

문호리 무덤으로 보고된 것은 경기 북부, 경기 동부, 영서지역 등 중도유형권(中島類型圈)에 분포하고 있는 돌무지무덤(積石墳丘墓)으로서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한강 지류인

경안천 주변에만 분포한다.¹⁰³⁾ 무덤의 특징은 무덤방을 지속적으로 붙여서 연결하여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만 돌을 세워 보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리 돌무지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1971년 경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⁰⁴⁾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정확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중앙에 무덤방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무덤의 크기는 동서 약 6m, 남북 약 7m이며, 높이는 2.7m이다. 출토유물로는 청동방울 1점, 타날문토기 200여 점,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양평 문화리 돌무지무덤(왼쪽)과 광주 곤지암리 돌무지무덤(오른쪽)

3. 함공성(咸公城) 속칭 함씨대왕성(咸氏大王城)

함공성(咸公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함공성은 군 동쪽 30리에 있고 석축으로 둘레가 2만9천58척이다. 고려시대 읍인이 몽골병력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왔다.(咸公城在郡東三十里石築周二萬九千五十八尺高麗時邑人避蒙古兵于此)」라고 기록되어 있고,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이 기사를 전재하고, 이 성은 현재 고읍면(古邑面) 용천리(龍川里: 葛名斜川里)의 지역에 있다. 승람(勝覽)에 군(郡)이 있는 것은 고읍(古邑)의 지역이다. 성은 고읍(古邑)의 동쪽으로 대한제국의 거리(韓里)로 10리가 안된다고 한다. 이것을 동쪽 30리라고 기록한 승람(勝覽)은 오류가 된다.

이 성은 용문산(龍門山)의 남쪽으로부터 늘려나온 고봉(高峯)의 서쪽에 있다. 지금의 사나사(舍那寺)가 존재하는 계곡을 포용한다. 산은 높고 험준하다. 성벽은 사나사 앞(남쪽) 약 5정(町)의 지점에서 계류(谿流)가 걸터 있는 곳이 정문이다. 성벽은 석축(石築)으로 되어 있어도 심하게 황폐해지고 무너진 곳이 많다.

103) 박경신, 2019, 『原三國時代 中島類型團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4) 황용훈, 1974, 「양평군 문화리지구 유적 발굴보고」, 『八堂·昭陽담 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지형에서 추측하면, 성 구역은 사나사 계곡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문에서 성벽은 좌우의 산 위로 연결된다. 동쪽 봉우리로 오르는 것은 표고 946m 봉우리 부근에서 동쪽봉우리 위에 도달하고, 북쪽에 안부(鞍部:산마루가 움푹 들어간 곳)로 마무리되는 표고 1,031m 봉우리에 이르러 서쪽으로 꺾어 760m의 봉우리에 도달한다. 정문에서 서쪽 봉우리로 오르는 것은 우뚝 솟은 암석이 세워져 표고 456m 봉우리 부근에서 정상에 도달하고, 안부(鞍部)가 동북으로 향해 앞에 기록한 760m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도 서로 이어지지(銜接)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계곡의 산허리에는 거암(巨岩)이 단애(斷崖)를 이룬 곳이 적지 않아 반드시 이 계류(溪流) 전 지역을 포용할 필요가 없고, 지역을 몇 개로 축소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전방의 소부락 하나를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사나사 승려의 말에 의하면 성벽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터가 남아 있는 것이 적다라고 한다. 이 성은 북한산 남한산과 형식이 동일한 대규모의 산성이다(사진 46호는 앞에서 기록한 남문(정문) 문밖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 정문 부분에는 석축의 성벽이 남아 있고 높이가 6척 내외이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대에 수축(修築)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 초석(礎石) 등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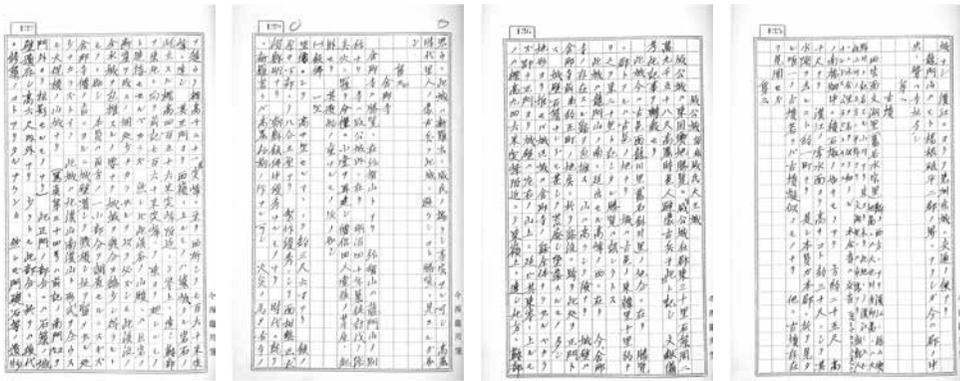


사진 46. 경기도 양평군 고음면 용천리 함공성 남문 터

이 성문 밖 수 보(數步) 떨어진 계류 측에 함공혈(咸公穴)이라고 칭하는 것이 있다. 암석에 자연적으로 구멍이 있는 수혈(鑿穴)로서 지름이 겨우 1척에 불과하다. 성주 함공(咸公)이 이 혈

에서 출생했다고 전한다. 향토사에 깊이가 1장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지역사람은 깊다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본 고적조사위원이 조사할 때는 비가 온 후이어서 계곡의 물이 넘쳐 혈은 수증으로 들어가고 토사로 매몰되어 겨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 성에 대한 전설[口碑]이 있다. 삼한(三韓) 초에 함왕(咸王) 주악(周鑊)이 이 성을 거점으로 했고, 함왕은 앞에서 말한 함공혈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이 성을 쌓고 부근을 정복한 것이 된다. 왕은 삼한(三韓)에 토벌되어 멸망했다. 자손의 성이 함씨(咸氏)라 칭하고 관향을 양근(楊根)으로 하였다. 왕은 그 어머니라 해야 할 출생 혈(穴)이 성 밖으로 하여 축성한 것이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전설이다. 조사해보니 양근(楊根)은 고려 태조의 공신 함규(咸規)의 고향이 된다. 그 5세손 함유일(咸有一)은 고려사에 전(傳)이 있다. 생각건대 이 성은 신라 말에 함씨가 거처한 것이 사실일 것이고, 고려시대 마을 사람들이 몽골 병력을 피해 이 성으로 들어온 것도 승람(勝覽)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다.



함공성 원고(4.3.2.1.)



함공성 원고(5.)

(해제)

함공성은 조선시대 명칭으로 고려후기에는 양근성(楊根城), 현재는 함왕성(咸王城)이라고 부른다. 함왕성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1990년 9월 6일 경기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용문산 줄기인 855m의 봉우리와 능성 및 계곡을 감싸고 만든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로 북벽과 남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졌다. 성곽의 길이는 약 8,805m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약 700m 정도만이 잔존해 있다.

함왕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수원대학교박물관이 1999년 수행한 지표 및 시굴조사가 유일하다.¹⁰⁵⁾



함왕성 성벽(왼쪽)과 내부 우물터(오른쪽)

4. 사나사(舍那寺)와 유물

사나사(舍那寺)는 승람에 미지산(彌智山)에 있고, 미지산은 용문산의 별칭이다. 절은 함공성 안 [咸公城內]에 있고 메이지 40년(1907년: 정미의병) 폭도 토벌 때 병화(兵火)로 재가 되어 지금은 겨우 소당(小堂)을 재건했다. 승려 4인이 당 뒤의 초가집(茅屋)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 유물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 철불(鐵佛)

좌상(座像)으로 높이는 앉아있는 채로 하여 약 3척 6촌이다. 철의 두께는 하부(下部)에서 8분 5리이다. 제작이 우수하여 면상(面相)이 올바르고 옷 주름이 선명하다. 조선 철불 중 우수한 것이 된다. 시대에 대해서는 신라 혹은 고려 초기 제작한 것이다. 화재로 인해 오른손의 팔

105) 수원대학교박물관, 1999, 『양평 함왕성지』.

꿈치 부분, 양손의 손가락, 왼쪽 무릎 및 머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2군데의 균열이 있다. 지금 절 지역의 모퉁이에 다음에 기록하는 석종(石鐘) 부근에 매우 거칠게 만든 가소옥(假小屋) 안에 방치되어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사진 47은 이 불상의 사진이다.) 이 우수한 불상은 관부(官府)에서 특별히 수리 보호해야 할 것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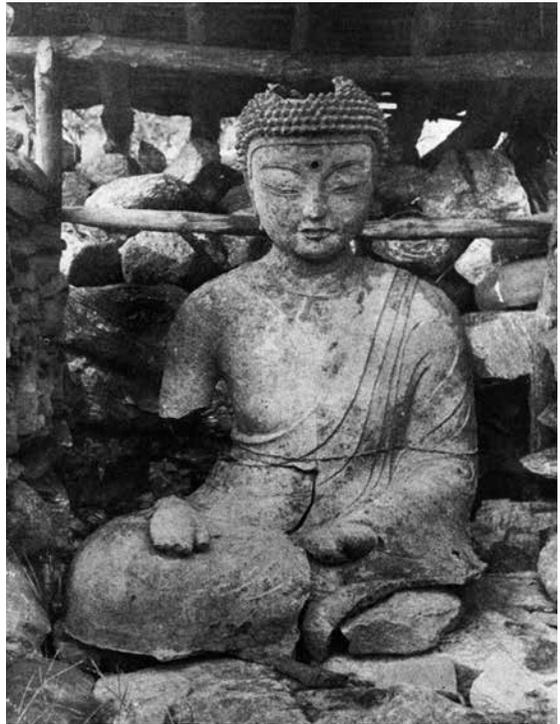


사진 47. 경기도 양평군 고읍면 용천리 사나사 철불

둘. 원증국사 석종(圓證國師石鐘)

높이 5척 6촌, 보통으로 보여지는 석종(石鐘)이다.

셋. 원증국사 석종명비(石鐘銘碑)

석종(石鐘)의 남쪽에서 25도 동쪽으로 치우쳐 약 4칸 떨어진 곳에 명비(銘碑)가 있다. 높이가 3척 4촌 8분, 폭 2척 1촌 2분이다. 대석(臺石)의 위에 방석주(方石柱)가 좌우에 세워지고 석개(石蓋)를 가로로 놓아 비신의 사변(四邊)을 포위하고 있다. 비의 한 모퉁이에 균열이 있고 그 형식은 여주군 신록사 보제석종기비(驪州郡神勒寺普濟石鐘記碑) 및 동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와의 형식 및 연대가 동일하다. 고려 종말기(終末期)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비문은 정도전(鄭道傳)¹⁰⁶이 찬하고 승려 의문(諱聞)이 쓰고 홍무(洪武) 19년에 건립했다. 비음기(碑陰記)가 있고, 비면의 일부가 떨어져 아주 안 좋은 상흔이 있다. 비문에 대해서는 달리 조사 보고해야 한다. 비면의 남쪽에서 65도 동쪽으로 향한다(사진 48).

넷. 동 삼층석탑(同三重石塔)

비의 서남쪽에 있다. 총 높이가 약 8척, 남에서 약 55도 향하는 형식으로 잘 만들었다.(사진 49)

106) 정도전(鄭道傳:1342-1398) 이성계를 도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이 된 정치가. 자는 중지. 호는 삼봉으로 1370년 성균관에 중영되고 성균박사가 되었으며, 1383년 이성계를 찾아가 세상사를 논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일으킬 때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워 밀직부사가 됐다. 1392년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살해되고 반대세력이 제거되자 조준과 함께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 조선왕조를 개창했다. 이후 진법 훈련을 강화하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이방원을 전자로도, 이방원을 동북면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방원 세력의 기습을 받아 방면, 방석 등과 함께 살해됐다.



사진 48. 경기도 양평군 고읍면 용천리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사진 48. 경기도 양평군 고읍면 용천리 사나사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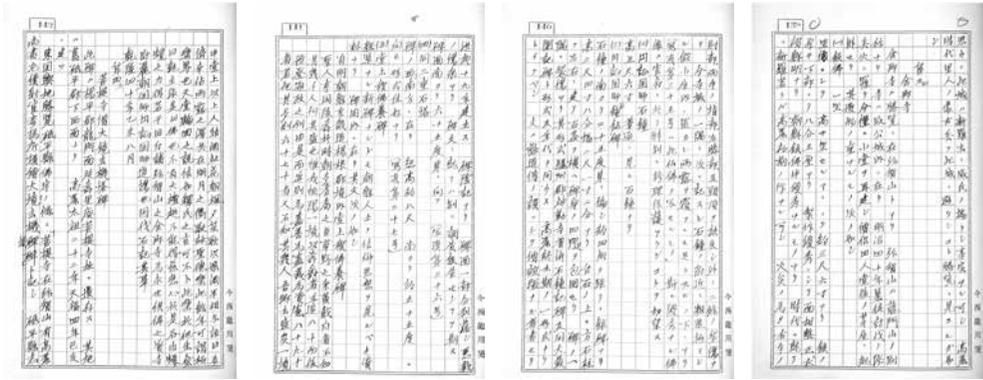
다섯. 당상계불량비(堂上稷佛養碑)

거칠게 만들어진 새로운 비이지만 조선인 사대부의 신앙사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비각내에 있고 그 문(文)은 다음과 같다.

有名朝鮮京畿道楊根郡境內堂上稷佛養碑

聖人享岡陵壽於時 朝多耆耆之臣草野之垂黃載白者不知其幾千人何其盛也惟我恒陽一境以壽爵者年過八十而後始登通政之列由是而進則爲嘉善爲資憲八十九十者若此其多則六七十者又不知其幾人吾鄉亦盛矣一境中堂上以上人結酒社花朝楓夕笙歌以娛酒半相與語曰吾儕幸佶雨露之澤共在 烟月之衢歌詠聖德樂此餘年可謂極樂界也天堂輪回之說信如釋氏之言可不卜此樂於他生命曰孰主張是田佛也不有大檀越不能得慈悲心於是各出螻即麗朝國師圓證國師道場也因伐石記其事

乾隆四十年乙未八月



사나사와 유물 원고(4.3.2.1.)



사나사 철불(1), 삼층석탑(2), 원증국사석종비(3) 유리건판 사진

(해제)

사나사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용문산 내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이다. 923년(태조 6) 대경국사(大鏡國師) 여엄(麗嚴, 862~929)이 제자 용천(融闡)과 함께 창건하였다. 1367년(공민왕 16)에 보우(普愚) 스님이 증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1698년 다시 지었으나 1907년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는 1993년 새롭게 지은 대적광전과 미타전이 남아 있다. 경내에는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사나사원증국사탑(舍那寺圓證國師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된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舍那寺圓證國師石鐘碑),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1호로 지정된 사나사삼층석탑(舍那寺三層石塔)이 남아 있다.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할 당시에 있었던 파괴된 철불은 현재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나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1960년 8월과 1970년 4월 12일 황수영이 단국대학교박물관과 함께 월레답사를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¹⁰⁷⁾ 특히 1960년대 철불의 일부가 존재했지만 1970년대 사라진 점에서 철불은 1960년~1970년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나사 원증국사탑



사나사 원증국사석증비

107) 鄭永鎬, 1970, 「楊平 玉泉面の 佛蹟」, 『白山學報』 8, 白山學會.

5. 보리사 승 대경현기탑비(菩提寺僧大鏡玄機塔碑)

이 비는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보리사터[菩提寺址]에 남아 있다. 이 지역은 구지평군(舊砥平郡) 하서면(下西面)이고, 고려 태조 22년 천복(天福) 4년 기해(己亥)에 건립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지평현 불우조(砥平縣佛宇條)에 「보리사는 미지산에 있고 고려 상서좌복야 최언위가 찬한 대경현기탑비가 있다(菩提寺在彌智山有高麗尙書左僕射崔彥爲所撰僧大鏡玄機塔碑)」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평현지(砥平縣志)에는 이 기사를 전재하고 「지금은 폐지되었다(今廢)」는 두 글자만 부가되어 있다. 이 현지(縣志) 편찬의 연대는 불명하지만 인물조(人物條)에 이단하(李端夏)¹⁰⁸의 이름이 있는 것에서 추측하면, 영조시대보다 이전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보리사는 이미 폐사(廢寺)되었던 것이고 비(碑)는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저록(著錄)하고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 그것을 수록하였으나 비음기(碑陰記)는 수록하지 못했다.

이 비(碑)는 2~3년 전 증추원 근무 가쓰라키[葛城] 속관이 명을 받아 출장하여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검출(檢出)했으나 심한 추위 때문에 탁본 작성한 것이 쓸모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마을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지방 주재 헌병 등이 2~3회 수탁(手拓: 자신이 탁본을 뜬)한 것이 있는 것도 관계하지 않았고, 이 절터[寺址]의 비(碑)에 대한 존재 여부도 양평군청에서는 판명하지 않았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수색의 결과 점차 상원사(上元寺) 주지에 의해 그 소재지를 들어 알 수 있었고, 그것을 검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절터[寺址]는 이미 기록한 것처럼 용문면 연수리(龍門面延壽里)에 있다. 연수리는 구 장수(長壽)와 연안(延安: 5만분의 1지도에는 蓮安으로 되어 있음)의 두 개의 리(里)가 병합하여 부쳐진 새로운 명칭으로서 북쪽 및 서쪽에는 용문산(龍門山: 즉 彌智山)의 연결된 봉우리(連峰)가 높게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여러 고대(支嶺)가 연결되어 협지(峽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남쪽의 한 면만 계류(溪流)에 따라 열려 있어 멀리 마천리(馬川里) 방면의 평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남북으로 좁고 긴[狹長] 부락이 있으며 다소간의 전답(田畠)이 있다. 양평읍(楊平邑)을 지나 용문(龍門) 아래 한 줄기인 높이 200m의 고개를 넘으면 2리에 불과하다. 이 절터[寺址]는 구 연안동(延安洞) 북쪽 2-3정(町)의 지점에 해당하며 용문산에서 낙하(落下)하여 이어져 나오는 작은 언덕의 양지(陽地)에 있다. 상원사(上元寺)에서의 계류(溪流)와 사나사 동산(東山: 표고 96m)의 계류 사이에 있고, 전방의 논(田圃)에서도 한단 높은 쪽에 사방 1정(町) 정도의 대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108) 이단하(李端夏: 1625-1689) 본관은 덕수. 자는 계주. 호는 외재·송간. 아버지는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식(碑)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음보로 등용되어 공조좌랑을 지냈다.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지평·병조정랑을 거쳐 용안현감을 지냈다. 북평사로 재직중에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인 정문부의 활동을 조정에 보고하여 관직을 추증시키고 총렬사를 세우도록 했다. 1668년 이조정랑으로 각 사(司) 노비 공납품의 감액을 주장하여 실시하게 했으며 이어 양전의 실시를 청했다. 1669년에는 훈연별대의 창설을 청했다. 그뒤 응교·사인·동부승지를 역임한 뒤 1674년 대사성으로 대제학을 겸했다. 그해 숙종이 즉위하자 제2차 북상문제로 숙청당한 사람들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상소하다가 파직되었고, 이듬해 대행왕의 시장과 행장을 찬탈했는데 복제의 항목(송시열의 諱穉의 사살)이 불비된 사건에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풀려나와 흥문관제학으로 <현종개수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682년 각 능의 기신 제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도록 했고, 1684년 예조판서로 <사창절목(私倉節目)>과 <선묘보감(宣廟寶鑑)>을 지어올렸다. 1686년 우의정이 되어 사창 설치와 죽을 죄인에 대한 삼복 등을 주장했다. 1687년 좌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행판돈녕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저서로 <외재집>이 있으며, 편서로는 <북관지(北關誌)>가 있다. 시호는 문충이다.

터는 지금 논이 되고 그 대지의 동변(東邊) 아래를 따라 상원사 통로가 있고, 그 북단(北端) 길가 자연석면(自然石面)에 「이상 동·서 상원경계표(以上東西上元界標)」의 8자가 새겨져 있다.(이 위치가 절터[寺址]의 동북 모퉁이다) 이 각자는 얼마간의 연대가 지난 것 같고 사지(寺址)에는 초석의 배치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옛 기와 파편은 밭 가장자리 퇴적한 석력(石礫:돌고 자갈) 사이에 남아 있어 도 시대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원기탑비(元機塔碑)는 이미 기록한 것처럼 천복 4년(939년)에 건립된 것이다. 이 비신(碑身), 귀부(龜趺, 이수(螭首)는 사지(寺址)의 북변 중앙부에 남아있고 수 간(數間) 사이에 산재하고 있다. 원기탑(元機塔)이라 생각되는 하나의 석탑은 연수리장(延壽里長) 김선호(金善浩)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년 전까지 귀부 좌측(귀부에서 보아) 수 간(數間)의 지점에 있었던 것을 일본인이 이것을 경성으로 옮겼다고 한다.

비신(碑身)은 조사할 때에는 이면(裏面) 위에 하나의 작은 도랑 위에 다리 같은 것이 가로로 누워 남아있다. 길이 5척 8촌 7분, 폭이 2척 9촌 7분, 두께 8촌이다. 상하에 자루(柵)가 있다. 상병(上柄)은 높이 3촌 2분 가로 2척 5촌 3분, 두께 5촌이다. 하병(下柄)은 높이 5촌 7분, 가로 2척 4촌 6분, 두께 5촌 7분이다. 정교하고 견고한(精緻堅牢) 화강암(花崗巖: 혹은 대리석의 이종인가)이 수마(水磨:물로 닦임)되었어도 비면(碑面)은 오히려 새로운 것처럼 광택이 남아 있고 돌이 갈라지고 마모된(泐沒消摩) 흔적이 없는 것은 경탄할 만하다. 오직 그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문자는 바로 해독할 수 있다.(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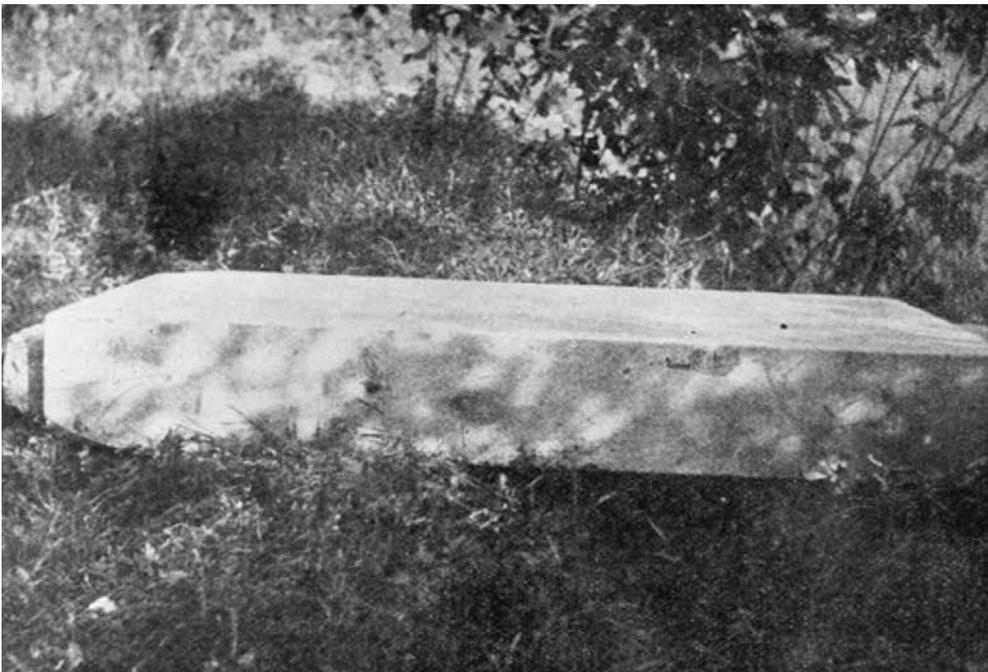


사진 5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보리사터 대경대사 원기탑비 비신

귀부(龜趺: 거북모양 받침)는 비신의 서쪽 수 보(數步) 떨어진 지점에서 조금 높은 곳에 남아 있다. 현재 (귀부의) 후부와 좌부는 위쪽 발 가장자리에 매몰되어 있다. 이것의 원위치가 이동했던 것은 아니다. 완만한 경사면이 평평한 논이 된 결과 지면에 담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방형(方形)의 대석(臺石) 위에 남아 있는 귀수(龜首: 거북 머리)는 동쪽에서 약 30도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면상(面相)의 용(龍)은 용감하고 위엄이 있고 목(頸)은 수직으로 들어 올려 나팔여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귀갑(龜甲)은 세로 약 4척 여 가로는 5척이다. 이처럼 중횡(세로 가로)이 거의 비슷한 것은 이 시대 작품의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가로보다 짧은 것은 하나의 다른 예인가? 귀수(龜首)의 정점은 대석면(臺石面)에서 2척 6촌 7분 높고 그 뒤에 있는 목부는 갑면(甲面)과 목(頸)의 접속점보다 높이가 8촌이 되고, 머리 정상의 지름 및 깊이는 각 1촌의 원공(圓孔)으로 장식물이 삽입된 것 같다. 귀갑 위에는 비신이 용이하게 장방형(長方形)의 궤(櫃)가 각출(刻出)되고 궤 주변의 두께가 3촌 5분 그 안의 길이는 2척 5촌 5분 폭은 약 6촌 깊이 역시 6촌이다. 지금 전면(前邊)과 후면(後邊)이 결실되고, 방궤(方櫃)의 외면에는 앙련(仰蓮)을 이중으로 새기고 더욱이 이 궤형(櫃形)에 접한 귀갑(龜甲)의 부분에는 앞부분에 여러 겹의 연꽃[重蓮瓣]이 후방과 좌우에는 운문(雲紋: 구름문양)이 새긴 궤형(櫃形)과 함께 비신(碑身)이 용재(擁載: 끼워 세움)하는 것 같이 꾸며져 있다. 귀갑의 그 부분 이외에는 귀갑문(龜甲文)을 새겨 그 주변에는 사선문(斜線紋)이 새겨져 있다.(사진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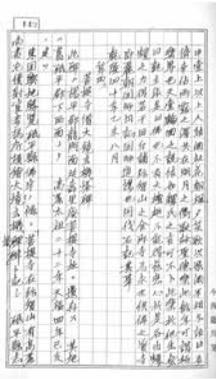


사진 5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보리사지 대경대사 현기탑비 귀부

이수(嶠首)는 귀부 전방에 그 전변(前邊)에서 약 20척 3촌 지점의 논 중에 겨우 그 상부가 노출되어 남아 있다. 길이 3척 9촌 3분, 폭 1척 3촌 여이다. 보존의 방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것을 발굴하지 않은 것은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현 상태로 조사를 행하였다.

비신(碑身: 총 31행)에는 각 행(行)마다 58자가 있고, 비음기(碑陰記)에는 비 건립에 관계한 승속(僧俗: 승려와 세속)의 이름을 기록한 수십자(數十字)가 있다. 이 이외에 동일한 해서(楷書)로 의천(義天) 2자를 새기고 천자(天子)를 반(半)으로 새겨 중지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이 비문에 대해서는 달리 조사보고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이 비와 같이 천년의 오래된 비가 선명하고 아름답게[鮮麗] 남아 있는 것은 경탄해야 할 것이고, 국보로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존의 지역에 보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것을 경성박물관으로 옮기고, 이미 경성방면으로 철거한 원기탑(元機塔)을 수색 검출하여 함께 박물관내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리사 승대경현기탑비 원고(4.3.2.1)



보리사 승대경현기탑비 원고(8.7.6.5)

6. 상원사(上元寺) 혹은 상원사(上院寺)

『여지승람(輿地勝覽)』 지평현조(砥平縣條)에 「상원사는 미지산에 있고 세조가 일찍이 이곳에 행차했다(上元寺在彌智山世祖嘗幸于此)」라고 되어 있다. 미지산(彌智山)은 용문산의 별명이고, 지역은 지금의 용문면 연수리에 속하며 연수리 부락의 북단(北端)에서 20여 정(町) 북방의 수목이 많은 산중에 홀로 있는 절로 폭도 봉기(1907년 정미의병)때 화재로 재가 되어 거주하는 승려가 2인에 불과한 작은 절로 쇠퇴했지만 불전(佛殿)이 깨끗한 것은 기뻐할 일이다.

유물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석사(石獅) 1구(軀)와 석탑대좌(石塔臺坐) 하나가 있다.

하나. 돌사자(石獅)

돌사자(石獅)는 원래 1쌍이 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겨우 1구만 존재하고 길이 2척 9촌 6분이다. 비상하는 형상으로 만든 우수한 작품이다. 왼발(左趾)이 결실되어 보존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사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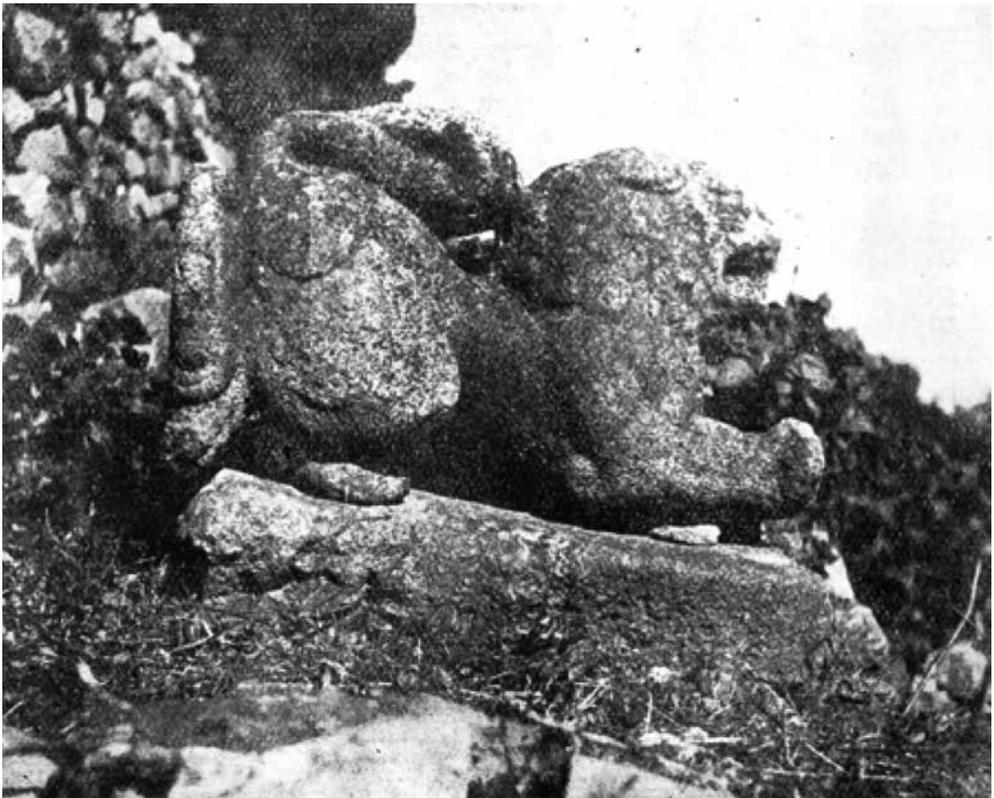


사진 5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상원사 돌사자

둘. 석탑대(石塔臺)

팔각형(八角形)으로 되어 이 절이 번성할 때 기념하는 것이 된다.

이 절에 있었던 고려시대 범종(梵鐘)은 지금 경성 동본원사(東本願寺) 설교장(說教場)에 걸려있고 우수한 작품이지만 명문(銘文)이 없는 것이 애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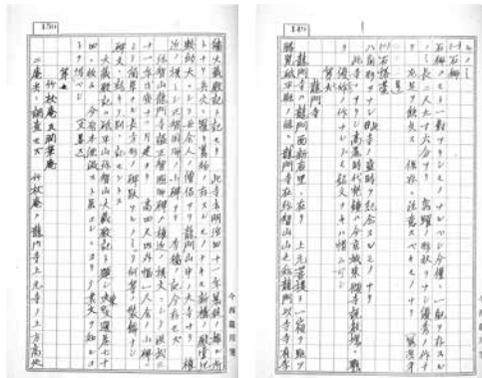
상원사 원고(2.1.)

7. 용문사(龍門寺)

용문사(龍門寺)는 용문면 신점리에 있다. 상원 보리(菩提)와 한 봉우리(一巒) 떨어져 있다. 승람 지평현조(勝覽砥平縣條)에 「용문사는 미지산에 있다. 산의 명칭이 용문이 되어 용문사가 되고 이색의 <대장전기(大藏殿記)>가 있다(龍門寺在彌智山山之稱龍門以寺寺有李穡大藏殿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절 역시 메이지 41년(1908년) 폭도(정미의병)의 거처가 되어 병화(兵火)로 인해 (절이) 재로 변해 옛 물건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구성된 전당(殿堂)이 비교적 커서 20여 명의 승려가 있는 용문산 중의 큰 절이다. 권근(權近)이 찬(撰)한 정지국사(正智國師)¹⁰⁹⁾의 소비(小碑)가 있고, 이색(李穡)의 기(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미지산 용문사 시정지국사비(彌智山龍門寺諡正智國師碑)는 권근(權近)이 찬한 것으로 홍무(洪武) 31년 무인(戊寅) 12월에 건립된 높이 4척 내외, 폭 1척 여의 소비(小碑)로 간단한 장방형(長方形)의 비부(碑趺)만 있는 것으로 어떤 장식도 없다. 비문에 대해서는 달리 기록해야 한다.

대장전기(大藏殿記)는 지평현 미지산 대장전기(砥平縣彌智山大藏殿記)라는 제목으로 동



용문사 원고(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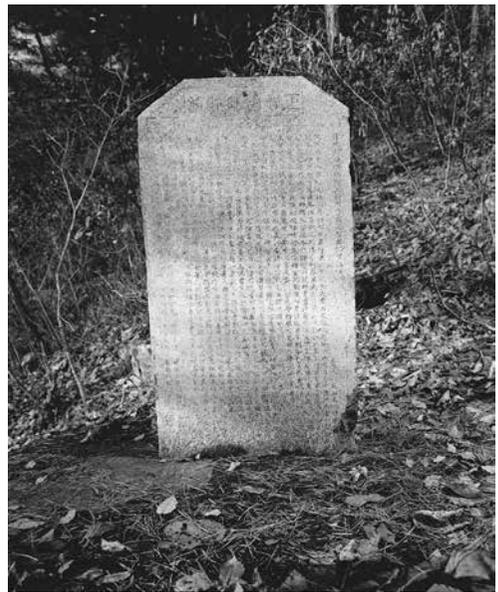
109) 정지국사(正智國師:1324~1395) 선승(禪僧). 성은 김씨(金氏). 호는 죽원(竺源). 황해도 재령 출신. 아버지는 연(筵), 어머니는 윤씨(尹氏)이다. 1332년(충숙왕 복위 1) 장수산 현암사(懸菴寺)로 출가하여 바로 선(禪)을 닦다가, 뒤에 『능엄경(楞嚴經)』을 배워 깊은 뜻을 깨달았다. 1353년(공민왕 2) 무학(無學)과 함께 원나라로 가서 인도에서 온 지공(智空)을 찾았다. 그 때 고려에서 먼저 온 나옹(懶翁)이 지공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두 사람은 함께 나옹의 제자가 되었다. 그 뒤 함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오대산의 벽봉(碧峰)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1356년 귀국하여 자취를 감추고 수행에만 힘썼다. 그는 항상 말이 적고 근엄하였으며, 깊은 산에 숨어 지벌 뿐 대중을 거느리고 법회를 여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천마산 적멸암(寂滅庵)에서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나이 61세, 법랍 54세로 입적하였다. 화장을 하자 많은 사리가 나왔으며, 제자 조안(組眼) 등이 미지산(彌智山) 용문사(龍門寺)에 부도와 비를 세웠고, 나라에서는 정지국사(正智國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선(東文選) 권74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 원본은 인멸(湮滅)되었으나 이것에 의해 그 글을 알 수 있다.(글은 생략한다)

(해제)

용문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번지에 위치한다. 용문사는 913년(신덕왕 2년)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경순왕(927~935) 치세 시기에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1378년(우왕 4년)에는 지천대사가 개풍 경천사의 대장경을 옮겨왔다고 전하며, 1395년(태조 4년) 조안화상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한다. 1907년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이 불태워 소실된 것을 1982년 새롭게 재건하였다. 경내에는 1971년 7월 7일 보물 제 531호로 지정된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楊平 龍門寺 正智國師塔 및 碑)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금동관음보살좌상,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가 있다.

용문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2018년 정지국사탑 및 비를 정밀실측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¹¹⁰⁾



정지국사탑(왼쪽)과 비(오른쪽)

110) 양평군, 2018,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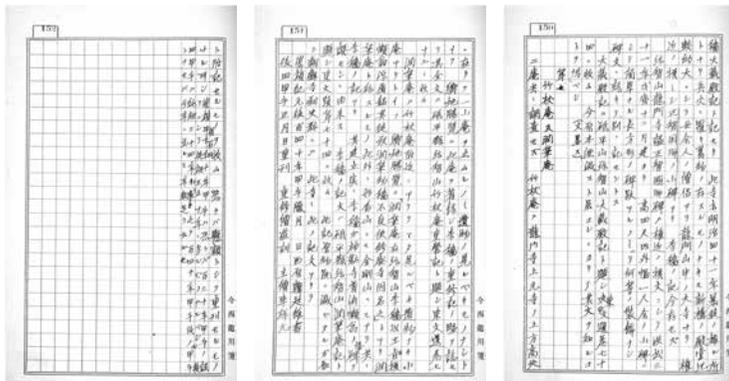
8. 죽장암(竹杖庵) 및 윤필암(潤筆庵)

이 두 암자는 모두 조사하지 않았다. 죽장암(竹杖庵)은 용문사·상원사의 위쪽 높은 곳에 있는 하나의 소암(小庵:작은 암자)에 머물러 있지만 유물로 보아야 할 것이 없다고 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이 암자를 저록(著錄)하고 이색(李穡) 증수기(重修記)의 약지(略誌)가 있고, 그 전문은 지평현 미지산 죽장암 중영기(低平縣彌智山竹杖庵重營記)라는 제목으로 『동문선』 권73에 수록되어 있다.

윤필암(潤筆庵)은 죽장암 부근에 있고 불만한 유물이 없는 작은 암자(小庵)라 한다. 『여지승람』에 「潤筆庵在彌智山李穡以王旨撰懶翁浮屠銘其徒致潤筆物穡不受使修廢寺因名之」라 하고, 윤필암이라 칭하는 것은 이 이외에 묘향산에도 금강산에도 있고 모두 이색의 기록이 있다. 이 건립은 실로 이색이 신륵사 보제 나옹의 탑비를 찬하는 것에 그 유래가 있고, 이색의 기문은 지평현 미지산 윤필암기라는 제목으로 『동문선』 권74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원본은 이미 없어진 것 같고 조선사찰사료에는 이 절에 이 기문이 있고

승정 기원후 140년 갑오년 12월 일 서원(西原) 한정유(韓廷維) 서(書) (崇禎紀元後百四十年甲午臘月日西原韓廷維書)

후 4갑오 정월 일 중간(重刊) 중수승(重修僧) 장훈(莊訓), 주승(主僧) 차상원(車祥元) (後四甲午正月日重刊 重修僧莊訓 主僧車祥元)라고 부기(附記)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현액(懸額)으로서 중간(重刊)되었던 것이다. (승정후 140년 갑오는 필시 130년 갑오의 오류로 영조 50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후4년 갑오는 순조 34년으로 그것이 140년 갑오후의 4년 갑신이 되면 금년에 이르러서도 연수가 맞는 것이 될 것이다.)



죽장암 및 윤필암 원고(3.2.1.)

| 제7장 | 장단군(長湍郡)

1. 개황[概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말하기를, “장단도호부는 본래 고구려의 장천성현(長淺城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우봉군(牛峯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목종(穆宗) 4년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¹¹¹⁾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단주(湍州)로 승격하고, 현종(顯宗) 9년 다시 장단현이 되고 현령을 두어 상서도독이 관장하였다. 문종(文宗) 16년 개성부(開城府)에 직속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4년 임강현(臨江縣)을 병합하여 장림현(長臨縣)이라 하다가, 다시 장단으로 고치고, 임진현(臨津縣)에 합하여 임단현(臨湍縣)이라 하였다. 세조 원년에 다시 장단현이 되고, 세조 2년에 장단 임강을 빼어 임진에 속하게 하고, 4년에 다시 임강 임진을 장단에 속하게 했다. 5년 중궁의 증고조 현조의 3분의 선영이 있어 승격하여 군으로 삼고 치소를 도원역(桃源驛) 지역으로 하였다. 예종 원년에 진(鎭)을 두고 도호부로 승격했다. (長湍都護府本高句麗長淺城縣【一云耶耶一云夜夜】, 新羅景德王改今名爲牛峯郡領縣, 高麗穆宗四年以侍韓彦恭之鄉, 陞爲湍州, 顯宗九年復爲長湍縣置令, 爲尙書都督所管, 文宗十六年, 直隸 開城府, 本朝太宗十四年 并臨江縣, 號長臨縣, 後更以長湍, 竝于臨津 號臨湍縣, 世宗元年復爲長湍縣 令世祖二年省長湍臨江屬于臨津四年復以臨江臨津屬于長湍五年以中宮 曾高祖玄祖三堊在其他陞爲郡移治所于桃源驛之地睿宗元年置鎭陞都護府)”

장단읍지(長湍邑志)에

“광해 5년 읍치를 오목리(梧木里)로 옮겼다. 지금 읍치이다. (光海五年發丑移邑治于梧木里之地今邑治)”로 되어 있다. 『장단읍지』는 승정 기원후 4년 기유 부사 구성희(具性喜)가 읍인(邑人)들을 모아 노산군을 쫓아 왕위를 회복한 후 쓰려고 하여 세조 원년이 병자(丙子)로 되어 있고, 승람이 을해(乙亥)를 원년으로 하여 1년의 차이가 있다.

이것에 의하면 지금의 장단군 지역은 옛날 장단현(長湍縣) 임강현(臨江縣) 임진현(臨津縣)의 땅이다. 개성군(開城郡)과는 시대에 의해 군의 경계에 이동(異動)이 있고, 지금 개성군에 속한 지역은 예전에 장단군 지역인 곳도 있다.

111) 한언공(韓彦恭: 940~1004) 본관은 단주(湍州), 광록소경(光祿少卿) 한중려(韓聘禮)의 아들이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광종 때 15세로 광문원(光文院)의 서생(書生)이 되었고, 뒤이어 승사랑(承事郎)이 되었다가 내승지(內承旨)를 거쳐 내의승지사인(內議承旨舍人)에 올랐다. 984년(성종 3)에 형관시랑이 되었고, 이어 병관시랑에 올랐다. 990년 송나라에 사은사(謝恩使)로 갔다가 금자광록대부 검교병부상서 검야사대부(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尙書兼御史大夫)에 제수되고 대장경 481할(函) 2,500권과 송 태종이 지어 비장한 「전소요연화심륜(錢遼蓮花心輪)」을 가지고 돌아왔다. 어사 예관시랑 판예빈성사(御事禮官侍部判禮賓省事)가 되어 송나라의 제도를 본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실현되자 그 부사(副使)를 거쳐 중추원사가 되었다. 전중감(殿中監)·지예관사(知禮官事)를 거쳐 참지정사 상주국(參知政事上柱國)이 되었다. 목종이 즉위하면서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에 제수되었고, 1001년(목종 4)에 문하시중에 올랐다. 한언공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목종은 본관인 장단을 단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다시 전폐(錢幣)를 쓰고 추포(繡布: 거친 배)를 금하여 백성들의 불평이 커지자 그 폐단을 상소하여 전폐를 다주(茶酒)나 식미(食味) 등의 점포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그밖의 교역에서는 토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개국 후 감수국사(開國侯監修國史)가 되었으며 죽은 뒤 내사령(內史令)에 추증되었다. 1027년(현종 18)에 목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1033년(목종 2)에 다시 태부(太傅)가 증직되었다. 시호는 정신(貞愼)이다.



장단군 개황 원고(2.1.)

2. 호로고루터[瓠蘆古壘址]

호로고루터[瓠蘆古壘址]는 장단군(長湍郡)의 장남면(長南面) 원당(元堂) 재미산(財尾山)과 임진강 마주 편 연천군(漣川郡: 舊 積城郡) 적성면(積城面) 장좌리(長佐里)의 작은 언덕(小丘) 위에 있는 이 루(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문무왕 2년조(文武王二年條)에, “정월 왕이 유신(庾信) 인문(仁問) 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에게 명령하여 수레 2천여 대에 쌀 4천 섬과 조(租) 2만 2천여 섬을 싣고 평양(平壤)으로 가도록 명령하였다. 18일에 [유신(庾信) 등 아홉 장군]이 풍수촌(風樹村)에서 묵었다. 물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싣게 하였다. 23일에 [유신(庾信) 등 아홉 장군]이 칠중하(七重河)를 건너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귀당(貴幢) 제감(弟監) 성천(星川)과 군사(軍師) 술천(述川) 등이 이현(梨峴)에서 적의 군사를 만나 공격하여 죽였다. 2월 1일에 유신(庾信) 등 [아홉 장군]이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평양에서 3만 6천 보(步)되는 곳이다. (중략) 정방은 군량을 언자 곧 전투를 그치고 돌아갔다. 유신(庾信) 등 [아홉 장군]이 당나라 군사들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려 과천(果瓜川)을 건넜다.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오자 군사를 돌려 맞싸웠는데, 1만여 명의 목을 베고 소형(小兄) 아달해(阿達兮) 등을 사로잡았으며 병기(兵器) 1만여 점을 획득하였다. (김유신전 역시 동일하다) [正月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蒜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 遇賊校勘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중략) 定方得軍糧,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校勘川. 高句麗兵追之, 迴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兒阿達兮等, 得兵械萬數.(金庾信傳亦同)]”라 하였다.

동서(同書) 문무왕 11년 왕이 당나라 총관 설인귀(薛仁貴)¹¹²⁾에게 답서를 보내는 글 중에, “용삭(龍朔)2년 정월에 이르러서 유총관은 신라의 양하도(兩河道) 총관 김유신 등과 함께 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했습니다. 당시는 굶은비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얼어 죽었으므로, 가져갔던 군량을 모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대군이 또 돌아가려고 하였고 신라 병사와 말의 양식도 다 떨어졌으므로 또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손발이 얼고 상해서 길에서 죽은 사람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행렬이 호로하(瓠蘆河)에 이르자 고구려 군사와 말이 막 뒤를 쫓아와서 강 언덕에 군영을 나란히 쳤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피로하고 굶주린 날이 오래되었지만 적이 멀리까지 쫓아올까 두려워서 적이 미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너 싸웠는데, 선봉이 잠깐 싸우자 적의 무리가 무너져 마침내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습니다.(至龍朔二年正月，劉摠管共新羅兩河道摠管金庾信等，同送平壤軍糧。當時陰雨連月，風雪極寒，人馬凍死，所將兵糧，不能勝致。平壤大軍又欲歸還，新羅兵馬，糧盡亦迴。兵士饑寒，手足凍瘃，路上死者，不可勝數。行至瓠蘆河，高麗兵馬尋後來赴，岸上列陣。新羅兵士疲乏日久，恐賊遠赴，賊未渡河，先渡交刃，前鋒暫交，賊徒瓦解，遂收兵歸來。)”

동서(同書) 문무왕 13년 조에, “당나라 군사가 말갈(靺鞨)과 거란(契丹)의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의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무릇 아홉 번 싸워서 우리 군사가 이겨 2천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나라 군사 중에서 호로(瓠蘆)와 왕봉(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자는 가히 셀 수가 없었다.(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九九戰，我兵克之，斬首二千餘級，唐兵溺瓠蘆·王逢二河，死者不可勝計。)”

동서(同書) 문무왕 15년 조에, “당나라 군사가 거란(契丹)과 말갈(靺鞨)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七重城)을 둘러쌌지만 이기지 못하였고,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임을 당하였다.(唐兵與契丹·靺鞨兵，來圍七重城，不克，小守儒冬死之。)” 라고 기록되어 있다.

칠중성(七重城)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증성현(重城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칠중현(七重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적성현(積城縣)이다.(重城縣，本高句麗七重縣，景德王改名，今積城縣)”라고 되어 있다. 칠중(七重)의 적성(積城)도 칠중하(七重河)의 적성 북쪽 임진강 즉, 고랑포(高浪浦) 부근이고, 과천(果川) 호로하(瓠蘆河)로 역시 적성 북쪽 임진강에서 칠중하(七重河) 혹은 거기에 접한 지역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호로고루(瓠蘆古壘)라고 전해지는 것의 그 위치에서 오류가 된다. 적성의 북쪽은 신라방면에서 광주(廣州:한산주) 양주(楊州)를 지나 삭령(朔寧)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요로(要路)로 지금의 호로루(瓠蘆壘)가 있는 곳은 임

112) 설인귀(薛仁貴:614~683) 강주 웅문(龍門:지금의 산시 성[山西省] 지산 현[岢嵐縣]) 사람이다. 645년(보정왕 4)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군졸로 응모(應募), 안시성 공방전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발탁되었다. 658년 우령군중랑장(右領軍中郎將)으로 임명되어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며, 이듬해 횡산(橫山)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했다. 666년(보정왕 25) 고구려의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죽고 그 장남 남생이 아우 남건(南建)·남산에게 쫓겨 당나라에 와서 원병을 청하자,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요동안무대사(遼東安撫大使) 계필하력(契苾何力)을 도와 다시 고구려를 침략했다. 그는 남건의 군사를 격파하고 남소(南蘇)·목저(木底)·창암(蒼巖) 등 3성을 함락시켰다. 668년 부여성·평양성을 함락,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자, 그는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취임했다. 671년(신라 문무왕 11) 계림도행군총관(鷄林道行軍總管)으로 신라를 침입했으며, 675년 신라의 천성(泉城)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다시 침략했으나 소부리(所夫里)의 기벌포(伎伐浦)에서 패했다. 681년 과주자사(瓜州刺史)·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돌궐을 격파했다. 뒤에 본위대장군(本衛大將軍)으로 임명되고 평양군공(平壤郡公)에 봉해졌다.

진강 나루터[渡場]의 한 요충지이다. 호로(瓠蘆)는 조선음으로 호로(horo)이고 고랑(高浪)은 고랑(korong)이 되는 음에 가깝고 언어학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장단지(長湍志)』에, 호로그루(瓠蘆古壘) “고남면 호로탄에 있고 두 개의 루가 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석벽으로 견고하다. 세상에서는 삼국시기의 고루라고 전한다. 당나라 유인궤가 병력으로 노하를 단절했으며 신라의 칠증성이 바로 이 루이다(在古南面瓠蘆灘有二壘隔江相對因石壁爲固世傳三國時古壘唐劉仁軌卒兵絕蘆河新羅七重城卽此壘)”라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보부(補部)에는 “호로그루는 동쪽(장단) 32리 호로탄 위(적성군)에 있고 두 개의 루가 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석벽으로 되어 견고하며 세상에서는 삼국시기 고루라고 전한다(瓠蘆古壘在東(長湍)三十二里瓠蘆灘上(積城郡)有二壘隔江相對因石壁爲固世傳三國時古壘)”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단군 향토사에는 그것이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고, 다이쇼 4년(1915) 12월 1일자로 장남면(長南面: 고남면과 기타 다른 것이 병합하여 부쳐진 새로운 면 명칭) 면장 이근항(李根恒)이 장단군 수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호로그루(瓠蘆古壘)라 함은 상세히 조사해 보아도 호로(瓠蘆)라는 지명도 없고 고루(古壘)라는 전래의 설에도 지정할 곳이 없다.” 라 하여도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이 고루에 대한 검출(檢出)이 용이하다고 믿고 그것을 검출한다.

위의 유적지는 이미 기록한 것처럼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 재미산(財尾山)과 임진강(臨津江)을 거리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연천군 적성면 장좌리(長佐里)의 작은 언덕 위에 있어 동서(東西)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재미면(財尾面)은 고랑포(高浪浦)라 칭하는 시장(市場)의 동쪽 약 13정(町)에 있다. 고랑포는 장단·삭령 가도의 임진강에 접촉하는 지점에 있고, 장단의 동쪽 3리가 좁는 곳에 있다. 임진강 동쪽에 접한 재목암(材木岩) 연변으로 강(江)에 단애(斷崖)를 이루는 상부의 평평한 하나의 대지가 있다. 이 대지의 서북쪽에 첨단으로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이것이 재미산(財尾山)이다.

재미(財尾)는 한쪽은 임진강에 접하고 한쪽은 저지(低地)에 접해 이 이면은 단애를 이루고 다른 한쪽은 대지(臺地)로 서로 이어진다. 이어지는 저지는 동서로 길게 남북으로 좁게 공호(空濠: 빈 해자)의 형태가 된다. 이 요충지 지형의 남변(南邊: 즉 대지에 이어지는 면)에 길이 약 40칸 폭 4칸의 석루(石壘)가 건축되어 삼각형의 요새가 형성된다. 이 석루는 강의 흐름(江流)과 거의 직각을 이루고, 동북에서 서남에 걸쳐 있다. 동북쪽에서는 높이 20척에 불과해도 서남의 끝에는 40척의 높이이다.

이 루(壘)에 대해 옛적성(舊積城) 방면의 루터(壘址)는 강을 건너 멀리 바라보고 그 지역을 답사하지 않아도 구릉(丘陵)의 비교적 평평한 정상부를 석벽(石壁)으로 포위하고, 임진강 방면의 경사면 대부분이 성안으로 들어오고 강에 면하는 골짜기에 성문이 있는 것 같다. 사진 53은 고랑포 서쪽에서 동남을 향해 재미산을 찍은 사진으로 바라보는 조금 왼쪽에 있고 강가 낮고 평평한 구릉의 북단에 조금 높은 것이 재미산이다. 그 남쪽에 더 조금 높게 보이는 것은 루벽

(壘壁)이 가로로 보여지는 것이다. 오른쪽 강의 마주편 저지의 전방에 있는 작은 언덕에 고루(古壘)가 있다. (이 고루는) 적성면 구릉의 일단이다. 사진 54는 고랑포의 동쪽에서 재미산을 찍은 사진이고, 사진 55는 고랑포 서쪽에서 적성군측의 고루(古壘)가 있는 언덕을 찍은 것이고, 루(壘)는 이 언덕 중앙의 정상이다. 사진 56은 재미산 석벽을 바깥쪽 남쪽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림 7은 인화할 때 오류로 좌우가 전도되었다.

앞에서 기록한 호로그루라 칭하는 것이 과연 삼국시대부터 고루라 한 것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임진강이 이 지방에서 호로하(瓠蘆河)라 칭하는 것으로 당시 중요지점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루(壘)는 필시 삼국 말 임진강을 억제하기 위해 쌓은 것이고, 한강에 있어서 광진고성(廣津古城) 평고성(坪古城)과 동일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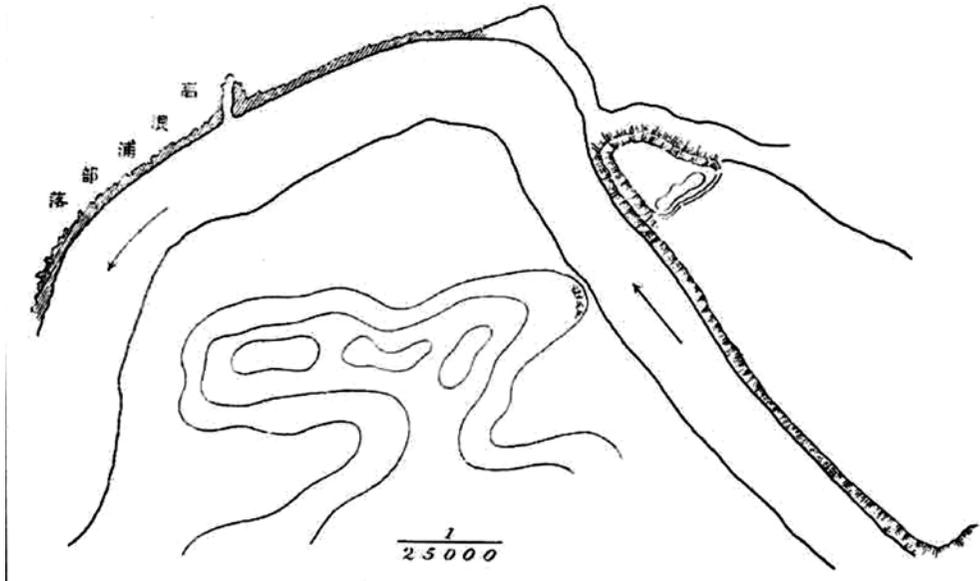


그림 7.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및 연천군 적성면 호로그루터



사진 53.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 재미산 호로부터 1



사진 54.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 재미산 호로부터 2



사진 55.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호루석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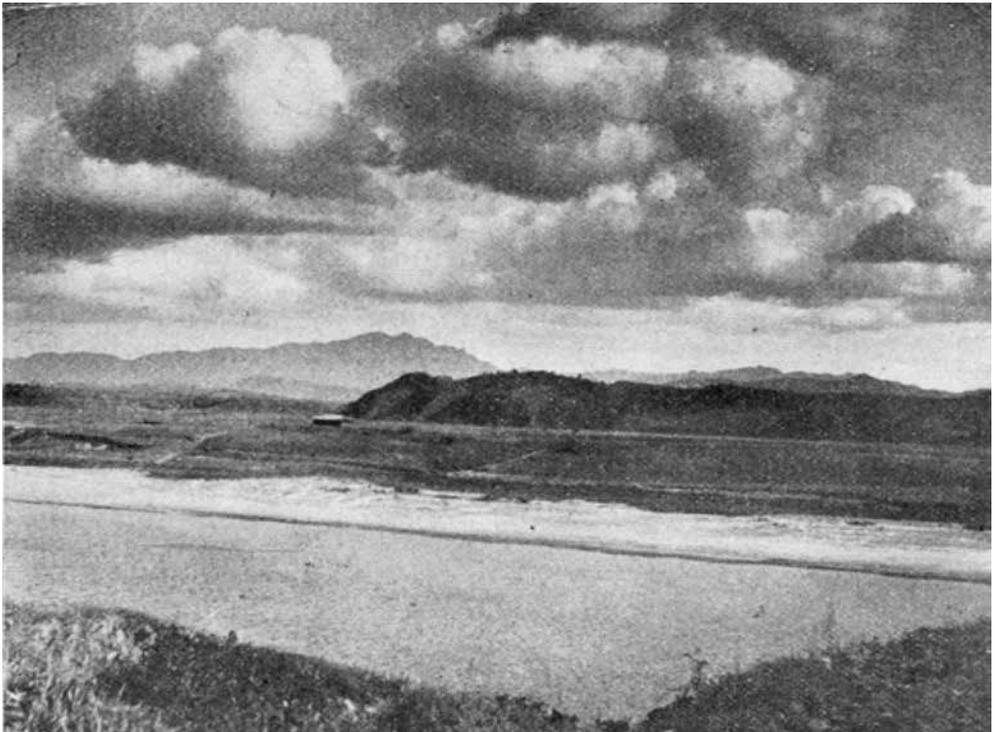


사진 56. 경기도 연천군 적성면 호로부터



NO無1132-11



NO無113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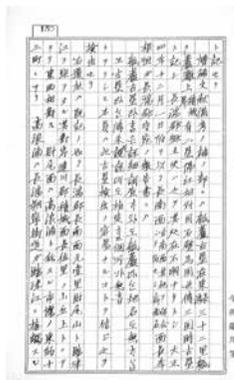


NO無113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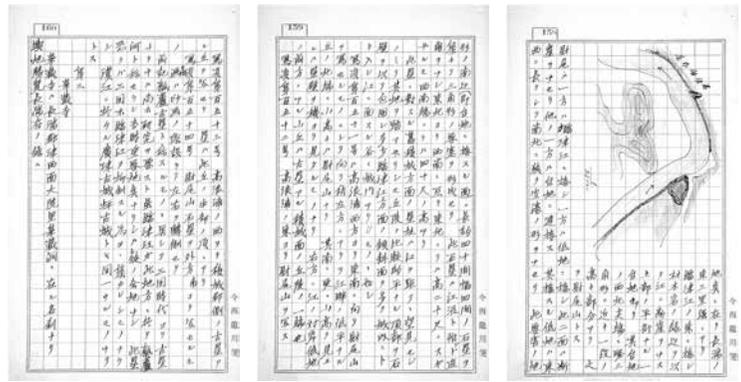


NO無1132-14

호로그루터 유리간판 사진



호로그루터 원고(4.3.2.1)



호로그루터 원고(7.6.5.)

(해제)

호로그루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2006년 1월 2일 사적 제467호로 지정되었다.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할 당시 호로그루와 칠중성이 같은 성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확인된다. 호로그루의 평면형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면해 있는 현무암 절벽에 잇대어 만들어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현재 남북 161.9m와 북벽 146m, 동벽 93m가 남아 있고, 서벽은 절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동벽의 정상부와 서쪽 끝부분에는 장대가 설치되어 있다. 성을 축조한 시기는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참고할 때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로그루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1년 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지표조사를 통해 시작된다.¹¹³⁾ 1차 발굴조사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2001년 실시하였다. 조사는 동벽 구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는데 성벽의 축성방법이 확인되었다.¹¹⁴⁾ 2차 발굴조사는 2005년에 이루어졌는데 성 내부 시굴조사와 동벽구간 등을 조사하여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목책열, 지상건물터, 지하식 벽체건물터, 우물, 토광, 수혈 등을 조사하였다.¹¹⁵⁾ 3차 발굴조사는 2009년, 4차 발굴조사는 2011년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고구려 석축 성벽과 지하식 건물, 건물터 7동, 박석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¹¹⁶⁾ 한편 성벽이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는 동벽 중앙에 있는 치에 대해서는 한울문화재연구원이 2016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 축성방식과 구조를 파악하였다.¹¹⁷⁾ 다수의 발굴조사를 통해 호로그루 초축은 고구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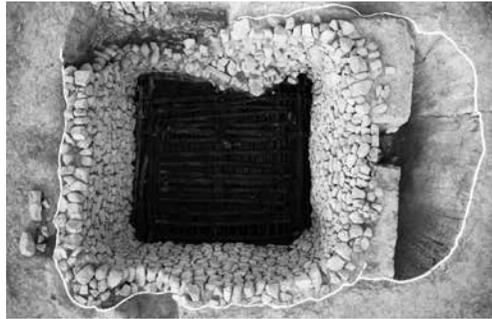
113) 김성범, 1992,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1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漣川 瓠盧古壘 -第1次 發掘調査報告書-』.

1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漣川 瓠盧古壘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11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 2014, 『漣川 瓠盧古壘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117)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호로그루터 유리건판 사진

3. 화장사(華藏寺)

화장사(華藏寺)는 장단군 진서면(津西面) 대원리(大院里) 화장동(華藏洞)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다.

『여지승람(輿地勝覽)』 장단부조(長湍府條)에, “화장사(華藏寺) 보봉산(寶鳳山)에 있는데, 처음 이름은 계조암(繼祖庵)이다. 지공(指空)이 처음에 터를 보고 크게 절을 지어 마침내 큰 총림(叢林)이 되었다. 불전(佛殿)과 승당(僧堂)의 제도가 매우 굉장하여 매년 여름이면 중들이 모여들어 참선하는 것이 양주(楊州) 회암사(檜巖寺)와 어금버금하다. 이 절에 지공이 가져 온 서축 패엽경(西竺貝葉經)이 있어서 지금까지 전해진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14년에 김이(金怡)의 나이 24세로 운운(華藏寺在寶鳳山寺初爲繼祖庵指空始相地大構蘭若遂爲大叢林其佛殿僧堂制度其牢每年夏僧徒聚居坐禪與楊州檜岩相甲乙寺有指空持來西竺貝葉梵經至今相傳○高麗忠烈王十四年金怡年二十四云云)”으로 되어 있다.

지공(指空)의 사적에 대해 후에 다시 기술해야 하지만 여말 이색이 찬한 “인도 제납박타 존자 지공부도명병서(西天提納薄陀尊者指空浮屠銘并序; 동문선 권119에 수록)”에 의하면 지공은 태정(泰定) 연간에 원나라 황제를 보러 가고, 동쪽으로 고려에 들어오고 황제의 뜻에 의해 원으로 돌아가 지정(至正) 23년 겨울 12월에 입적했다.

고려사 세가 충숙왕 15년 무진조(戊辰條)에, “7월 경인 호승(胡僧) 지공(指空)이 연복사(延福寺)에서 계율을 설법하자 남녀가 다투어 달려가서 들었다. 계림부(鷄林府)의 사록(司錄) 이광순(李光順) 역시 무생계(無生戒)를 받고 임지(任地)에 갔는데, <경주>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성황(城隍)에 제사지낼 때 고기를 쓰지 못하고 하고, 백성들이 돼지를 기르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므로 주민(州民)들이 하루 만에 그 돼지를 모두 죽여 버렸다. (七月庚寅 胡僧指空, 說戒於延福寺, 士女奔走以聽. 鷄林府司錄李光順亦受無生戒, 之任, 令州民, 祭城隍, 不得用肉, 禁民畜豚甚嚴, 州人一日盡殺其豚.)”

동서(同書) 공민왕 19년 경술조(庚戌條)에, “정월 갑인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하여 부처의 치아 및 호승(胡僧) 지공(指空)의 머리뼈를 관람하고, 몸소 스스로 머리에 이고 궁궐 안으로 맞아 들었다. (正月甲寅 幸王輪寺, 觀佛齒及胡僧指空頭骨, 親自頂戴, 遂迎入禁中.)”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고려에서 지공(指空)을 숭봉(崇奉)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이 승에 대해서는 후에 기록한다.

고려 왕조[高麗朝]에 보봉산 화장사(寶鳳山華藏寺) 외에 다른 화장사(華藏寺)가 있다. 이규보(李奎報)가 찬한 비명 가운데 “고 화장사 주지 왕사 정인대선사 추봉 정각국사 비명(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을 받들어 서술한 것이 있고, 이상국집(李相國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 비명에 의하면 정각국사(靜覺國師)는 고려 고종(高宗) 4년 정우(貞祐) 5년에 화장사(華藏寺) 경내 환경과 지형이 깨끗하고 좋으며 땀나무와 물이 풍족하다 하여 그 절에서 은거하였다. 비명에 국사(國師)가 이 절을 떠날 때 및 거쳐 중의 일을 기록하여, “떠나려 할 때 진강공(晉康公)이 국사를 맞이하여 전별연을 베풀었는데, 진강공이 나가서 절하고 친히 국사를 부축하여 뜰에 올랐다. 떠나는 길에 오르니 좋은 말을 증정하고 또 문객(門客) 등을 보내어 국사(國師)를 호위하게 하였다. 국사가 비록 천리 밖에 있었으나 그를 돌봐 주는 왕의 마음은 그침이 없어, 자주 근신(近臣)

을 보내어 문안하고 선물을 보내는 일 또한 거르는 달이 없었다.(將行也晉康公邀錢公出拜親扶掖上階及上道贈實馬又遣門客等衛行師雖在千里上之眷意不已屢遣近臣問安其嚙餉亦無虛月矣)라 하였다. 이것에 의해 이 화장사(華藏寺)는 국도 근교의 화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천리 밖(在千里)의 말은 이 절이 먼 곳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된다.

지공(指空)이 고려에 있었던 것은 이색(李穡)의 문장에 의해 태정(泰定)에서 천력(天曆)에 이르는 사이 즉 충숙왕 11년에서 동 15년경에 이르기까지 5년 이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공이) 고려를 떠난 시대는 명백하게 결핍되어 있어도 그가 가고 온 것은 이 기간에 있고, (이 기간에) 화장사(華藏寺)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이 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이 이 절에 있어서 계조암(繼祖庵)을 지공의 거처로 했다. 지공 이전 화장사의 이름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 열전 김이전(金怡傳)에 충렬왕 14년 이(怡)의 나이 24세 이따금 화장사에 머물렀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승람에도 전제하고 있다). 지공 이전에 이미 화장사가 있었던 것 같아도 이 기사는 계조암이 화장사로 개명된 후에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정각국사(靜覺國師)의 은거한 곳이 천리밖에 있는 화장사를 승람에서 잘못하여 보봉산 화장사라고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후에 고증해야 할 것이다.

화장사(華藏寺)는 보봉산(寶鳳山)의 하나로 화장산(華藏山)의 높은 곳에 있고, 개성(開城)에서 떨어진 곳이 3리이다. 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절의 스님들이 이 산의 높은 곳에서 거처하며 스스로 하나의 부락을 이루었다.

이 절에 패엽경(貝葉經)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일인데 십수 년 전에 흩어져 없어져 [敝邈] 지금은 한 편(片)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 큰 절은 일찍이 세키노(關野)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건축물 기타에 대해서는 (세키노) 박사의 상세한 보고가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주요한 2~3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하나. 지공정혜영조지탑(指空定慧靈照之塔)

화장사 객전(客殿:손님을 맞는 전각) 부근에 있다. (사진 57은 이 탑이다. 이른바 중형으로 형태가 아름답다) 「지공(指空)」「정혜령(定慧靈)」「조지탑(照之塔)」의 층서(階書)로 3행이 새겨져 있다. 고려에 있어서 소(昭)의 글자는 광종(光宗)의 휘이기 때문에 피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서 소(昭)는 소(炤)로 만들거나 소(昭) 아래에 화(火)를 사용하여 소자(昭字)와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혜종(惠宗)의 휘 무(武)를 피해 앵무(鸚鵡)의 무자(鷓字)를 무(鷓)로 만든 예이다. 이 탑은 지금 조(照)를 사용한 것은 과연 고려시대 만든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된다.(무자(武字)의 예외인 것 무릉(武陵)의 조에서 말하고 있다) 지공의 머리뼈(頭骨)가 고려에 전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색(李穡)의 “인도[西天] 제납박타 존자 부도명 서(提納薄陀尊者浮屠銘序)”에, “지정(至正)

23년(1363, 공민왕 12) 겨울 12월에 내시가 오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략) 무신년(1368, 공민왕 17) 가을에 병란이 일어나 적들의 공격이 성에 임박하자 다비(荼毗)하여 넷으로 나누어 달현(達玄)·청혜(淸慧)·법명(法明)·내정(內正)인 장길록(張吉祿)이 제각기 가지고 갔는데 대사의 도제(徒弟)인 달현은 바다를 향해하고, 사도(司徒) 달예(達叡)는 청혜에게서 나누어 가지고 모두 동국(東國)으로 돌아갔다. 임자년(1372, 공민왕 21) 9월 16일에 왕명에 따라 회암사에 부도를 세우고 탑에 깨끗이 씻은 뼈를 넣으려다가 약간의 사리를 얻었다.(至正二十二年冬十二月市寂于貴化方丈(中略)戊申秋兵臨域荼毗四分達玄淸慧法明內正張祿吉各持而去其徒達玄航海司徒達叡從淸慧得之俱東歸壬子九月十六日以王命樹浮屠於檜岩寺將入塔灌骨得舍利若干粒)”)으로 되어 있다.

공민왕 19년 지공의 머리뼈를 왕궁 내에 영입하는 것과 역사에 보여지는(이미 기록함) 이 탑의 건립은 공민왕 21년 임자년 부도의 회암(檜岩)에 건립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자(照字)를 휘(諱)로 한 것은 조선에 들어와서 건립되었던 것인가



사진 57.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화장사 지공탑



사진 58.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화장사 7층석탑

둘. 지공화상상(指空和尚像)

좌상(坐像)으로 높이가 3척 5촌이다. 채색을 실시하여 소상(塑像:찰흙이나 석고 따위로 만든 상) 같아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지공의 용모에 대해서는 이색의 찬(撰)한 부도명서(浮屠銘序)에 「대사께서는 변발(髮)과 흰수염을 하고 계셨는데 신기(神氣)가 흑빛으로 빛나고 복식(服食)을 매우 화려하게 하셨으며, 평상시 거처하실 때엔 근엄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두려울

정도였다.(師辨髮白髯神氣黑瑩服食極其侈平居儼然人望而畏之)」라고 되어 있고, 상(像)은 구레나루가 검고 [髯黑] 우습게도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다. 여말에 만들고 그 이후 보수한 것 같다. (사진 59는 이상이고, 사진 60은 여주 신륵사에 소장하고 있는 화상으로 용모와 의복이 서로 다르다.)



사진 59.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화장사 내 지공화상



사진 60.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신륵사 내 지공화상

셋. 칠층석탑[七重石塔]

대웅전(大雄殿) 앞에 있다. 섬약하고 번거로운(纖弱煩) 느낌이 있다. 위에서 제1층에는 여래(如來)의 두 자를 제2층에는 보살(菩薩)의 두 자를 제3층에는 연각(緣覺)의 두 자를 제4층에는 정면에 성문(聲聞)의 두 자를 이면에 옹호(擁護)의 두 자를 좌측에 팔금강(八金剛) 세 자를 우측에 사보살(四菩薩) 세 자를 제5층 및 제7층에는 문양을 제6층에는 기진자(寄進者) 승속(僧俗)의 이름을 새기고, 기진자의 성명 중 속인(俗人)에게는 선을 행하여 인(仁)을 이룩한 사람[善克仁]의 이름으로 돌이 갈라져 마멸되지 않도록 하여 판독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해 일단 연대를 조사해도 아직 얻을 수 있다. 여말(麗末) 혹은 선초(鮮初)의 작품이다.(사진 58)

넷. 공민왕화상(恭愍王畫像)

세로 6척 4촌 5분, 폭 5척 1촌 5분, 채색이 정밀한 그림으로 의관(衣冠)을 바로하여 옥좌(玉座)에 앉아 있는 상(像)으로 한 모퉁이에 고려 성군 공민대왕의 진영[高麗聖君恭愍大王之眞]이라

는 제목이 있다. 우수한 작품으로 공민왕 스스로 그린 것이라고 전하며, 공민왕이 그림에 능숙한 것이 유명한 사실인 것은 왕이 그것을 그린 기법에 의심을 해도 적어도 제명(題名)은 왕이 쓴 것이 명백하며 그림 또한 왕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의심해도 여말(麗末)의 유물로서 귀중한 것이 된다.(사진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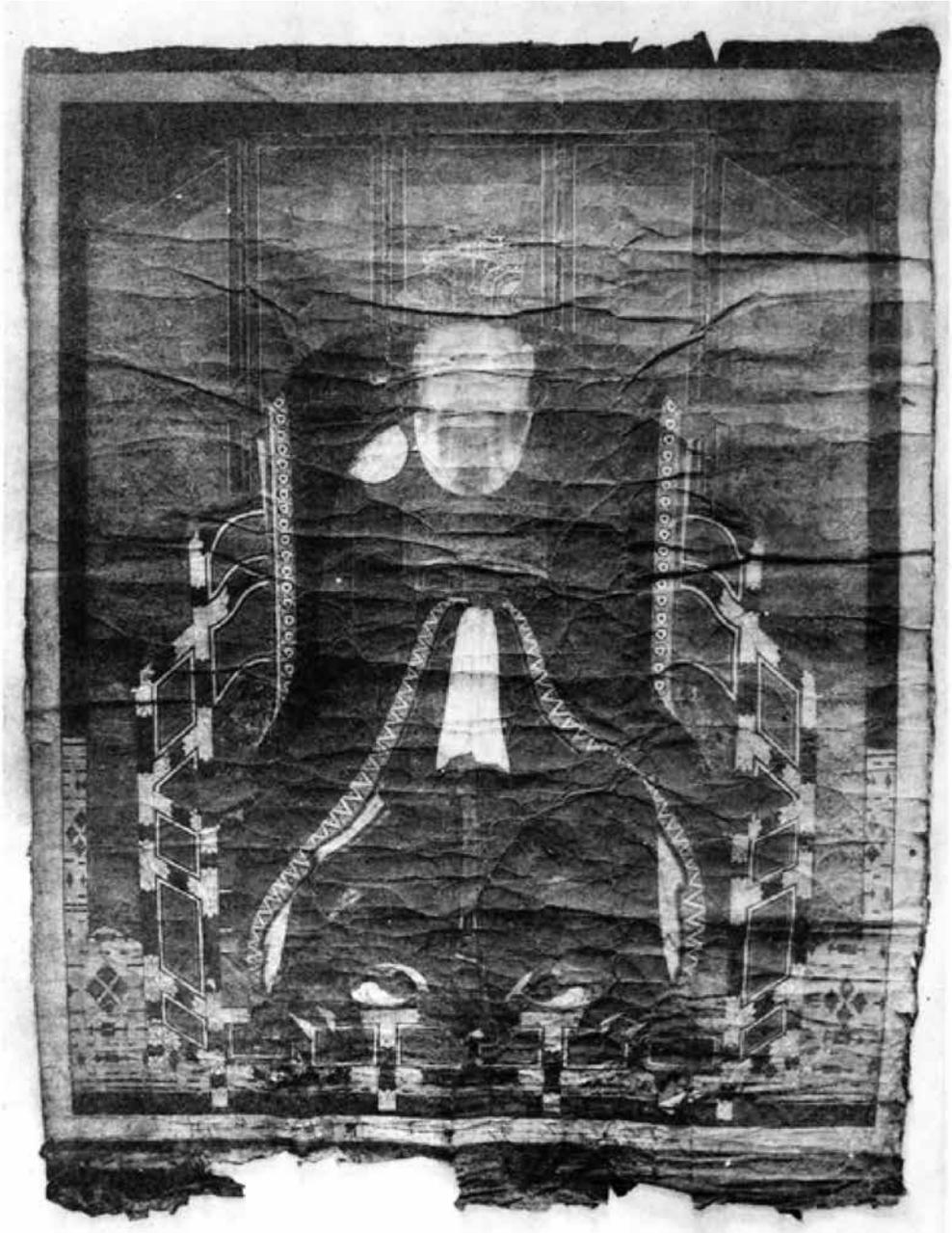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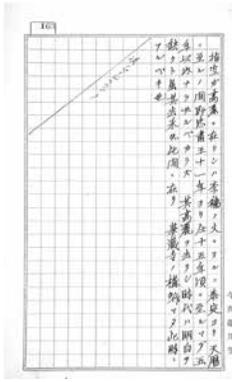


사진 61.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화장사 공민왕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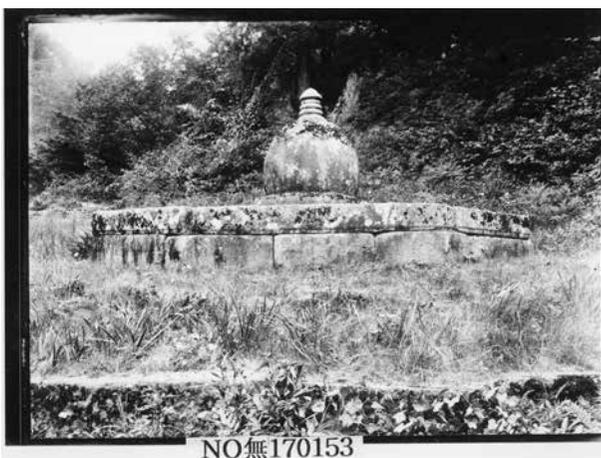
화장사 원고(4.3.2.1.)



화장사 원고(8.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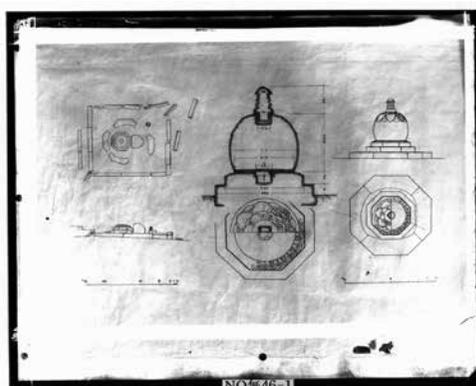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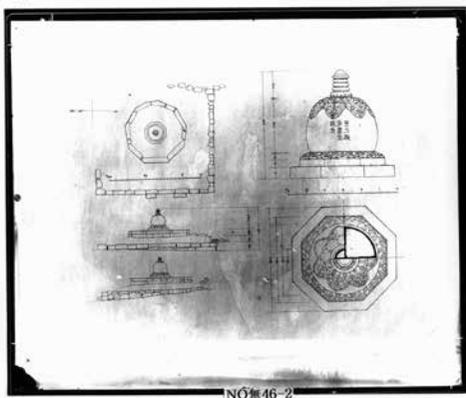
화장사 원고(9.)



화장사 지공정혜영조탑(왼쪽)과 7층석탑(오른쪽) 유리건판 사진



화장사 목조지공화상상(1), 중초비명(2), 고려 공민왕 영전(3) 유리건판 사진



화장사 지공정혜영조탑(왼쪽)과 동남봉 부도(오른쪽) 평면도 유리건판 사진

(해제)

화장사는 북한에 있는 사찰로서 현재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황해북도 개성시 보봉산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의 말사로서 1115년(예종 10) 묘응(妙應), 1216년(고종 3) 정각국사(靜覺國師)가 머물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점에서 고려 중기 이전에는 이미 창건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개금불사(改金佛事)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찰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북한지역에 있어 사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화장사는 북한 보존급 제53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고, 경내에 북한 국보 제134호로 지정된 화장사 지공정혜영조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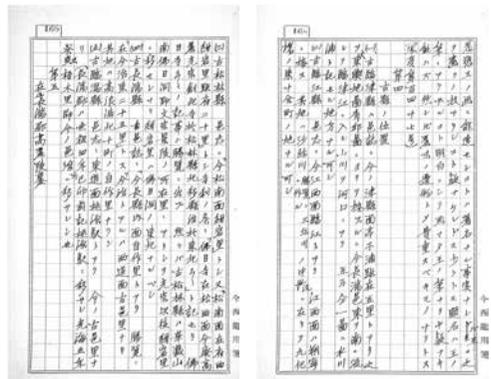
4. 옛 현(縣)의 위치

(하나) 옛 임진현(臨津縣)은 읍지에 지금의 진현면(津縣面) 정자포(亭子浦)에서 5리 떨어진 곳이다. 그것을 <대동여지도>, <청구도>에 의해 조사하면 지금의 장단을 동쪽을 남쪽에서 흘러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작은 천(小川)의 하구에 있다. 5만분의1 지도에 수천포(水川浦)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방이 된다.

(둘) 옛 임강현(臨江縣) 읍지에 지금의 강서면(江西面) 임강(臨江)에 있다. 강서면은 삭령(朔寧)에 접하는 그 지역은 사미천(沙彌川: 승람에 삼미천<三彌川>으로 되어 있음)의 중류(中流)에 있고 구화장(九化場)의 동쪽 10여 정(町)의 지역이다.

(셋) 옛 송림현(松林縣) 읍지에 「지금의 송남면 감암리(今松南面紺岩里)」로 되어 있고 또 「송남면은 부 서쪽에 있고 감암리는 부에서 20리 떨어져 있다(松南面在府西紺岩里距府二十里)」라 하고, 사찰조(寺刹條)에 「불일사는 송서면에 있고 지금은 폐사되었다. 고려 광종 때 이 절이 창사되고 (이 절은) 송림현 북쪽으로 현치를 옮겼다(佛日寺在宋西面今廢高麗光宗創此寺於松林縣北移縣治於東北云云)」라고 기재되어 있다. 불일사(佛日寺) 운운의 기사는 승람(勝覽)에 나오고, 그것은 옛 송림현(松林縣)은 화장산(華藏山) 남쪽 불일동(佛日洞) 즉 문종 경릉(文宗景陵)의 소재리(所在里)에 있고 광종 이후 감암리로 옮긴 것이 된다. 감암리는 불일동의 동북이 될 것이다.

(넷) 옛 장단현(長湍縣) 읍지에 「지금의 장단현 내면(內面) 자작리(自作里)에 있다. 승람에 「지금 현치는 동쪽 25리에 있다(在今治



장단군 옛 현의 위치 원고(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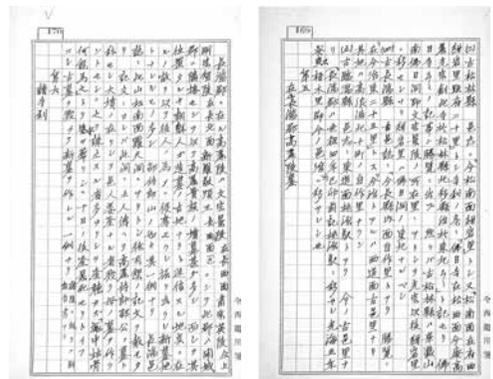
東二十五里」라 하고, 금치(今治)가 있는 곳은 서도면 고읍리가 된다. 그 지역은 고랑포 북쪽 10정(町)의 자작리(自作里)이다.

(다섯) 옛 임단현(古臨湍縣) 읍지에 동도면(東道面) 도원역(桃源驛)에 있다. 지금의 고읍리(古邑里)이다. (장단군은 세조4년 기묘(己卯)에 앞에 기록한 도원역으로 옮기고 광해 5년 계축(癸丑)에 오목리(梧木里) 즉 지금의 읍지 소재지로 옮긴 것이 된다)

5. 장단군 내 고려능묘(高麗陵墓)

장단군에 있는 고려 능은 문종 경릉(文宗 景陵: 長西面に 있음) 숙종 영릉(肅宗 英陵: 동상) 명종 지릉(明宗 智陵: 장서면에 있음) 신라 경순왕릉(敬順王陵: 장남면에 있음)이 있고, 북쪽의 군은 개성군에 인접하여 고려 귀족의 분묘가 매우 많다. 그리고 그 위치와 조선인이 묘를 조성할 때 길지(吉地)라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후인(後人)에 의해 침탈되고 굴을 파서 새로운 묘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시랑산(邵侍郎山) 같은 것이 하나의 예이다. 『장단읍지(長湍邑誌)』에 이 산은 송남면(松南面) 나척동(羅尺洞)에 있고 서유구(徐有渠)의 기문(記文)에 실려 있다. 기문에 의하면 이 나척동 토인전(土人傳)에 고려시랑(高麗侍郎) 소공(邵公)의 묘라 칭하는 큰 분묘(大墳)가 있는데, 장단읍인 강규(姜奎)라는 자가 (이 분묘를) 훼손하여 어머니의 묘를 만들려고 하여 (읍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하지 말 것을 간(諫)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규(奎)는 듣지 않고 「분묘 안의 고골(枯骨)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塚中枯骨何能爲之)」라며 어머니의 묘를 만들었다. (묘를 만든) 10일 후 규(奎)가 폭사(暴死)했다고 한다.

이것은 고묘(古墓)를 훼손하여 새로운 묘를 만드는 하나의 예이다. (여러 능(諸能)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서가 있다)



장단군 내 고려능묘 원고(2.1.)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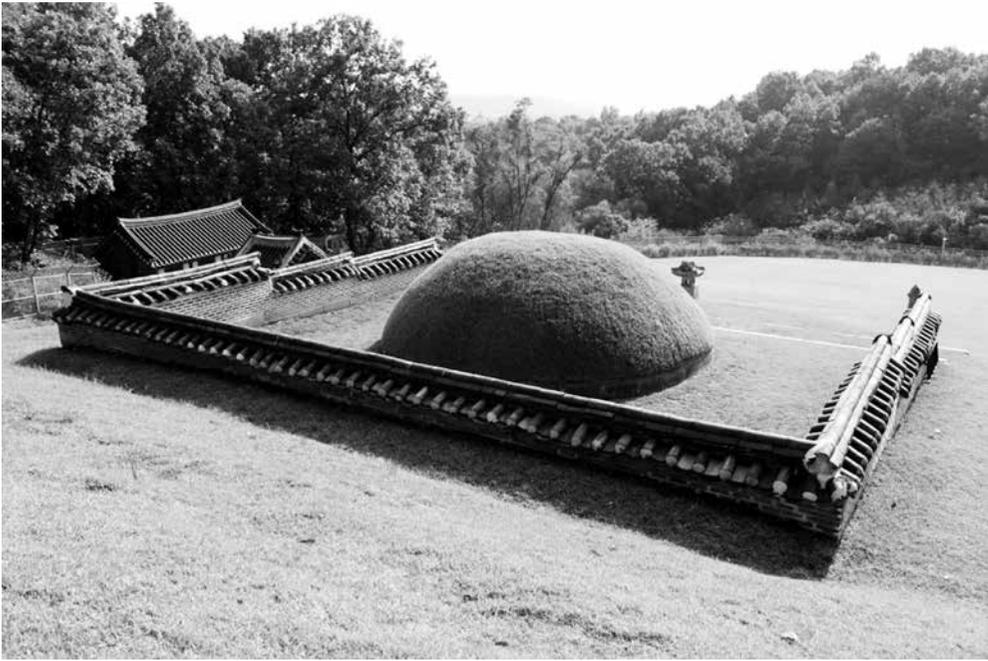
고려 문종(재위: 1046~1083)의 경릉은 북한의 황해북도 장풍군 대덕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보존급 제5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숙종(재위: 1095~1105) 영릉은 개성특급시 판군 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보존급 제5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종(재위: 1170~1197) 지릉은 몽고의 침략에 의해 훼손된 것을 1255년(고종 42)에 새롭게 보수한 것이다. 고려 왕릉 가운데 가장 훼손상태가 심하다. 지릉은 일제 강점기에 현황조사와 수습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지릉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여지녕쿨무늬대접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다(본관 004908-000). 장단군에 속해 있는 고려 왕릉 가운데 숙종 영릉에 대해서는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현황조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된 바 있다. 기타 문종 경릉, 명종 지릉, 경순왕릉 등에 대해서는 간략한 현황 정리가 함께 실려 있다.¹¹⁸⁾

경순왕릉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번지에 위치하는데 1975년 6월 25일 사적 제244호로 지정되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무덤으로서 높이 약 3m, 지름 7m 규모이다. 지정시 '신라 경순왕릉'으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7월 28일 '연천 경순왕릉'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천 경순왕릉 원경

118)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연천 경순왕릉 근경

6. 여러 사찰(諸寺刹)

화장사(華藏寺)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기록했으나 장단군(長湍郡)의 사찰에 대해서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 1) 화장사(華藏寺) 2) 극락사(極樂寺) 3) 창화사(昌化寺) 4) 영통사(靈通寺) 5) 흥성사(興聖寺) 6) 성등암(聖燈庵) 7) 낙산사(洛山寺) 8) 안적사(安積寺) 9) 증각사(證覺寺)가 있고, 그 중 극락(極樂), 영통(靈通), 흥성(興聖), 낙산(洛山), 성등(聖燈)의 절들은 지금 개성군내로 옮겼다. 『장단읍지(長湍邑志)』에, “화장사(華藏寺) 전략(前略) 옛날 아자각(亞字閣)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공이 가지고 온 패엽경은 전단(旃檀)에 있고, 화상이 전한다. 공민왕상이 있다.(華藏寺(前略)古有亞字閣今回祿無存指空持來貝葉經旃檀之屬尙傳有恭愍王像)”

상원사(上院寺) 화장사 동쪽 기슭에 있다.

영취암(靈鷲庵) 화장사 남쪽 기슭에 있다.

증각사(證覺寺) 지금 폐사됨

성수암(聖壽庵) 대덕산(大德山)에 있다.

극락암(極樂庵) 대사산(大蛇山)에 있다.(승람에 부 서쪽 15리에 대사현(大蛇峴)이라 하고, 5만분의 1지도에 대다동(大多洞)으로 되어 있다)

창화사(昌化寺) 도유산(都維山)에 있다. 지금의 이름은 영수암(永守庵)이다.

심복사(心腹寺) 월징산(月澄山)에 있다. 세상에서 삼한고찰(三韓古刹)이라 한다. 옛날에 기적비(紀績碑)가 있었으나 지금은 무너져 찾을 수가 없다.

보월암(寶月庵) 강남면(江南面) 가좌동(佳佐洞)에 있다.

불일사(佛日寺) 송서면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 고려 광종때 송림현 북쪽에 불일사를 창건했다. 현치(縣治)를 동북으로 옮겼다. 구층탑(九層塔) 석주(石柱) 석조(石槽)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근년에 편찬된 향토사에는 상원(上院), 영취(靈鷲), 창화(昌化), 보월(寶月)은 지금 없다고 되어 있다. 심복사(心腹寺)는 어쩌면 읍지에서 보여지는 강상면(江上面) 솔랑리(率浪里) 심복동(心腹洞)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불일사(佛日寺)가 화장산 남쪽 불일동(佛日洞)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화장사외에는 조사한 것이 없다.



장단군 여러 사찰 원고(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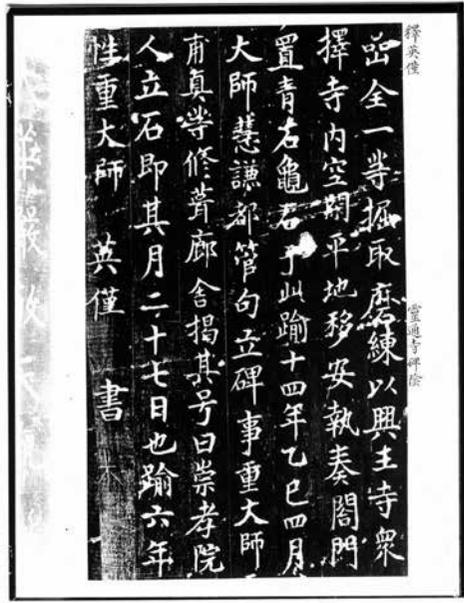


NO無964-66



NO無964-73

영통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 유리건판 사진



영통사 대각국사비와 탁본 유리건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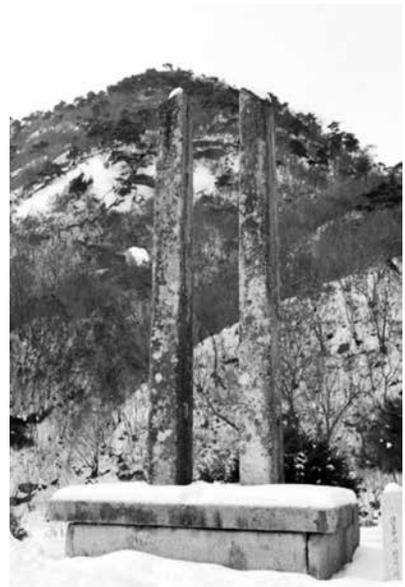
(해제)

대부분의 사찰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 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찰은 화장사,¹¹⁹⁾ 창화사, 영통사 정도이다. 창화사는 경기도 장단군 도라산에 있던 사찰로서 운암사(雲岩寺)로 불리던 것을 공민왕 때에 창화사로 바꾼 것이다. 건립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서 고려 후기 이전에는 초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⁰⁾ 영통사는 1027년(현종 18년)에 창건되어 16세기 무렵 화재로 소실되었다. 2002년 11월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와 대한불교천태종이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10월 31일에 완성하였다. 경내에는 북한 국보 153호인 영통사 오층석탑, 국보 155호인 영통사 대각국사비, 기타 삼층석탑, 당간지주, 부도 등이 남아 있다.¹²¹⁾ 흥성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처음에는 승복사라고 하였다가 1125년(인종 3년)에 지금의 흥성사로 개칭하였다.

11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 2014, 『漣川 瓠盧古壘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120) 앞 절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21)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011, 『북한의 전통사찰』, 양사재.



북원된 영통사(1,2), 대각국사비(3), 오층석탑(4), 대각국사부도(5), 당간지주(6)(출처 : 북한의 전통 사찰)

7. 잡기(雜記)

하나. 덕진산성(德津山城)

읍지(邑志)에 덕진도(德津渡)에 있다. 어느 때 창설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석축(石築)이 무너진 것이 오래되었다. 광해(光海) 때 수축(修築)했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다. 그 지역은 경성·장단·개성 가도에 해당하는 임진강의 하류(서북) 약 1리에 있는 덕진산(德津山: 표고 81m)이 되어야 할 것인가, 조사하지 못했다.

둘. 호관교(壺串郊)

승람(勝覽)에 부의 남쪽 35리에 있다. 목장이 있는데 둘레가 42리이다. 신우(辛禰)가 여기에 누(樓)를 짓고 또 누선(樓船)을 만들었는데, 지극히 사치스럽고 커서 이름을 봉천선(奉天船)이라 하였다. 지금 장단을 남쪽의 임진강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 지역이 광활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필요로 한다.

셋. 백안교(伯顔郊)

승람(勝覽)에 낙하(洛河) 북쪽에 있다. 지금 목장으로 되어 있다. 또 낙하도(洛河渡)는 덕진(德津) 하류에 있다. 임진강의 남안(南岸)은 교하군(交河郡)의 동단(東端)에 지금 낙하리(洛河里)이다. 5만분의 1지도에 입석진(立石津)으로 있는 것은 낙하도(洛河渡)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백안교(伯顔郊)는 입석진(立石津) 북쪽의 삼각형의 평교(平郊)가 된다.

넷. 보현원(普賢院)

승람(勝覽)에 부의 남쪽 25리에 있으니, 국조(國朝)에서 조현역(調鉉驛)을 설치했다가 지금은 또 없었다. 물이 도원역(桃源驛) 상류에서부터 내려와 보현원 북쪽에 이르러 천천히 흘러 웅덩이가 되었는데, 의종(毅宗)이 뚝을 쌓아 못을 만들어 놀이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 뒤에 무신 정중부(鄭仲夫) 등이 문신들을 모두 죽여 못에 집어넣어서 메워지니, 사람들이 조정침(朝廷沈)이라 불렀다. (在府南二十五里國朝置調鉉驛今又廢之有水自桃源驛上流而來至院北漫流爲匯毅宗堤爲澤爲盤遊之地後武臣鄭仲夫盡殺文臣沉之澤爲之填塞人號曰朝廷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단·개성 가도 중간에 있는 판문리(板門里) 부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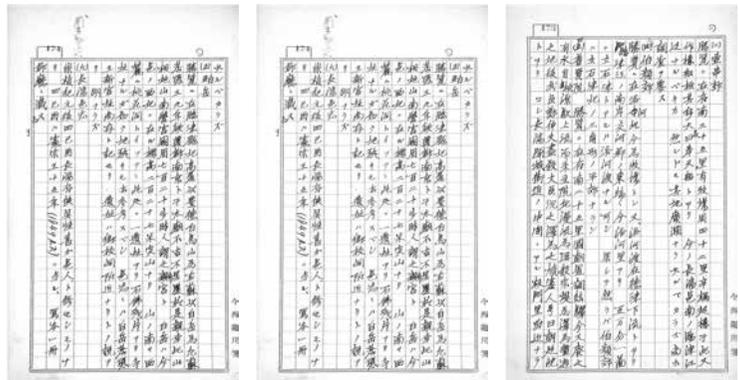
다섯. 백악(白岳)

승람(勝覽)에 임진현 북쪽에 있다. 고려에서 풍덕(豐德) 백마산(白馬山)을 우소(右蘇)로 삼고,

백악을 좌소(左蘇)로 삼았다. 공민왕(恭愍王) 9년(1360)에 도읍을 남경(南京 한양)으로 옮기려고 태묘(太廟)에서 점쳐보니, 불길하여 결국 옮기지 않았다. 이에 친히 이 산에 거둥하여 땅을 살펴 보고 산의 남쪽에 대궐을 지었는데, 주위가 7백 20보(步)였다. 당시 사람들이 신궁(新宮)이라 하였다.(在臨津縣北高麗以豐德白馬山爲古蘇以白岳爲左蘇恭愍王九年欲遷都南京이고 于大廟不吉不果遷於是親幸此山相地山南營宮闕周七百二十步時人謂之新宮) 백악은 지금 읍의 서북쪽에 있는 표고 227m의 산이다. 산의 남남서쪽 기슭에 도화동(桃花洞)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 하나의 유적지가 있다. 석불잔편(石佛殘片)이 있고, 사지(寺址)가 되는 것처럼 지역이 협소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읍지에는 백악에 공민왕의 새로운 궁터(新宮址)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적지는 향교동(鄉校洞) 부근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여섯. 장단읍지(長湍邑誌)

승정 기원후 사기유(崇禎紀元後四己酉) 장단부사(長湍府使) 구성선(具性善)이 읍인(邑人)과 고친 것이 된다. 사기유(四己酉)는 헌종(憲宗) 15년에 해당하며, 사진 1책이 군청에서 보관한다.



장단군 잡기 원고(3.2.1.)

(해제)

덕진산성은 덕진고성이라고도 불리운다. 현재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17년 1월 19일 사적 제537호로 지정되었다.¹²²⁾ 산성은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사 당시에는 해발 81m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외성으로서 해발 65m의 산 정상부에 내성이 축조되어 있다. 아마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조사 당시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성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에서는 동쪽으로 초평도와 임진나루, 남쪽으로 수내나루와 문산을 장산리 등의 조망이 용이하여 매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122)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연천 호로그로 동벽 남측 치성』.

구조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은 해발 85m의 최고봉 둘레를 표주박 형태로 감싸고 있는데 둘레가 481m로 면적은 약 10,590㎡이다. 석축은 편축 기법으로 쌓았으며, 성벽의 위쪽에는 폭 5m 가량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외성은 내성 북벽의 동단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성벽은 토성으로 구축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석축한 흔적도 관찰된다. 전체 길이는 948m이고, 성벽의 높이는 약 4m이다. 외성에는 두 개의 문지가 확인된다. 성 내부에서는 주로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파주 덕진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년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년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로 시작된다.¹²³⁾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¹²⁴⁾ 이후 중부고고학연구소가 2012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3차, 2015년 4차, 2016년 5차, 2018년 6차 등 총 6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고구려 시기의 성벽 구간과 유물들을 확인하여 삼국시대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6차 발굴조사에 관한 보고서는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¹²⁵⁾



파주 덕진산성 원경

123)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 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2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파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125)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中部考古學研究所, 2016, 『坡州 德津山城 -3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中部考古學研究所, 2019, 『坡州 德津山城 -4·5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파주 덕진산성 전경(1), 성벽 구간(2), 석축부(3,4), 1차 성벽(5), 고구려 건물터 부뚜막(6)

| 제8장 | 개성군(開城郡)

개성군에 있어서 유적 유물의 조사는 즉 고려 국도(國都)의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조사의 어려움이 다른 군과 비교 할 바가 아니다. 본 고적조사위원회 연구에 착수할지라도 그 성과는 오랜 세월과 재삼 재사의 실지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번 조사의 주요한 목적은 고려릉의 조사에 있으므로 여러 유적 유물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는 고려릉 조사할 때 주변의 조사 혹은 보고 들을 바(見脚)를 돌아온 후 연구한 3-4개 유적 유물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고려릉 조사보고는 달리 한 편의 보고서를 편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본 조사서에는 고려릉에 관한 기사는 생략한다.

1. 오룡사 법경국사비(五龍寺法鏡國師碑)

소재지: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嶺南面龍興里) 사기막동(沙器幕洞)에 있다.(그림 8) 이 지점은 일찍이 장단군의 지역이었던 것이고, 이 비는 유진(有晉) 고려국(高麗國) 용암산(踊巖山) 오룡사(五龍寺) 고(故)왕사(王師)교시법경대사(敎諭法鏡大師) 보조혜광지탑비명(普照慧光之塔碑銘)과 아울러 서문(序文)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천복(天福) 9년에 세워졌다. 이 소재지의 용암산(踊巖山)은 지금 용암산(湧岩山)이라고 쓴다. 『장단지(長湍志)』에, “용암산(湧巖山)은 오관산(五冠山) 동북쪽에 있으며, 오관산·천마산(天磨山)의 여러 산과 서로 이어져 있되, 다만 봉우리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고암(鼓巖)은 용암산 오룡봉(五龍峯) 위에 있는데, 그 모양이 북(鼓)과 같으므로 고암이라 하였다.(湧岩山在五冠山東北山與五冠天磨相連但峯巒有異 故岩在湧岩山五龍峯上其形如鼓)”로 되어 있었다.

용암산 오룡사(踊巖山五龍寺)는 용암산 오룡봉(湧岩山五龍峯) 주변으로 의심해야 할 것이다. 사기막동(沙器幕洞)은 개성에서 동북의 화장사(華藏寺)에 이르는 가로(街路)의 왼쪽에 표고 510m 봉우리 즉 용암산(湧岩山) 아래 깊은 계곡 중에 있는 23호의 소부락이다. 화장사 산 아래에서 약 반 리(半里), 개성에서 2리가 좀 더 되는 가로(街路)에서 들어가면 약 수 정(數町)의 봉우리가 휘돌고 못의 돌이 아름다운 하나의 작은 천지(小天地)가 된다. 사기막동 안의 사지(寺址)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오룡사의 옛 터(古址)가 아닌가? 비는 그 서쪽에 약 1정(町) 높은 곳에 있고, 전방에서 우회하여 봉우리를 넘으면 화장사가 동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치우쳐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5만분의 1지도에 의해 화장사까지 직경이 약 26정(町)이다. 비의 부근에는 지금 개성의 조선인 모씨의 분묘가 있어 비를 침범하고 있다.

오룡사의 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생각건대 일찍 폐사되거나 혹은 절의 명칭(寺名)이 변경된 것인가, 이 절 터 같은 것도 절의 명칭이 변경된 후 터가 된 것인가?

이 비는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오룡비는 장단 용암산에 있다. 오룡사 법경대사 혜광탑비는 석선경(釋禪扁)이 쓰고 석진(石晉) 천복 9년 갑진에 세웠는데, 고려 경종 원년(景宗元年)이다. 음기는 실명(失名)이다.(五龍碑在長湍踊岩山 五龍寺法鏡大師慧光塔碑釋禪扁書石晉天福九年甲辰立麗景宗元年也陰記

失名氏)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비신(碑身) 이수(螭首) 귀부(龜趺)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세워져 있고,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는 견고한 능만암(稜蠻岩)이고 귀부(龜趺)는 화강암(花崗岩)으로 되어 있다. 비신(碑身)은 높이가 6척 9촌 5분, 폭은 3척 3촌 9분, 두께는 7촌으로 각자(刻字) 밖에 장식문양이 없고, 이수(螭首)는 4마리의 용이 서려 있는데 폭은 4척 7촌, 두께는 1척 8촌, 높이는 1척 8촌 5분으로 전면 좌측에 용의 머리 부분이 결실되었다. 조각의 수법은 고달사(高達寺) 원종대사 혜진탑(元宗大師慧眞塔)과 유사하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귀부(龜趺)는 머리를 바로 세워 웅맹스러운 모습이다. 폭은 6척 6촌, 세로 7촌으로 높이가 대석(臺石) 모두 합쳐 3척 8촌이고 내부는 8촌의 대석의 두께로 되어 있다. 귀갑(龜甲)에는 갑문(甲紋)이 있고 뒷부분에 2개의 만(卍)자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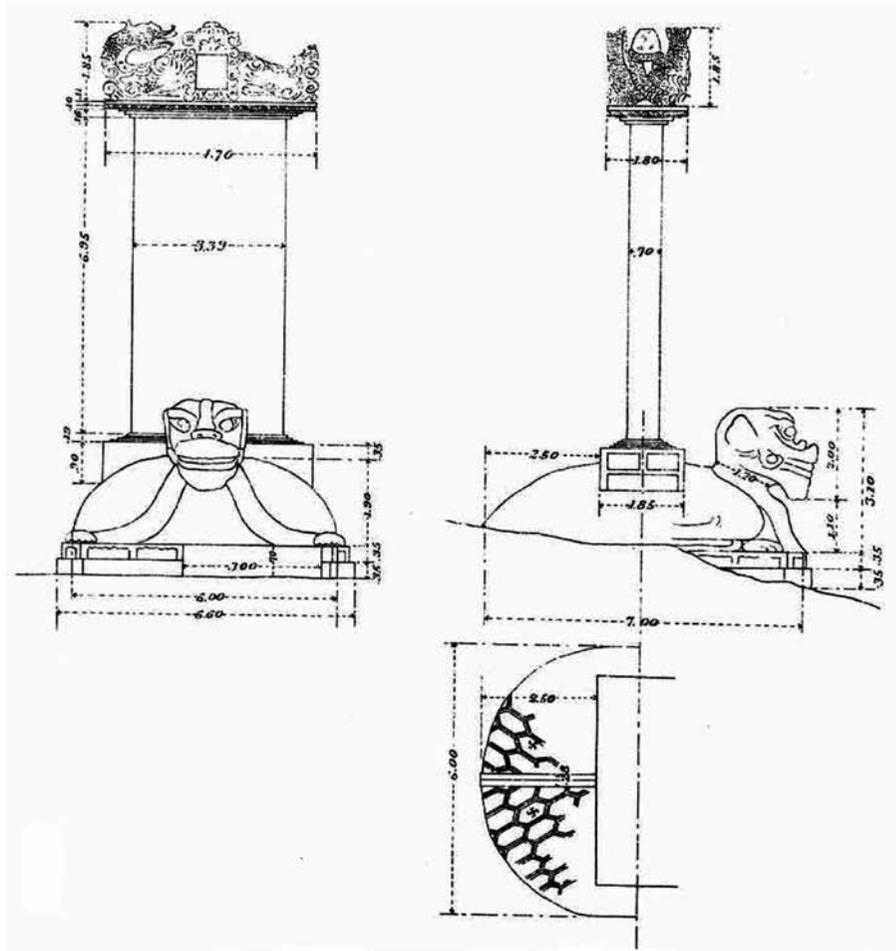


그림 8. 오릉사터 법경국사비 그림,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사기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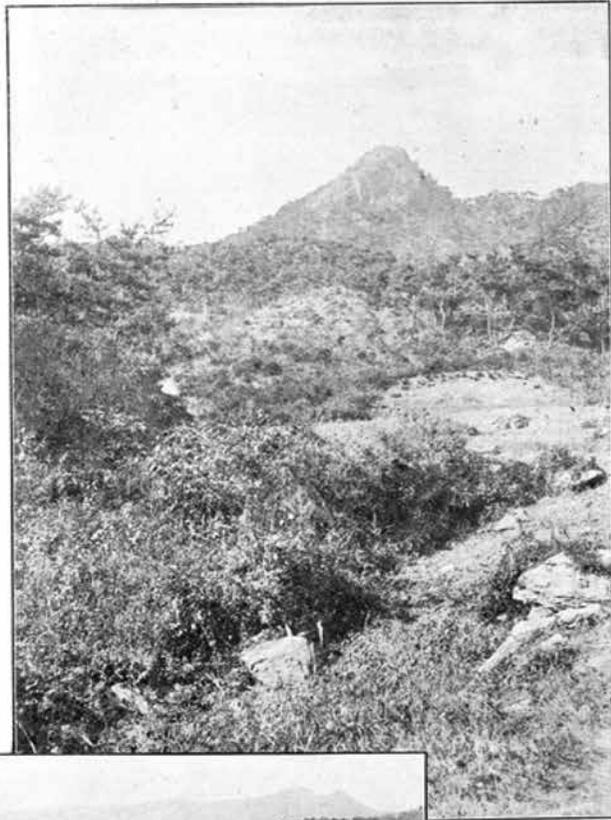


사진 62.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오룡사터(위), 사진 63. 법경대사해광담비(아래)

비는 전면에 □법경국사(法鏡國師)와 비 전액(篆額)이 있고, 후면에는 오룡지사(五龍之寺)의 전액(篆額)이 있다. 비문(碑文)은 바른 해서(楷書)로 쓰고 비음기(碑陰記)는 행서(行書)로 썼다. 비신(碑身)은 이수(鱗首)의 그늘로 인해 우로(雨露)가 다소간 차단되는 상부는 전후 양면 모두 문자가 선명하지만 다른 하부에 이르러서는 오염되고 이면(裏面)의 하부가 특히 심하다.

비문(碑文)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하여 보고될 것을 기대한다.

비의 형상(形狀)에 대해서는 그림 8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실측도가 비 전면에 「오룡지사(五龍之寺)」의 전액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오류이다. (사진 62는 사기막동에서 비를 바로 보는 전경으로 높이 솟아 있는 것은 용암산(踊岩山) 오룡봉(五龍峯)이 될 것이다. 사진 63은 비의 후면에서 전망을 바라보는 광경으로 먼 산은 화장사산(華藏寺山)이 되고 산의 높은 정상에 가까운 곳이 화장사이다. 사진 64는 비의 정면이 되고 65는 비의 뒷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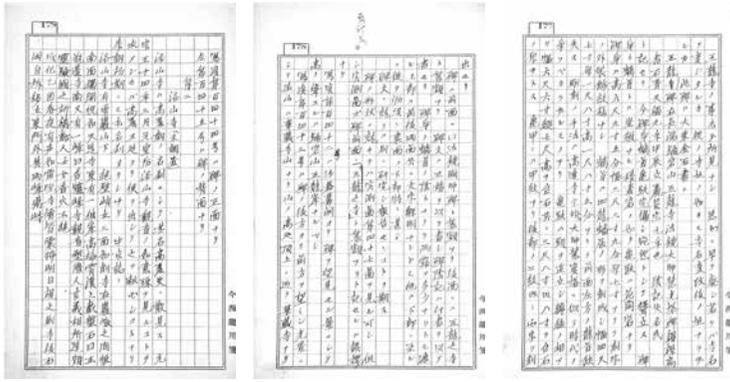
사진 64.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오룡사터 혜광탑비 앞면



사진 65.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오룡사터 혜광탑비 뒷면

1791		1792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	6	...
7	...	7	...
8	...	8	...
9	...	9	...
10	...	10	...
11	...	11	...
12	...	12	...
13	...	13	...
14	...	14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25	...	25	...
26	...	26	...
27	...	27	...
28	...	28	...
29	...	29	...
30	...	30	...
31	...	31	...
32	...	32	...
33	...	33	...
34	...	34	...
35	...	35	...
36	...	36	...
37	...	37	...
38	...	38	...
39	...	39	...
40	...	40	...
41	...	41	...
42	...	42	...
43	...	43	...
44	...	44	...
45	...	45	...
46	...	46	...
47	...	47	...
48	...	48	...
49	...	49	...
50	...	50	...
51	...	51	...
52	...	52	...
53	...	53	...
54	...	54	...
55	...	55	...
56	...	56	...
57	...	57	...
58	...	58	...
59	...	59	...
60	...	60	...
61	...	61	...
62	...	62	...
63	...	63	...
64	...	64	...
65	...	65	...
66	...	66	...
67	...	67	...
68	...	68	...
69	...	69	...
70	...	70	...
71	...	71	...
72	...	72	...
73	...	73	...
74	...	74	...
75	...	75	...
76	...	76	...
77	...	77	...
78	...	78	...
79	...	79	...
80	...	80	...
81	...	81	...
82	...	82	...
83	...	83	...
84	...	84	...
85	...	85	...
86	...	86	...
87	...	87	...
88	...	88	...
89	...	89	...
90	...	90	...
91	...	91	...
92	...	92	...
93	...	93	...
94	...	94	...
95	...	95	...
96	...	96	...
97	...	97	...
98	...	98	...
99	...	99	...
100	...	100	...

개성군 오룡사 법경국사비 원고(2.1.)



개성군 옹릉사 법경국사비 원고(5.4.3.)



옹릉사 법경대사비 전경(1), 이수(2), 탁본(3) 유리건판 사진



(해제)

옹릉사터는 황해북도 개성시 용흥동 용암산에 위치하고 있다. 창건 시기는 고려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별다른 연혁이 전하지 않는다. 이 절터는 조선시대까지 존속하다가 1900년대 전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터 내에는 944년(혜종 1년) 건립된 법경왕사보 조혜광탑비(法鏡王師普照慧光塔碑)가 남아 있는데 비문은 최언위가 짓고, 글씨는 선경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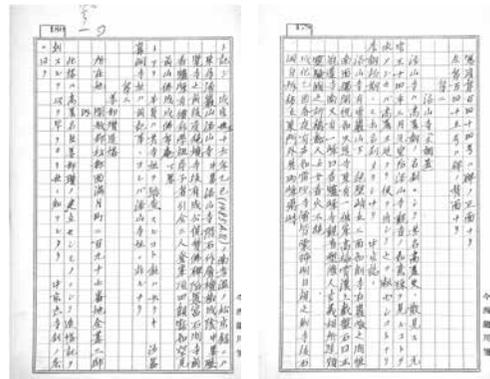
2. 낙산사(미조사)

낙산사(洛山寺): 고려시대 명찰로서 그 이름은 『고려사(高麗史)』 여기저기에서 보인다[散見]. 원종(元宗) 14년 3월 원황후(元皇后)가 낙산사(洛山寺) 관음 여의주 보기를 원하므로, 고려 왕정은 사신을 보내 그것을 시켜 드렸다. 조선초기에도 역시 명찰로 되어 있다. 중경지(中京誌)에, “낙산사(洛山寺)는 용암산(湧巖山) 아래에 있다. 절벽이 높이 서서 삼면이 깎아놓은 듯한데, 절은 바위 사이에 있다. 오직 남쪽만 터져서 황홀하기가 마치 하늘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절 동쪽에 한 개의 독봉(獨峯)이 있는데 높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위에 너럭바위를 이고 있으니, 정병대(正瓶臺)라 한다. 절 남쪽에 또 한 봉우리가 있으니, 향로봉(香爐峯)이라 한다. 절에 관음 소상(觀音塑像)이 있는데, 사람들이 “의상(義湘)이 만든 것이다.”고 말하고, 몹시 영험하여 나라의 기도처로 도성(都城)의 남녀들의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는다. (洛山寺有勇巖山下 絕壁峭立三面如削寺在巖口之間惟南面獨開 恍如天造寺東有一獨峯高插霄漢上戴盤石曰正瓶臺寺南又有一峰曰香爐峯寺觀音塑像人言義相所造頗靈驗國之祈禱都人士女香火不絕)”

“성화(成化) 을유년(1465) 봄 밤에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절의 중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다 가 이튿날 보니 절 뒤에 있는 돌산이 저절로 터져 동문 밖으로 옮겨져서 높이 정병대와 향로봉과 더불어 숲의 발처럼 높이 서 있었다.(成化乙酉春夜有聲如雷吼寺僧皆震怖明日視之則寺後石岡自圻移立東門外與兩峯鼎峙)”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종 16년 을사(1485) 남효온(南孝溫)의 송경록(松京錄)에는, “동쪽으로 용암산(湧巖山) 낙산사(洛山寺)를 찾았다. (중략) 낙산사에 오르니, 섬들은 층계를 이루고 박달나무는 그늘을 드리웠다. (중략) 밥을 먹은 뒤에 절의 앞뒤를 둘러보니 참으로 절경이었다. 절 뒤에 성현(成愷) 공의 찬불비(贊佛碑)가 바위 사이에 빠져 있었다. 절 앞이 향로봉(香爐峯)이다. 학조(學祖)의 제자라고 일컫는 승려의 인도로 우리 세 사람이 향로봉 정상에 오르니, 사방이 시원스레 트였고, 앞산의 불성암(佛成庵), 성불암(成佛庵) 등이 바라보였다. (하략) (東尋湧巖山洛山寺 中略 洛山寺階石作層檀樹成陰 中略 歷覽寺之前後眞絕境寺後有成公愷贊佛碑陷置巖石間寺前香爐峯有僧稱學祖弟子者引餘三人登峯頂四顧豁如望見前山佛成成佛等庵 下略)”라고 되어 있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이 절터[寺址]를 답사하지 못했으며, 사기막동 사지는 앞의 기사에 의하면 낙산사터[洛山寺址]는 아니다.



낙산사 원고(2.1.)

3. 강감찬조탑(姜邯瓚造塔)

소재지: 개성군 송도면(松都面) 만월정(滿月町) 297번지 김기삼(金基三) 택지 내

이 탑은 고려 명신 강감찬(姜邯瓚)을 건립한 것이라는 조탑기(造塔記)가 새겨져 있어 일찍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중경지(中京志)』 사찰조(寺刹條)에서 말하기를, “흥국사(興國寺)는 병부교(兵部橋)측 즉, 훈련청 옛 터에 고탑(古塔)이 있어 후방이 명승(明昇)이 거(居)한 것 같다. (중략) 탑의 제목이 “보살계(菩薩戒)를 받은 자제(子弟)인 평장사(平章事) 강감찬(姜邯瓚)이 나라가 태평하고 국내가 안정되기를 빌기 위해 공경히 이 탑을 만들어서 영원히 공양에 충당한다. 때는 천희 5년(1021, 현종12) 5월이다. (興國寺在兵部橋側即訓練廳舊基古塔猶存後乃明昇所居 中略 塔題 菩薩戒弟子平章事姜邯瓚奉爲邦家永泰遐爾常安敬造此塔永充供養時天禧五年五月日也)”

고려 고도징(高麗古都徵)에, “살펴보건대, 흥국사 절의 옛터가 지금 부내(府內) 북부(北部) 병부교(兵部橋) 서남쪽에 있는 해온루(解憍樓)의 북쪽에 있었다. 3층의 부도(浮屠)가 밧 가운데에 있는데, 높이가 겨우 어깨에 미쳤으며, “보살계(菩薩戒)를 받은 자제(子弟)인 평장사(平章事) 강감찬(姜邯瓚) 운운하는 38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글자의 획이 굳세어서 안 노공(顔魯公)의 간록비(干祿碑)와 같았다. 혹자는 강감찬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강감찬(姜邯瓚)의 이름자 가운데 찬(瓚) 자를 《고려사》에서는 모두 찬(贊) 자로 써서 구슬 옥(玉) 변이 없는데, 탑에 새겨진 것을 정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건륭 병진에서 송나라 진종 천희 5년, 고려 현종 12년 신유(辛酉)로부터 809년이 된다. (案興國寺古址在今北部兵部橋西南解憍樓北有浮屠三級在田中高及人肩刻有菩薩弟子平章事姜邯瓚云云三十八字字畫老健似顔魯公干祿碑或謂姜公自書則未可定也姜公名瓚麗史皆作贊此塔本加玉傍作瓚當以塔本爲正今乾隆丙辰距宋眞宗天禧五年高麗顯宗十二年辛酉爲八百九年)” 으 로 되어 있다.

석탑(石塔)의 현재 위치는 건설 당초의 위치인가 아닌가는 불명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전부터 이 위치에 있었고, 혹은 5층 또는 7층이 아닌가도 지금은 기단과 제1층의 탑신(塔身) 개석(蓋石) 및 제2층 제3층의 개석만이 남아있다. 고도징(古都徵)에 의하면 건륭 병진(乾隆丙辰)에 이미 3층[三級] 정도로 남아있다고 한다. 지금 이 2층 3층의 심신(心身)을 이루고 있어 3층[三級]의 의미가 조금 막연하지만 그 안 비신(碑身)의 유무를 판명할 수 없다. 기단(基壇)의 기둥에는 낮은 모퉁이의 기둥 형태를 나타내고, 그 의주(擬柱: 유사기둥) 사이의 한 면에 얇은 요(凹)형으로 된 장방형(長方形)의 한 면을 만들고 여기에 해서(楷書)로,

보살계 제자 평장사 강감찬(菩薩戒弟子平章事姜邯瓚)

공경히 받들다(奉爲)

나라가 태평하고 국내가 안정되기를 빌기 위해 공경히(邦家永泰遐爾常安敬造)

이 탑을 만들어서 영원히 공양에 충당한다(此塔永充)

공양(供養)

때는 천희 5년 5월이다(時天禧五年五月 日也)

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기단의 상반석 주변에는 중복의 앙련(仰蓮)을 새기고, 제1층 탑신(塔身)에는 얇은 네 모퉁이에 의주(擬柱: 유사기둥)를 각출(刻出)하여 그 정면 중앙 어깨에 자물쇠를 부착하는 형을 새겼다. 개석(蓋石)에는 상단에 이르는 곳에 작은 처마 안에는 단면의 사각형을 만들어 받치게 하고, 처마에는 하단은 수평으로 상단은 반대로 하고, 추녀마루는 경쾌하기 위해 하단으로 향하여 반대로 한다.(제9도가 만곡(彎曲)처럼 쓰여진 것은 그림 그리는 자(製圖者)의 오류이다. 그 형상측법(形狀寸法)에 대해서는 사진 66 및 그림 9¹²⁶⁾를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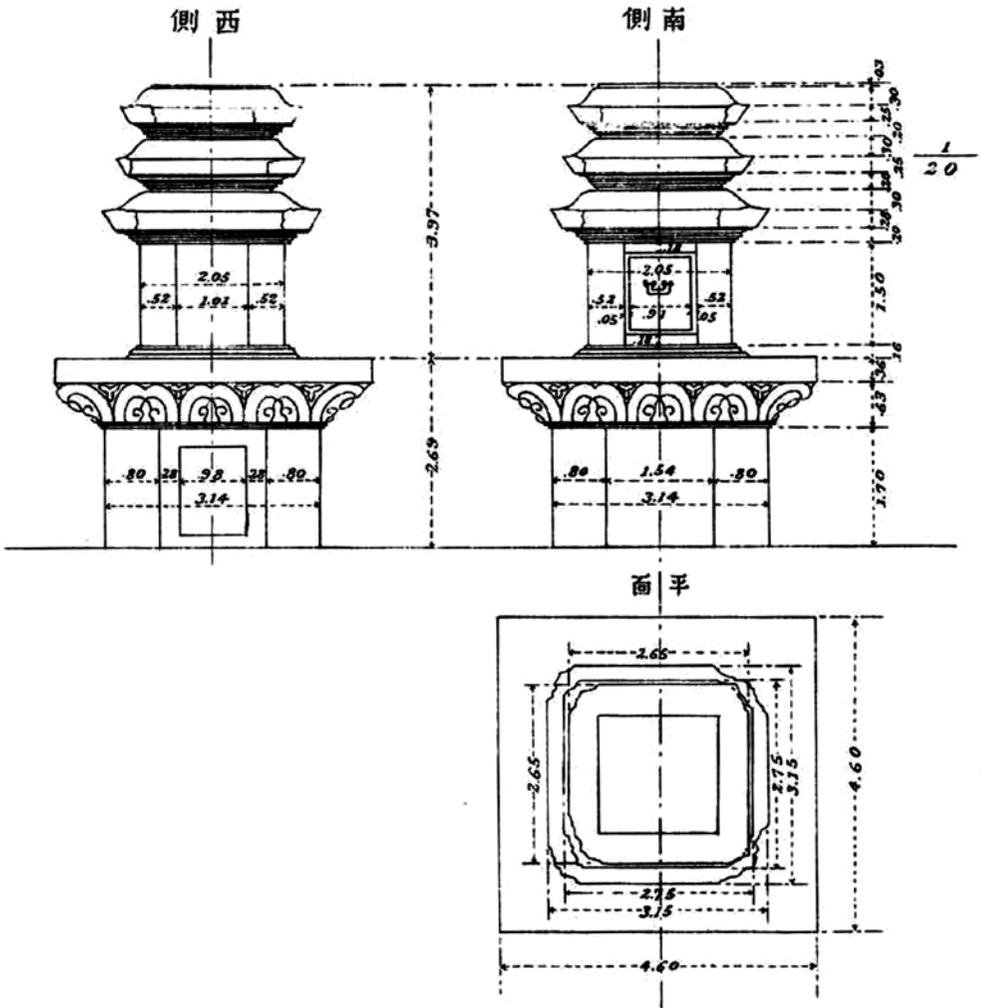


그림 9. 강감찬 조탑도(개성군 송도면 만월정 김기삼 택지 내)

126) 본문에는 그림 8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때 그림 9의 오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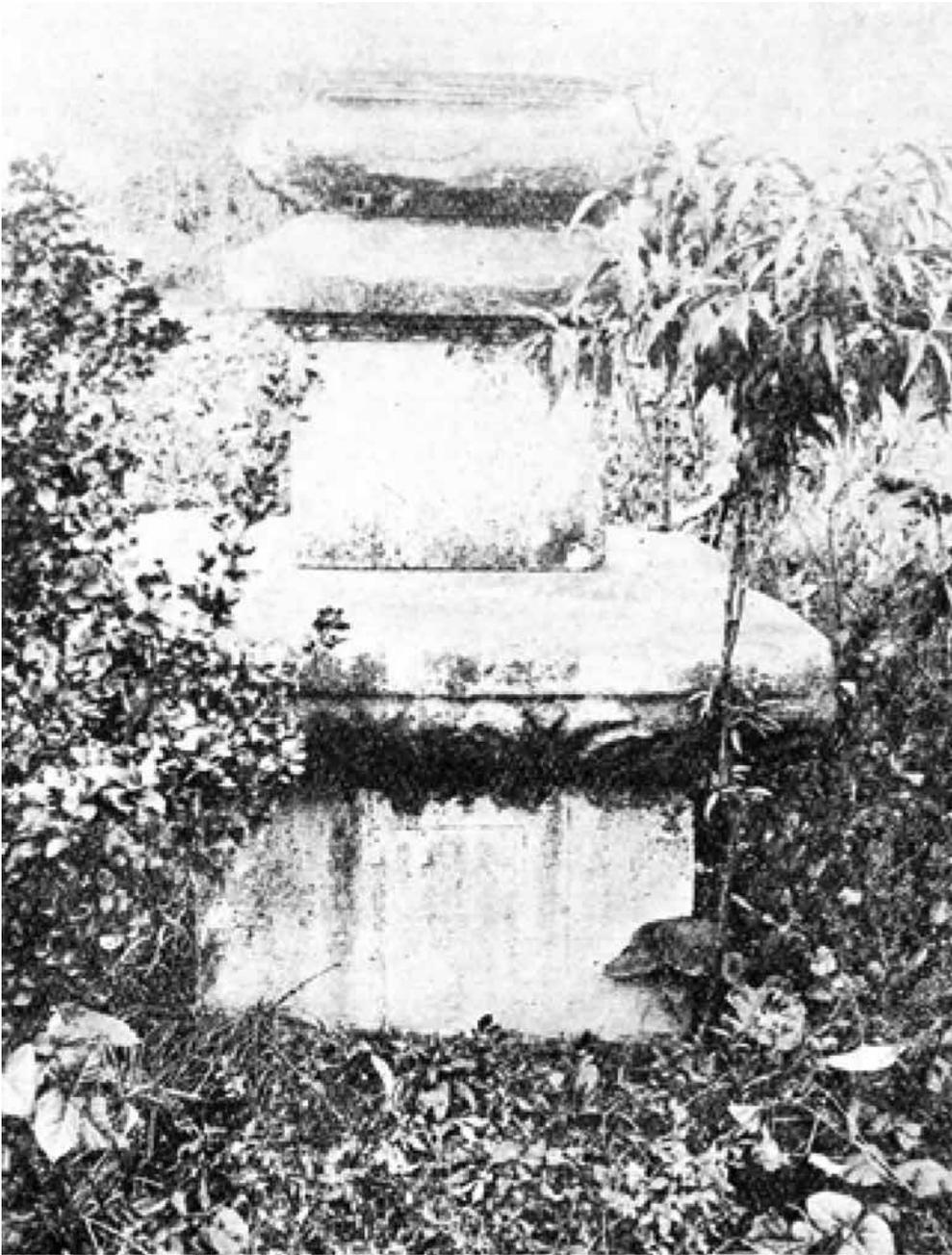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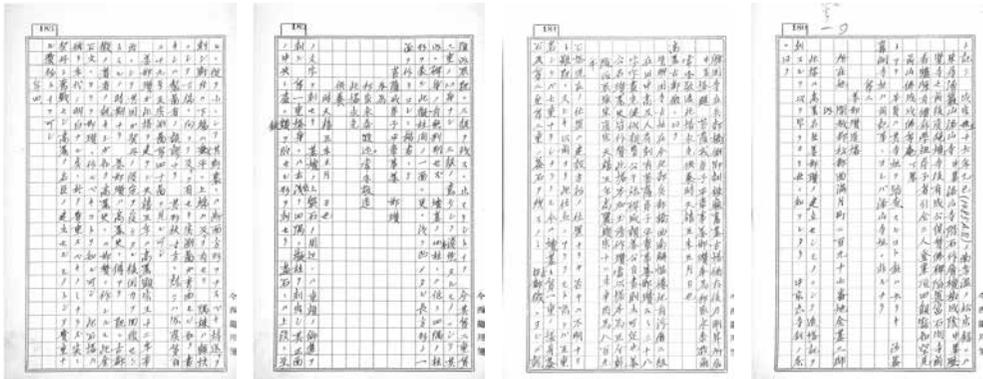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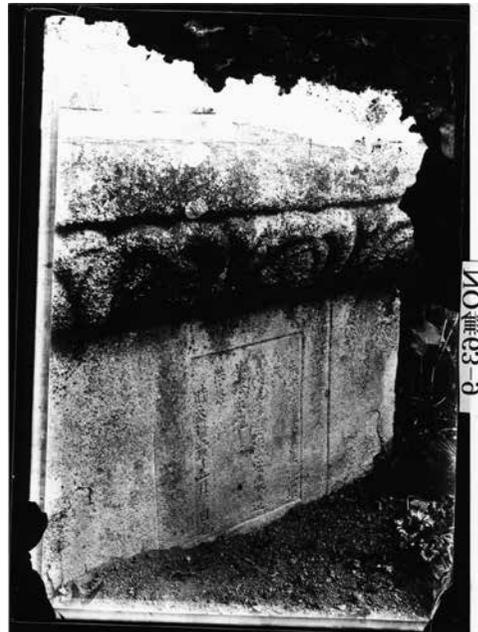
사진 66.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 강감찬 조립불탑

강감찬이 이 탑을 건립한 천희(天禧) 5년은 고려 현종 12년 신유년으로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받은 후 국력이 회복되는 시기이다. 강감찬은 고려사에 전(傳)이 있고, 이미 고도징의 저자 설처럼 고려사에는 감찬(邯贊)으로 되어 있어도 이 금석문에 의해 감찬(邯瓚)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석탑은 연대가 명백한 점에서 귀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거란과

분전하고 고려의 명신(名臣)이 건립한 것으로 귀중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강감찬조탑 원고(4.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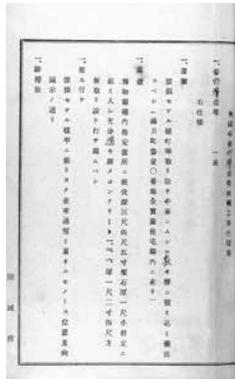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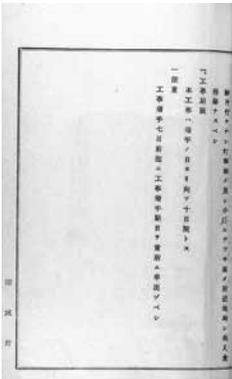
강감찬조탑 유리건판 사진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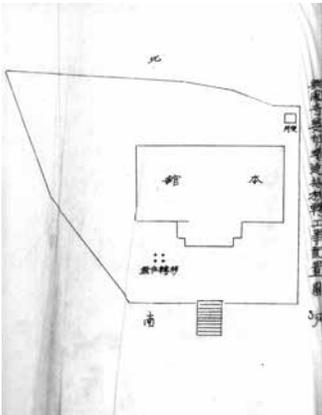
강감찬조탑은 흥국사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개성의 흥국사터에 있었던 것을 1935년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박물관으로 옮겨왔다.¹²⁷⁾ 1021년(현종 12) 5월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높이는 2.61m인데 복원 높이는

127) 위와 관련된 내용은 1934년 11월 김경보(金慶寶)가 京城府立博物館長에게 올린 「흥국사 강감찬 조탑 반출승락서(搬出承諾書)」와 1935년 3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흥국사 강감찬 조탑 이전 건(1935년 4월 24일)」 문서가 남아 있다.

4.4m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탑은 대부분이 파괴되어 지대석과 기단, 옥신석 1개, 옥개석 3개만이 남아 있다.



「흥국사 감간찬 조탑 이전 건」(1935.4.20.) 문서(4.3.2.1.) (조선총독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흥국사 감간찬 조탑 이전 건」(1935.4.20.) 문서(5.6.) (조선총독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흥국사 강감찬 조탑 반출승락서(搬出承諾書)」 (1934.11.) (조선총독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귀법사터[歸法寺址]와 유물

귀법사터[歸法寺址]는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팔자동리(八字洞里: 일명 龍興洞)에 있고 탄현문(炭峴門: 개성의 동북쪽에 있고 성군관의 동북에 해당하는 외성의 한 문으로 개성에서 대흥산성(大興山城)으로의 통로에 해당한다. 개성을 포용하는 송악지맥(松岳支脈)의 영로(嶺路)로 표고 93m 봉우리 지점에 있다) 터에서 직경 16-7정(町: 5만분의 1 지도에 의해)의 지점으로 산성가도(山城街道)의 북측에서 동쪽으로 있다. 이 앞을 흐르면서 귀법천(歸法川)이라는 사천(沙川)의 상류가 된다.

귀법사(歸法寺)는 고려사에 의하면 광종(光宗) 14년 7월에 왕이 창건한 큰 절로 그 이름이 자주 역사에 나타난다. 때로는 우리 헤이안교[平安京]에 있어서 연역사(延曆寺) 같은 관계가 생기고, 이 사원(寺院)의 승려가 무력으로 고려왕연(高麗王延)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절이 폐사된 연도는 상세하지 않지만 고려사 열전 신우전(辛禱傳)에 이 왕 10년 6월, 왕이 미행하여 귀법사 남천(歸法寺南川)에 이르러 목욕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때는 이 절이 존재했어야 할 것이다. 여지승람에 이르러서는 귀법사 옛 터가 탄현문(炭峴門) 밖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때 이미 (절이) 폐사되었고, 생각건대 이 폐사는 조선 초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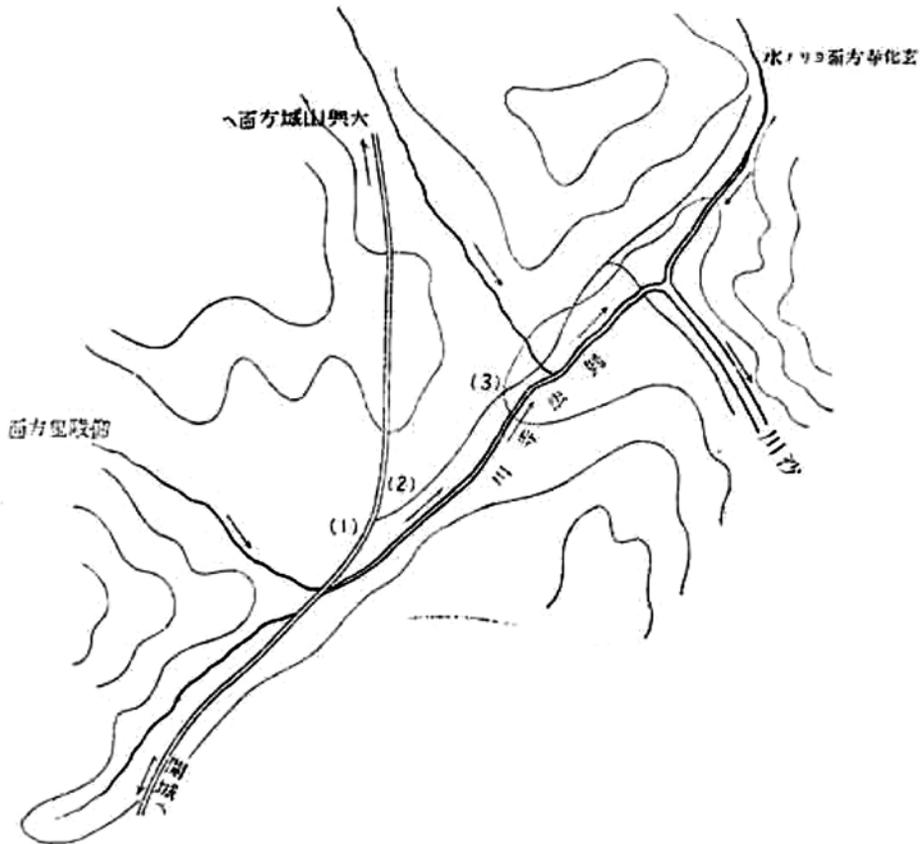


그림 10.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팔자동리 귀법사터 부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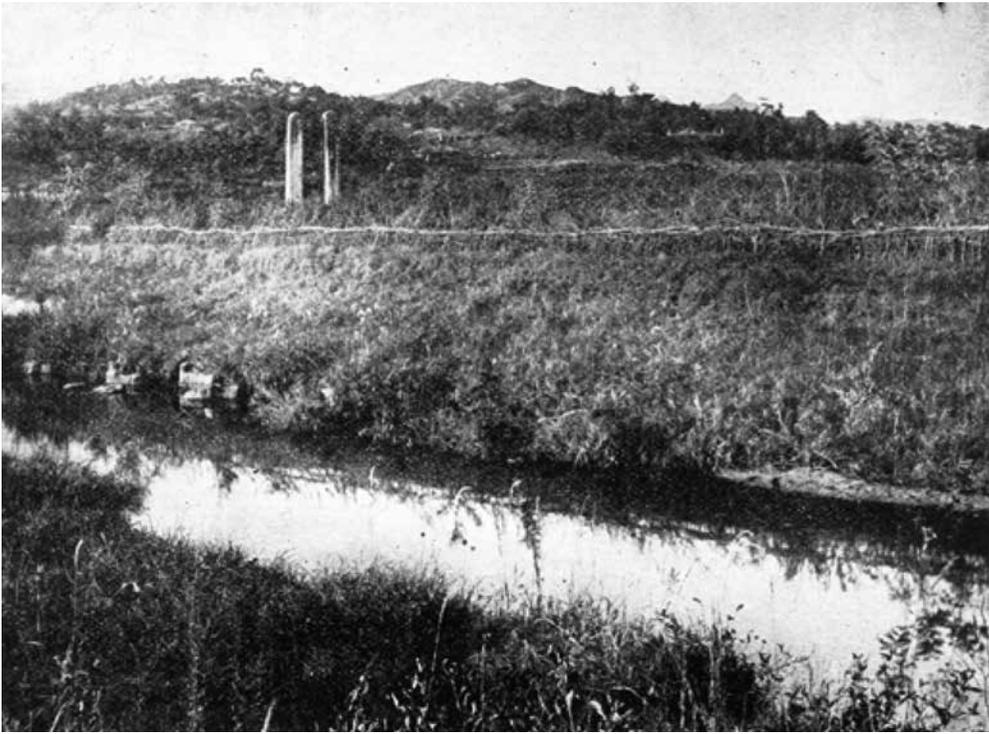


사진 67.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귀법사터 당간지주



사진 68.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귀법사터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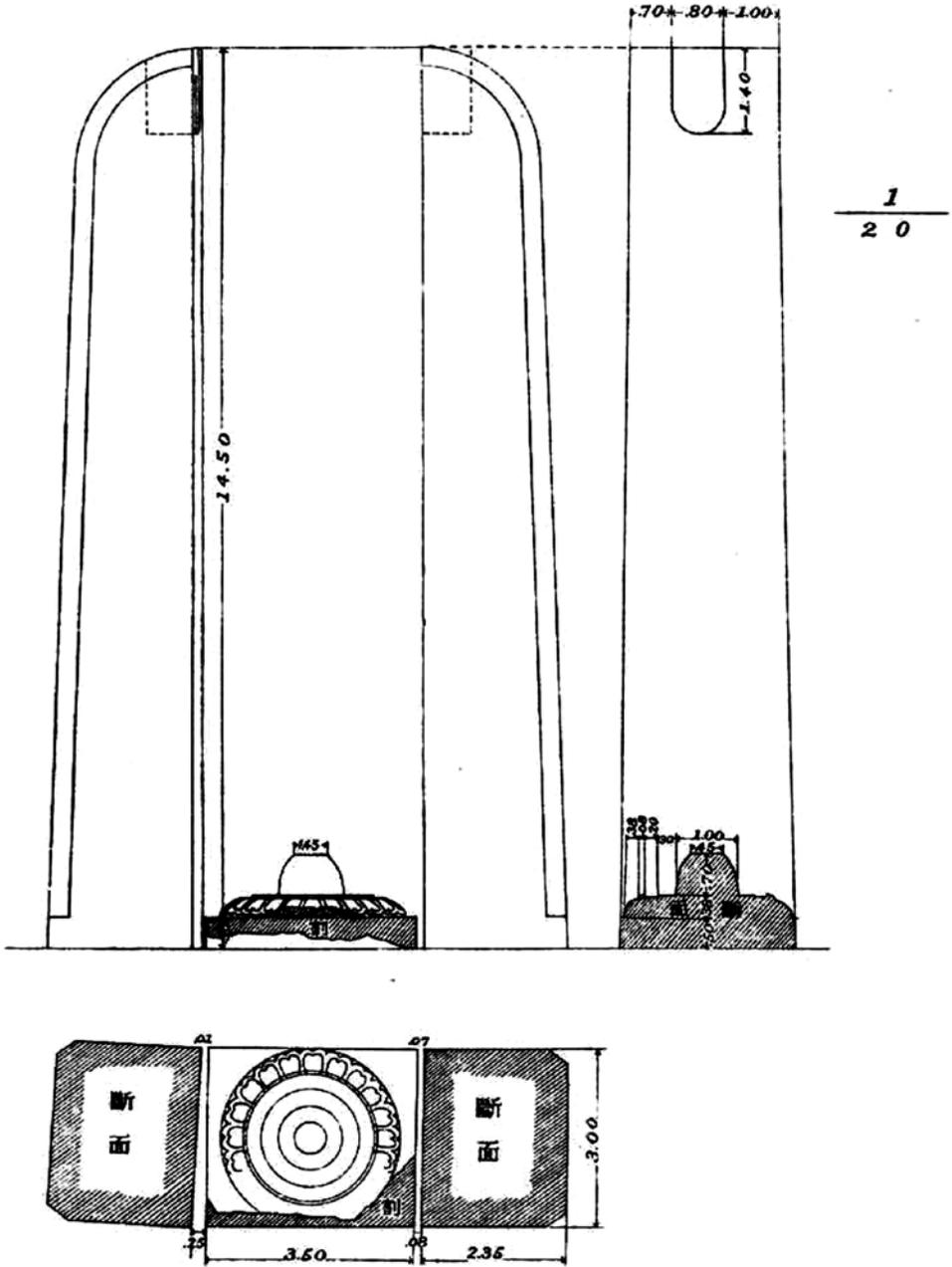


그림 11.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귀법사터 서당간지주도

귀법사 남천(歸法寺南川)은 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곳으로 고려시대 귀족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규보(李奎報)의 강도(江都)에서 옛 서울을 기억하는 시(『이상국집(李相國集)』에 수록되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인용됨) ‘귀법사 개울가에 걸터앉아 술잔을 보내노라(歸法川邊踞送卮)’라는 구절

이 있다.

귀법사 유물로서 귀법사 유적터를 통행할 때 생각나는 것으로 3가지가 있다.

하나.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

둘. 석조(石槽)

셋. 석탑(石塔)이다.

석탑(石塔)은 귀법사 유물로서 전설이 있지만 석조(石槽) 및 지주석(支柱石)에 이르러서는 전설이 없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용흥사 옛 터는 귀법사 측에 있어서, 이 부근의 절은 귀법의 한자(一字)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은 아직 귀법사의 것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나.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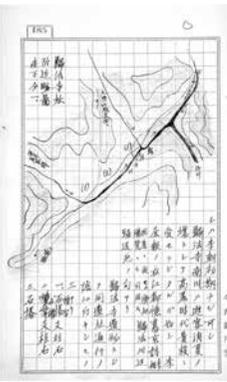
당간지주(幢竿支柱)는 유적지의 서쪽에 있고(그림 10. (1)의 지점) 기타 국유지에 대해 지금 내지인(일본인) 모씨가 차용하여 과수원을 경영하고, 지주석은 이 과수원내에 있다.(사진 64는 이것을 남쪽에서 촬영한 것이다) 지주(支柱)의 정면은 남에서 동으로 10도 내지 15도 기울어져 있다. 이곳의 기지(基地)는 주위의 개간으로 인해 지면보다도 2-3척 높고, 화강석(花崗石)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서는 제11도에서 볼 수 있다. 부근에 와편(瓦片)이 많이 산재하고 탑의 개석(蓋石) 및 초석(礎石) 등이 있어도 개간(開墾)으로 인해 발굴되어 원 위치를 상실했다.

둘. 석조(石槽)

당간지주(幢竿支柱) 소재점의 동쪽 약 1정(町)의 밭 가운데 있다(제10도(2)의 점에 있다). 화강석을 깎아 만든 장방형으로 길이가 6척 4촌 5분, 폭이 4척 7촌, 높이가 3척 3촌이다. 여기에 주변을 4촌 내지 4촌 7분을 남기고 깎는 수법으로 조형(槽形)을 만들고, 그 깊이는 지금 소석(小石)이 쌓여 헤아릴 수 없는 갈라진 상태이다.

셋. 석탑(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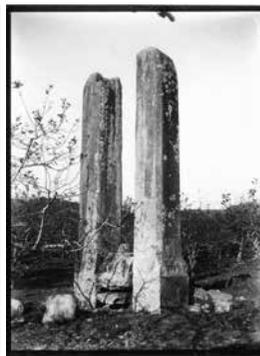
유적지 동쪽 변에 있다(그림 10. (3)의 지점). 탑신(塔身)을 상실하고 단기(壇基) 및 개석 수개(數個)가 남아 있다. 사진 68은 그 전경이다. 형체가 크고 경쾌하게 만든 것이다. 근년 그것을 도굴하려다가 체포된 도적이 있고, 지금 그 유석(遺石)이 흩어져 있는 것은 그 도적이 흠치려고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이 탑은 우수한 작품으로 보존과 수선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귀법사터와 유물 원고(4.3.2.1.)



귀법사터와 유물 원고(5.)



귀법사터 석탑(1,2)과 당간지주(3~5) 유적건판 사진

(해제)

귀법사터는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에 위치한다. 936년(광종 14년)에 광종이 직접 발원한 고려의 국찰이다. 현재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고학적 조사 현황은 알 수 없다.

5. 토성리토성(土城里土城)

토성리토성은 개성(開城)의 서쪽 2리 반 정도 떨어진 경의철도선(京義鐵道線) 토성역(土城驛) 서쪽 15정(町)에 있다. 예부터 이 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토성리라 칭한 것이다. 토성의 위치는 개성과 구릉지(丘陵地)로써 떨어진 교외 중에 있다. 이 교외는 서남쪽의 예성강(禮成江)으로 이어지고 토성의 소재 지점은 개성과 벽란도(碧瀾渡)와의 교통 요충지에 해당하는 이 교외 가운데 중요지점이 된다. 예성강의 지류인 동방포(東方浦) 및 동방포 지류인 대정천(大井川)은 협소한 소구(小溝)에 불과해도 이 토성의 서남쪽 수정(數町)의 지점까지 조류를 이용하여 거슬러 항해할 수 있고 지금도 선박의 왕래가 있다. 그리고 예성강이 앞에 말한 동방포를 수용하는 곳은 후서강(後西江) 혹은 서강(西江)이라 칭한다. 중경지(中京誌)에 후서강은 부 서쪽 30리에 있고 칠포(七浦)의 요충으로 서남의 화곡(貨穀)과 부(府)의 자산이 통하고(後西江在府西三十里爲七浦之要衝通西南之貨穀一府資焉)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도 서강(西江) 즉 예성강(禮成江)은 선의문(宣義門) 서남 17리이고 그 보정문(保定門) 밖의 동강(東江)과 함께 모두 옛날 배가 선박하던 곳(皆古漕漕下泊之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성(開城)이 국도(國都)로서 해상 교통이 빈번한 시대에는 이 토성의 지점이 이 항구에서 국도 통로의 요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토성(土城)은 교외 중에 홀로 있으며 높이가 수십 척이 된다. 평대(平臺) 모양에 가까운 동서 약 3정(町), 남북 3정(町)이 안되는 구릉의 둘레를 가공하고 그 밖을 가파르고 험준하게 만든 토루(土壘)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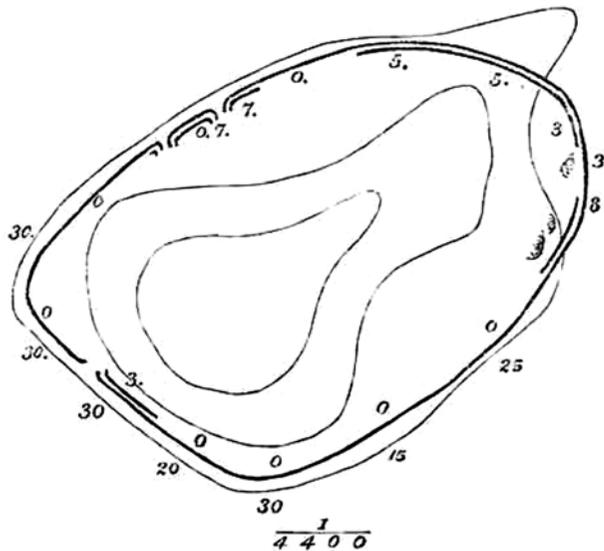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 개성군 중서면 토성리토성

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며, 토루(土壘)의 동변(東邊)은 일부 평지까지 내려가 평지를 포용하는 부분이 있다. 토루(土壘)의 평지에서 높이는 지금 토양이 많이 유실되고, 성내(城內) 경작자가 파괴함에 의해 저하하여 그것의 높이가 분명하지 않아도 서변(西邊)은 30척 내외이고 북변(北邊)은 20척에서 10척에 미치며 남변(南邊)은 25척에서 15척에 동변(東邊)은 평지에 축조하는 부분 같은 곳은 겨우 3척에 불과하다.(모두 밖의 평지에서의 높이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는 높이는 상층부와 지면이 서로 이어져 루형(壘形)이 상실된 부분이 매우 많고 그 루형(壘形)이 남아 있어도 높이가 겨우 7척에서 3척에 불과하다. 목측가성약도(目測假成略圖, 제12도)에 나타난 숫자의 밖에 기록한 것은 밖에서 본 높이이고 안쪽에 기록한 것은 안에서 본 높이이다.(그림 12는 목측도(目測圖)로 설명을 돕기 위해 임시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문 터(門址)는 북쪽 면에 두 개, 서쪽 면에 한 개, 동쪽 면에 한 개, 남쪽 면은 터가 불명하다. 북쪽 면의 두 개 중 동쪽에 있는 것은 본래 문 터인지 약간 의심이 있고, 서쪽에 있는 것은 분명히 터의 형태가 남아 있어 그 사이 약 7척인 하나의 석재(石槨)가 남아 있다. 서쪽 면의 문 터는 문이 약 25척으로 최대이다. 동쪽 면의 문 터는 루(壘)의 평지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고, 지금 그 내부에 도살장(屠牛場)을 설립했기 때문에 원형이 변하여 분명하지 않다.

성내 일부는 잡목림(雜木林)을 이루고 일부는 밭으로 되어 있다. 특히 그 주변의 대부분은 밭으로 경작을 하여 매년 토루(土壘) 안쪽을 침범하여 평평해졌다. 지금이라도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겨우 남아있는 토루(土壘)의 부분도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를 것이다.

성내 유물은 없는 것 같다(사진 69호는 남쪽에서 동으로 25도 기울어진 지점에서 찍은 토성이다).

이 토성(土城)은 단지 토성이라고만 칭하고, 이 명칭도 건조연대(建造年代)도 불명하지만 그 지위에서 추측해도 개성 국도시대(開城國都時代) 군사상의 설비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사진 69. 경기도 개성군 중서면 토성리토성

않을 수 없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그것을 개성 폐현(開城廢縣)으로 간주하여 이 일은 옛 개성고(開城考) 중에서 서술한다. 본 고적조사위원은 이 토성(土城)을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된 난산고성(卵山古城)으로 보고 난산고성(卵山古城)이 되면 고려 국도(國都)의 교외를 통괄하는 개성현(開城縣)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래가 멀리 고려 개국 이전에 있었다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다음 절에서 논증하도록 한다.



토성리토성 원고(4.3.2.1)



토성리토성 원고(6)



NO無 1132-2



토성리토성 유리건판 사진

(해제)

‘토성리토성’이라는 명칭은 주로 북한 지역에서 많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강변의 낙랑토성, 함경남도 북청군의 청해토성, 신천군의 토성리토성, 신철원군의 토성리토성 등이 있다. 마을의 이름이 토성이 있는 환경적 요소를 차용하여 토성리로 하면서 후대에 성의 명칭까지 ‘토성리토성’으로 변화한 사례로 판단된다. 그런데 대부분 북한지역에 토성리토성이라는 명칭이 많은 것은 중국에 영향을 받은 평지성 형식의 토성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이 축조된 것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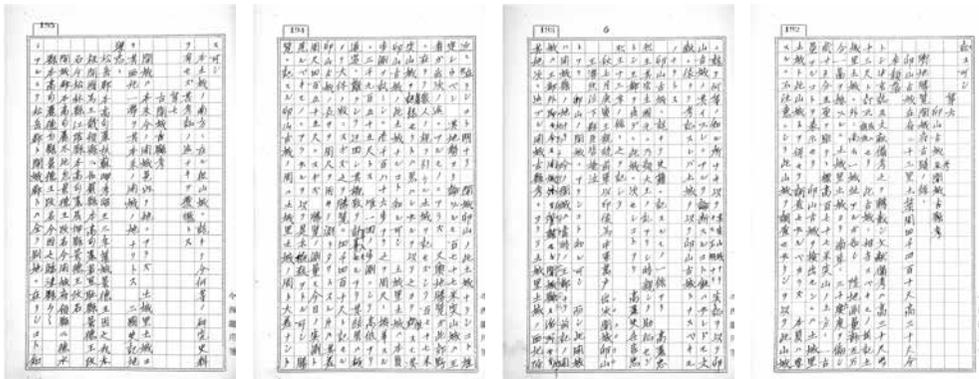
6. 난산고성고(卵山古城考)

『여지승람(輿地勝覽)』 개성부 고적조(古蹟條)에, “난산고성은 부 20리에 있고 토축으로 둘레가 4,410척, 높이 30척인데 지금은 퇴락되었다(卵山古城在府二十三里土築周四千四百十尺高三十尺今卒頽落)”라고 되어 있고, 『중경지(中京誌)』 및 『문헌비고(文獻備考)』는 그것을 전재(轉載)하고 『문헌비고』는 높이가 30척을 13척으로 정정(혹은 오식)하고 있다. 이 고성에 상당할만한 것이 남쪽에 기록된 토성리토성 외에 오히려 하나의 성터가 있는 것 같다. 육지측량부 5만분의 1지도를 살펴보면 토성리토성에서 남동쪽으로 36도 기울어져 2촌 5분 5리의 거리에 표고 77m 봉우리의 상방에 하나의 고루(古壘)가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 난산고성을 검출하는 것은 토성리토성과 이 산성을 병합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결국 부주의하여 이 산성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서 이 산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기실 산성인 것도 불명하다) 실증을 하여, 난산고성이 이것이라고 논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헌에 의해 고증하면 토성을 난산고성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난산고성에 대해 사적(史籍)에 기록된 한 조항이 있다.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종주국 원(元)에 나안대왕(乃顔大王)의 난이 있을 때 친히 원정하여 왕도(王都)를 나와 이 성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려사(高麗史)』 세가 충렬왕 13년조(十三年條)에 그것을 기록하기를, “가을 7월 경인 왕이 친히 전군(前軍)을 통솔하고 인후(印侯)를 중군만호(中軍萬戶)로 임명하여 개성(開城)의 난산(卵山)에서 유숙하였다. 왕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낯을 가리고 울었다. (秋七月 庚寅 王親統前軍, 以印侯爲中軍萬戶, 出次開城卵山. 王潸然泣下, 群臣皆掩泣)”라 하여, 난산이 개성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개성은 개성현(開城縣)의 지역이다. 지금의 개성은 당시의 왕도이고 앞에 기록한 개성은 왕도외의 지역, 즉 지리적 칭호로서 고래 개성의 명칭을 가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음에 서술하는 개성고현고(開城古縣考)에 의해 토성리토성의 서북 부근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개성 난산(開城卵山)이 이 토성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세(地勢)에 의해 논해도 177m 봉우리 산성은 왕이 원정길 도중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여지승람』이 이 교외에 있

어서 여러 사람을 친히 만나는 토성을 기록하여 177m 봉우리 산성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측하면 난산고성이 이 토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토성리토성은 본 고적조사위원의 발걸음(步測)으로 시도하여 1,186보에 있고, 그것을 주척(周尺)으로 환산하면 3,955척이 된다. 단 한 번의 보측(步測)이라도 고저(高低)가 있어 통과하기 어려운 것을 우회하여 그 대체의 수를 산입한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대체적인 수에 불과하다. 그것을 승람(勝覽)에서 4,410척이라고 기록된 난산고성의 길이를 주척(周尺)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하면 이 차이는 주척(周尺) 455척에 불과하다. 승람도 오늘날의 실측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대체적인 수로는 가능할 것이다. 승람에 기록된 난산고성(南山古城)의 둘레는 토성리토성(土城里土城)의 둘레와 대차(大差)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토성의 남쪽에 있는 이 산성(山城)에 대해 지금 어떠한 연구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고증할 방법이 없어 유감이다.



난산고성고 원고(4.3.2.1.)

(해제)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난산고성을 토성리토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고려 개국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헌 자료 및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견으로 향후 발굴조사 이후에야 성의 초축 연대 및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옛 개성고(開城考)

개성은 본래 지금의 개성 읍내의 지역이 아니다. 토성리토성에서 그 서북일대가 본래 개성 지역이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송악군(松岳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부소갑(扶

蘇岬)이었는데 효소왕(孝昭王) 3년(694)에 성을 쌓았으며 경덕왕(景德王)이 그대로[송악군] 따랐다. 우리 태조[고려 왕건]가 개국(開國)하면서 왕기(王機)로 삼았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2개이다. 여비현(如罷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약두치현(若豆耻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송림현(松林縣) 강음현(江陰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굴압현(屈押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松岳郡, 本高句麗扶蘇岬, 孝昭王三年築城, 景德王因之. 我太祖開國爲王畿. 領縣二. 如罷縣, 本高句麗若豆耻縣, 景德王改名. 今松林縣. 江陰縣, 本高句麗屈押縣, 景德王改名.)”

“개성군(開城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동비홀(冬比忽)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개성부(開城府)이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2개이다. 덕수현(德水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덕물현(德勿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임진현(臨津縣) 운운(開城郡, 本高句麗冬比忽, 景德王改名. 今開城府. 領縣二. 德水縣, 本高句麗德勿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臨津縣云云)”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송악군(松岳郡)과 개성군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장단군(長湍郡)의 장(章) 기타에서 고증하여 송림(松林) 강음(江陰) 덕물(德勿) 임진(臨津) 등 영현(領縣)의 위치에 의해서도 송악군(松岳郡)은 동쪽에 개성군(開城郡)은 서쪽에 있고 송악군(松岳郡)을 왕기(王畿)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지금의 개성읍(開城邑) 지역은 송악군(松岳郡)의 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 “왕경(王京) 개성부(開城府)는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부소갑(扶蘇岬)이다. 신라(新羅)에서 송악군(松嶽郡)으로 고쳤다. 태조(太祖) 2년(919)에 송악(松嶽)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개주(開州)라 하고 궁궐을 창건하였다. 시전(市廛)을 세우고, 방리(坊里)를 구분하여 5부(五部)를 나누었다. 광종(光宗) 11년(960)에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고쳤다. 성종(成宗) 6년(987)에 5부 방리(坊里)를 다시 정하였다. <성종> 14년(995)에 개성부(開城府)가 되어, 적현(赤縣) 6개와 기현(畿縣) 7개를 관할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부(府)를 없애고 현령(縣令)을 두어,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세 현(縣)을 관할하고, 또 장단현령(長湍縣令)을 두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개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키고, 이를 경기(京畿)라 불렀다. <현종> 15년(1024)에 또 경성(京城)의 5부 방리를 정하였다. (중략) 문종(文宗) 16년(1062)에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로 복구되었고, 도성(都省)이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왕경개성부>에 속하게 하였다. (중략)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 부윤(府尹) 이하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장하게 하고, 따로 개성현(開城縣)을 두어 도성 바깥을 관장하게 하였다. 운운(王京開城府本高句麗扶蘇岬. 新羅改松嶽郡. 太祖二年, 定都于松嶽之陽, 爲開州, 創宮闕. 立市廛, 辨坊里, 分五部. 光宗十一年, 改開京, 爲皇都. 成宗六年, 更定五部坊里. 十四年, 爲開城府, 管赤縣六·畿縣七. 顯宗九年, 罷府置縣令, 管貞州·德水·江陰三縣, 又長湍縣令, 管松林·臨津·兔山·臨江·積城·坡平·麻田七縣, 俱直隸尙書都省, 謂之京畿. 十五年, 又定京城, 五部坊里 中略 文宗十六年, 復知開城府事, 都省所掌十一縣, 皆屬焉. 中略 忠烈王三十四年, 設府尹以下官, 掌都城內, 別置開城縣, 掌城外. 云云)”

“개성현(開城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동비홀(冬比忽)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15년(756)

에 개성군(開城郡)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1018)에 개성부(開城府)를 없애고, 개성현령(開城縣令)을 두어 (중략)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 개성부로 하여금 도성(都城) 안을 관장하게 하고, 따로 개성현(開城縣)을 두어 도성 밖을 관장하게 하였다. 운운(開城縣本高句麗冬比忽, 新羅景德王十五年, 改爲開城郡. 顯宗九年, 罷開城府, 置開城縣令, 管貞州·德水·江陰三縣, 直隸尙書都省. 忠烈王三十四年, 以開城府, 掌都城內, 別置開城縣, 掌城外. 云云.)” 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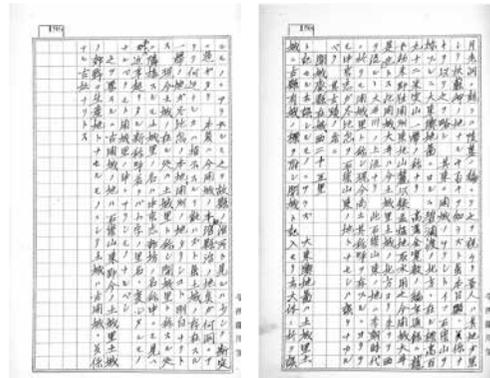
개성의 명칭은 동비홀(冬比忽)에서 일어나 후에 부소 송악군(扶蘇松岳郡)의 땅이 되어 경성(京城: 고려시대)으로 옮기거나 혹은 본원지(本源地)로 회복되는 것 같아 매우 혼잡하여도 그 본지역인 동비홀(冬比忽)에 있어서 개성의 호칭은 정치상 칭호의 변이(變移)와 조금도 관계가 없는 지리적 칭호로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충렬왕 13년에 개성 난산(開城卵山)을 다음이라고 말한 개성은 지리적 칭호의 개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렬왕 34년에 개성현(開城縣)이 성 밖을 관장하기에 이르게 되어, 조선 태조 3년 이것을 파(罷)하기에 이르고(승람에 의해) 이 치소가 고개성(古開城)의 땅에 있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중경지(中京志)에, “개성부 즉, 고려 구도(舊都)이다. 신라 송악군은 본래 고구려의 부소갑이고 개성군은 본래 고구려 동비홀(開城府卽高麗舊都也新羅松岳郡本高句麗扶蘇岬開城郡本高句麗冬比忽云云)”이라고 기록하고, 조선의 개성부가 되는 것은 신라의 송악(松岳) 개성(開城) 2군의 땅이고 부소갑(扶蘇岬)의 본원지는 월노동(月老洞)이고 동비홀(冬比忽)의 본원지는 석송산(石崇山) 동쪽이 된다는 것을 주기(註記)하고 있다. 월노동(月老洞)에 대해서는 능묘편(陵墓編)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 부소갑(扶蘇岬)의 땅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고 또한 본 문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 동쪽에 개성이 있다는 석송산(石崇山)을 찾아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해 벽란도(碧瀾渡) 북쪽에 있는 표고 192m 산 일대를 칭한다. 고려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작제건이) 용녀(龍女)에게 장가들고 처음 개성 산기슭에 이르러서 은그릇으로 땅을 파니 물이 따라 솟아나서 그대로 우물을 만들었다. 지금의 개성대정이다(龍女初來卽往開州東北山麓以銀盃掘地取水用之今開城大井是也)」라고 하여 이 개성대정(開城大井)은 지금 토성리 토성의 북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흐르는 대정천(大井川)의 상류가 된다. 이 석송산 동쪽의 땅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개성리(開城里)라고 칭하고 현재도 아직 그 칭호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도 중경지(中京志)가 동비홀(冬比忽)을 석송산 동쪽의 땅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 될 것이다. 이 고적조(古蹟條)에, “개성 폐현은 성의 서쪽 25리에 있다(開城廢縣在城西二十五里)”라고 기록한 것 역시 오류가 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토성리토성에 고현 유성(古縣有城)의 표를 부가하고 개성(開城)을 기입하는 것 역시 대체로 오류의 것은 없어도 그것을 고현(故縣)의 치소(治所)로 보는 것은 조금 단점이 지나치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지금 개성 현치(縣治)의 지점이 어느 동(洞)이고 어느 변(邊)에 있는 가는 지시할 수 없어도 토성이 존재하는 일대의 지역이 동비홀(冬比忽)의 본지, 개주(開州)의 지역이 명백하다. 현재 토성이 있는 곳은 토성리(土城里)라 칭하고 개성리(開城里)라고 칭하는 곳에 인접하는 것도 토성리의 이름은 중경지(中京志) 부방(部坊)의 명칭 중에도 보이지 않으면 근년에 일어난 새로

운 칭호 혹은 리(里) 명칭에 변화가 있는 것이 개성리 중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여 옛 개성(開城)의 땅은 석승산 동쪽 즉 지금의 토성리토성의 교외를 생산지로 하여도 토성은 옛 개성(開城)과 관계있는 옛 터이다.



옛 개성고 원고(3.2.1.)



옛 개성고 원고(6.4.)

8. 개성대정고(開城大井考)

조선에 있어서 천정(泉井:우물) 존승의 사실은 조선학 연구가 필요한 하나의 사항이다. 조선에서 존승되는 영험이 많은 우물은 많고, 개성대정(開城大井) 같은 것은 현저한 것 중의 하나로 고려 개국(高麗開國)의 신비한 전설과 연결하여 고려조에 있어서 그것을 신정(神井)으로 여기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존승되었다. 지금 그 이름이 점점 잊어지는 것 같은 것은 일본인의 우물(泉井)에 대한 사상이 조선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본 고적조사위원회는 개성대정(開城大井)을 실지 조사한 것이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돌아온 후 여러 문헌(諸文獻)에 의해 그 위치를 예상하는 지점과 다

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것에 대해 하나의 생각을 만들었다.

이 우물[井]에 대해서는 고려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고려 태조의 조부 작 제건(作帝建)이 서해의 용녀(龍女)를 취하여 귀국하고 창릉굴(昌陵窟) 앞 강안(江岸)에 뛰어난 영안성(永安城)을 축성하고 궁실(宮室)을 경영하는 일을 기록하고 더욱이 “용녀(龍女)가 처음 시집와서 개주 동북 산기슭에 이르러서 은그릇으로 땅을 파니 물이 따라 솟아나서 그대로 우물을 만들었다. 지금의 개성대정이다.(龍女初來即往開州東北山麓以銀盃掘地取水用之今開城大井是也)”라고 기록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개성 대정(開城大井)은 선의문(宣義門) 밖 11리에 있다. 물이 솟아나 오는데, 그 깊이가 2척 남짓하다. 봄·가을에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며, 가뭄을 만나면 박연(朴淵)·덕진(德津)과 함께 기우제를 지내며, 세 곳 용왕(龍王)이라 한다. 속설에 ‘우물물이 붉게 흐르면 반드시 병란(兵亂)이 있다.’고 한다.(開城大井, 在宣義門外十一里, 有泉湧出, 滿深二尺許, 春秋行固祭, 遇旱則禱. 與朴淵, 德津號三所龍王. 諺云: ‘井水赤面, 則後必有兵變’)”라고 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개성현조(開城縣條)에 이 전설을 전제하고, 『편년통록(編年通錄)』에 개주동북산록(開州東北山麓)을 개성산록(開城山麓)이라 쓰여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대정은 부 서쪽 22리에 있고 샘이 솟아나는데 깊이가 2척이 된다(大井在府西二十二里有泉湧出深二尺許)”라 하고, 다음에 용녀전설(龍女傳說)을 기록하고 더욱이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며 가뭄을 만나면 기우제도 지낸다. 속설에 우물물이 붉게 흐르면 병란이 있으며 공민왕 10년 6월 우물물이 누렇게 솟아났다(每春秋致祭凡有新禱亦祀之諺云井水赤濁則有兵變恭愍王十年六月井水黃沸)”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민왕 10년의 이 기사는 『고려사(高麗史) 오행지(五行志)』에 있고, 오히려 오행지에는 동왕 21년 2월 경인(庚寅) 개성 우물물이 붉게 흐린 것이 3일이 되었다라 하고, 동 열전 우왕전(禪王傳)에는 왕 7년 5월 기우제[雨]를 개성대정(開城大井)에서 제사지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중경지(中京志)』에 「대정은 부 서쪽 22리에 있고 세상에서 용녀정이라 하고 우물 위에 사당이 있다(大井在府西二十二里世稱龍女井井上有祠)」라 기록하고 또 「대정 제단에서 예부터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大井祭壇古春秋致祭今只行雩)」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근년까지 (개성대정을) 존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대정은) 부 서쪽 22리라 하고, 개주(開州)의 동북 산록(東北山麓)이라는 것에서 추론하여 그것을 토성리토성 부근의 북쪽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5만분의 1 지도에 의해 토성의 북쪽 약 12정(町) 떨어진 곳에 대정동(大井洞)이라는 부락이 있고, 대정천(大井川)이 여기에서 나오고, 이 지역은 경의철도(京義鐵道) 서쪽에 해당하는 표고 131m 봉우리 서남쪽 기슭(西南麓)에 있다. 개성대정(開城大井)은 이 동(洞)에 있거나 혹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성대정고 원고(3.2.1.)

9. 영안성(永安城)

영안성(永安城)은 개성군 남면 창릉리(昌陵里)에 있고 개성군의 유적 중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의 하나이다. 이 고성(古城)에 관해 문헌이 자못 많다. 고려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는 태조의 조부 작제건(作帝建)이 송악군에서 살며 바다에 항해하여 서해의 용녀(龍女)를 취해 귀국한 것을 기록하고 이어서, “다시 창릉굴(昌陵窟) 앞 강 언덕에 오니, 백주(白州)의 정조(正朝) 유상희(劉相晞) 등이 말하기를, ‘작제건이 서해의 용녀에게 장가들었으니 큰 경사다.’ 하고, 개(開)·정(貞)·염(鹽)·백(白) 4주(四州)와 강화(江華)·강음(江陰)·교동(喬桐) 세 고을 사람을 거느리고서 영안성을 쌓고 궁실(宮室)을 지었다. 용녀(龍女)가 처음 시집와서 개주 동북 산기슭에 이르러서는 그릇으로 땅을 파니 물이 따라 솟아나서 그대로 우물을 만들었다. 지금의 개성대정이다. 영안성(永安城)에서 산 지 1년이 되도록 돼지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작제건이 돼지에게 이르기를, ‘만일 이 땅이 살 수 없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대로 따라 가겠다.’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돼지가 나서서 가다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이르러 늙자, 마침내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으니, 바로 강충이 살던 옛터이다. 영안성과 왕래하면 산지 30여년 (중략) 작제건은 만년 속리산 장갑사(長岬寺)에서 불전을 읽다가 죽었다. 후에 추존하여 의조 경강 대왕(懿祖景康大王)이라 하고 용녀를 원창 왕후(元昌王后)라 하였다. 원창이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장남을 용건(龍建)이라 하였다가 뒤에 용(隆)으로 고쳤다. 자(字)를 문명(文明)이라 하였으니 이가 곧 세조(世祖)이다. (중략) 후에 송악에서 영안성에 가는 길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중략) 위숙왕후(威肅王后)이다. 위숙왕후가 태조를 임신하고 낳았다. (選到岸卽昌陵屈前江岸也白州正朝劉相晞等聞曰帝建娶西海龍女來實大慶也率開貞鹽白四州江華喬相河陰三縣人爲築永安城營宮室龍女初來卽往開州東北山麓以銀盂掘地取水用之今開城大井是也 居一年豚不入牢乃語豚曰若此地不可居吾將隨汝所之詰朝豚至松嶽南麓而臥遂營新第卽康忠舊居也往來永安城而居者三十餘年 中略 作帝建晚居俗離山長岬寺常讀釋典而卒後追尊懿祖景康大王龍女爲元昌王后元昌生四男長曰龍建後改隆字文明是爲世祖 中略 後自松岳往永安城道遇一女遂與爲婚不知從來 中略 是爲威肅王后 中略 威肅

有娠生太祖”

민지(民漬)의 편년(編年)에 말하기를, “건령 4년 5월 세조가 금성군(金城郡)에서 흥(薨)하니 영안성 강변 석굴에 장례를 지내고 창릉(昌陵)이라 했다. 위숙왕후와 합장하였다. (乾寧四年五月世祖薨于金城郡葬永安城江邊石窟號曰昌陵以威肅王后合葬)”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영안성은 개성현(開城縣) 서강(西江) 위에 토성(土城)이 있으니, 이름이 영안성이다.(永安城 開城縣西江上有土城名曰永安云云)”

고려 고도징(高麗古都徵)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영안성은 창릉이 설치되고 영안(永安: 영원히 편안함)의 이름이 된 것이다. 지금 창릉은 영안성으로 그 주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按永安城似爲昌陵而設其名永安亦以此也今昌陵在永安城中城基周遭若拱護然)”

이상 여러 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성(城)이 고려왕실 발상지의 전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전설로서 취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연구에는 자못 흥미있는 것을 이루고 있다. (김관의 민지의 책은 지금 망실되어 그 기사는 고려사 세계의 조에 인용된 것에 의한다)

예성강의 입구 가까운 좌안(左岸: 동쪽 언덕)에 홀로된 하나의 산[孤山]이 있고 표고 36m 봉우리로 조금 강으로 철(凸)형으로 나오고, 남북(조금 동북으로 향함) 지름이 대략 5정(町) 조금 넘고, 동서는 약 2정(町)이다. 강에 임한 방면은 암석이 노출하여 단애(斷崖)를 이루고, 다른 면은 경사가 완만한 토산(土山)으로 되어있다. 영안성은 이 고산(孤山)의 정상부에서 그 전면 평지를 포용하고 토축(土築)의 루(壘)로 두른 것이다. 이 토루(土壘)는 단안(斷岸) 위에 있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서변(西邊)의 일부는 결핍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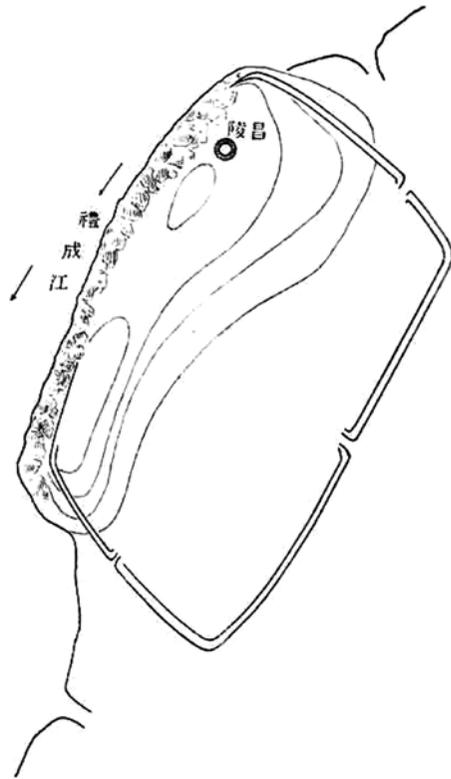


그림 13.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지도

을지라도 산의 꼬리 및 평지 특히 평지에 있어서는 높고 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평지의 부분은 성내의 지면은 성 밖의 지면보다 조금 높고, 루(壘)는 정면의 높이가 30척 내외에 도달하고 석축(石築)의 흔적이 있다. 기타는 토축(土築)으로 되어 있어도 정면의 남쪽에는 석원(石垣·돌로 만든 담)으로 보축(補築)한 곳이 있다. 호(濠)는 존재하지 않아도 부근의 소천(小川)은 자못 깊고 조류 간만의 차가 30척에 미치고 더욱이 저지대는 진흙진창이 되어 간조의 때라도 도보로 건너기가 곤란하여 스스로 호(濠)를 대용하는 것이다.(그림 13)

성문은 서·남·동 세 개의 문 터가 있다.

(사진 70은 이 성을 북에서 서쪽으로 30도 기울어진 쪽을 향해 촬영한 것이고 그 후방에 멀리 보이는 것은 벽란도(碧瀾渡) 마주편의 미라산(彌羅山)이다. 사진 71은 이 성을 서쪽의 강 언덕에서 북동쪽으로 30도 기울어진 쪽을 향해 찍은 사진이고, 인화는 잘못되어 좌우가 전도되어 파기해야 할 것이다. 사진 72는 이 성의 서문터 위에서 동북을 향해 성내를 촬영한 것이고, 사진 73은 이 성을 동쪽에서 촬영한 것, 사진 74는 이 성의 서남쪽 석축 보수의 부분이다. 사진 75는 예성강의 조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성내 창릉 측에서 촬영한 것이고 전방의 높은 산은 벽란도 마주편의 미라산이다)



사진 70.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1



사진 71.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2



사진 72.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3



사진 73.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4



사진 74.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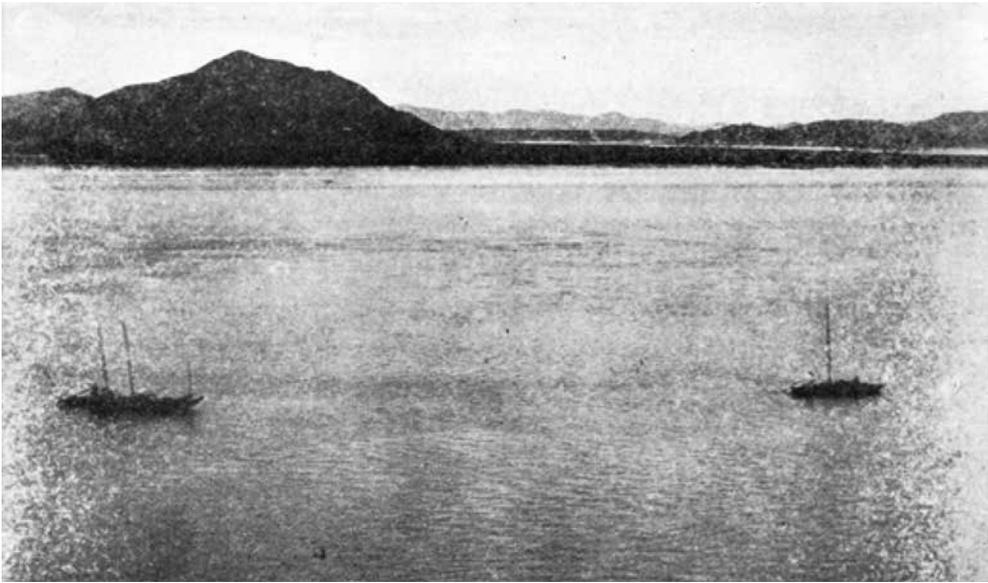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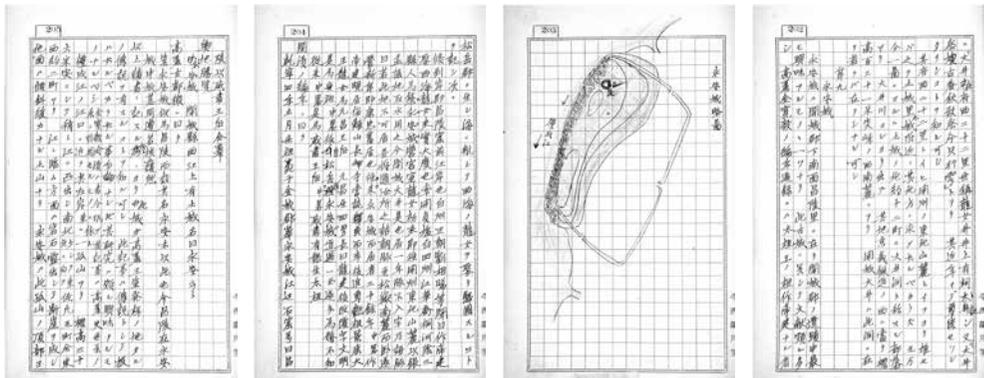
사진 75. 경기도 개성군 남면 창릉리 영안성터 6

성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창릉굴(昌陵窟)은 지금 소재가 불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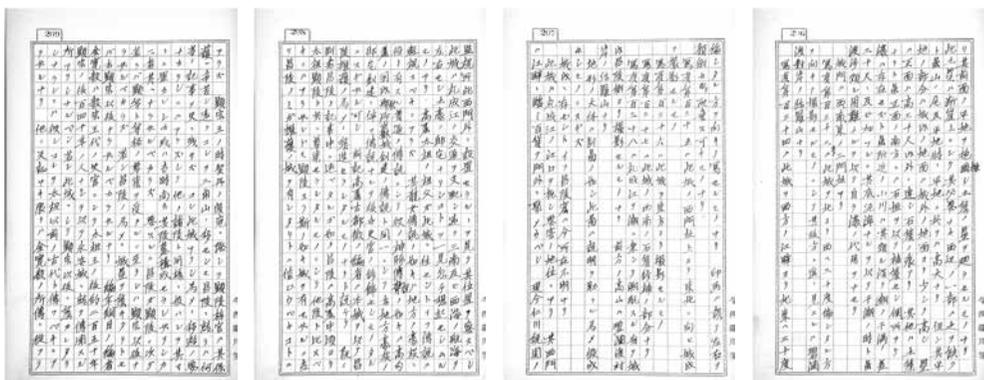
이 성은 예성강(禮成江) 입구를 막는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 이 서문은 강 언덕에 임해 모든 상품을 문 밖에서 모을 수 있다. 지금 인천세관의 임시소가 이 서문 밖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그 위치를 살필 수 있다. 이 성은 예성강 교통을 지배하고 멀리 삼남(三南) 및 서해(西海)의 항해를 좌우하며 토호(土豪)의 저택을 얼핏 보아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 태조의 조부(祖父: 작계건)가 이 성에 거주했다는 전설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이 용녀(龍女) 전설 같은 것은 지방호족에게 왕왕 있는 보통의 전설로 그의 신돈(神墩) 전설 같은 것은 고구려 국내 위나암성(慰那巖城) 창건의 전설과 동일하고 역시 지방 호족의 저택 창건에 동반된 전설로 후세 사관이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 기록한 고려 고도징(古都徵)의 편자(編者)는 본성으로서 창릉 옹호(擁護)를 위해 축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다른 책(別書) 창릉의 기사 중에 서술한 것처럼 창릉(昌陵)은 고려 중엽부터 태조 현릉(顯陵)과 함께 존송되었던 것으로 다른 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릉이라면 이 같은 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창릉만이 옹호의 성을 가지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현종(顯宗) 때 거란의 침입에 대해 현릉(顯陵) 재관(宰官)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삼각산으로 옮겼어도 창릉에 대해서는 어떤 기사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이 성이 있었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다른 여러 능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대로 두었는가 혹은 당시 오히려 이 능묘 구성이 되지 않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창릉(昌陵)이 현릉(顯陵) 다음으로 혹은 현릉(顯陵)과 동급으로 존송 받기에 이르는 것은 현종이후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창릉을 위해 성루(城壘)를 건축하는 것도 역시 현종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편년강목(編年綱目)』의 편자 김관의(金寬毅)는 의종(毅宗) 때의 사관으로 태조 이후 약

250년, 현종 후 140년 이후의 사람으로 영안성(永安城)에 대해 전문(傳聞)하는 것이 있거나 혹은 이 성에 대해 현종 이후에 축성되면 이것을 태조 이전의 고대로 전해지게 된다.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김관의가 전하는 바에 따라 태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관계있는 성이 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그 후 수축(修築)한 것에 있어서는 논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고려 왕씨의 세계에 대해 김관의가 수록한 것은 왕씨가 삼한통일 후 연대가 지남에 따라 본래 전하는 바에 신이(神異)한 것을 부가하여 궤괴(詭恠)한 속전(俗傳)이 되어도 이 사이에 오히려 어렵קות한 사실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고적조사위원이 영안성을 답사할 때 얻었던 감상을 서술하면 고려 태조의 집안(家)은 모두 영안성 및 송악군 지방에 본거지를 가지는 토호(土豪)로서, 견훤(甄萱)과 마찬가지로 해상 통상(海上通商)에 의해 세력을 만들었던 것이다. 때때로 영안성이 (태조의) 조부 이래 소유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 땅으로 인하여 예성강 입구를 막고 삼남(三南) 및 중국(支那)방면의 통상으로 자손이 흥기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었던 것 같다.

오히려 고려 국도와 송(宋)과의 사이에 왕래하는 선박의 출발지점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있고, 예성강 조항에서 설명한다.



영안성 원고(4.3.2.1.)



영안성 원고(8.7.6.5.)



영안성 원고(9.)



NO無 1132-6



NO無 1132-3



NO無 1132-5



NO無 1132-7

영안성 유리건판 사진

(해제)

개성 영안성은 황해북도 개풍군 남포리에 위치한다.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은 예성강의 입구 동쪽 강안에 위치하고 있는 평산성이다. 성곽은 9

세기에 축조되었으며, 둘레는 1.4km, 성벽 밀변은 13~16m이다. 서벽은 예성강에 접한 자연절벽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남·북벽은 평지로서 토축으로 성벽을 축성하였다. 성내 시설 물로는 문터(동·남·북) 3개소, 우물 1개소가 확인되었다.¹²⁸⁾

10. 예성강고(禮成江考)

개성군 서쪽에 있고 멀리 신계군(新溪郡) 울면(栗面)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성강은 조선의 다른 여러 큰 강처럼 통과하는 지방마다 다양한 명칭이 있고, 강 전체에 걸쳐 호칭하는 우리는 오늘날에는 예성강의 이름으로 전 지역의 명칭으로 해도 이 명칭은 본래 하류에 있어서 한 구간의 칭호로 그 구간에 대해서 이설(異說)이 있다. 이 협의의 예성강은 송선(宋船)이 출발하는 지점으로 그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말하기를, “예성강(禮成江) 근원이 수안(遂安)의 언진산(彦眞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곡산(谷山)의 동쪽에 이르러 흑석탄(黑石灘)[곡산(谷山)의 산천편(山川編)에는 실리지 아니하고, 수안(遂安)의 산천편(山川編)에 실렸다.]이 되고, 오른쪽으로 용담(龍潭)을 지나 춘탄(春灘)이 되며, 오른쪽으로 조산(造山)의 내(川)를 지나 사입지탄(沙入之灘)이 된다. 왼쪽으로 오소천(烏巢川)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신계(新溪) 서쪽에 이른다. 왼쪽으로 남천(南川)을 지나고 또 남으로 흘러 울탄(栗灘)이 된다. 왼쪽으로 영신포(迎新浦)를 지나 기탄(岐灘)이 되며, 오른쪽으로 충수천(葱秀川)을 지나 도화지곡(桃花之谷)과 장군지암(將軍之巖)을 경과하면 전탄(箭灘)이 된다. 왼쪽으로 원중천(院中川)을 지나 저탄(猪灘)이 되고 왼쪽으로 어한천(語旱川)을 지나 마탄(馬灘)이 된다. 오른쪽으로 사매천(賜梅川)을 지나 조읍포(助邑浦)가 되고, 왼쪽으로 청석동천(靑石洞川)을 지나고 강음(江陰) 고현(古縣)을 거쳐 동남쪽을 흘러 미라산(彌羅山) 동남(東南)을 예성강(禮成江)으로 한다. 왼쪽으로 동방포(東方浦)를 지나 벽란도(碧瀾渡)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禮成江源出遂安之彦眞山南流至谷山之東爲黑石灘右過龍潭爲春灘右過造山之川爲沙入之灘左過烏巢川西南流至新溪西左過南川又南流爲栗灘左過迎新浦爲岐灘右過葱秀川經桃花之谷將軍之巖爲箭灘左過源中川爲猪灘左過語旱川爲馬灘右過賜梅川爲助邑浦左過靑石洞川經江陰古縣東南流至彌羅山之東南爲禮成江左過東方浦爲碧瀾渡入干海)”

이것에 의하면 협의의 예성강은 미라산 동남 즉 지금의 벽란도(嶺)의 남쪽에서 영안성 북으로 약 10정(町) 동방포(東方浦: 後西江)까지의 칭호로서 동방포 입구이하 영안성(永安城)의 서쪽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벽란도(嶺)가 된다. 이것이 현재의 벽란도항(碧瀾渡港)의 위치에서 매우 기이한 감이 있고, 이 기사가 올바르다면 항인 벽란도는 일찍이 영안성 아래에 있는 것

128) 백종오·김정기, 2004, 「개성지역 문화유적의 현황과 특징」, 『기전고고』 4, 기전문화재연구원.

백종오, 2011, 「영안성」,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城郭·烽燧篇-』, 國立文化財研究所.

이 되고, 후에 상류인 예성강변으로 옮겨 강의 명칭만 남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해석이 과연 올바른가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서강(西江) 즉 예성강(禮成江)이니, 선의문(宣義門) 서남쪽 17리에 있다.”고 하고 “임진(臨津)의 동강(東江)과 함께 모두 예전에 배로 실어 온 곡식을 내리던 곳”이고 “벽란도는 선의문 서쪽 3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강(西江)은 즉 동방포(東方浦)가 예성강에 들어가는 곳으로 문헌비고는 이상을 예성(禮成)이라 하고 이하를 벽란(碧澗)이라 하는 경계 지점이 된다. 그런데 지리지에는 벽란을 선의문의 서쪽에 있고 예성을 서남에 있다고 하여 벽란 상류로서의 예성을 하류에 있는 것이 되어 문헌비고(文獻備考)의 기사와 다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사에도 역시 실록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말하기를, “여성강은 부 서쪽 30리에 있다. 황해도 강음현 조읍포의 하류이다. 부의 서쪽은 이포(이포) 또는 전포(전포) 또는 벽란도이다. 또 동쪽을 예성강으로 하고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고려조와 송은 여기서 배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예성이라 했다.(禮成江在府西三十里黃海道江陰縣助邑浦之下流至府西爲梨浦又爲錢浦又爲碧澗渡又東爲禮成江南入于海高麗朝宋皆於此發船故謂之禮成)”로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면 벽란도(嶼)는 벽란도(강)에 있고 강명 지명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새롭게 생기는 것은 송선(宋船)의 출발지로 예성강인 이 항에는 벽란정(碧澗亭)이 있다. (즉 벽란도항) 옛날에 벽란정은 예성항에 있고 오늘날 벽란도(嶼)의 어느 지점은 예성강이 되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야기이다.

『중경지(中京志)』의 제1차 편자는 승람(勝覽)의 기사(記事)를 채택하여 그것을 수록한 것에 이 제2차 편자는 그것을 비난하고, “살피건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말하기를 벽란정(碧澗亭)은 예성항안(禮成港岸)에 있고 서원지(西原誌)에서 예성강측이라 하는 것은 창릉포로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按高麗圖經云碧澗亭在禮成港岸西原誌所云禮成江則似昌陵浦恐有誤訛)” 라고 논하고 있다.

벽란정(碧澗亭)이 예성항(禮成港)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亭)에서 이름을 얻은 그 항(벽란도항)이 예성항이란 별명을 가진다는 것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송 선화연간 즉 고려 인종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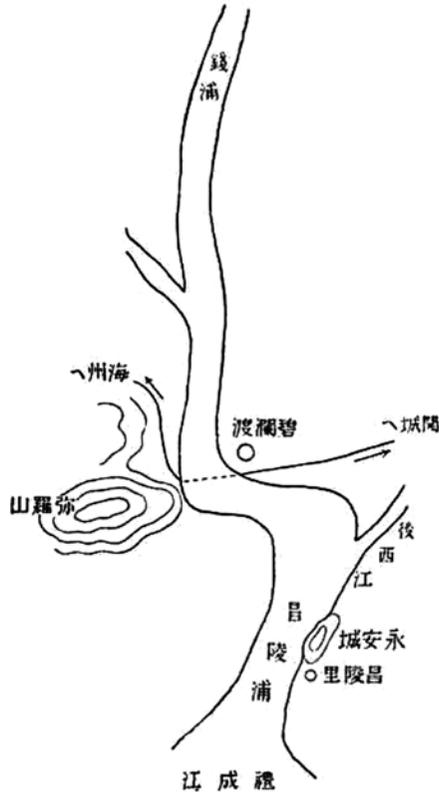


그림 14. 경기도 개성군 서면 연산리 벽란도 부근도

에 송의 사절단의 한 사람인 서경(徐兢)이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도록(圖錄)으로 만든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海道조(海道條)에는 이 사절단 배(使船)가 예성항에 이르고 벽란정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관사조(館舍條)에도 벽란정은 예성항의 연안 옆에 있고 왕성(王城)에서 30리 떨어져 있다. 동서를 관통하여 왕성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좌우에 민가 10여 채가 있다. 대개 사절단이 왕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신들이 타고 온) 여러 배들은 예성항 내에 정박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경지(中京誌) 제2차 편자는 이것에 의해 벽란정이 있는 지금의 벽란도(嶼)은 예성강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 하류의 창릉포를 예성강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단정하여 「창릉포는 영안성 아래에 있고 지금 예성강이라 잘못 칭하고 있다(昌陵浦在永安城下今誤稱禮成江)」라 하였다. 그런데도 벽란정과 떨어질 수 없는 벽란도(嶼)을 논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는 아마도 이런 종류의 고증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예성강을 상류에 두고 벽란도를 하류에 두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벽란정과 떨어져 벽란도(嶼)이 있다는 것은 허망함을 면할 수 없다. 고려시대 벽란정이 지금의 벽란도(嶼)의 지역에 있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고, 이 정(亭)이 지금 지역에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을 창릉포안(昌陵浦岸: 『문헌비고(文獻備考)』의 벽란도(碧瀾渡)이고 승람(勝覽)의 예성강(禮成江)이 된다)의 영안성(永安城) 부근에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서경(徐兢)은 벽란정(碧瀾亭)에 들어가 예성항(禮成港)이라 기록하고 「동·서를 관통하여 왕성(王城)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좌·우에 민가 10여 채가 있다」라 하면 영안성(永安城) 부근의 광경에 있지 않고 오히려 벽란도항(碧瀾渡港) 부근의 형세를 닮은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벽란정(碧瀾亭)은 지금의 벽란도(碧瀾渡)에 있다는 것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권근(權近)의 기록」에 의해 명백하다.(그림 14)

생각건대 벽란항(碧瀾港)의 명칭은 반드시 벽란정(碧瀾亭)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성강항(禮成江港)에 벽란정(碧瀾亭)이 있기 때문에 예성강(禮成江)의 정자 앞 일대를 벽란도(碧瀾渡)라 칭하는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옛날 예성강은 미라산(彌羅山) 부근에서 하류일대의 지역으로, 지금의 벽란도(碧瀾渡)와 예성강(禮成江)과 그 상하 어디라 하여도 이 두 수면이 합쳐지는 것으로 칭하는 것이 되고, 예성항(禮成港)은 지금의 벽란도항(碧瀾渡港)이 되는 것도 의심이 없다. 이것에서 벽란도(碧瀾渡)와 예성강(禮成江)과를 수면에서 나눈다면 벽란(碧瀾) 위에 있고 예성(禮成) 아래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예성항(禮成港)은 영안성(永安城) 아래에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성 아래 창릉리(昌陵里)의 남쪽으로 근년까지 예성강리(禮成江里)이고 2~3년 전 창릉리(昌陵里)로 합병되는가 혹은 이 지명으로 옛날 예성항(禮成港)의 명칭의 고지(故地)에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것도 이 리(里)의 명칭은 이처럼 옛날 것으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본 고적조사 위원은 영안성(永安城) 아래가 신라·고려의 시대부터 중요한 한 항(港)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예성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예성강고 원고(3.2.1.)



예성강고 원고(7.6.5.4.)

11. 고려시대 국도(國都) 근해(近海)의 송선(宋船) 항로(航路)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에 북송시대 고려의 사절(使節) 항로(航路)를 기록하여, “지강도(芝岡島)로부터 순풍을 만나 바다에서 이를 밤을 지내고 웅진(甕津) 어귀에 닿아 상륙한 뒤, 다시 육로로 1백 60리를 가서 고려의 경내인 해주(海州)에 닿고, 또 1백 리를 가서 염주(鹽州)에 닿고, 또 40리를 가서 백천고(白川故)에 이른다. (自芝岡島順風泛大海再宿抵甕津口登陸百六十里抵高麗境日海州又百里至鹽州又四十里至白川故)라 하고 있다. 염주(鹽州)는 당시의 염주(鹽州)로 염(鹽)의 음 염, 염(鹽)의 음도 역시 염이 되므로 염주(鹽州)라 쓰여진 것은 지금의 연안(延安)이 된다. 「백천고(白川故)」는 지금 분명하지 않아도 필시 지금의 토미산(兔尾山) 부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송과의 교통은 지금의 황해도 웅진(甕津)을 항(港)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육행(陸行)하여 해주(海州)에 이르고 지금의 해주·개성 가도(海州開城街道: 벽란도를 통과하지 않음)를 취하게 된다. 만약 연안(延安)에서 백천(白川)에 이르고 백천(白川)에서 예성강(禮成江) 전포(錢浦)를 건너 국도(國都)로 들어오는 것을 하면 매

우 우회하는 길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회의 길을 채택하는 일은 연안(延安)의 동쪽 나진포(那津浦) 유역의 지역으로 당시 오히려 저습한 도로를 지나 어려운 경우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일을 특별히 논증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백천고(白川故)」라는 쓰는 것에 의해 이 지역은 백천(白川)의 옛 치소로 이 백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의 백천을 경과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동서(同書)에 남송시대의 항로를 기록하여, “명주(明州) 정해현(定海縣)으로부터 순풍을 만나면 3일만에 대양(大洋)에 들어가고, 또 5일만에 흑산(黑山)에 이르러 그 나라 경내에 들어간다. 흑산에서 도서(島嶼)들을 경과하여 7일 만이면 예성강(禮成江)에 이르는데 강물이 양쪽 산 사이에서 흘러내리므로 그 흐름이 매우 세찬데 급수문(急水門)이란 데가 가장 험한 곳이다. 거기서 3일 만이면 물가에 닿는데 그곳에는 벽란정(碧瀾亭)이란 관사가 있다. 이곳을 경유하여 육지에 올라 험한 산골을 40 여리 가면 고려의 수도이다.(自明州定海遇便風三日入洋又五日抵墨山入其境自墨山過島嶼詰曲巉石間舟行甚駛七日至禮成江居兩山間東以石峽湍激而下所謂急水門最為險惡又三日抵岸有館曰碧瀾亭使人由此登陸崎嶇山谷四十餘里乃其國都云云)”라 되어 있다.

이 기사에는 염하(鹽河: 강화의 동쪽을 흐르는 한강의 다른 하천을 말함)로서 예성강이 되는 것처럼 큰 오류가 있다. 이 기사도 서공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채록하여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이 항로는 북송 말부터 송나라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된다. 서공(徐兢)의 기사에는, “9일 경인 이날 오후 4시[申正]에 배가 자연도에 머무른다.(九日庚寅 是日申正, 舟次紫燕島)”

“10일 신묘일 오후 8시쯤[辰刻] 서북풍이 불어 8척의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도할관 오덕휴(吳德休)와 제할관 서공(徐兢)이 상절과 함께 다시 채주(采舟)를 타고 관사에 갔다가 제물사(濟物寺)에 들렀다. <제물사에서> 원풍(元豐)연간의 사신인 고(故) 좌반전직(左班殿直) 송밀(宋密)을 위해 승려들에게 공양을(飯僧) 마친 후 배로 돌아갔다. 오전 10시쯤[巳刻]에 조류(潮)를 따라 전진하였다. 이날 오후 2시쯤[未刻] 급수문에 도달하였다. 그 관문은 섬(海島)과 다른 것이 흡사 무협(巫峽)의 강흐름(江流) 같았다. 산이 둘러싸 굴곡을 이루고 앞뒤로 맞물려(交鎖) 있는데, 그 양쪽 사이가 물길이다. 물의 형세가 산골짜기(山峽)에 묶여 놀란 파도가 해안을 치고 구르는 돌이 벼랑을 뚫는데, 우레처럼 요란하고 천군(千鈞)의 쇠뇌(弩)와 바람을 쫓아가는 말이라 해도 그 급한 물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곳에 이르면 뜰범(篷)을 펼쳐서는 안 되고 다만 노를 저어 조류를 따라 전진한다. 오후 5시가 다 되어[申後] 합굴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았으므로 거주하는 백성도 역시 많았다. 산등성이에 용사(龍祠)가 있는데, 주인(舟人)들이 오고갈 때마다 반드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급수문과의 물빛과 비교하면 황백색으로 변하였다. 분수령은 곧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작은 바다가 여기에서부터 나뉘어져 흘러가는 지점이다. 물빛은 다시 흐려지는데 매잠(梅岑)의 물빛과 비슷하다. (十日辛卯 辰刻, 西北風, 八舟不動. 都轄吳德休, 提轄徐兢, 同上節, 復以采舟詣館, 過濟

物寺. 爲元豐使人故左班殿直宋密, 飯僧畢, 歸舟. 已刻, 隨潮而進. 是日未刻, 到急水門. 其門不類海島, 宛如巫峽江路. 山圍屈曲, 前後交鎖, 兩間, 卽水道也. 水狹爲山峽所束, 驚濤拍岸, 轉石穿崖, 喧騰如雷, 雖千鈞之弩, 追風之馬, 不足喻其湍急也. 至此, 已不可張篷, 惟以檣棹, 隨潮而進. 申後, 抵蛤窟拋泊. 其山不甚高大, 民居亦衆, 山之脊有龍祠, 舟人往還, 必祀之. 海水至此, 比之急水門, 變黃白色矣. 分水嶺, 卽二山相對, 小海自此分流之地. 水色復渾, 如梅岑時”

“11일 임진일 아침에 비가 내리고 낮 12시쯤(午刻) 간조(干潮)가 되며[潮落] 비가 더욱 심해졌다. 국왕이 유문지(劉文志)에게 선서(先書)를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정사(使者)가 예를 갖추어 받았다. 오후 6시쯤(酉刻) 전진하여 용골(龍骨)에 이르러 정박하였다.(十一日壬辰 早雨作, 午刻潮落, 雨益甚. 國王遣劉文志持先書, 使者以禮受之. 酉刻, 前進至龍骨拋泊.)”

“12일 계사일 아침에 비가 그쳤다. 조류를 따라 예성항에 이르자 운운(十二日癸巳 早雨止. 隨潮至禮成港云云)” 라고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예성항(禮成港) 근방의 항로(航路)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대단히 흥미가 있다. 이 항로(航路)를 현대의 지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연도(紫燕島)는 오늘날 영종도(永宗島)의 별명이다. 이 섬에서 배는 강화(江華), 통진(通津)간의 염하(鹽河)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염하는 강화의 서남쪽 모퉁이(西南角)에서 한강의 본류와 분기(分岐)하는 다른 하천이다. 급수문(急水門)은 염하의 남쪽에 있고 손석정(孫石頂)의 급격한 조류(急流)로서 『강화부지(江華府志)』에 “손석정(孫石頂)은 광성(廣城) 하류에 있고 물 흐름이 빠르고 격렬해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름이 높다. 삼남(三南)의 선박이 이곳으로 모인다. 경성으로 가려는 자는 모두 그렇다.(孫石頂在廣城下流磯石巖濶瀾湍迅激以天險名三南船舶之達于京師者皆由之)”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합굴(蛤窟)은 서궁(徐兢)의 책 중에 달리 합굴용사(蛤窟龍祠)의 기사가 있고 말하기를, 「합굴용사는 급수문(急水門) 위쪽 공터(隙)에 있다. 작은 집 몇 칸이 있는데 안에 신상(神像)이 있다. 배로 가기에는 물이 얕아 접근할 수 없고, 다만 뱃사공들이 작은 배로 맞아다가 제사할 뿐이다. 근래에 사신이 그 곳에 가서 제물을 차려 제사하였는데, 그 이튿날 푸른색의 작은 뱀 한 마리가 나왔다. 이를 보고 다들 신의 조화라 운운(蛤窟龍祠, 在急水門上隙. 小屋數間中有神像. 舟行水淺不可近, 唯舟師輩以小艇迎而祭之. 頃者, 使至彼設祭之, 明日, 有一小蛇青色. 咸謂神化云云)」이라고 되어 있다. 급수문(急水門) 위쪽 틈이 있다는 것은 염하(鹽河) 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강화 측에 있는가 통진의 측에 있는가는 불명하지만 오후 2시쯤 급수문에 도달하고 노를 저어 조류를 따라 오후 5시에 합굴에 도달한 것으로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분수령은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강화군 갑곶진(甲串津) 부근 같으며, 작은 바다가 여기에서부터 나뉘어져 흘러가는 지점이라면 월곶진(月串津) 부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용골(龍骨)은 불명하나 풍덕(豐德)의 용정포(龍井浦) 혹은 강화군 승천포(昇天浦) 부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강화에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항로는 영종도(永宗島)에서 염하(鹽河)로 들어와 한강 본류로 들어오고 예성강(禮成江)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12. 석기시대 유물 산포지

개성군 중서면(中西面) 선릉군(宣陵群) 제3릉 및 7릉군 제7릉의 영역 내에서 본 고적조사위원은 각 한 개의 타제석부(打製石斧)를 채집하고, 석기시대 유물 산포지(散布地)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석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기대하고 여기서는 지명을 보고하는 것으로 멈춘다.

고려시대 국도 근해의 송선 항로, 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고(3.2.1.)

고려시대 국도 근해의 송선 항로, 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고(5.4.)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기도 유적조사보고서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23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 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번역 정혜선

해제 및 주해 박경신

편집 진디자인 (전화 031-256-3614)

인쇄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전화 031-442-0470)

ISBN 979-11-958557-9-7 03900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